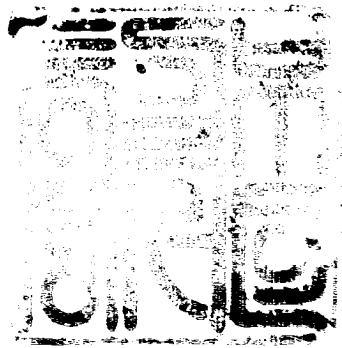


2001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제 2 권)

# 통일교육



통 일 부

본 논문집은 2001년도 북한 및 통일문제 신진연구자(학자) 연구지원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5권의 책으로 편집·발간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통일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1.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 개발 .....	1
김 영 하 (대구교대)	
2. 우리나라 대학의 통일교육과 대학생의 통일의식 변화 .....	91
김 주 찬 (연 세 대)	
3.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137
이 창 식 (한 서 대)	
4.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학교통일교육 극대화 방안 .....	203
최 승 규 (부 산 대)	
5. 초등학교 재량 활동을 위한 구성주의적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	243
추 병 완 (춘천교대)	

## <부 록>

1. 권별 수록 논문 일람표 .....	303
2. 최근 연도별 연구 과제 목록('96 ~ 2001년) .....	305



#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 개발



김 영 하  
(대구교대 강사)

## 목 차

【 요약문 】 .....	3
1. 문제제기 .....	5
2. 연구설계 .....	7
3.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구조 분석 .....	10
4.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구조 분석 .....	43
5. 초등학교 통일교육체계 및 운영 실태 분석 .....	64
6.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 .....	74
※ 참고문헌 .....	89



## 【 요약문 】

변화하고 있는 통일환경에 따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와 함께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교수모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 교대생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구조를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아울러 초등학교 통일교육체계 및 그 운영 실태의 문제점들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지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 북한 사회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지도 또한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남북한간 모든 분야에서 이질성을 많이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북한 및 통일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식구조들은 그동안 실시되어 온 통일교육체계의 여러 문제점들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학교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내면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나 학생들은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나 통일한국의 미래상 및 통일의지의 고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청각교재 등의 교육자료 개발과 함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 통일교육은 먼저 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지를 진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의지의 약화는 분단을 자신의 삶과 연계시켜 생각하지 못하거나 통일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느끼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분단의 폐해에 대해 통일이익이 어떻게 상쇄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감성적인 통일의 당위성과 함께 현실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통일논의가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 화해와 평화공존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냉전시대의 반공교육이 지향했던 체제나 이념 중심의 비교우위 확보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대북관도 걸러내야 한다. 또한 북한 사회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토대로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관한 소재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사회간의 이질성을 극복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어야 한다. 끝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통일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세를 키우며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하게 하는 일상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바, 도덕 및 사회 교과 등을 중심으로 범교과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과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량시간, 특별활동이나 학생회 활동을 포함한 통일관련 각종 학교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습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기적 연계야말로 양과 질적인 양 측면에서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담보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인지중심의 수업식 교육의 구태를 벗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화 및 토론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시청각교재나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보급도 요청된다. 특히 시청각교재나 교구의 개발과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나 교육성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식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은 분단폐해와 통일이의 비교, 북한사회의 모습, 통일한국의 미래상 등 3개의 제제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제제들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며, 또한 현행 초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체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다. 교수모듈은 초등학교생들에게 분단폐해와 통일이익을 견주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와 북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교정하여 남북한 이질성을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건전한 이해와 함께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의도된 것이다. 수업진행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각 제제별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의도하고 있는 인지적, 정의적, 참여적 차원의 3차시 수업모형에 준거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범교과 통합교육 외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제시함으로써 시공간의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교과교육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



# 1. 문제제기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지속되어 온 대북포용정책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6·15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계기로 남북한 관계를 포함한 통일환경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통일교육체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상당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통일교육이 국제적 환경과 남북한 관계, 정부의 통일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 그 성격이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체계는 세 차례에 걸쳐 바뀌었는데, 크게 냉전시대의 반공교육과 1980년대 후반 탈냉전의 국제질서 변화와 그로 말미암은 한반도 분단구조의 변화 및 남북한의 본격적인 대화에 힘입어 통일·안보교육의 단계를 거쳐 1990년대 초부터 안보보다 통일을 우선시하는 통일교육으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통일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편협한 냉전논리인 반북·반공교육만을 답습하는 반공·안보교육의 폐해가 우리 국민들 상당수의 인식구조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통일교육의 핵심적인 목표와 내용은 체제경쟁을 전제로 북한의 대남침략에 대응하여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 또는 방어하거나 오히려 북한으로의 확대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것보다는 북한을 열등한 상대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이처럼 통일교육 과정에서 정치·경제체제의 통합에 무게중심을 둔 결과, 사회·문화적 통합이나 심리적인 차원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지향은 실질적인 민족적 차원의 상호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

둘째, 정부가 통일교육의 내용 구성이나 방법 설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정부주도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왔다. 이로 인해 통일교육은 정부의 통일정책의 우월성을 강조한 반면, 민간부문의 통일논의는 그 문제점만을 부각시킴으로써 통일논의의 정부독점을 정당화하였다. 따라서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집단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밑으로부터 수렴되지 못하여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항상 수동적인 존재로 남게 되는 등 국민적 합의기반이 취약하였다. 그리고 정의적인 통일의 당위성이 강조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개방적이며 합리적인 통일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게다가 과거 권위주의정권들은 남북한 대치 국

면을 강조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통일교육을 권위주의정권의 유지나 연장을 위해 이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국민들로부터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교육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만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일문제가 일상화되는 통일교육이라기보다 압기위주의 비일상적인 교과내용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에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할 학교의 통일교육은 그 권위를 상실한 채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언론매체나 사회 여론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다. 특히 교육자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반공교육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에 대한 소신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학교당국 차원의 통일교육 지원 및 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피교육자들은 물론이고 교육자들마저도 통일문제를 기피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결국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내면화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통일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해 적절한 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인지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일부는 1990년에 통일된 독일의 통일후유증의 심각성을 접하면서 막연히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을 걱정하며 통일에 관한 이증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튼 통일의지가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확고한 비전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하고 있는 통일환경에 따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일교육 교수모듈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을 제안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요, 향후 통일된 한민족 공동체에서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할 주체됨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통일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화된 통일환경 속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교수모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는 제7차 교육과정의 전면적 실시를 앞둔 중요한 과도기적 단계에 놓여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제7차 교육과정의 전면 실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고자 하는 초등학생의 통일교육 교수모듈은 향후 제7차 교육과정의 전면적 실시과정에서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은 시행되는 것 자체보다도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통일교육체계 및 그 운영 실태의 분석과 함께 초등학교 교사·교대생·학생들의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구조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바람직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형을 제시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 2. 연구설계

### 2.1 연구설계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설계를 구성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변화된 통일환경 속에서 과거의 통일교육이 가져온 여러 폐해들이 조사 대상인 초등학교 교사와 교대생 및 초등학생들의 통일문제나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경험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먼저,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하위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통일환경과 통일에 관한 기본인식, 통일비용 문제에 관한 인식,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다. 통일환경에 관한 인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 북한 실상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지도와 인지경로,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대북한관, 북한체제의 개방가능성 및 붕괴가능성 등), 남북한간 분야별 이질성 정도의 평가 등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통일에 관한 기본 인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통일준비와 통일대비 차원의 2개 영역으로 세분하였다. 즉, 통일에 대한 의지, 통일방식, 통일 후 바람직한 체제, 통일의 장애요인 등 통일준비에 관한 기본 인식과 통일비용 문제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되었다. 통일비용 문제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한 기본 인식과 함께 통일비용의 유형, 통일비용의 지불주체, 지불의사, 지불금액, 조달방법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와 관련한 인식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북포용정책의 지지도, 향후 대북지원사업의 방향 평가, 주한미군 철수문제, 국가보안법 처리문제, 남북한간 군사력 비교, 전쟁발생 가능성과 참전의사 등에 관한 인식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문항들이다. 먼저, 교사들에게는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등 제반 여건과 현황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였다. 즉, 통일교

육의 기본목표, 수업의 효율성, 통일관련 각종 학교행사의 효율성, 통일교육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재 활용 실태와 개선방안 등의 질문들이다. 그리고 교대생들에게는 통일교육의 확충 필요성, 북한 및 통일관련 강좌의 수강 경험 여부, 강좌의 만족도, 통일교육에 관한 수업내용, 수업진행방식, 교재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질문하였다. 아울러 초등학생들에게는 통일교육의 흥미도, 통일관련 질문 경험 여부, 통일관련 각종 행사의 효율성 등이 사용되었다.

한편 연구자는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구조들의 각 하위 변수들간에는 상호 긴밀한 연계구조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변화하고 있는 통일환경은 통일에 관한 기본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아가 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아울러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구조는 바람직한 통일교육이 접목될 때 그 효율성이 배가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영역별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그동안 학계에서 지적되어 온 학교 통일교육체계의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초등학교 통일교육체계와 그 운영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을 포함한 초등학교 통일교육체계 분석은 교과교육과 교과 외 교육과정(통일교육과 관련한 학교 행사 등)을 아울러 포함하였다.

셋째, 초등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 교수모듈은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구조의 설문조사 결과 및 현행 초등학교 통일교육체계와 그 운영 실태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교과교육과 이를 보완하는 교과교육 외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소개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함께 통일교육 전문가 및 교사들의 자문을 통해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 2.2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2000년도에 이미 실시한 두 차례의 전국 11개 교대생 및 한 차례의 대구·경북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조사』에 이어 시계열분석을 꾀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한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먼저, 교사들의 경우는 대구와 경북지역에 제직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사하여 시계열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1차 조사는 600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0년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는 5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2001년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각각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대구와 경북지역 각 300명과 250명씩 성과 연령 비율에 의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표본수는 1차 조사의 경우 562부이며, 2차 조사는 466부이다.

〈표 2-1〉 응답자들의 특성(교사 및 교대생)

특성별	지표	1차 조사		2차 조사		특성별	지표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성	남성	145	25.8	127	27.3	성	남성	230	22.6	314	26.7	226	28.3	
	여성	417	74.2	339	72.7		여성	787	77.4	862	73.3	574	71.8	
연령	20대	141	25.1	131	28.2	학년	1학년	273	26.8	272	23.1	205	25.6	
	30대	181	32.2	171	36.8		2학년	290	28.5	281	23.9	193	24.1	
	40대	158	28.1	102	21.9		3학년	237	23.3	312	26.5	235	29.4	
	50대	75	13.3	58	12.5		4학년	217	21.3	311	26.4	167	20.9	
	60대 이상	7	1.2	3	0.6	심화 과정	인문사회	641	63.4	552	46.9	424	53.0	
담임 학년	1학년	103	18.3	78	16.7		자연과학	293	29.0	292	24.8	147	18.4	
	2학년	93	16.5	63	13.5		예체능	77	7.6	332	28.2	229	28.6	
	3학년	107	19.0	78	16.7	대학 교별	서울교대	99	9.7	103	8.8	77	9.6	
	4학년	85	15.1	81	17.4		인천교대	68	6.7	76	6.5	73	9.1	
	5학년	78	13.9	78	16.7		춘천교대	89	8.7	102	8.7	65	8.1	
	6학년	92	16.4	79	17.0		공주교대	98	9.6	113	9.6	79	9.9	
	비담임	4	0.7	9	1.9		청주교대	83	8.1	119	10.1	73	9.1	
	근무 지역	대구지역	287	51.1	220		47.2	광주교대	115	11.3	113	9.6	80	10.0
경북지역		275	48.9	246	52.8		전주교대	78	7.6	116	9.9	67	8.4	
합	계	562	100.0	466	100.0		대구교대	144	14.1	86	7.3	92	11.5	
합	계	562	100.0	466	100.0	합	계	부산교대	87	8.5	117	9.9	65	8.1
								진주교대	103	10.1	117	9.9	72	9.0
						제주교대	57	5.6	114	9.7	57	7.1		
						합	계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교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전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조사들은 전국 11개 교육대학교의 재학생 1,200명(1, 2차 조사)과 860명(3차 조사)을 대상으로 시계열분석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1차 조사는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2차 조사는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3차 조사는 2001년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1차 조사의 경우 1,021부이며, 2차 조사에서는 1,176부이며, 3차 조사는 800부이다. 표본추출은 각 대학교별로 성, 학년비율을 기준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것이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대구와 경북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2001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며,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517부이며, 표본추출은 지

역별로 무작위로 추출한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는 1회의 조사에 의한 횡단면적 분석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들은 SPSS 10.0 ver.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산입력 처리하였다. 그리고 성, 연령, 지역 등의 사회배경별 변수들에 대한 교차분석과 함께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구조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표 2-2〉 응답자들의 특성(초등학생)

특 성 별	지 표	빈도수(명)	비율(%)
성	남 학 생	262	50.7
	여 학 생	255	49.3
지역	대구지역	230	44.5
	경북지역	287	55.5
합	계	517	100.0

### 3.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구조 분석

#### 3.1 통일환경에 대한 인식구조

##### 3.1.1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

초등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관심도(40.4%)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7%가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51.3%로 관심도가 더 낮아지고 있다. 교사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대생들의 경우는 낙폭이 더 커지고 있다. 1차 조사에서 66.5%의 수준이었으나 2차 조사에서는 49.8%로 1차 조사에 비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3차 조사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발표되지 않는 등 남북한 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져 있는 시점에서 조사된 탓인지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2차 조사에 비해 훨씬 더 낮아진 33.9%에 그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남북한 관계를 포함한 통일환경의 여건 변화가 의식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통일환경의 긍정적인 변화가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이처럼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관심이 낮은 것은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들이 추진해 온 통일정책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sup>1)</sup>과 그에 기반한 통일교육의 비효율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정치체제의 통일에만 우선 순위를 두고 실질적인 남북대화와 냉전종식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남북한간의 대립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단구조의 극복에 있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남북분단에 있어서는 극복하여야 할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북한과 분단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통일의 당위성에 이해득실을 고려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분단구조로 인해 폐해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sup>

건전한 통일문제에 대한 의식이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전제할 때,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통일관을 함양하려면 우선 남북한 관계를 상호협력적 관계로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표 3-1〉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

응답 항목	초등학생		초등학교 교사				고대생					
			1차조사		2차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매우 많다	25	4.8	33	5.9	19	4.1	109	10.7	50	4.3	21	2.6
약간 있다	184	35.6	291	51.8	220	47.2	570	55.8	536	45.6	250	31.3
별로 없다	232	44.9	223	39.6	213	45.7	328	32.1	517	44.0	443	55.4
전혀 없다	74	14.3	13	2.3	13	2.8	12	1.2	73	6.2	86	10.8
무응답	2	0.4	2	0.4	21	0.2	2	0.2	-	-	-	-
합 계	517	100.0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1) 박영균, "통일교육의 변화과정과 전환적 재언", 『학교통일교육내용의 바람직한 방향』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대구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제2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논문집, 1999. 8. 24.), p.44.

2) 박찬석, "학생들의 통일 의식을 반영하는 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도덕윤리과교육』, 제12호(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0), pp.194~195.

3) 비슷한 견해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많은 문헌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한만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우리 사회에서 통일의식의 변화는 남북관계와 정치적 상황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만길, "학교통일교육의 현실과 과제-정치적 제약 벗어내고 네트워크화 해야 한다", 통일한국, 동권 205호(2000. 1.), p.68.

### 3.1.2 북한실상에 대한 인지도

북한실상에 대한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초등학생들은 '언론매체'(69.1%)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기관'(1.5%)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민간단체'(18.8%)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교육기관'의 위상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사들이나 교대생들의 경우 '언론매체' 의존도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의 인지경로를 보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언론매체'(92.3%)에 편중되고 있으며, '교육기관'(1차 조사 : 2.5% ; 2차 : 1.1%)과 '정부 홍보자료'(1차 조사 : 2.3% ; 2차 조사 : 3.6%)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대생들의 경우도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언론매체(1차 조사 : 88.3%, 2차 조사 : 90.4% ; 3차 조사 : 87.6%)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육기관(1차 조사 : 2.9%, 2차 조사 : 2.8% ; 3차 조사 : 4.4%)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 북한 실상 인지경로

응답 항목	초등학생		초등학교 교사				교대생					
			1차 조사		2차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정부홍보 자료	44	8.5	13	2.3	17	3.6	25	2.4	21	1.8	10	1.3
교육기관	8	1.5	14	2.5	5	1.1	30	2.9	33	2.8	35	4.4
민간단체	97	18.8	8	1.4	11	2.4	40	3.9	41	3.5	36	4.5
특강, 강연회	8	1.5	6	1.1	2	0.4	20	2.0	18	1.5	17	2.1
언론기관	357	69.1	519	92.3	430	92.3	902	88.3	1063	90.4	701	87.6
무응답	3	0.6	2	0.4	1	0.2	4	0.4	-	-	1	-
합 계	517	100.0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사회화기관들의 정보전달 기능 정상화는 물론 유기적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의존도가 극히 높다는 점에서 언론기관의 객관적·합리적인 기능수행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지경로는 인지수준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높은 언론매체 의존도를 볼 때, 그간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화 빈도



가 높은 영역들인 북한의 정치, 경제체제 및 경제상황은 다소 높은 인지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이나 북한지도층 인사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인지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먼저, 초등학생들의 북한사회의 실상 등 대북한 인지도와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분야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북한주민의 생활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80.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북한관광명소'에 대한 인지도(44.1%)와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35.0%) 등 구체적인 인지여부 측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국경일'에 대한 인지도는 15.9%로 나타났으며, '북한 어린이의 유치원 입학연령'에 대한 인지도도 19.7%에 그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의 경우, 북한의 식량사정 (79.1%), 정치체제(1차 조사 : 74.6%), 경제상황(1차 조사 : 73.1% ; 2차 조사 : 77.3%), 주민의 생활상(1차 조사 : 63.7% ; 2차 조사 : 64.8%) 등에 대한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인지수준의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정책(1차 조사 : 49.5% ; 2차 조사 : 54.7%), 통일한국의 미래상(1차 조사 : 44.5% ; 2차 조사 : 49.4%), 북한의 지리에 대한 인지도(1차 조사 : 36.1% ; 2차 조사 : 40.3%)와 북한 지도층 인사에 대한 인지도(1차 조사 : 23.3% ; 2차 조사 : 50.6%)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3-3〉 초등학생들의 북한 실상에 대한 인지도

구 분	응답 항목	초등학생		구 분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북한의 국경일	매우 잘안다	6	1.2	남북한 통일정책 인지도	매우 잘안다	26	5.0
	약간 알고 있다	76	14.7		약간 알고 있다	155	30.0
	잘 모르고 있다	234	45.3		잘 모르고 있다	239	46.2
	전혀 모르고 있다	194	37.5		전혀 모르고 있다	89	17.2
	무 응 답	7	1.4		무 응 답	8	1.5
북한 주민의 생활상	매우 잘안다	48	8.9		북한 어린이 유치원 입학연령	알고 있다	102
	약간 알고 있다	372	72.0	모른다		415	80.3
	잘 모르고 있다	67	13.0	합 계			
	전혀 모르고 있다	29	5.6				
무 응 답	3	0.6					
북한의 관광 명소	매우 잘안다	26	5.0			517	100.0
	약간 알고 있다	202	39.1				
	잘 모르고 있다	191	36.9				
	전혀 모르고 있다	91	17.6				
	무 응 답	7	1.4				

교대생의 경우도 교사들과 비슷한 응답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차와 3차 조사에서 북한 경제상황이나 식량문제는 70%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치체제(2차 조사 : 65.5% ; 3차 조사 : 62.8%), 북한주민의 생활상(2차 조사 : 50.0% ; 3차 조사 : 50.4%), 북한의 지도층 인사(2차 조사 : 19.4% ; 3차 조사 : 19.2%) 및 북한의 지리에 대한 인지도(2차 조사 : 24.1% ; 3차 조사 : 23.7%)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2차 조사 : 46.8% ; 3차 조사 : 47.1%)나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인지도(2차 조사 : 34.1% ; 3차 조사 : 33.3%)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의 2차 조사에서는 교사들에게 북한실상에 대한 인지도를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북한의 국경일 등 몇가지 질문을 통해 측정해 보았다. 그리고 이질화된 남북한간 언어차이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소리판 등 4개의 북한 낱말을 제시하고 그 인지 정도를 아울러 측정하였는데, '모두 모른다'는 응답이 17.6%였으며, '1개를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38.4%로 가장 많았으며, '2개를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32.4%였다. 그런데 '모두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10명(2.1%)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의무교육연한 11년에 대한 인지 여부에서는 15.9%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치원 입학연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8.0%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표 3-4〉 북한 실상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지도

구분	응답 항목	초등학교 교사				교대생			
		1차 조사		2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정치체제 (국경일)	매우 잘안다	32	5.7	2	0.4	38	3.2	24	3.0
	약간 알고 있다	387	68.9	89	19.1	729	62.0	478	59.8
	잘 모르고 있다	140	24.9	265	56.9	382	32.5	282	35.3
	전혀 모르고 있다	3	0.5	110	23.6	22	1.9	14	1.8
	무응답				-	5	0.4	2	0.3
지도층 인사	매우 잘안다	4	0.7	26	5.6	15	1.3	5	0.6
	약간 알고 있다	127	22.6	210	45.1	212	18.0	149	18.6
	잘 모르고 있다	375	66.7	215	46.1	798	67.9	547	68.4
	전혀 모르고 있다	55	9.8	14	3.0	146	12.4	97	12.1
	무응답	1	0.2	1	0.2	5	0.4	2	0.3
경제 상황	매우 잘안다	27	4.8	18	3.9	28	2.4	29	3.6
	약간 알고 있다	384	68.3	342	73.4	847	72.0	565	70.6
	잘 모르고 있다	148	26.3	101	21.7	284	24.1	195	24.4
	전혀 모르고 있다	2	0.4	5	1.1	13	1.1	10	1.3
	무응답	1	0.2	-	-	4	0.3	1	0.1

구분	응답 항목	초등학교 교사				교대생			
		1차 조사		2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식량 문제	매우 잘안다	39	6.9	26	5.6	42	3.6	40	5.0
	약간 알고 있다	406	72.2	351	75.3	862	73.3	577	72.1
	잘 모르고 있다	114	20.3	84	18.0	255	21.7	176	22.0
	전혀 모르고 있다	2	0.4	5	1.1	13	1.1	6	0.8
	무응답	1	0.2	-	-	4	0.3	1	0.1
주민 생활상	매우 잘안다	20	3.6	17	3.6	32	2.7	15	1.9
	약간 알고 있다	338	60.1	285	61.2	554	47.1	388	48.5
	잘 모르고 있다	196	34.9	149	32.0	546	46.4	372	46.5
	전혀 모르고 있다	7	1.2	15	3.2	40	3.4	23	2.9
	무응답	1	0.2	-	-	4	0.3	2	0.3
지리	매우 잘안다	11	2.0	15	3.2	19	1.6	9	1.1
	약간 알고 있다	192	34.1	173	37.1	263	22.4	181	22.6
	잘 모르고 있다	300	53.4	232	49.8	706	60.0	510	63.8
	전혀 모르고 있다	58	10.3	46	9.9	184	15.6	98	12.3
	무응답	1	0.2	-	-	4	0.3	2	0.3
남북한 통일 정책	매우 잘안다	14	2.5	18	3.9	25	2.1	21	2.6
	약간 알고 있다	264	47.0	237	50.9	524	44.6	356	44.5
	잘 모르고 있다	263	46.8	191	41.0	575	48.9	386	48.3
	전혀 모르고 있다	20	3.5	20	4.3	48	4.1	34	4.3
	무응답	1	0.2	-	-	4	0.3	3	0.4
통일 한국의 미래상	매우 잘안다	10	1.8	10	2.1	19	1.6	18	2.3
	약간 알고 있다	240	42.7	220	47.2	381	32.4	248	31.0
	잘 모르고 있다	292	51.9	219	47.0	703	59.8	483	60.4
	전혀 모르고 있다	19	3.4	17	3.6	69	5.9	48	6.0
	무응답	1	0.2	-	-	4	0.3	3	0.4
합계		562	100.0	466	100.0	1176	100.0	810	100.0

〈표 3-5〉 남북 교류 및 북한 실상에 대한 인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2차 조사)

응답 항목	북한 낱말 인지도		응답 항목	의무교육연한인지		유치원입학연령인지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1개	179	38.4	알고 있다	74	15.9	845	18.0
2개	151	32.4					
3개	44	9.4	모른다	392	84.1	382	82.0
4개 모두	10	2.1					
모두 모른다	82	17.6	-	-	-	-	-

N=466.

### 3.1.3 남북한 주민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남북한 주민간 이질성의 심화는 통일 후 사회통합과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남북한간의 이질성을 줄이는 것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의 여러 혼란을 완화시켜 줄 수 있으며, 엄청난 소모성 통일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통일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통일을 이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이질성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남북한 사회간 분야별 이질성 정도에 대한 초등학교생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보면, 사회생활상과 언어생활에 있어서 응답자의 80%이상이 '이질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조사 시점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도와 북한에 대한 일련의 정보가 객관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막연히 남북한 상호간에 이질적인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 인식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결국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지면에 깔려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3-6> 남북한 상호간 분야별 이질성 정도(초등학생)

구 분	응답 항목	초등학생		구 분	응답 항목	초등학생	
		민도수 (명)	비율(%)			민도수 (명)	비율(%)
생활상	매우 다르다	222	42.9	언어생활	매우 다르다	90	17.4
	약간 다르다	211	40.8		약간 다르다	340	65.8
	별로 다르지 않다	76	14.7		별로 다르지 않다	83	16.1
	전혀 다르지 않다	8	1.5		전혀 다르지 않다	4	0.8
	합계	517	100.0		합 계	517	100.0

교사들과 교대생들의 경우도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성을 매우 많이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교사들의 경우, 모든 영역에 걸쳐 '이질적이다'는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및 경제생활 수준은 절대다수(98%이상)의 응답자들이 이질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체제(1차 조사 : 94.5% ; 2차 조사 : 93.1%), 가치관(1차 조사 : 93.8% ; 2차 조사 : 93.4%), 언어생활(1차 조사 : 86.9% ; 2차 조사 : 83.2%)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1차 조사 : 84.9% ; 2차 조사 : 84.7%)에서도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이질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교대생들의 평가를 보면, 1차 조사에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및 경제생활수준은 90%이상의 응답자들이 '이질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교육체

계, 가치관 및 언어생활은 약 70~80%의 수준에서 '이질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조사된 2·3차 조사에서는 정치와 경제체제 등은 97%이상의 절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이질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체제나 가치관의 경우 90% 가량의 응답자들이 '이질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언어생활은 81%,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은 2차 조사에서 68.5%, 3차 조사에서는 조금 더 늘어난 74.9%의 응답자들이 '이질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2·3차 조사의 경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다소 늦어지는 통일환경의 소강상태(2차 조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 평소 낮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북한에 대한 일련의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가운데 탁연히 남북한 상호간에 이질적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식 경향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동안 통일교육이 주로 남한사회와 북한사회를 견주는 상호비교 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인간교육 비교, 이념교육 비교, 정치사상 교육의 비교 등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대다수가 남북한 비교를 통해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체제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는 남한 주민들에게 대북한 우위의 자신감을 고취시켜 남한체제의 안정화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두 사회의 이질적 특징을 대비시키는 작업은 남북한 각각의 사회가 지닌 사회·문화적 본성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장애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상대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만을 낳게 되었다. 또한, 남북한간 체제 비교를 통해서도 각 사회가 지닌 공통적 가치나 기준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즉, 두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가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각 사회가 지닌 특성만을 중시하므로 공통가치의 존재가 무시된다.<sup>4)</sup>

또한 이러한 경향은 정치·경제체제 중심의 통일교육이 진행되어 온 결과, 북한의 사회나 문화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이는 곧 향후 통일교육의 방향이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남북한간 이질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을 역설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sup>5)</sup>

이상에서 볼 때, 그동안 남북한 분단 구조의 장기화와 과거 통일교육체제의 부정적인 영향은 각 주체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 남북한 사회간의 이질성의 심화 등의 폐해를

4) 김도태·이경화, "통일교육 개선방향 : 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민족통일연구원, 1997), pp.5~6.

5) 이러한 견해는 황영배, "통일비용과 제도적 호환성 : 독일통일의 경험과 김대중 정부 국내정책적 함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통일조건과 언론』, 한국언론재단·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집(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참고.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경향은 통일에 관한 기본 인식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3-7〉 남북한 상호간 분야별 이질성 정도

구분	응답 항목	초등학교 교사				교대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정치 체제	매우 다르다	482	85.8	410	88.0	824	80.7	1025	87.2	697	87.1
	약간 다르다	72	12.8	44	9.4	113	11.1	124	10.5	87	10.9
	별로 다르지 않다	5	0.9	6	1.3	18	1.8	20	1.7	11	1.4
	전혀 다르지 않다	2	0.4	-	-	3	0.3	2	0.2	2	0.3
	무응답	1	0.2	6	1.3	63	6.2	5	0.4	3	0.4
경제 체제	매우 다르다	475	84.5	403	86.5	822	80.5	993	84.4	676	84.5
	약간 다르다	76	13.5	53	11.4	121	11.9	158	13.4	101	12.6
	별로 다르지 않다	9	1.6	3	0.6	10	1.0	17	1.4	18	2.3
	전혀 다르지 않다	-	-	-	-	5	0.5	3	0.3	2	0.3
	무응답	2	0.4	7	1.5	63	6.2	5	0.4	3	0.4
경제 생활 수준	매우 다르다	447	79.5	376	80.7	810	79.3	968	82.3	665	83.1
	약간 다르다	104	18.5	80	17.2	130	12.7	181	15.4	115	14.4
	별로 다르지 않다	9	1.6	3	0.6	13	1.3	19	1.6	16	2.0
	전혀 다르지 않다	-	-	-	-	5	0.5	3	0.3	1	0.1
	무응답	2	0.4	7	1.5	63	6.2	5	0.4	3	0.4
교육 체제	매우 다르다	357	63.5	253	54.3	451	44.2	602	51.2	371	46.4
	약간 다르다	174	31.0	176	37.8	367	35.9	467	39.7	339	42.4
	별로 다르지 않다	29	5.2	29	6.2	136	13.3	95	8.1	84	10.5
	전혀 다르지 않다	-	-	-	-	2	0.2	7	0.6	3	0.4
	무응답	2	0.4	8	1.7	65	6.4	5	0.4	3	0.4
가치 관	매우 다르다	392	69.8	335	71.9	487	47.7	687	58.4	445	55.6
	약간 다르다	135	24.0	100	21.5	347	34.0	377	32.1	268	33.5
	별로 다르지 않다	32	5.7	22	4.7	114	11.2	97	8.2	80	10.0
	전혀 다르지 않다	1	0.2	1	0.2	8	0.8	10	0.9	4	0.5
	무응답	2	0.4	8	1.7	65	6.4	5	0.4	3	0.4
인어 생활	매우 다르다	160	28.5	132	28.3	181	17.7	321	27.3	194	24.3
	약간 다르다	328	58.4	256	54.9	481	47.1	625	53.1	459	57.4
	별로 다르지 않다	65	11.6	64	13.7	275	26.9	195	16.6	134	16.8
	전혀 다르지 않다	7	1.2	5	1.1	18	1.8	30	2.6	10	1.3
	무응답	2	0.4	9	1.9	66	6.5	5	0.4	3	0.4
통일 문제 인식	매우 다르다	277	49.3	236	50.6	210	20.6	330	28.1	243	30.4
	약간 다르다	200	35.6	159	34.1	385	37.7	472	40.1	356	44.5
	별로 다르지 않다	75	13.3	55	11.8	326	31.9	317	27.0	191	23.9
	전혀 다르지 않다	8	1.4	7	1.5	33	3.2	51	4.3	7	0.9
	무응답	2	0.4	9	1.9	67	6.6	6	0.5	3	0.4
합계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 3.1.4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

과거와 달리 대북포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통일교육 또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통일교육의 목표는 남북한간의 상호 이해와 화해에 중심을 두는 북한 이해교육이어야 한다.<sup>6)</sup> 통일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sup>7)</sup>

북한사회를 알지 못하고 북한 주민들과 화해 협력하지 못한다면 통일의 길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만약 통일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심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통일 이후에는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서로간의 의식과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곳곳에서 반목하고 대결하고 갈등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우리 남한사회 혼자만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과 이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통일의 길은 조금씩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초등학생들의 대북한관을 보면, '도와주어야 할 대상'(56.9%)으로 가장 많이 인식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대등한 협력관계'(27.7%)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의 대북한관을 보면, '대등한 협력관계'(1차 조사 : 47.0% : 2차 조사 : 52.8%)로 인식되는 응답자들이 더 많았다. 그런데 북한을 '도와주어야 할 대상'(1차 조사 : 31.0% : 2차 조사 : 26.2%)으로 인식하거나 북한 지도층관에 대해서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할 이웃'(1차 조사 : 71.0%)이라고 인식되는 응답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대북한을 갖고 있는 '경계(적대)의 대상'이라고 응답한 응답비율은 1차 조사의 경우 전체의 20.1%였으며 2차 조사에서도 비슷한 20.0%로 나타나고 있다.

교대생들의 경우, 1차 조사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감은 67.2%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3차 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해 '대등한 협력관계'(2차 조사 : 66.9% : 3차 조사 : 67.4%)와 '도와주어야 할 대상'(2차 조사 : 27.3% : 3차 조사 : 25.6%)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18.9%(2차 조사 :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할 이웃'(2차 조사 : 74.5% : 3차 조사 : 71.4%)이라고 가장 많이 인식되고 있다. 또한 북한 지도층인사가 '다른 나

6) 한만길, "북한 이해를 위한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학교 통일교육의 내실화 방안』, (통일정보신문 제1회 학교 통일교육 세미나 논문집, 1999), p.6.

7) 한만길, 위의 논문, p.25.

라 사람'(1차 조사 : 7.8% ; 2차 조사 : 4.7%)으로 인식되는 응답자도 나타나고 있다.<sup>8)</sup> 그리고 남북한 주민간의 친밀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약수나 인사정도' 내지 '아는 친구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북한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들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런 부정적인 북한에 대한 인식은 올바른 북한이해를 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표 3-8> 대북한관

응답 항목	초등학생		초등학교 교사				교대생			
			1차 조사		2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도와줄 대상	294	56.9	174	31.0	122	31.0	320	27.2	205	25.6
대응협력관계	143	27.7	264	47.0	246	47.0	783	66.6	539	67.4
강쟁대상	18	3.5	8	1.4	3	1.4	17	1.4	15	1.9
강제대상	20	3.9	113	20.1	95	20.4	45	3.8	35	4.4
식대관계	41	7.9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6	0.5	4	0.5
무응답	1	0.2	3	0.5	-	-	5	0.4	2	0.3
합 계	517	100.0	562	100.0	466	100.0	1176	100.0	800	100.0

<표 3-9> 북한 지도층인사에 대한 인식

응답 항목	초등학교 교사				교대생			
	1차 조사		2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빈도수 (명)	비율(%)	빈도수 (명)	비율(%)	빈도수 (명)	비율(%)
직	106	18.9	105	22.5	165	14.0	147	18.4
다른 나라 사람	44	7.8	22	4.7	130	11.1	68	8.5
이웃	399	71.0	327	70.2	1155	73.1	571	71.4
무응답	13	2.3	12	2.6	21	1.8	14	1.8
합 계	562	100.0	466	100.0	1176	100.0	800	100.0

8) 민족통합에 대한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바라보는 특수 상황 인식에 놓여 있는 경향이 많다. 박찬석, 앞의 논문, p.205.



〈표 3-10〉 북한정권에 대한 적대감 정도

응답 항목	교대생(1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매우 많다	225	22.0
약간 많다	461	45.2
별로 없다	297	29.1
전혀 없다	30	2.9
무 응답	8	0.8
합 계	1021	100.0

〈표 3-11〉 남북한 주민간 친밀도(교대생)

응답 항목	1차 조사		2차조사		3차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사귄 용의가 없다	48	4.7	72	6.1	21	2.6
약수나 인사정도	144	14.1	89	7.6	41	5.1
아는 친구정도	730	71.5	851	72.4	594	74.3
연인이나 결혼	89	8.7	161	13.7	144	18.0
무 응답	10	1.0	3	0.3	-	
합 계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북한주민의 생활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는 교사나 학생들은 대중매체인 특히, 텔레비전을 통하여 한쪽에서는 북한의 주민들이 험벗고 굶주리는데도 다른 쪽에서는 제법 풍족하게 사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북한 사회가 모순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사회라는 생각을 한다. 자신들과는 너무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북한주민들을 보고 이질적인 느낌을 갖는 것은<sup>9)</sup>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통일교육이 북한의 호전성과 배고픔만을 알게 하는 통일교육이 주류였기에 북한의 사회나 문화 그리고 교육체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 경향은 북한에 대한 우월의식과 배타의식이 강하게 학생들에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통일교육이 체제통일론적 시각을 제공한 데다 북한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북한 관계 변화 속에서 응답자들은 북한관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에 대해 민족통합적 입장에 서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등주민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민족적 정서보다는 이해관계로 남북분단 문제를 보려는 경향이 많다. 학생들의 경우 민족 통합에 대한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바라보는 특수 상황 인식에 놓여 있는 경향이 많다.<sup>10)</sup>

이러한 인식 경향은 북한에 대한 이해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포괄적으로 새로운 통일시대에 걸맞는 내용으로 전환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상호 호혜적인 입장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9) 한만길, 앞의 논문, pp.10~11.

10) 비슷한 지적으로는 박찬석, 앞의 논문, p.205.을 참고할 것.

한다. 그래야 북한의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sup>11)</sup>

한편, 교사들은 북한체제의 개방가능성에 대해서는 65.3%(2차 조사 : 68.9%)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1차 조사에서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능성에 대해서 '10년이내에 붕괴할 것'이라는 응답이 38.6%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향후 북한체제의 전망에 대해 개방가능성과 붕괴가능성에 대해서 반비례의 인식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차 조사에서는 김정일 정권이 통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하였다. 그 응답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7.4%로서 과반수 이상이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북한체제의 개방가능성

응답 항목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점진적 확대	367	65.3	321	68.9	728	71.3	880	74.8	580	72.5
현수준 유지	181	32.2	127	27.3	241	23.6	272	23.1	196	24.5
오히려 축소	11	2.0	15	3.2	43	4.2	18	1.5	22	2.8
부 응답	3	0.5	3	0.6	9	0.9	6	0.5	2	0.3
합 계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그리고 북한의 평화통일 수용의사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긍정적인 응답(1차 조사 : 49.7% ; 2차 조사 : 51.0%)과 부정적인 응답이 반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교사들이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나 정보 부족의 상황에서 막연한 인식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교대생들의 북한체제의 장래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북한체제의 개방가능성에 대해서는 70%대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정권의 붕괴가능성에 대해서 1차 조사에서는 '10년이내에 붕괴할 것'이라는 응답이 60.7%에 달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36.4%에 그쳐 남북정상회담 진행과정에 나타난 김정일의 위상과 관련하여 확고한 이미지를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받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11) 백영철, "21세기의 남북관계 : 평화·협력·통합", 한국정치학회 편, 『21세기남북관계론』(서울 : 법문사, 2000), pp.13~17.

〈표 3-13〉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능성

응답 항목	교사(1차 조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5년이내 붕괴	35	6.2	168	16.5	157	13.4	81	10.1
10년이내 붕괴	182	32.4	451	44.2	425	36.1	301	37.6
20년이내 붕괴	162	28.8	224	21.9	281	23.9	235	29.4
붕괴하지 않음	178	31.7	166	16.3	305	25.9	180	22.5
무응답	5	0.9	12	1.2	8	0.7	3	0.4
합 계	562	100.0	1021	100.0	1176	100.0	810	100.0

〈표 3-14〉 김정일 정권의 통일에 미치는 영향    〈표 3-15〉 북한의 평화통일 수용의사에 관한 인식

응답 항목	교사(2차 조사)		응답 항목	교사			
	빈도수(명)	비율(%)		1차 조사		2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빈도수 (명)	비율(%)
매우 긍정적	8	1.7	매우 많다	32	5.7	23	4.9
약간 긍정적	213	45.7	약간 있다	247	44.0	215	46.1
약간 부정적	212	45.5	별로 없다	236	42.0	289	40.6
매우 부정적	29	6.2	전혀 없다	47	8.3	35	7.5
무응답	4	0.9	무응답	-	-	4	0.9
합 계	466	100.0	합 계	562	100.0	466	100.0

## 3.2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

### 3.2.1 분단과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

먼저, 초등학생들의 분단현실에 관한 여러 인식구조를 살펴 보았다. 초등학생들 가운데는 분단의 의미를 '민족분단'(57.4%)으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분단의 책임과 관련하여 민족 내부에 대해서는 '남북한 모두'(45.6%)에게 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민족 외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일본'(11.0%)이 가장 많았다. 한편, 분단의 폐해와 관련하여 '이산가족의 고통'(62.5%)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분단의 폐해는 정의적인 측면이 현실적인 측면보다 더 강하게 인식되

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초등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면, 대체로 '어렵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75.3%)는 적극적인 통일의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이 좀 더 잘살게 된 다음에 통일이 되면 좋겠다'(28.4%)는 의견이 많았다. 적극적인 통일의를 갖고 있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원래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56.8%)와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34.3%)라고 지적하였다. 역시 정의적인 측면에 보다 많은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좀 더 잘살게 된 다음에 통일이 되면 좋겠다'(4.4%)는 소극적인 통일관을 가진 학생들 가운데는 그 이유로 '남한과 북한이 골고루 잘살 수 있기 때문에'(47.9%)라는 항목과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을 도우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26.0%)라고 응답하였다.

〈표 3-16〉 분단의 의미(초등학생)

응답 항목	분단 의미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	
	빈도수(명)	비율(%)
민족분단	297	57.4
국토분단	38	7.4
문화적 분단	13	2.5
남북한사회 분단	101	19.5
사상적 분단	58	11.2
무 응답	10	1.9
합 계	517	100.0

〈표 3-17〉 분단의 책임(초등학생)

응답 항목	분단의 책임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	
	빈도수(명)	비율(%)
남한	10	1.9
북한	74	14.3
남북한 모두	236	45.6
일본	57	11.0
중국	6	1.2
러시아	36	7.0
미국	29	5.6
이상의 모두	68	13.2
무 응답	1	0.2
합 계	517	100.0

〈표 3-18〉 분단의 폐해(초등학생)

응답 항목	분단의 폐해에 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	
	빈도수(명)	비율(%)
이산가족의 고통	323	62.5
군사적 대치상태	100	19.3
경제적 손실	15	2.9
불안과 공포	40	7.7
민족발전의 장애	35	6.8
무 응답	4	0.8
합 계	517	100.0

한편, '통일은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다'는 의견(7.7%)을 가진 학생들은 그 이유로는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 생활에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37.5%),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30.0%) 및 '국력은 강해지지만 우리의 적으로 지냈던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27.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끝으로 '현재처럼 그냥 이대로 지냈으면 좋겠다'(7.4%)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은 그 이유로서 '의식주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51.4%)와 '우리의 적과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29.7%)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초등학생들의 이러한 응답은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할수록 통일문제를 정의적인 측면에서 당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한 응답자일수록 통일비용 등 현실적인 인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반공·안보교육이 지향하던 부정적인 대북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표 3-19> 통일에 대한 의지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 (명)	비율 (%)
어렵더라도 빨리 통일되어야	279	54.0
북한이 잘살게 된 다음에 통일되어야	147	28.4
통일은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다	40	7.7
현재처럼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38	7.4
생각해 본 일이 없다	13	2.5
합 계	517	100.0

<표 3-20> 어렵더라도 빨리 통일되어야 할 이유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 (명)	비율 (%)
원래 같은 민족이기 때문	159	56.8
민족의 번영을 위해	11	3.9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96	34.3
전쟁의 공포를 줄이기 위해	10	3.6
기타	4	1.4
합 계	280	100.0

<표 3-21> 북한이 잘살게 된 다음에 통일되어야 할 이유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명)	비율(%)
남북한이 고루 잘살기 위해	70	47.9
북한을 도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	38	26.0
민부차가 크면 친할 수 없기 때문	22	15.1
북한의 주민이 남한으로 유입되기 때문	12	8.2
북한주민이 잘살아야 통일여지가 생기기 때문	4	2.7
합 계	146	100.0

〈표 3-22〉 통일이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은 이유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명)	비율(%)
생활에 별 영향 없기 때문	15	37.5
적과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	11	27.5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	12	30.0
기 타	2	5.0
합 계	40	100.0

한편, 반공교육의 영향을 받은 교사나 교대생들의 통일의지는 초등학생보다 낮게 측정되고 있다. 교사들의 경우, '남북한 주민에게 큰 변화를 주게 되므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1차 조사 : 76.5% ; 2차 조사 : 73.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 민족의 염원이므로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적극적인 응답비율(1차 조사 : 17.1% ; 2차 조사 : 22.1%)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이 되어야 할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민족화합과 발전을 위해서'(1차 조사 : 51.4% ; 2차 조사 : 58.1%)라는 의견에 가장 많은 동의를 보내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유지'(1차 조사 : 31.5% ; 2차 조사 : 27.9%)를 들고 있다.

〈표 3-23〉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것이 좋은 이유(초등학생)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명)	비율(%)
통일이 불가능하기 때문	4	10.8
의식주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	19	51.4
적과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	11	29.7
통일을 이룩하려면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	1	2.7
기 타	2	5.4
합 계	37	100.0

반면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1차와 2차 조사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항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적 부담'(1차 조사 : 34.3% ; 2차 조사 : 28.6%)과 '교류를 통한 평화로도 충분하다'(1차 조사 : 20.0% ; 2차 조사 : 42.9%)는 응답비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냉전체제속에서 반공교육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거나 여과없

는 독일 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정보의 노출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통일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인다.

교대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살펴 보면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통일 의지'(1차 조사 : 78.8%, 2차 조사 : 80.1% ; 3차 조사 : 79.8%)를 갖고 있는 응답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되어야 할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교대생은 '민족화합과 발전을 위해서'(1차 조사 : 56.8%, 2차 조사 : 64.8% ; 3차 조사 : 62.8%)라는 의견에 가장 많은 동의를 보내고 있어서 다소 추상적인 사고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유지'(1차 조사 : 27.1%, 2차 조사 : 19.3% ; 3차 조사 : 14.5%)를 들고 있다. 그리고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1차 조사 : 32.4% ; 3차 조사 : 32.7%)과 '교류를 통한 평화로도 충분하다'(2차 조사 : 31.0% ; 3차 조사 : 20.0%)는 응답비율이 가장 많았다.

〈표 3-24〉 통일에 대한 의지

응답 항목	교사				교대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조기에 통일	96	17.1	103	22.1	132	12.9	157	13.4	107	13.4
점진적 통일	430	76.5	340	73.0	805	78.8	939	79.8	638	79.8
현상유지	26	4.6	17	3.6	75	7.3	38	3.2	34	4.3
불필요 (생각안함)	10	1.8	6	1.3	(38)	(3.2)	(20)	(2.5)		
무응답					9	0.9	4	0.3	1	0.1
합 계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표 3-25〉 통일이 되어야 할 이유

응답 항목	교사				교대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군사적 긴장완화	177	31.5	123	27.9	277	27.1	212	18.0	137	18.4
민족화합, 발전	289	51.4	258	58.1	580	56.8	710	60.4	468	62.8
장차군사적 자주	38	6.8	22	5.0	79	7.7	89	7.6	63	8.5
경제적 부담	24	4.3	28	6.2	70	6.9	74	6.3	54	7.2
민주화 달성	6	1.1	12	2.6	9	0.9	11	0.9	18	2.4
무응답	28	5.0	2	0.4	6	0.6	80	6.8	5	0.7
합 계	562	100.0	445	100.0	1021	100.0	1176	100.0	745	100.0

이러한 응답경향은 통일 이후 정치적으로는 남북 정파간의 갈등과 혼란, 경제적으로는 남북한간의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통일비용 부담으로 인한 세금 증가, 사회적 부적응과 갈등, 가치관과 인식의 혼란 등 많은 문제점이 통일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12) 이것은 단적으로 그동안 실시되었던 통일교육체계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26〉 통일 반대 이유

응답 항목	교사				교대생			
	1차 조사		2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국가발전 저해	-	-	3	14.3	5	7.0	6	10.9
경제적 부담	12	34.2	6	28.6	23	32.4	18	32.7
사회적 혼란	8	22.9	2	9.5	11	15.5	8	14.5
주민간 이질성	8	22.9	1	4.8	10	14.1	9	16.4
교류평화로 충분	7	20.0	9	42.9	22	31.0	11	20.0
무응답	-	-	-	-	-	-	3	5.5
합 계	35	100.0	21	100.0	71	100.0	55	100.0

한편, 통일에 대한 의지는 통일 이후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한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0.6%가 호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1차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3.6%만이 호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그런데, 2차 조사에서는 46.8%로 다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교대생들의 경우, 2차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5.1%, 3차 조사에서는 49.0%로 역시 다소 높아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3-27〉 통일 이후 삶의 질의 변화

응답 항목	초등학생		교사				교대생			
			1차 조사		2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매우 나아질 것이다	111	21.5	17	3.0	20	4.3	51	4.3	47	5.9
대체로 나아질 것이다	254	49.1	172	30.6	198	42.5	359	30.5	345	43.1
그저 그렇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137	24.4	-	-	246	20.9	-	-
대체로 어려워질 것이다	128	24.8	210	37.4	233	50.0	468	39.8	382	47.8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22	4.3	25	4.4	13	2.8	45	3.8	24	3.0
무응답	2	0.4	1	0.2	2	0.4	7	0.6	2	0.3
합 계	517	100.0	562	100.0	466	100.0	1176	100.0	800	100.0

12) 한만길, 앞의 논문, p.11.



그리고 교사와 교대생들에게 통일이 가능한 시기를 질문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들의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1차 조사에서는 '6~20년이내'의 응답비율이 51.6%로서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2차 조사에서는 '11~20년이내'의 응답비율이 44.4%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차 조사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나 시기는 모른다'는 의견도 37.7%나 되었다. 교대생들의 경우를 보면 1차 조사에서는 '6~20년이내'의 응답이 57.9%(2차 조사 : 55.9%)로서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나 시기는 모른다'는 의견도 38.0%(2차 조사 : 30.3%)나 되었다. 그런데 3차 조사에서는 '11년~20년이내'의 의견이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응답의 4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통일의 주체와 방식과 관련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먼저, 통일을 이룩하는데는 '국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76.8%)이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어서 통일 방식과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은 '평화적인 통일방식'(86.3%)과 '남북한 주민들의 투표'(69.1%)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효용성과 관련하여 다소 긍정적인 평가(76.6%)를 내리고 있다.

〈표 3-28〉 통일 가능 시기

응답 항목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1-5년이내	14	2.5	12	2.6	59	5.8	76	6.5	33	4.1
6-10년이내	141	25.1	143	30.7	238	23.3	294	25.0	212	26.5
11-20년이내	149	26.5	207	44.4	251	24.6	363	30.9	346	43.3
21년이후	36	6.4	82	17.6	59	5.8	80	6.8	186	23.3
시기는 모름	212	37.7	-	-	388	38.0	345	29.3	해당없음	해당없음
통일불가능	10	1.8	22	4.7	22	2.2	12	1.0	22	2.8
무응답	-	-	-	-	4	0.4	6	0.5	1	0.1
합 계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표 3-29〉 통일의 주체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명)	비율(%)
대통령	58	11.2
국회의원	32	6.2
통일부서	14	2.7
전문가	14	2.7
국민 모두의 결정	397	76.8
무응답	2	0.4
합 계	517	100.0

〈표 3-30〉 통일의 방식 I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명)	비율(%)
유엔의 합의에 의해	30	5.8
중립국의 협상에 의해	12	2.3
남북한 정치지도자의 합의에 의해	91	17.6
남북한 주민의 투표	357	69.1
주변강대국의 합의에 의해	23	4.4
기타	4	0.8
합 계	517	100.0

한편, 상당수의 교사들은 통일 후 바람직한 체제(1차 조사)에 대해서 '자유민주체제'(80.1%)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2차 조사에서는 통일국가의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의 통합문제에 대해 교사들은 '남북한 통합이념'(60.9%)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통일 후 바람직한 체제로 대다수의 교대생들이 '자유민주체제'(1차 조사 : 78.0% ; 2차 조사 : 72.4% ; 3차 조사 : 78.8%)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1〉 통일의 방식Ⅱ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명)	비율(%)
평화적 통일	446	86.3
부력통일	9	1.7
남한의 경제력에 의해	29	5.6
국제적 협의에 의해	31	6.0
부응답	2	0.4
합계	517	100.0

〈표 3-3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효용성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명)	비율(%)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156	30.2
언제가는 통일이 가능하다	240	46.4
당장은 어려운 방안이다	61	11.8
통일은 어렵다	39	7.5
기타	10	1.9
부응답	11	2.1
합계	517	100.0

〈표 3-33〉 통일후 바람직한 체제

응답 항목	교사 (1차 조사)		응답 항목	교사 (2차 조사)		교대생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자유민주체제	450	80.1	남한 이념	68	14.8	796	78.0	851	72.4	630	78.8
공산체제	3	0.5	남북한 이념	284	60.9	11	1.1	11	0.9	12	1.5
중립국가	96	17.1	제3의 이념	109	23.4	178	17.4	257	21.9	141	17.6
체제부관	12	2.1	-	-	-	34	3.3	52	4.4	16	2.0
부응답	1	0.2	부응답	5	1.1	2	0.2	5	0.4	1	0.1
합계	562	100.0	합계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통일방식 선호도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독일식'의 흡수통일방식(1차 조사 : 50.7% ; 2차 조사 : 44.2%)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나머지 '에멘식'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통일방식(1차 조사 : 17.6% ; 2차 조사 : 18.7%), '연방제'(1차 조사 : 14.8% ; 2차 조사 : 15.9%)와 '중립화통일방안'(1차 조사 : 15.5% ; 2차 조사 : 18.2%)도 오차한계 범위내에서 다

13) 참고로 통일 후 공산당 허용의사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2.7%를 나타내고 있다.

소 낮게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대생들은 '독일식'의 흡수통일방식(1차 조사 : 31.2% : 2차 조사 : 27.7% : 3차 조사 : 26.3%)과 '예멘식'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통일방식(1차 조사 : 30.3%, 2·3차 조사 : 25.3%)이 오차한계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이 선호되었다. 그런데 2·3차 조사에서는 '연방제'(2차 조사 : 21.0% : 3차 조사 : 20.9%)와 '중립화통일방안'(2차 조사 : 24.0% : 3차 조사 : 24.3%)도 오차한계 범위내에서 비슷하게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1차 조사에서 통일의 장애요인을 질문한 결과, '체제와 이념의 차이'(82.0%)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교대생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체제와 이념의 차이'(1차 조사 : 62.5% : 2차 조사 : 68.5% : 3차 조사 : 61.4%)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렇게 보면, 과거의 체제와 이념중심의 통일교육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즉, 아직도 과거의 반공 통일교육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34〉 통일방식

응답 항목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독일식	285	50.7	206	44.2	319	31.2	326	27.7	210	26.3
베트남식	3	0.5	5	1.1	11	1.1	10	0.9	12	1.5
예멘식	99	17.6	87	18.7	309	30.3	297	25.3	202	25.3
중립화	86	15.3	85	18.2	224	21.9	282	24.0	194	24.3
연방제	83	14.8	74	15.9	147	14.4	247	21.0	167	20.9
무응답	6	1.1	9	1.9	11	1.1	14	1.2	15	1.9
합 계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표 3-35〉 통일의 장애요인

응답 항목	교사(1차 조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체제와 이념 차이	460	82.0	638	62.5	806	68.5	491	61.4
경제력 차이	44	7.8	83	8.1	105	8.9	51	6.4
사회문화적 이질감	34	6.0	109	10.7	136	11.6	81	10.1
의지와 노력 부족	21	3.7	178	17.4	123	10.5	173	21.6
무응답	3	0.5	13	1.3	6	0.5	4	0.5
합 계	562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들은 통일이 되면 막대한 분단비용 가운데 하나인 '방위비 절감'(1차 조사 : 54.3% ; 2차 조사 : 59.0%)과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1차 조사 : 21.1% ; 2차 조사 : 22.1%)을 유형의 통일이익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무형의 통일이익으로는 '이산가족문제 해결'(1차 조사 : 36.5% ; 2차 조사 : 35.2%)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이는 2000년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밖에 '국제적 위상 제고'(1차 조사 : 32.4% ; 2차 조사 : 28.1%) 등이 무형의 통일이익의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교대생들도 교사들과 비슷한 응답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은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국가'(48.9%)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가'(21.9%)의 모습을 가장 많이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통일이익(유형)

응답 항목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방위비 절감	305	54.3	275	59.0	621	60.8	705	59.9	479	59.9
경제적 이익	113	21.1	103	22.1	246	24.1	276	23.5	183	22.9
중북외교비 절감	21	3.7	7	1.5	25	2.4	27	2.3	25	3.1
국도이용 증대	95	16.9	72	15.5	89	8.7	129	11.0	91	11.4
관광기회 향상	19	3.4	7	1.5	27	2.6	22	1.9	14	1.8
무 응답	27	4.8	2	0.4	13	1.3	17	1.4	8	1.0
합 계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표 3-37〉 통일이익(무형)

응답 항목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국제적 위상제고	182	32.4	131	28.1	299	29.3	370	31.5	288	36.0
이산가족문제 해결	205	36.5	164	35.2	238	23.3	429	36.5	244	30.5
민주정치 실현	22	3.9	37	7.9	55	5.4	46	3.9	49	6.1
북한주민 인권신장	38	6.8	33	7.1	78	7.6	46	3.9	59	7.4
북한 사회복지 지위	88	15.6	83	17.8	268	26.2	217	18.5	139	17.4
무 응답	27	4.8	18	3.9	83	8.1	68	5.8	21	2.6
합 계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표 3-38> 통일한국의 미래상(초등학생)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 (명)	비율 (%)
경제부강국가	98	19.0
세계평화기여 국가	113	21.9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국가	15	2.9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국가	253	48.9
사회보장제도가 보장되는 국가	33	6.4
무응답	5	1.0
합계	517	100.0

<표 3-39> 통일비용의 규모(초등학생)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 (명)	비율 (%)
정치 및 법제도 통합비용	73	14.1
철도나 도로 등의 건설비용	131	25.3
교육체제 통합비용	102	19.7
북한동포의 사회복지비용	150	29.0
관광시설투자비용	56	10.8
무응답	5	1.0
합계	517	100.0

3.2.2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

통일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소요될 통일비용에 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구조는 다음과 같다. 통일비용의 규모와 관련하여, '북한동포의 사회복지 비용'(29.0%), '철도나 도로 등의 건설 비용'(25.3%) 등이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 이후 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겠다'(76.8%)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잘잘못을 가리겠다'(14.7%)는 의견보다 많았다. 그리고 통일비용 조달방법 즉, 통일이후 잘사는 나라는 만들기 위한 방안(계획)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국민 모두의 좋은 의견을 모아 세운다'(64.8%)는 의견과 '선진국의 계획을 실정에 맞게 세운다'(18.0%)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구조이다. '경제혼란 비용'(1차 조사 : 63.7% ; 2차 조사 : 62.7%),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비용'(1차 조사 : 17.3% ; 2차 조사 : 14.2%) 등 경제분야 통합비용이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교대생들의 인식경향도 교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3-40> 통일 이후 남북지역갈등 해결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 (명)	비율 (%)
그대로 참는다	22	4.3
잘 잘못을 가린다	76	14.7
잘 될 때까지 기다린다	14	2.7
우리가 무조건 양보한다	6	1.2
서로 이해하고 협조한다	397	76.8
무응답	2	0.4
합계	517	100.0

<표 3-41> 통일이후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계획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 (명)	비율 (%)
부유한 서독이 동독을 도와주는 방법	42	8.1
부강한 나라들의 도움 요청	20	3.9
국민 모두의 좋은 의견을 모아	335	64.8
우리나라의 경제학자 및 과학자들의 의견	20	3.9
선진국의 계획을 우리 실정에 맞게 세운다	93	18.0
무응답	7	1.4
합계	517	100.0

〈표 3-42〉 통일비용 내용

응답 항목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제제통합비용	44	7.8	38	8.2	91	8.9	110	9.4	51	6.4
경제혼란비용	358	63.7	292	62.7	577	56.5	653	55.5	479	59.9
SOC 투자비용	97	17.3	66	14.2	131	12.9	172	14.6	130	16.3
교육문화비용	40	7.1	43	9.2	107	10.5	132	11.2	69	8.6
사회복지비용	21	3.7	21	4.5	107	10.5	105	8.9	70	8.8
무응답	2	0.4	6	1.3	8	0.8	4	0.3	1	0.1
합 계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표 3-43〉 통일비용 분담 주체

응답 항목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남북한 주민	241	42.9	185	39.7	405	39.7	513	43.6	308	38.5
남한 주민	83	14.7	77	16.5	209	20.5	198	16.8	138	17.3
주민국가	51	9.1	29	6.2	51	5.0	94	8.0	62	7.8
모두	182	32.4	170	36.5	347	34.0	365	31.0	290	36.3
무응답	5	0.9	5	1.1	9	0.9	6	0.5	2	0.3
합 계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한편,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서 교사들은 '조기통일 전략'보다는 '점진적 통일'(1차 조사 : 88.1% ; 2차 조사 : 86.3%)이 되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교대생들도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조기통일 전략'보다는 '점진적 통일'(1차 조사 : 84.5% ; 2차 조사 : 87.7% ; 3차 조사 : 86.7%)이 되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는데, 이러한 응답 경향은 조기통일을 이부고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통일독일에 대한 선례의 정보가 주는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북한 사회통합완료 시기와 관련하여 '최소한 11년 이상은 되어야 할 것'(1차 조사 : 82.0% ; 2차 조사 : 75.7%)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역시 통일의 후유증을 최대한 완화시키려는 인식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교대생들도 '최소한 11년이상은 되어야 할 것'(1차 조사 : 74.9% ; 2차 조사 : 85.1% ; 3차 조사 : 85.0%)이라는 전망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리고 통일비용 분담주체로는 교사들의 경우 '남북한 주민'(1차 조사 :

42.9% ; 2차 조사 : 39.7%)과 '남북한 주민과 주변국 모두'(1차 조사 : 32.4% ; 2차 조사 : 36.5%)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대생들도 교사들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역시 소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3-44〉 통일비용 절감과 통일시기

응답 항목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절진적 통일	495	88.1	402	86.3	863	84.5	1031	87.7	693	86.6
조기 통일	36	6.4	37	7.9	66	6.5	53	4.5	52	6.5
별차이 없음	30	5.3	24	5.2	84	8.2	88	7.5	54	6.8
무 응답	1	0.2	3	0.6	8	0.8	4	0.3	1	0.1
합 계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표 3-45〉 남북한 사회통합 완료시기

응답 항목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1-5년이내	9	1.6	8	1.7	25	2.4	23	2.0	21	2.6
6-10년이내	92	16.4	105	22.5	224	21.9	152	12.9	99	12.4
11-20년이내	194	34.5	155	33.3	306	30.0	303	25.8	197	24.6
21-30년이내	143	25.4	114	24.5	216	21.2	330	28.1	224	28.0
31년이상	122	21.7	82	17.6	242	23.7	364	31.0	259	32.4
무 응답	2	0.4	2	0.4	8	0.8	4	0.3	1	0.1
합 계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통일비용 지불의사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능력에 맞게 지불하겠다'는 의견(1차 조사 : 84.3% ; 2차 조사 : 81.9%)이 지배적이었으며, 통일비용 지불금액에 대해 월평균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1~2%를 지불하겠다는 의견(1차 조사 : 85.4% ; 2차 조사 : 78.9%)이 가장 많아서 한계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매우

14) 학자들마다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에 따라 그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하,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체계 방안", 통일원, 「97 신진연구자 부단 및 통일관련 논문집 : 통일정책·환경(1)」, (1997), 참고.

낮은 금액의 지불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대생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능력에 맞게 지불하겠다'는 의견(1차 조사 : 82.1% ; 2차 조사 : 88.8% ; 3차 조사 : 87.4%)이 지배적이었으며, 통일비용 지불금액도 '1~2만원'(34~41%대)을 지불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표 3-46〉 통일비용 지불의사

응답 항목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기꺼이 지불	18	3.2	23	5.0	48	4.7	37	3.1	33	4.1
능력에 맞게 지불	474	84.3	379	81.9	838	82.1	1008	85.7	699	87.4
지불의사 없음	70	12.5	64	13.1	115	11.3	128	10.9	688	8.5
무응답	-	-	-	-	20	2.0	3	0.3	-	-
합 계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표 3-47〉 통일비용 지불금액

응답 항목	교 사				1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1만원 미만	214	45.1	170	43.8	172	16.8	245	26.1	154	19.3
1-2만원 미만	191	40.3	136	35.1	362	35.5	385	41.0	274	34.3
2-3만원 미만	43	9.1	30	7.7	165	16.2	169	18.0	131	16.4
3-4만원 미만	15	3.2	25	6.4	64	6.3	59	6.3	46	5.8
4-5만원 미만	8	1.7	21	5.4	99	9.7	56	6.0	42	5.3
5만원 이상	3	0.6	6	1.5	32	3.1	24	2.6	19	2.4
(미지불·무응답)	-	-	-	-	127	12.4	(238)	(12.4)	(134)	(16.8)
합 계	474	100.0	388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통일비용 조달방법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통일기금 조성'(1차 조사 : 41.3% ; 2차 조사 : 47.1%)과 '남북협력기금'(1차 조사 : 28.7% ; 2차 조사 : 27.7%)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교대생들의 경우도, 통일비용 조달방법과 관련하여 '통일기금 조성'(1차 조사 : 38.2% ; 2차 조사 : 44.5% ; 3차 조사 : 39.3%)과 '남북협력기금'(1차 조사 : 23.2% ; 2차 조사 : 28.1% ; 3차 조사 : 21.6%)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다.<sup>15)</sup>



〈표 3-48〉 통일비용 조달방법

응답 항목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차관, 외자 도입	17	3.7	13	3.5	30	2.9	31	3.1	28	3.5
통일세 신설	79	17.3	58	15.4	146	14.3	182	18.3	119	14.9
국공채 발행	41	9.0	24	6.4	68	6.7	59	5.9	60	7.5
통일기금	189	41.3	177	47.1	390	38.2	441	44.5	314	39.3
남북협력기금	131	28.7	104	27.7	237	23.2	279	28.1	173	21.6
(미지불·무응답)	131	28.7	104	27.7	150	14.7	(184)	(14.7)	(106)	(13.3)
합 계	457	100.0	37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이처럼 교사나 학생들의 통일에 관한 기본 인식구조는 앞서 언급한 그간의 통일교육의 문제점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시급한 과제는 우선 교사나 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 3.3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인식구조

#### 3.3.1 국가안보관

현실적으로 분단구조가 유지되는 한 통일문제에 있어서 안보문제가 도외시 될 수는 없다. 다만 안보문제가 과거와 같이 정권의 획득과 유지의 전유물이 되거나 민족적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아서 안될 것이다.

먼저, 초등학생들은 남북한간의 군사력 비교 평가에서 남북한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사들의 경우 남북한간 군사력 비교 평가를 요구하였는데 61.9%의 응답자들이 북한의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53.0%의 응답자들이 북한의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교대생의 경우도 교사들과 비슷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남북한간 군사력 비교평

15) 그러나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세 신설'에 대해 교사들의 경우, 1차 조사에서 39.1%, 2차 조사에서 56.6%의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교대생들은 1차 조사 : 14.3% ; 2차 조사 : 18.3% ; 3차 조사 : 14.9%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의 1차 조사에서 64.6%(2차 조사 : 65.2% ; 3차 조사 : 51.0%)의 응답자들이 북한의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생들의 경우, 응답자의 48.7%가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의 경우, 1차 조사에서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64.2%(2차 조사 : 56.3%)의 응답자가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대생들의 경우에는 1차 조사(69.2%)보다 2·3차 조사에서 다소 둔화되고 있다.

〈표 3-49〉 남북한간 군사력 비교 평가

응답 항목	초등학생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남한이 월등 우세	78	15.1	19	3.4	20	4.3	79	7.7	67	5.7	45	5.6
남한이 약간 우세	96	18.6	133	23.7	51	10.9	293	28.7	339	28.8	107	13.4
비슷하다	171	33.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45	31.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37	29.6
북한이 약간 우세	114	22.1	289	51.4	192	41.2	477	46.7	578	49.1	299	37.4
북한이 월등 우세	57	11.0	115	20.5	55	11.8	166	16.3	184	15.6	109	13.6
부응답	1	0.2	6	1.1	3	0.6	6	0.6	8	0.7	3	0.4
합 계	517	100.0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한편, 교사들과 교대생의 경우,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전쟁에 참전할 것인지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기꺼이 참전하겠다'는 의사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14%~17%대에 그치고 있다. 결국 응답자들이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일종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또한 변화하고 있는 통일환경에 조응하지 못하는 통일정책이나 통일교육의 영향들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3-50〉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

응답 항목	초등학생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매우 많다	39	7.5	45	8.0	46	9.9	131	12.8	52	4.4	43	5.4
약간 있다	213	41.2	316	56.2	216	46.4	575	56.3	543	46.2	399	49.9
별로 없다	183	35.4	187	33.3	189	40.6	276	27.0	502	42.7	312	39.0
전혀 없다	79	15.3	12	2.1	11	2.4	36	3.5	76	6.5	43	5.4
부응답	3	0.6	2	0.4	4	0.9	3	0.3	3	0.3	3	0.4
합 계	517	100.0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표 3-51〉 참전지사

응답 항목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기꺼이 참전하겠다	148	14.5	205	17.4	148	14.5	205	17.4	130	16.3
그때 가봐야 알겠다	595	58.3	632	53.7	595	58.3	632	53.7	447	55.9
참전할 생각이 없다	271	26.5	326	27.7	271	26.5	326	27.7	220	27.5
무 응 답	7	0.7	13	1.1	7	0.7	13	1.1	3	0.4
합 계	1021	100.0	117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다음은 북한이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내걸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문제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들어보았다. 교사들의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점진적인 철수'(1차 조사 : 52.3% ; 2차 조사 : 52.8%)의 의견이 '조기철수'의 의견(1차 조사 : 19.8% ; 2차 조사 : 21.0%)보다 더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남한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협이 된다'는 의견(1차 조사 : 76.0% ; 2차 조사 : 72.6%)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sup>16)</sup>

한편, 교대생들의 의견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점진적인 철수'(1차 조사 : 48.2% ; 2차 조사 : 49.2% ; 3차 조사 : 46.9%)의 의견이 '조기철수'의 의견(1차 조사 : 31.8% ; 2차 조사 : 29.6% ; 3차 조사 : 33.1%)보다 더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가 남한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협이 된다'는 의견(2차 조사 : 68.8% ; 3차 조사 : 72.1%)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3-52〉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응답 항목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즉시 철수	111	19.8	98	21.0	325	31.8	348	29.6	265	33.1
점진적으로 철수	294	52.3	246	52.8	492	48.2	579	49.2	375	46.9
통일후 철수	124	22.1	105	22.5	178	17.4	217	18.5	133	16.6
통일후 계속 주둔	30	5.3	12	2.6	24	2.4	28	2.4	24	3.0
무 응 답	3	0.5	5	1.1	2	0.2	4	0.3	3	0.4
합 계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16)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간 군사력 비교평가를 요구하였는데 61.9%의 응답자들이 북한의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53〉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안보 영향

응답 항목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큰 위협	126	22.4	107	23.0	229	22.4	228	19.4	157	19.6
약간 위협	301	53.6	231	49.6	528	51.9	581	49.4	420	52.5
별로 위협안됨	127	22.6	114	24.5	219	21.4	301	25.6	191	23.9
전혀 위협안됨	7	1.2	10	2.1	42	4.1	63	5.4	28	3.5
무응답	1	0.2	4	0.9	3	0.3	3	0.3	4	0.5
합 계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그리고 교사들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하여 '대체 입법'(1차 조사 : 46.1% ; 2차 조사 : 44.4%)과 '부분적인 수정'(1차 조사 : 37.2% ; 2차 조사 : 38.2%)에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현행 국가보안법의 개폐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교대생들은 1차 조사에서는 '부분적인 수정'의 의견(64.9%)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었으나, 2·3차 조사에서는 교사들과 비슷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체 입법'(2차 조사 : 51.8% ; 3차 조사 : 46.4%)과 '부분적인 수정'(2차 조사 : 28.1% ; 3차 조사 : 34.5%)에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의 대북·안보정책들이 상호주의 원칙 하에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다소 소극적인 인식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응답자들에게 판단의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특히 학생들이 안보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sup>17)</sup> 결국 응답자들의 대북정책 및 안보정책에 대한 의견은 과거 그들이 받았던 반공·안보교육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54〉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

응답 항목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폐지	73	13.0	61	13.1	303	29.7	203	17.3	130	16.3
대체입법	259	46.1	207	44.4	(해당 없음)		609	51.8	371	46.4
부분 수정	209	37.2	178	38.2	663	64.9	331	28.1	278	34.5
현행대로 유지	15	2.7	12	2.6	32	3.1	23	2.0	13	1.6
오히려 강화	4	0.7	4	0.9	19	1.9	7	0.6	8	1.0
무응답	2	0.3	4	0.9	4	0.4	3	0.3	2	0.3
합 계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17) 박찬석, 앞의 논문, p.204.

### 3.3.2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인식

초등학교 교사들의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 보면, 먼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74.9%(2차 조사 : 72.1%)의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 조사보다는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생들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75.6%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89.2%, 3차 조사에서는 88.3%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15 남북공동선언 등 일련의 대북정책이 현실화된 결과라고 하겠다.

〈표 3-55〉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도

응답 항목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적극적으로 지지	66	11.7	63	13.5	133	13.0	215	18.3	112	14.0
대체로 지지하는 편	355	63.2	273	58.6	639	62.6	831	70.7	594	74.3
약간 반대하는 편	125	22.2	110	23.6	210	20.6	105	8.9	84	10.5
적극적으로 반대	10	1.8	16	3.4	32	3.1	21	1.8	8	1.0
무응답	6	1.1	4	0.9	7	0.7	4	0.3	2	0.3
합 계	562	100.0	466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방향<sup>18)</sup>으로는 '경제협력 등 교류사업을 확대해야 한다'(1차 조사 : 79.5% ; 2차 조사 : 81.8%)는 의견이 가장 많이 선호되어 '경제체제의 확립'이나 '대화중단과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응답(1차 조사 : 14.2% ; 2차 조사 : 11.2%)을 압도하고 있다. 교대생들의 경우도 2·3차 조사에서 대북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경제협력 교류 사업의 확대'(2차 조사 : 81.2% ; 3차 조사 : 81.3%)에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향후 대북지원사업의 허용확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하다'(1차 조사 : 80.4%)는 의견이 많아 상호주의원칙 하에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대생들의 경우는 교사들보다 다소 낮은 편이지만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쌀, 비

18)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우선 교류 분야를 질문한 결과, '인적교류'(31.5%)와 '사회문화적 교류'(26.5%)가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다. 이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료지원 등 대북지원정책은 '조건부 지원'(81.1%)의 의견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대북지원의 허용의사로는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하다'(1차 조사 : 69.3% ; 2차 조사 : 68.5% ; 3차 조사 : 71.5%)는 의견이 많았다.

〈표 3-56〉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응답 항목	교 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식량지원사업	30	5.3	26	5.6	110	9.4	79	9.9
경제교류사업	447	79.5	381	81.8	955	81.2	650	81.3
경제태세 확립	72	12.8	48	10.3	86	7.3	60	7.5
대화중단 압박	8	1.4	4	0.9	22	1.9	11	1.4
무 응 답	5	0.8	7	1.5	3	0.3	-	-
합 계	562	100.0	466	100.0	1176	100.0	800	100.0

〈표 3-57〉 향후 대북지원사업의 방향

응답 항목	교 사 (1차 조사)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더 양보해야	104	18.5	306	30.0	348	29.6	223	27.9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	452	80.4	708	69.3	805	68.5	572	71.5
무 응 답	6	1.1	7	0.7	23	2.0	5	0.6
합 계	562	100.0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한편, 대북교류사업의 정부주도에 대한 평가를 질문한 결과 〈표 3-56〉에 시와 같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향후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허가절차의 유지'의 의견(1차 조사 : 36.3% ; 2차 조사 : 35.6%)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변화된 통일환경 속에서 다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58〉 대북지원(우선)정책 평가    〈표 3-59〉 대북교류사업의 정부주도에 대한 평가

응답 항목	교대생 (1차 조사)		교 사				
	빈도수 (명)	비율 (%)	1차 조사		2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무조건 지원	114	11.2	허가절차 불필요	27	4.8	37	7.9
전제조건하에서 지원	828	81.1	신고제로 전환	328	58.4	258	55.4
대북지원 불필요	76	7.4	허가절차 유지	204	36.3	166	35.6
무응답	3	0.3	무응답	3	0.5	5	1.1
합 계	1021	100.0	합 계	562	100.0	466	100.0

## 4.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구조 분석

### 4.1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인식구조

#### 4.1.1 초등학생들의 인식구조

초등학생들의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구조를 보면, 초등학생들의 상당수(69.2%)가 통일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교육의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9%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통일관련 수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8.8%가 흥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해 본 경험은 응답자의 18.1%만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능동적인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교사들이 조희나 종례 시에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훈화를 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간접적으로 측정되고 있다.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48.5%의 응답자만이 교사로부터 훈화를 들은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학생들의 관심이나 흥미에 교사들(학교통일교육)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4-1〉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응답 항목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빈도수(명)	비율(%)
매우 많다	72	13.9
약간 있다	286	55.3
별로 없다	121	23.4
전혀 없다	88	7.4
합 계	517	100.0

〈표 4-2〉 통일교육의 확충 필요성

응답 항목	통일교육의 확충 필요성	
	빈도수(명)	비율(%)
꼭 필요하다	163	31.5
내체로 필요하다	276	53.4
별로 필요없다	56	10.8
전혀 필요없다	18	3.5
무응답	4	0.8
합 계	517	100.0

〈표 4-3〉 통일관련 수업에 대한 흥미도

응답 항목	통일관련 수업에 대한 흥미도	
	빈도수(명)	비율(%)
매우 많다	86	16.6
약간 있다	270	52.2
별로 없다	121	23.4
전혀 없다	37	7.2
합 계	517	100.0

〈표 4-4〉 통일관련 질문 경험 여부

응답 항목	통일관련 질문 경험 여부	
	빈도수(명)	비율(%)
있다	91	17.6
없다	413	79.9
무응답	13	2.5
합 계	517	100.0

한편, 초등학교에서 개최되는 각종 통일관련 행사의 연간 빈도를 측정하였는데, 포스터 그리기, 통일백일장, 표어짓기 대회, 응변대회, 현장견학 및 통일마라톤대회 등의 순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반공·안보교육의 전형적인 프로그램들이 아직도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교육시대의 통일관련 학교행사가 열리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통일관련 행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응답자의 47.6%만이 '흥미를 느낀다'고 응답하여 이를 대변하고 있다.

〈표 4-5〉 조회·종례시 통일관련 훈화 여부

응답 항목	조회·종례시 통일관련 훈화 여부	
	빈도수(명)	비율(%)
자주 인급한다	24	4.6
가끔 인급한다	227	43.9
별로 인급않는다	207	40.0
전혀 인급않는다	57	11.0
무응답	2	0.4
합 계	517	100.0

〈표 4-6〉 통일관련 행사의 효용성

응답 항목	통일관련 행사의 효용성	
	빈도수(명)	비율(%)
매우 높다	36	7.0
약간 높다	210	40.6
약간 낮다	197	38.1
매우 낮다	63	12.2
무응답	11	2.1
합 계	517	100.0



〈표 4-7〉 통일관련 각종 행사 개최 빈도

	통일관련 각종 행사 개최 빈도(년간)											
	통일백일장		웅변대회		표어짓기대회		포스터그리기		현장견학		통일마라톤대회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개최하지 않음	153	29.6	215	41.6	177	34.2	123	23.8	352	68.1	435	84.1
1회	222	42.9	235	45.5	244	47.2	279	54.0	137	26.5	57	11.0
2회	100	19.3	43	8.3	54	10.4	64	12.4	16	3.1	17	3.3
3회이상	42	8.1	24	4.6	42	8.1	51	9.9	12	2.3	8	1.5
합 계	517	100.0	517	100.0	517	100.0	517	100.0	517	100.0	517	100.0

#### 4.1.2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구조

초등학교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구조는 그동안 실시되어 온 비효율적인 통일교육 특히 반공·안보교육의 여러 문제점들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교사들 역시 절대다수(1차 조사 : 90.0% ; 2차 조사 : 87.8%)가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통일교육이 통일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1차 조사 : 83.3% ; 2차 조사 : 73.8%)하고 있으면서도 통일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은 과반수(1차 조사 : 59.6% ; 2차 조사 : 48.1%)를 약간 상회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통일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언론매체'(1차 조사 : 53.6% ; 2차 조사 : 82.8%)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사들에게 조화나 종례 시 통일문제와 관련한 훈화를 학생들에게 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여기서 교사들 가운데 54.9%의 응답자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가운데 '자주 언급한다'라고 매우 적극적인 활동 경험을 가진 응답자는 3.6%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생들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해 올 경우 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질문을 받은 경험이 없다'(11.8%)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문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75.8%)고 응답하였다. 한편, '자신있게 대답해 주었다'(10.5%)는 응답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sup>19)</sup>

19) 학교에서 한달에 한 두 번이나 통일관련 수업이나 이야기를 하는 교사들이 10%선에 그치고 있는데 절대 다수의 교사들이 통일교육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교과목에 관련 내용이 없거나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 서울지역 교사 175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 모임, 『직녀에게 5』(1996, 10), p.22, 1995년 전국교육자 8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임. 『남북통일 대비 교육준비에 관한 교육전문가의 의견조사 연구 보고서』(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통일교육연구위원회, 1996), 참조.

〈표 4-8〉 북한 및 통일교육의 확충 필요성

응답 항목	교 사			
	1차 조사		2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매우 필요하다	175	31.1	97	20.8
약간 필요하다	331	58.9	312	67.0
별로 필요없다	54	9.6	49	10.5
전혀 필요없다	1	0.2	1	0.2
무응답	1	0.2	7	1.5
합 계	562	100.0	466	100.0

〈표 4-9〉 통일교육이 통일환경 인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

응답 항목	교 사			
	1차 조사		2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매우 크게 기여한다	150	26.7	88	18.9
약간 기여한다	318	56.6	256	54.9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92	16.4	114	24.5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	-	4	0.9
무응답	2	0.4	4	0.9
합 계	562	100.0	466	100.0

〈표 4-10〉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응답 항목	교 사			
	1차 조사		2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매우 많다	50	8.9	35	7.5
약간 있다	285	50.7	189	40.6
별로 없다	224	39.9	234	50.2
전혀 없다	-	-	5	1.1
무응답	3	0.5	3	0.6
합 계	562	100.0	466	100.0

〈표 4-11〉 통일교육의 정보획득 경로

응답 항목	교 사			
	1차 조사		2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정부발행 홍보물	18	3.2	30	6.4
TV, 신문 등 언론매체	301	53.6	386	82.8
교원단체 발행물	115	20.5	15	3.2
교육연구물	110	19.6	14	3.0
기 타	7	1.2	16	3.1
무응답	11	2.0	5	1.1
합 계	562	100.0	466	100.0

〈표 4-12〉 조회, 종례시 통일관련 훈화 경험 여부

응답 항목	조회, 종례시 통일관련 훈화경험여부(2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자주 언급한다	17	3.6
가끔 언급한다	239	51.3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191	41.0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15	3.2
무응답	4	0.9
합 계	466	100.0

〈표 4-13〉 통일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

응답 항목	초등학교의 통일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2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자신있게 대답한다	49	10.5
제대로 대답못한다	353	75.8
답해주지 않는다	6	1.3
질문받은 적 없다	55	11.8
무응답	3	0.6
합 계	466	100.0

그리고 교사들은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목표(2차 조사)와 관련하여 '가치명료화 교육'(42.5%)과 '통일후 실생활 준비교육'(31.5%)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지식 습득'(21.0%)의 순으

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상당수는 초등학교의 통일교육 방향(1차 조사)과 관련하여 '민족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64.9%)이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대비 교육'(29.2%)이 그 다음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조기통일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통일에 염두를 둔 것으로 보인다.

〈표 4-14〉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목표

응답 항목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목표(2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북한에 대한 지식 습득	98	21.0
정부의 통일정책 습득	17	3.6
통일후 실생활 준비교육	147	31.5
가치명료화 교육	198	42.5
무 응답	6	1.3
합 계	466	100.0

〈표 4-15〉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응답 항목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방향(1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통일 앞당기는 교육	30	5.4
통일이후 대비교육	164	29.2
민족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 교육	365	64.9
무 응답	3	0.5
합 계	562	100.0

또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초등학교의 기능(1차 조사)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보다 많은 객관적인 정보 제공'(56.6%)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우월성 강조'(26.7%)를 들고 있는 즉, 냉전논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응답자도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의 통일과 관련한 교과운영 현황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들이 평가하는 초등학교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저조한 것(38.2%)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보다 더 낮은 응답자의 27.8%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학습 효율은 절반을 약간 넘는 응답자(56.4%)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4-16〉 통일을 대비한 초등학교의 기능

응답 항목	교사(1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체제의 우월성 강조	150	26.7
객관적인 북한정보 제공	318	56.6
합리적 판단력 제고	92	16.4
동족의식 고취	-	-
무 응답	2	0.3
합 계	562	100.0

〈표 4-17〉 교사들이 평가하는 학생들의 통일문제 관심도

응답 항목	교 사			
	1차 조사		2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매우 많다	30	5.4	17	3.6
약간 있다	185	32.9	113	24.2
별로 없다	298	53.0	284	60.9
전혀 없다	46	8.2	48	10.3
무 응답	3	0.5	4	0.9
합 계	562	100.0	466	100.0



교사들의 2차 조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의견과 비교해 보기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개최하고 있는 각종 행사의 빈도와 그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가장 많이 개최되는 행사는 '포스터 그리기'와 '통일백일장' 및 '표어짓기 대회'이었으며, '현장견학'이나 '통일마라톤대회'와 같은 행사는 별로 개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 개최되는 통일관련 각종 행사들이 일부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교사들 스스로 평가한 이들 행사의 효율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평가한 교사들은 전체 응답자의 25.9%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각종 행사가 비효율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행사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식의 문제'(46.7%), '학생들의 관심 부족'(22.1%)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표 4-23〉 통일관련 행사의 효율성

응답 항목	교사(2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매우 높다	9	1.9
약간 높다	112	24.0
약간 낮다	284	60.9
매우 낮다	50	10.7
무응답	11	2.4
합 계	466	100.0

〈표 4-24〉 통일관련 행사의 비효율성에 대한 이유

응답 항목	교사(2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학교당국의 열의 부족	22	6.9
교사들의 인식 부족	41	12.8
학생들의 관심 부족	71	22.1
각종 여건 부족	27	8.4
프로그램의 문제	150	46.7
기타	10	3.1
합 계	321	100.0

#### 4.1.3 교대생들의 인식구조

예비교사인 교대생들의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구조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대생들의 절대다수(1차 조사 : 92.0% : 2차 조사 : 90.2% : 3차 조사 : 88.4%)가 북한 및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을 위해 '언론기관'(1차 조사 : 43.1% : 2차 조사 : 46.5% : 3차 조사 : 47.0%)과 '교육기관'(1차 조사 : 21.0% : 2차 조사 : 25.7% : 3차 조사 : 24.0%)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2·3차 조사에서 통일교육이 통일환경 인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교대생들의 상당수가 '기여할 것이다'(2차 조사 : 82.6% : 3차 조사 : 81.3%)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표 4-25〉 북한 및 통일교육의 확충 필요성(교대생)

응답 항목	교대생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매우 필요하다	393	38.5	449	38.2	243	30.4
약간 필요하다	546	53.5	611	52.0	464	58.0
별로 필요없다	66	6.5	90	7.7	67	8.4
전혀 필요없다	11	1.1	18	1.5	23	2.9
무응답	5	0.5	8	0.7	3	0.4
합계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표 4-26〉 통일교육이 통일환경 인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

응답 항목	교대생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매우 크게 기여	433	36.8	275	34.4
약간 기여	534	45.4	375	46.9
별로 기여불함	183	15.6	129	16.1
전혀 기여불함	20	1.7	19	2.4
무응답	6	0.5	2	0.3
합계	1176	100.0	800	100.0

한편, 교대생들의 북한 및 통일관련 강좌의 수강 경험은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극히 저조한 수준(1차 조사 : 24.5% ; 2차 조사 : 25.3% ; 3차 조사 : 26.6%)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교육대학교에서 통일교육 관련 개설 강좌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교육 관련 강좌의 수강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에게 향후 통일관련 강좌의 수강의사를 측정 한 결과, '수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69.2%(3차 조사 : 65.9%)로 나타났다.

〈표 4-27〉 통일교육의 주체(교대생)

응답 항목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정치지도자	60	5.9	41	3.5	35	4.4
정부기관	64	6.3	86	7.3	49	6.1
교육기관	214	21.0	302	25.7	192	24.0
민간단체	65	6.4	51	4.3	37	4.6
인문기관	440	43.1	547	46.5	376	47.0
일반국민	166	16.3	142	12.1	106	13.3
무응답	12	1.2	7	0.6	5	0.6
합계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표 4-28〉 북한 및 통일관련 강좌의 수강 경험(교대생)

응답 항목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있다	250	24.5	298	25.3	213	26.6
없다	762	74.6	871	74.1	586	73.3
무응답	9	0.9	7	0.6	1	0.1
합계	1021	100.0	1176	100.0	800	100.0

〈표 4-29〉 향후 북한 및 통일관련 강좌의 수강의사 (2·3차 조사)

응답 항목	교대생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있다	586	69.2	386	65.9
없다	261	30.8	200	34.1
합계	847	100.0	586	100.0

참고로 전국 11개 교육대학교의 교과운영 자료를 이용하여 각 대학별로 북한학이나 통일문제와 관련한 강좌의 개설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양과정의 경우, 대구교대의 「북한학」(2학점), 춘천교대의 「통일문제연구」(2학점)와 진주교대의 「한국사회와 통일」(2학점) 등 3개 강좌가 개설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11개 교육대학교 가운데 3개의 대학에서만 개설되고 있어서 교대생들의 북한 및 통일관련 강좌의 수강 기회가 아주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11개 교육대학교 가운데 윤리교육과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를 다루는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는 총 6곳으로 나타났다. 교과목 개설 현황을 대학교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교대의 「북한문제의 이해」(2학점, 2학년 개설), 부산교대의 「북한과 통일론」(3학점, 2학년 개설), 광주교대의 「북한론」(3학점, 4학년 개설), 청주교대의 「남북한 통합 및 체제 비교」(3학점, 3학년 개설), 진주교대의 「통일교육론」(3학점, 4학년 개설), 전주교대의 「통일교육연구」(2학점, 4학년 개설) 등이다. 이들 강좌들 가운데 북한학과 관련된 강좌는 서울교대와 광주교대에서 개설되고 있고, 통일문제를 다루는 강좌는 진주교대와 전주교대이며, 북한학과 통일문제를 함께 다루는 강좌는 부산교대와 청주교대에서 개설 운영되고 있다.

〈표 4-30〉 전국 교육대학교의 교과운영 과정상의 통일교육 현황

대학교	과정별 통일교육 현황	
	교양과정	심화과정
서울교대		북한문제의 이해(2)(2)
부산교대		북한과 통일론(3)(2)
대구교대	북한학(2)	
인천교대		
광주교대		북한론(3)(4)
춘천교대	통일문제연구(2)	
공주교대		
청주교대		남북한 통합 및 체제비교(3)(2)
진주교대	한국사회와 통일(2)	통일교육론(3)(4)
전주교대		통일교육연구(2)(4)
제주교대		
합 계	3강좌	6강좌

※ ( )안은 학점수, [ ]안은 개설학년임.

※ 각 교육대학교별 학교편람 또는 요람(2000년)을 기초로 작성한 것임.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교대생들의 통일교육 관련 강좌의 수강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의 유발이나 올바른 인식 체계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교대생들의 상당수가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양한 강좌의 개설 운영이 요청된다.

## 4.2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인식구조

### 4.2.1 초등학생들의 인식구조

초등학생들은 통일관련 수업의 문제점으로 '자료부족'(48.2%)을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수업시간 부족'(18.8%), '구태의연한 수업내용'(13.0%)이나 '주입식 통일교육'(13.0%) 순으로 지적하였다. 자료제공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다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7.3%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초등학생들이 시사적인 자료 등 다양한 다른 자료의 제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재선택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인터넷의 활용'(47.2%)이나 '시청각교재의 활용'(34.0%)을 가장 많이 들고 있어서 이



를 뒷받침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에게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인상적이었던 수업내용을 질문한 결과, '북한 실상의 이해'(32.3%), '민족공동체 의식 제고'(24.8%), '통일한국의 미래상'(10.6%) 순으로 응답하였다. 수업내용이 이들 제재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제재나 내용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4-31> 통일관련 수업의 문제점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명)	비율(%)
수업시간 부족	97	18.8
구태의연한 수업내용	67	13.0
주입식 교육	67	13.0
자료 부족	249	48.2
수업없음	12	2.3
기타	17	3.3
무응답	8	1.5
합 계	517	100.0

<표 4-32> 통일과 관련한 인상적인 수업내용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명)	비율(%)
북한 실상의 이해	167	32.3
남북체제 비교	42	8.1
통일정책 비교	27	5.2
국제정세와 한반도	13	2.5
통일에 대한 의지	29	5.6
통일한국의 미래상	55	10.6
통일이후 사회변화상	39	7.5
민족공동체 의식	128	24.8
무응답	17	3.3
합 계	517	100.0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방식과 관련하여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56.1%)으로 진행된다고 밝혔고, 그 다음으로 '시청각수업'(16.4%)과 '토론식 수업'(14.9%)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장견학'과 같은 수업방식은 3.9%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수업방식과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은 다양한 기법의 개발이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업방식의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시청각교재를 이용한 수업진행방식'(29.4%)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이 '현장견학'(23.8%), '시사적인 자료의 이용'(15.9%) 및 '토론식 수업'(14.7%)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표 4-33> 통일관련 자료제공 만족도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명)	비율(%)
매우 많다	12	2.3
약간 많다	129	25.0
별로 없다	274	53.0
전혀 없다	81	15.7
무응답	21	4.1
합 계	517	100.0

<표 4-34> 통일관련 교재선택의 개선점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명)	비율(%)
인터넷 활용	244	47.2
시청각교재 활용	176	34.0
신문 등 시사자료	80	15.5
기타	7	1.4
무응답	10	1.9
합 계	517	100.0

그리고 통일관련 수업에 대한 평가방식은 응답자의 약 절반정도(50.5%)가 '평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이 평가를 하는 경우, '학습과제물'(19.0%), '선다형'(15.5%)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에서 통일관련 수업시간이 부족하고 교사의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통일에 대한 의지 역시 약화되고 있어서 통일관련 수업이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체계의 전반적인 검토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응답 경향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바람직한 통일교육이 못된다.

〈표 4-35〉 통일관련 수업진행방식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명)	비율(%)
강의식	290	56.1
토론식	77	14.9
시청각수업	85	16.4
현장견학	20	3.9
기타	21	4.1
무응답	24	4.6
합계	517	100.0

〈표 4-36〉 통일관련 수업진행방식의 개선점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명)	비율(%)
시사자료 이용	82	15.9
토론식 수업	76	14.7
시청각교재 이용	152	29.4
초청특강 활용	23	4.4
탈북귀순자 강연	45	8.7
현장 견학	123	23.8
기타	6	1.2
무응답	10	1.9
합계	517	100.0

〈표 4-37〉 통일관련 수업의 평가방식

응답 항목	초등학생	
	빈도수(명)	비율(%)
선다형	80	15.5
논술형	36	7.0
학습과제물	98	19.0
평가없음	261	50.5
기타	19	3.7
무응답	23	4.4
합계	517	100.0

#### 4.2.2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구조

한편, 교사들은 현재 통일교육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1차 조사에서는 '북한 실상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35.4%),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

의 보수성'(28.1%), '통일교육에 필요한 자료 부족'(15.1%)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2차 조사에서는 '불분명한 통일교육의 목표'(34.2%)와 '통일관련 자료의 부족'(29.0%)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수업진행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1차 조사에서는 '구태의연한 수업내용'(53.6%), '강의식 수업진행'(20.4%), '교사의 전문성 미흡'(19.6%) 순으로 들고 있다. 2차 조사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미흡'(28.1%)과 '통일의지의 부족'(27.9%)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그리고 통일교육과 관련한 수업 내용상의 개선점으로 교사들은 1차 조사에서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48.5%),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13.5%) 및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제고'(11.8%) 등을 들고 있다. 한편, 2차 조사에서도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28.7%)가 가장 많았으며, '통일이후 사회변화상'(18.6%)과 '통일한국의 미래상'(12.9%)을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표 4-38〉 통일교육 과정상의 문제점

응답 항목	교사(1차 조사)		응답 항목	교사(2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	59	10.5	불분명한 통일교육의 목표	118	34.2
정부의 통일정책의 보수성	54	9.6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48	13.9
식대에 뒤떨어진 통일교육 내용	158	28.1	통일관련 시간배정의 어려움	52	15.1
북한 실상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	199	35.4	학생의 호응도가 낮아서	15	4.3
통일교육에 필요한 자료 부족	85	15.1	토론분위기의 미성숙	9	2.6
무응답	7	1.3	통일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부족	100	29.0
합계	562	100.0	합계	345	100.0

〈표 4-39〉 수업내용상의 개선점

응답 항목	교사			
	1차 조사		2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북한 실상 이해	144	48.5	131	28.7
남북체제 비교	22	7.4	32	7.0
통일정책 비교	15	5.1	21	4.6
국제정세와 한반도	20	6.7	22	4.8
통일필요성 인식	35	11.8	56	12.3
통일한국 미래상 (통일이후 사회변화상)	21	7.1	144	31.5
민족공동체 의식 고양	40	13.5	50	11.0
무응답	제외	제외	제외	제외
합계	297	100.0	456	100.0

〈표 4-40〉 수업진행상 문제점

응답 항목	교사			
	1차 조사		2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수업시간 부족	18	3.2	47	10.1
구태의연한 수업내용	301	53.6	71	15.4
강의식 수업진행방식	115	20.4	30	6.4
교사의 전문성 미흡	110	19.6	131	28.1
기타	7	1.2	-	-
(통일의지 부족)	-	-	130	27.9
(통일정책의 비효율성)	-	-	52	11.2
무응답	11	2.0	4	0.9
합계	562	100.0	466	100.0

다음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통일교육의 수업방식과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 초등학생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51.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청각수업'(25.1%)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시청각교재 등을 이용한 수업진행방식'(1차 조사 : 48.6% ; 2차 조사 : 44.4%), '탈북귀순자의 강연을 통한 생생한 북한실상 이해'(1차 조사 : 16.0% ; 2차 조사 : 14.8%),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의 토론회 수업'(1차 조사 : 13.9% ; 2차 조사 : 23.4%) 등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결국 북한 및 통일문제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자료나 정보의 공유와 함께 새로운 통일교육 관련 교수모듈의 필요성을 강하게 열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통일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공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는데, 응답자의 93.2%(2차 조사 : 94.8%)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통일교육 수업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 개발, 제작하는 등 자료의 제구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이 제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1차 조사 : 91.0% ; 2차 조사 : 95.1%)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교 통일교육체계의 비효율성과 상당수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통일에 대한 열의가 높지 않은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 향후 통일교육과 관련한 수업의 교재 선택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시청각 교재 사용'(1차 조사 : 35.1% ; 2차 조사 : 38.8%), '신문 등 시사자료 이용'(1차 조사 : 32.2% ; 2차 조사 26.4%), '진보적인 시각의 교재 사용'(1차 조사 : 30.8% ; 2차 조사 : 33.5%) 등 큰 차이 없이 각각 선호되고 있다.

〈표 4-41〉 수업진행방식의 개선점

응답 항목	교사			
	1차 조사		2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시사자료 이용	57	10.1	29	6.2
토론회 수업	78	13.9	108	23.2
시청각교재 이용	273	48.6	207	44.4
초청특강 활용	44	7.8	36	7.7
탈북귀순자의 강연	90	16.0	69	14.8
현장 견학	10	1.8	13	2.8
기 타	2	0.4	-	-
무 응답	8	1.4	4	0.9
합 계	562	100.0	466	100.0

〈표 4-42〉 수업진행방식

응답 항목	교사(2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강의식	238	51.1
토론회	85	18.2
시청각수업	117	25.1
현장견학	15	3.2
기 타	5	1.1
무 응답	6	1.3
합 계	466	100.0

〈표 4-43〉 통일교육 자료 제공 만족도

응답 항목	교 사			
	1차 조사		2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매우 만족	3	0.5	3	0.6
약간 만족	25	4.5	16	3.4
약간 불만족	371	66.0	373	80.0
매우 불만족	153	27.2	69	14.8
무응답	10	1.8	5	1.1
합 계	562	100.0	466	100.0

〈표 4-44〉 통일교육 자료재구성 사용 여부

응답 항목	교 사			
	1차 조사		2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매우 많다	5	0.8	6	1.3
약간 많다	37	6.6	13	2.8
별로 없다	405	72.1	348	74.7
전혀 없다	106	18.9	95	20.4
무응답	9	1.6	4	0.9
합 계	562	100.0	466	100.0

한편, 교사들은 통일관련 수업의 평가방식과 관련하여 '평가하지 않는다'(35.0%)가 가장 많았으며, 평가를 하는 경우 '논술형'(31.8%)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과제물로 대체한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20.6%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평가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적실성있는 평가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45〉 통일교육 교재 개선점

응답 항목	교사			
	1차 조사		2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진보적 시각의 교재	173	30.8	156	33.5
시청각 교재	197	35.1	181	38.8
신문 등 시사자료	181	32.2	123	26.4
기 타	3	0.5	3	0.6
무응답	8	1.4	3	0.6
합 계	562	100.0	466	100.0

〈표 4-46〉 통일관련 수업의 평가방식

응답 항목	교사(2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선다형	45	9.7
논술형	148	31.8
학습과제물	96	20.6
기 타	8	1.7
평가 없음	163	35.0
무응답	6	1.7
합 계	466	100.0

#### 4.2.3 교대생들의 인식구조

다음은 교대생들의 의견이다. 북한 및 통일관련 강좌의 수강 경험자들에게 수강 강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과반수(1차 조사 : 53.6% ; 2차 조사 : 54.4%)의 응답자들이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3차 조사에서는 다소 높아진 42.7%를 나타내고 있다. 2·3차 조사에서 추가한 수업진행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 '구태의연한 수업내용'(2차 조사 : 51.8% ; 3차 조사 : 47.4%), '강의위주의 수업진행방식'(2차 조사

: 15.8% ; 3차 조사 : 21.6%), '교수전문성 미흡'(2차 조사 : 13.7% ; 3차 조사 : 9.4%) 등을 지적하고 있다.

〈표 4-47〉 향후 북한 및 통일관련 강좌의 수강의사 (2·3차 조사)

응답 항목	교 내 생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있다	586	69.2	386	65.9
없다	261	30.8	200	34.1
합 계	847	100.0	586	100.0

향후 북한 및 통일관련 강좌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강좌의 내용으로는 '북한의 사회적 실상'(1차 조사 : 33.2% ; 2차 조사 : 33.4% ; 3차 조사 : 30.5%)에 대한 정보와 '통일한국의 미래상'(1차 조사 : 19.6% ; 2차 조사 : 11.1% ; 3차 조사 : 15.2%)에 대한 정보의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제정세와 한반도'(2차 조사 : 16.4% ; 3차 조사 : 11.0%)와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2차 조사 : 16.0% ; 3차 조사 : 17.6%)에 관한 내용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구조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동안 실시되어 온 통일 교육의 비효율성에 근거한 북한실상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이 제대로 형성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 또는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 4-48〉 북한 및 통일관련 강좌의 만족도

응답 항목	교 내 생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매우 만족	11	4.4	16	5.4	16	7.5
약간 만족	105	42.0	118	39.6	104	48.8
약간 불만족	107	42.8	129	43.3	81	38.0
매우 불만족	24	9.6	31	10.4	10	4.7
부응답	3	1.2	4	1.3	2	1.0
합 계	250	100.0	298	100.0	213	100.0

〈표 4-49〉 북한 및 통일관련 강좌 내용의 개선방향

응답 항목	교대생 (1차 조사)		응답 항목	교대생 (2차 조사)		교대생 (3차 조사)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북한의 사회적 실상	83	33.2	북한의 사회적 실상	96	33.4	64	30.5
북한정치와 대외관계	48	19.2	정치경제체제 비교	24	8.4	12	5.7
남북한의 정치체제 비교	10	4.0	통일 필요성 인식	46	16.0	37	17.6
국제정세와 한반도	32	12.8	국제정세와 한반도	47	16.4	23	11.0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9	7.6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8	6.3	16	7.6
통일한국의 미래상	49	19.6	통일한국의 미래상	32	11.1	32	15.2
무응답	9	3.6	한민족공동체외식 함양	24	8.4	26	12.4
합 계	250	100.0	합 계	287	100.0	210	100.0

한편, 교대생들은 수업진행방식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1차 조사에서는 '초청특강'(38.0%)과 '토론식 수업방식'(33.2%)과 같은 현장감있는 수업진행방식을 통해 생생한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엿보인다. 2차 조사에서도 '시사자료를 이용한 강의식 수업'(25.4%), '토론식 수업'(22.3%) 및 '탈북귀순자의 강연'(20.2%) 등의 순으로 선호되고 있어서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3차 조사에서는 '토론식 수업'(24.4%), '탈북귀순자의 강연'(24.0%), '시청각 수업'(21.6%) 및 '시사자료를 이용한 강의식 수업'(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0〉 북한 및 통일관련 강좌의 수업진행방식 개선방향

응답 항목	교대생(1차 조사)		응답 항목	교대생 (2차 조사)		교대생 (3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 (명)	비율 (%)	빈도수 (명)	비율 (%)
토론식 수업방식	83	33.2	시사자료 이용 강의식	73	24.5	35	24.5
초청특강	95	38.0	토론식	64	21.5	52	21.5
시청각수업	61	24.4	시청각수업	56	18.8	46	18.8
기타	7	2.8	초청특강	29	9.7	22	9.7
무응답	4	1.6	탈북귀순자 강연	58	19.5	51	19.5
합 계	250	100.0	현장답사	5	1.7	4	1.7
			기타	2	0.7	1	0.7
			무응답	11	3.7	2	3.7
			합 계	298	100.0	213	100.0

또한 교재활용의 개선방향의 응답결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교대생들은 '진보적 시각의 교재'(1차 조사 : 44.4% ; 2차 조사 : 46.4% ; 3차 조사 : 45.1%)와 '시사자료'(1차 조사 : 32.4% ; 2차 조사 : 35.7% ; 3차 조사 : 37.1%) 및 '시청각교재'(1차 조사 : 20.0% ; 2차 조사 : 16.5% ; 3차 조사 : 15.5%)를 통한 수업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1〉 북한 및 통일관련 강좌의 교재활용 개선방향

응답 항목	교 대 생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진보적 시각의 교재	111	44.4	135	45.3	96	45.1
시청각교재	50	20.0	48	16.1	33	15.5
시 사 자 료	81	32.4	104	34.9	79	37.1
기 타	4	1.6	4	1.3	2	0.9
무 응 답	4	1.6	7	2.4	3	1.4
합 계	250	100.0	298	100.0	213	100.0

### 4.3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 변수간의 상관관계

먼저, 사회배경변수별 주요 교차분석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특히 젊은 세대나 여성들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식구조에 있어서도 다소 소극적인 경향<sup>20)</sup>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현장의 남녀교사의 성비를 감안할 때 특히 여교사들에 대한 통일교육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대생들의 경우, 지역변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관계가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남지역 내학생들이 호남지역 학생들보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도 등 10%비율 이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치권의 지역패권정당구조의 청산과 통일정책의 신뢰회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구조의 하위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이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먼저, 초등학생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20) 통일에 대한 의지를 비롯하여 총 42개 문항에서  $p < 0.05$ 의 유의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연령별 교차분석에서도 총 37개의 문항에서  $p < 0.05$ 의 유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30대와 40대의 인식구조가 다른 연령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인식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5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먼저,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구조를 형성하는 각 변수들은 대부분 약한 양(+ )의 선형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북한사회 및 남북한 간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통일에 대한 의지나 통일이후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에 관한 의지가 높을수록 다른 변수들간에 강한 양(+ )의 선형상관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나 필요성 그리고 통일관련 수업이나 각종 행사에 대한 흥미도 등 다른 변수간에도 대부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변수들이 상관계수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양(+ )의 선형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52〉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구조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초등학생]

	통일 문제 관심도	북한 국경일 인지도	남북 통일 정책 인지도	통일 의지	통일 이후 삶의 변화	통일 방안의 효용성	대북관	통일 교육 관심도	통일 관련 수업 흥미도	통일 관련 총화 여부 흥미도	통일 관련 행사 흥미도	통일 관련 수업 문제집 문제집	자료 제공 만족도	통일교 육가 방식	통일 교육의 필요성
통일문제 관심도															
북한 국경일 인지도	.290														
남북통일 정책 인지도	.276	.291													
통일의지	.243	.105	.144												
통일이후 삶의 변화	.113	.134	.102	.404											
통일방안의 효용성	.073	-.026	.094	.369	.277										
대북관	.099	.161	.167	.351	.257	.271									
통일교육 관심도	.410	.255	.295	.360	.219	.166	.206								
통일관련 수업 흥미도	.370	.265	.287	.351	.321	.239	.260	.748							
통일관련 총화 여부 흥미도	.179	.152	.124	.143	.067	.094	.068	.286	.231						
통일관련 행사의 흥미도	.295	.300	.271	.301	.273	.151	.210	.511	.555	.341					
통일관련 수업 문제집	.118	.160	.136	.102	.105	.110	.113	.198	.221	.201	.165				
자료제공 만족도	.155	.208	.125	.212	.229	.172	.129	.194	.257	.288	.291	.048			
통일수업 평가방식	.068	.037	.108	.071	.102	.047	.084	.140	.149	.167	.127	.088	.213		
통일교육의 필요성	.257	.252	.186	.370	.339	.222	.235	.446	.424	.173	.381	.140	.155	.126	

※ \*\* : 0.01수준(2-tailed)에서 유의적임. \* : 0.05수준(2-tailed)에서 유의적임.

결국,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구조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여러 정보에 대한 인지도도 높게 나타나며,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삶의 질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통일교육이나 통일관련 수업이나 행사와 관련하여서도 높은 관심이나 열의를 갖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있어서도 강한 찬성의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통일의 의지를 유발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53〉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간의 상관관계 분석표[교사]

	통일 관심도	북한 체제 (국경인) 인지도	통일 한국의 미래상 인지도	대북관	통일 의지	통일 이후 삶의 변화	통일세 남세 의사	통일 비용 지불 의사	대북 보용 정책 지지도	국가 보안법 처리 문제	통일 교육 관심도
북한체제 인지도	.229										
(북한국경인 인지도)	.127										
통일한국 미래상인지	.303	.370									
(통일한국 미래상인지)	.212	.203									
대북관	.090	.154	.132								
(대북관)	-.055	.060	.130								
통일의지	.113	.007	.051	.129							
(통일의지)	.149	-.050	.104	.126							
통일이후 삶의 변화	.099	-.010	.016	.049	.231						
(통일이후 삶의 변화)	.013	.045	.153	.059	.366						
통일세 남세문제	.155	.107	.114	.179	.295	.231					
(통일세 남세문제)	-.023	-.011	.129	.202	.185	.196					
통일비용 지불의사	.043	.056	.077	.129	.215	.185	.492				
(통일비용 지불의사)	.008	-.026	.164	.218	.204	.240	.446				
대북보용정책 지지도	.026	.048	.089	.186	.226	.160	.279	.189			
(대북보용정책 지지도)	-.002	.060	.111	.189	.097	.184	.384	.295			
국가보안법 처리문제	-.012	-.026	.020	.114	.111	.070	.075	.082	.203		
(국가보안법 처리문제)	.017	-.055	.029	.110	.124	.167	.160	.124	.194		
통일교육 관심도	.374	.262	.244	.152	.148	.058	.214	.110	.156	.043	
(통일교육 관심도)	.289	.057	.249	.054	.258	.158	.043	.158	.145	-.028	
통일교육의 필요성	.114	.132	.147	.088	.146	.091	.289	.175	.172	.104	.419
(통일교육의 필요성)	.132	.073	.095	.156	.179	.164	.208	.211	.231	.036	.278

※ 주 : ( ) 안은 2차 조사의 분석결과임.

※ \*\* : 0.01수준(2-tailed)에서 유의적임. \* : 0.05수준(2-tailed)에서 유의적임.

한편, 초등학교 교사들의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구조는 통일교육의 관심과 그 필요성 인식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표 4-53>을 통해서 보면,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구조와 통일교육의 필요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거의 모든 변수들의 상관관계 계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높은 의지 등 긍정적인 인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통일에 관한 기본인식과 대북 및 안보정책에도 긍정적인 인식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통일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대생들의 경우도 교사들이나 초등학생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높은 통일에 대한 의지를 형성하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통일에 관한 기본인식과 대북 및 안보정책에도 긍정적인 인식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에도 동의를 보내고 있다. 이는 곧 초등학교 교사나 교대생들이 교육현장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올바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자신들이 먼저 통일문제에 대해 건전한 인식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때 기대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표 4-54>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간의 상관관계 분석표(교대생 : 2·3차 조사)

	통일 관심도	북한체제 (국경일) 인지도	통일 한국의 미래상 인지도	대북관	통일의지	통일 이후 삶의변화	통일새 남세의사	통일비용 지불의사	대북 포용정책 지지도	국가 보안법 처리문제
북한체제 인지도 (3차 조사)	.221*									
통일한국 미래상인지 (3차 조사)	.159**	.369**								
대북관 (3차 조사)	.196**	.280**								
통일의지 (3차 조사)	.042	.029	.049							
통일이후 삶의 변화 (3차 조사)	.057	.015	.029							
통일새 남세의사 (3차 조사)	.150	.115	.220*	.141						
통일비용 지불의사 (3차 조사)	.079*	.035	.087*	.082*						
대북포용정책 지지도 (3차 조사)	.277*	-.009	.204	.074	.188					
국가보안법 처리문제 (3차 조사)	.079*	.082*	.178**	.074*	.262**					
통일교육의 필요성 (3차 조사)	.397**	.217*	.304**	.142	.485**	.201				
통일비용 지불의사 (3차 조사)	.160**	.104**	.197**	.080*	.204**	.222**				
대북포용정책 지지도 (3차 조사)	.350**	.223*	.262*	.084	.425**	.275*	.625**			
국가보안법 처리문제 (3차 조사)	.126**	.102**	.134**	.075*	.132**	.195**	.376**			
통일교육의 필요성 (3차 조사)	-.058	.083	.121	.259**	.205	.075	.231**	.185		
통일교육의 필요성 (3차 조사)	.034	.067	.102**	.107**	.110**	.163**	.184**	.083**		
통일교육의 필요성 (3차 조사)	.242*	.182	.149	-.024	-.021	.026	.195	.053	-.222*	
통일교육의 필요성 (3차 조사)	.097**	-.003	.046	.103**	.077*	.135*	.144**	.133**	.136**	
통일교육의 필요성 (3차 조사)	.235*	.063	.119	.001	.265*	.343**	.414**	.233*	.142	.201
통일교육의 필요성 (3차 조사)	.216**	.061	.168**	.071*	.234**	.148**	.288**	.117**	.194**	.210**

\* 주 : ( ) 안은 3차 조사의 분석결과임.

\*\* : 0.01수준(2-tailed)에서 유의적임. \* : 0.05수준(2-tailed)에서 유의적임.

## 5. 초등학교 통일교육체계 및 운영 실태 분석

### 5.1 통일교육체계 분석

통일부는 통일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sup>21)</sup>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학교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와 교수·학습방법을 동원하여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의지를 함양하는데 목적<sup>22)</sup>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일부는 그 내용체계로서 통일의 필요성, 북한사회의 모습, 북한의 변화 이해, 통일환경의 변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노력,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통일국가의 실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등을 설정하고 있다.<sup>23)</sup> 또한 교육부에서 발행한 『통일교육 지도자료』<sup>24)</sup>에 의하면 통일교육의 내용체계는 ① 민주주의 의식, 민주적 태도와 심성의 함양, ② 통일의 당위성 인식, 통일을 위한 의지 고취(유아, 초등교육), ③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공산주의체제와 비교, 남북사회 비교), ④ 통일의 조건과 장애요인, 통일의 절차와 방안에 대한 이해(중학교 교육), ⑤ 통일 후의 국가건설과정에서 제기될 문제, 통일 후 국가양태에 대한 신념(고등학교, 대학교 교육) 등이다. 학교의 통일교육은 교육단계별로 체계화되어 있는데 낮은 단계에서는 태도와 의지 등 정의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높은 단계로 가면서 이해와 신념 등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심화해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는 통일의 당위성 인식과 통일의지의 고취 등 정의적 측면의 교육을 강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체계는 대체로 세 차례에 걸쳐 바뀌었는데, 크게 냉전시대의 반공교육과 1980년대 후반의 탈냉전의 국제정치적 질서와 그로 말미암은 한반도 분단구조의 변화 및 남북한의 본격적인 대화에 힘입어 통일·안보교육의 단계를 거쳐 1990년대 초에 안보보다 통일을 우선시하는 통일교육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sup>25)</sup>

21) 통일부, 『2001 통일교육기본지침서』(서울 : 통일부, 2000), p.3.

22) 변용권, 앞의 논문, p.87.

23) 통일부, 『2001 통일교육기본지침서』, pp.7~91. 참조.

24) 교육부, 『통일교육 지도자료』(서울 : 통일부, 1993). 참고.

25) 권중주, “통일환경 변화와 학교통일교육”, 진주대학교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

이에 교육과정의 개편도 제1차부터 제4차 교육과정까지는 남한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반공교육이 주류를 이루었고,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대북한 체제 역량이 강화되면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기존의 반공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공산권의 붕괴, 독일의 통일, 한·중수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 일련의 통일환경이 급변하면서 통일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분단극복을 위한 소극적인 교육의 차원을 넘어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통일 이후 민족공동체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에 토대를 두고 민족의 화해·협력 및 민족동질성의 회복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도록 하고 있다.<sup>26)</sup> 그런데 6차 교육과정에서는 과거의 반공교육이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일방적으로 심어 주었다는 반성과 함께 이념 교육 부분이 대폭 축소되었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내용은 확충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비중 면에서 축소는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27)</sup>

한편,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통일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통일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과정에서 책임있는 성원으로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통일의 당위성 인식, 민족의 동질성 회복, 북한의 실상에 대한 바른 이해, 굳건한 안보 태세의 확립, 남북한의 화해·협력·평화 의지의 고양, 통일국가에 대한 전망과 대비 등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체계를 구성하고 있다.<sup>28)</sup>

한편,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은 도덕과를 중심으로 예·체능과에 이르기까지 범교과적 통합 통일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통일교육은 도덕과가 중심이 되어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sup>29)</sup>, 국민공통 기본과목인 사회과가 보완하도록 되어 있다.

총, 제16집(2000), p.274.

26) 김성원, "제7차 교육과정과 통일교육의 방향",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교육』, 제32호(2000.2), pp.81~82.

27) 할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수탁연구 CR 99-12, (한국교육개발연구원, 1999), p.60.

28) 김성원, 앞의 논문, p.82.

29) 구체적인 통일관련 내용은 도덕과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와 8학년(중학교 2학년) 그리고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표 5-1〉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초등학교 통일교육 내용 요소

통일교육 내용 요소	강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 국가 · 국화사랑</li> <li>· 분단현실과 통일의 당위성</li> <li>· 민족문화유산 애호 및 남북한 문화 교류</li> <li>· 국가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li> <li>· 국가발전예의 협력</li> <li>·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방법</li> <li>· 통일국가의 미래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에 관심갖기</li> <li>· 북한동포 이해</li> <li>· 통일의지 고취</li> </ul>

※ 김성원, “제7차 교육과정과 통일교육의 방향”,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교육」, 제 32호 (2000.2), p.82. 재구성.

이 가운데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은 도덕과에서 국가·민족생활 분야에서 국가애, 민족애, 안보의식, 평화통일, 인류애를 가치덕목으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sup>30)</sup> 사회과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인간과 시간영역, 인간과 사회영역에서 부분적으로 통일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로 재량활동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의 범교과 통합교육 활동에는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데 특히, 통일관련 주제 선정을 통한 자료 수집이나 토론 등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효율적,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의 경영 방침이나 지도교사의 의지에 따라 특별활동을 통해서도 광범위한 통일교육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장학습이나 귀순인사의 초청강연 그리고 시청각 학습 등을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학생 자치활동, 계발활동 및 행사활동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31)</sup>

아울러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학습능력과 학습의 요구에 상응하는 교육의 내용, 방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수준별 반, 분단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동원하여 심도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30) 권중주, 앞의 논문, p.268.

31) 김성원, 앞의 논문, p.82.

〈표 5-2〉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재량활동 편제

영역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하위영역				
교과 재량활동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	-	-	0~68시간	4~6단위
	선택과목 학습	-	-	34~102시간	4~6단위
창의적 재량활동	범 교과학습	68시간	68시간	34시간 이상	2단위 이상 (34시간)
	자기주도적 학습				
계		68시간	68시간	136시간	204시간 (12단위)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이수시간이 축소되었는데,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에서 각각 줄어들었다. 중학교 1학년에 3학년까지 각 학년 당 12시간씩 총 36시간이 2학년만 12시간으로 배정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3학년 20시간이 1학년만 17시간으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중·고등학교에서 통일교육관련 이수단위 시간의 축소는 체계적인 이해를 가로막으며, 그나마 통일교육관련 단위도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국가와 민족)에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교육시기가 학년 말(11월에서 다음에 2월)에 편성되어 수업의 생략 또는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국민공통기본과목으로 되어 있는 도덕·윤리교육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실시하고 고등학교 2, 3학년이 통일교육의 공백기로 남게되어 대학이나 사회에서 자칫 이념적 갈등이나 혼란을 겪을 수 있다<sup>32)</sup>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이러한 통일교육체계는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 이상으로 그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통일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등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의지를 고취시켜야 하는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지만 현재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 자체가 난항에 빠져 있는 데다 과거 반공교육의 영향을 받은 교사들의 자질을 비롯한 통일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초등학생의 통일교육 교수 모듈의 개발은 매우 시의적인 작업이 아닐 수 없다.

## 5.2 통일교육의 운영 실태 분석 : 문제점을 중심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하고 있는 통일환경에 비추어 학교 통일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 통일교육에 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

32) 권중주, 앞의 논문, pp.268~269.

졌고 또한 몇가지 변화들이 나타났다. 첫째, 통일교육 자료의 보급을 위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의 통일교육 CD 제작 보급, 일부 시·도 교육청의 통일교육관련 훈화자료의 배포 보급, 통일부 웹사이트의 페이지인 사이버 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 등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교육부와 통일부 사이에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들이 만들어져 통일교육에 대한 부서간 협조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통일교육 관련자들간에 통일교육의 내용이 정치, 경제, 이념 등 체제와 이념중심으로부터 생활문화적인 내용이 강화 보장되어야 하며, 부정적인 대북관을 지양하여야 한다는데 대략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통일교육원 등의 교사들에 대한 통일교육에서 '남북 화해'의 필요성과 당 위성 등에 대한 보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sup>33)</sup>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는 통일교육의 명쾌한 지침이나 계획,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지도방법, 평가방법 그리고 통일교육의 지원체제 등이 일관되게 실시되지 못하고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차원에서 임기응변의 성격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냉전의식의 영향으로 인해 통일교육과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 및 통일부 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이 확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지난 번 제7차 교육과정 개편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남북정상 악수 장면 사진을 실었던 일에 대해 일부 언론의 질타를 받은 사례나 2001년 8월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남측 대표단 일부 인사들의 북한 동조 언행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파장 등을 의식하는 통일교육 관계자들에게 통일교육의 방향 및 내용의 전환에 관해 매우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통일교육관련 교과서 내용의 수정이나 개편은 피하면서, 보수층의 반발을 사지 않을 정도의 교육 보조 자료의 개발이나 보급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 통일교육의 변화는 소신을 가진 일부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좌우되고 있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의 급속한 영향력 상실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들을 비롯하여 각종 여론조사들은 그간 학교 통일교육이 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해 왔음을 증명하고 있다.<sup>34)</sup> 주지하다시피

33) 이장원, 「남북정상회담 이후 학교 통일교육의 변화」,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12권 2호(2000년 하반기), p.227.

34) 전교조의 설문조사 결과는 학교의 통일교육이 교육적 효과를 상실했음은 물론,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흥미를 낮아가는 역효과까지 낳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학교 통일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 방법상의 문제와 아울러 청소년에게 급속하게 영향력이 확대되어 온 사회여론과 언론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



통일문제에 대한 인지경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사회구성원의 통일의식에 미치는 언론매체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여론과 언론의 영향력 급증은 학교 통일교육의 무력화를 촉진한다. 반공교육을 받았던 교사들의 의식은 일반인의 의식을 넘어서기 힘든 조건에 있고, 각종 정보 접근에 있어서도 언론인 등 전문가들에 비해 여러 가지로 제약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제공할 호소력있는 교육자료를 개발하기 힘든 조건에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회와 언론의 협조없이 학교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와 언론기관 등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의 내용이 체제비교 중심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통일교육의 내용 대부분이 분단과 전쟁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나 남북한간의 체제 비교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은 아주 빈약하다. (초등학교 국어 소단원 하나정도에 불과하다 : '남북한의 언어 차이') 이처럼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못하고, 체제나 이념중심의 통일교육 내용이 제공됨으로써 우선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과거에 비중을 두었던 체제나 이념보다는 북한 주민의 생활상에 집중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통일교육의 내용은 남북한의 차이를 부각시켜 통일이 힘들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체제비교 중심의 통일교육 내용은 북한 주민을 이방인으로 여기는 정서도 심어주고 있다. 즉, 북한 주민의 삶과 문화가 사상된 추상적인 제도나 이념의 차이만을 부각하는 것은 북한 동포를 낯선 사람들로 인식하게 하여 '정서적 거리를 확대 재생산하게 하고 있다. 이는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적 통합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문화적 통합이나 심리적 차원의 통합에 대한 고려를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아울러 과거의 통일교육은 체제와 이념과 같은 추상적인 소재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일상적인 생활체득 교육이 아니라 암기위주의 교과 중의 하나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간의 차이점과 이질성을 크게 부각시키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통일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35)</sup>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교직원노동조합, 「전국 중·고생의 통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2000. 7. 20). (조사대상 : 전국 중고생 2,000명, 조사기간 : 2000. 7. 10~15.)

35) 최준호, 앞의 논문, p.112.

또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실시된 통일교육은 체제수호 차원의 소극적인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도전과 침략에 대응하여 우리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은 체제방어적인 의식은 통일 한국의 민주주의체제를 발전시킴으로써 동아시아의 발전된 민주주의국가로서, 세계적인 국가로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학생들에게 통일국가의 장래에 대하여 보다 희망적인 포부와 전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교육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장차 이루어지게 될 통일한국의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민주시민의 육성 내지는 통일의 일꾼을 배양한다는 교육내용도 부족했다. 공산주의의 보수성을 지적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만을 강조해 왔을 뿐 민주적 사고방식을 동원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의 육성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과거의 통일교육은 객관적, 합리적, 현실주의적 접근이라기보다는 규범적, 정의적, 당위적 접근의 성격이 더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규범적 접근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말한다. 북한에 대하여 동포애의 감정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든가, 북한 동포는 못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등의 가치판단을 내리도록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범적 접근은 동포애에 입각하여 북한을 포용할 것을 강조하고 통일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분단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소홀히 다루고 있어서 통일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경시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인식경향은 북한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통일은 의지와 열정만으로 성취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물론, 제7차 교육과정은 통합적인 범교과 교육의 접근을 통해 통일교육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일부 실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기본 공통교과 10개 과목 중심의 교과활동과 재량시간이나 특별활동의 과외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내용은 도덕과 등을 망라하여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도 도덕과 중심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역사, 지리, 국어 등의 일부 교과에도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있지만 교과의 부차적인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통일관련 교과와 내용이 한정됨으로써 학교 통일교육의 교육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사, 학생 모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

은 교육활동 영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다. 나아가 통일교육의 내용을 다루는 특정 교과인 도덕이나 사회 교과서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대부분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에 집중되어 있어 학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나 다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대부분의 학습평가가 종료되는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어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것에만 민감해져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덕과나 사회과가 학생들에게 단순한 암기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통일교육의 비효율성과 무관하지 않다.<sup>36)</sup>

다음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초등학교의 통일교육 교과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sup>37)</sup> 먼저, 도덕과의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는 '통일을 위한 노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순차적으로 민족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편성되어 있다. 저학년의 경우 통일의 인식(통일의 길)과 북한의 학생 이해(북한에 사는 친구들)로 편성되어 있으며, 3·4학년에서는 한 겨레나 한 나라로의 소망을 갖게 하면서 나라를 지킨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통일에 대한 소망을 다룬 내용을, 5·6학년의 경우는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방법과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8)</sup>

그런데 교과서에는 몇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먼저, 현행 교과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의 통일, 즉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변화시켜 통일을 이루자는 것(결국 흡수통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흡수통일 배제, 남북한 양 체제 공존의 통일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통일관으로서, 북한의 체제 변화나 붕괴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잠재적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sup>39)</sup> 또

36) 강성래, "바람직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 제15호(2000년), pp.136~138.

37) 참고로 사회과의 통일관련 내용은 지리 및 정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4학년에서는 개마고원, 백두산, 금강산의 위치, 지형, 기후 등 자연환경과 주요 산업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5학년에서는 통일이 실현되면, 고속철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금강산, 백두산 관광을 기대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6학년에서는 6·25전쟁의 원인, 경과, 피해 등을 토대로 하여 자주 국방의 필요성,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방법, 남북협력의 중요성 및 통일 후의 사회발전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어과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은 대체로 학년별로 1단원씩 반영되어 있다. 교과서별로 보면 읽기 교과서에서는 통일관련 내용을 글의 소재로 다루고 있으나, 말하기·듣기나 쓰기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통일에 대한 내용을 읽기 교과서에서 다루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3학년 2학기 9. 하나가 되어에서는 통일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글의 종류에서도 생활문, 기행문, 동화, 실명문으로 대체로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상력만을 통해 북한을 인식하게 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북한의 실상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한말길 외, 앞의 책, pp.65~67.

38. 한말길 외, 위의 책, pp.63~64.

한, ‘남한=선, 북한=악’이라는 남한사회 중심의 남북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sup>40)</sup>

〈표 5-3〉 제6, 7차 교육과정상의 초등학교 도덕과의 통일교육 내용 비교

학년	통일교육 관련내용 비교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1	· 국가, 애국기에 대한 바른자세 가지기 · 나라를 위해 애쓴 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 국기 바르게 달기 · 애국가 바르게 부르기
2	· 우리나라에 긍지를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기르기 · 해외동포들의 생활에 관심 가지기 ·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열원 가지기	· 부강화 사랑하기 ·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알기 · 통일에 대한 관심 가지기
3	· 국가, 민족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규범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단극복의 의지를 가지기	· 나라 사랑하기 ·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 알기
4	· 국가의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활태도를 가다듬기 · 국가발전에 공헌하려는 자세 가지기	· 민족문화 유산 애호 · 국가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5	· 국가, 민족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범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 평화통일과 국제 우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	· 국가발전의 협력 ·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6	·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기 · 다가 올 통일에 대비하기 ·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기	· 통일국가의 비례상과 민족통일의 의지 · 해외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 학교통일교육의 현실과 과제-정치적 제약 벗어나고 네트워크화 해야 한다-. 통일한국, 통권 205호, (2001년1월), p.70.

셋째, 교수 학습방법상의 문제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그간의 통일교육은 인지중심의 주입식 교육이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의식과 신념을 내면화하기 위하여 폐쇄적이며 일방적인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판적인 토론이나 개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

39)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의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질국 선거를 통하여 통일을 하는 것이 평화통일이군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도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언제 준비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40)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 “그러나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우리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하는 등 내부의 변화가 많았지만, 남북대화나 통일에 대한 가능성은 별로 전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 통일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 교육 주체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교사의 능동적인 교육 내용이나 교수 학습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 중심의 주입식 수업형태를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북한을 흑백논리에 기초한 반대감정을 내면화하는데 기여해온 탓에 건전한 대북관을 형성하기 어려웠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저하시키고, 통일교육의 교육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문제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 최근에 토론식 수업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등이 일부 시도되고 있지만 교육내용의 전환과 자료의 대폭적인 확충이 선행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한계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은 교사에 의한 수업 외에 체험 학습, 초청강사 강연, 위탁 교육, 학교 행사 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과교육 외의 통일관련 각종 행사들이 타성화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 반공교육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었던 반공옹변대회가 통일 말하기 대회로 이름만 바뀌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밖에 표어짓기,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효율성을 상실하고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행사가 되어 버렸다. 학생들의 의식 변화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런 행사들이 '통일교육'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실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은 학교 통일교육 행사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 행사의 하나로 치르고 있는 강연이나 탐방 역시 타성화되고 있다. 강연의 경우 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인사나 탈북자를 초청하여 거의 아무도 듣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진행되기 일쑤이고, 탐방은 대북적대감만 부추기기에 충분한 전적지, 땅굴 견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up>41)</sup> 또한 학교 통일교육의 진행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는 학교장과 부장교사 그리고 그동안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 교육에 개입해 온 청소년 교육단체들의 보수적인 의식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sup>42)</sup> 이처럼 학교 통일교육이 냉전의식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교육주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통일교육은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41) 이장원, 위의 논문, pp.238~239.

42) 이장원, 앞의 논문, pp.227~228.

## 6.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

### 6.1 변화된 통일환경에 따른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

통일이란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이 없어지는 영토적 통일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독일통일의 선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내면적 통일로서 남북한간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정치체제나 이념 및 경제체제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분단의 장기화와 남북한간 체제경쟁 과정에서 형성된 남북한의 차이를 '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통일 이후 야기될 수 있는 남북한 주민들간의 사회·문화적 갈등을 대비하는 것<sup>43)</sup>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차원의 민족동질성 회복의 교육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sup>44)</sup> 더구나 정규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은 더욱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화해시대의 통일교육은 이제 냉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화해를 전제한 통일교육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긍정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의 형성이 필요하다.<sup>45)</sup> 이를 위해 정치권을 비롯하여 학계 및 언론 등 우리 사회의 통일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들의 남남통일이 시급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대적 조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류하려는 일부 보수적 반발층의 영향으로 통일교육 관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된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설문자들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 등 의식에 다소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건전한 통일환경의 조성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초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학교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통일부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통일교육의 목표는 첫째,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둘째,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셋째, 평화공존과 화

43) 변용권, "교과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교육연구사, 「교육연구」, 제21권 1호(2001년 1월호), p.86.

44) 최준호,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교 통일교육 방안",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교육연구사, 「학교경영」, 13, 11(2000년 11월호), p.109.

45) 이상원, 앞의 논문, p.243.

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 실현의지 함양 등이다.<sup>46)</sup> 이를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로는 통일의지의 고취,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중요성 인식, 객관적인 북한관에 바탕을 둔 남북한 관계의 이해, 평화통일의 바탕인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민족공동체 속에서의 삶 준비 등<sup>47)</sup>을 일상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환경 변화에 대응한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나 방향<sup>48)</sup>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절실히 느끼도록 교육해야 한다. 우리에게 통일이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어 결국 통일보다는 오히려 현상유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다. 통일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정의적인 측면의 통일의 당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현실적인 인식이 결여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둘째, 남북교류 협력이 증대될수록 남북한 학생간 혹은 주민간의 접촉이 빈번해 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상이한 체제와 이념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성은 다소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남북한 주민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사회문화 등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상호존중의 자세를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적으로는 남북한 간 이질화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과 함께 북한 주민들간의 정적인 인간관계나 공동체 의식 등도 언론에서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은 한 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체득시켜야 한다. 그러나 교사의 일방적인 교육을 통한 반공·반북 의식이나 통일지상주의적 입장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통일지상주의적 입장은 의식과 존재를 지나치게 협소화하여 통일을 향한 과정적 사고의 자유로움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49)</sup>

셋째,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나 우리의 노력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남북한 서로에 대한 이해의 상생과 공생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그러한 목표를 통해 남북한에 살고

46) 통일부, 『2001 통일교육기본지침서』(서울 : 통일부, 2000), p.3.

47) 통일부, 위의 책, pp.3~4.

48) 차우규, 『교육의 적시성 - 사실성에 근거한 이해 폭 넓혀야』, 자유공론사, 『자유공론』, 통권 401호(2000년 8월), pp.87~90.

49) 박찬석,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실천방안-평화 그리고 화합의 길 찾기-』, 학교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연구』, 제3권 제1호.(2000), pp.188~189.

있는 우리의 동포를 이해하고 그 이해 정도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각급 학교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통일교육은 그 내용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분단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 개인적 실천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의 목적을 향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통일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어야 한다.

넷째,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냉철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민족의 주체성과 자주성 확보를 통해 민족경제의 건설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역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학생 각자가 통일한국을 주도해 나갈 주체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찾아내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은 교사와 학생만의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장의 경영 방침과 정부, 민간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의 보완적인,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 학교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통합적인 통일교육을 통해 자신의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업을 통해 검증받고 통일을 위한 일상적 실천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자세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 스스로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려는 의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은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북한 이해 교육과 통일관련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교사들은 통일에 대한 지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미래지향적 통일 자세를 갖추 수 있도록 자질을 길러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과거 권위주의정권들의 부산불인 반공·안보교육의 잔상을 걷어내고 평화공존의 남북한 관계의 회복을 이룩하며,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이해관계를 밑으로부터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통일교육이나 통일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통일교육의 기본지침으로부터 자료개발, 민간통일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교육 지원기관은 연구기능이나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각 교육기관에 대한 종합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원관리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50)



## 6.2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

### 6.2.1 통일교육 내용

앞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상 생활에 관한 소재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수 방법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현장체험을 통해 통일교육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열린 환경에서 합리적인 토의를 할 수 있고,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인터넷의 다양한 활용, 참여와 관찰을 통한 체험학습 등 피교육자의 관심이나 발달 수준을 고려한 효율성이 있는 눈높이 통일교육이어야 한다.<sup>51)</sup>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정서 즉, 통일의지의 약화는 분단을 자신의 삶과 연계시켜 생각하지 못하거나 통일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느끼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분단의 폐해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부정적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단의 폐해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손해를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통일이익이 이런 고통과 손해를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민족의 삶에 대한 역사적 안목을 갖게 교육해야 한다.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정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로서 분단과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이는 현재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제대로 형성시켜 주지 못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학생들이 분단극복의 문제를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연관하여 사고하고 판단할 때, 그리고 그러한 민족의 삶과 자신의 삶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했을 때, 통일교육은 신념과 의지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올바른 역사의식의 형성이 필요하다. 올바른 역사의식은 민족 자주의식의 뼈대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화해 교육은 올바른 민족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형성하는 데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냉전적 사고는 적과의 공존을 허용하지 않지만, 탈냉전적 사고는 상호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과 화해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지금 학생들에게 남북화해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대북지원문제 등

50) 한만길, "학교통일교육의 현실과 과제-정치적 제약 벗어나고 네트워크화 해야 한다-", 『통일한국』, 통권 205호(2001년 1월), p.71.

51) 최준호, 앞의 논문, pp.112~113.

에 있어서 통일이 '우리만 손해보는 일이다'는 의식에서 비롯된다. 이런 의식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화해와 공존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임을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우리 남한의 생존조건이기도 하며, 내북지원 자체도 우리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연적인 선택인 평화를 위한 선택으로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도 이익이며, 이후 민족경제를 일구는 장기적인 이익임을 교육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사고인 상호주의적 의식 즉, 상호교환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라는 의식을 '내가 하나의 이익을 얻고, 상대가 10개의 이익을 얻어도 상호 이익으로서 손해보지 않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인식을 갖게 해 주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sup>52)</sup>

이러한 기본 방향을 반영하기 위한 통일교육 내용의 개선방향<sup>53)</sup>으로는 첫째,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시킨다. 남북한 분단의 배경과 폐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여 정의적인 시각과 현실적인 시각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각 교과목의 통일교육 내용은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sup>54)</sup> 북한 실상을 현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지도하여 학생 스스로 남북한간의 차별이 아니라 차이점을 발견하고 포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북한에 대해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접근을 주요 내용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55)</sup> 이처럼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이질성을 다양성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위해 서로의 장점과 특성을 신장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한 주민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인간중심의 초등학교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체제비교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균형있는 교수 학습<sup>56)</sup>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생활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생들의 관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생활과 관련한 친근한 소재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적 접근에 의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열린 안보개념에 바탕을 둔 평화의지를 고양해야 한다. 또한 민족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폭넓은 시각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대결 상

52) 이장원, 앞의 논문, pp.247~248.

53) 김성원, 앞의 논문, p.83.

54) 한만길, "학교통일교육의 현실과 과제-정치적 제약 벗어나고 네트워크화 해야 한다-", 통일한국, 통권 205호(2001년 1월), pp.62~63.

55) 한만길, 위의 논문, p.71.

56) 강성래, "바람직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 제15호(2000년), pp.138~142.

황에서 북한의 위협을 경계하고 이를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을 포함하는 우리 민족 전체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보의식의 확장이 필요한 것이다. 남북한간의 적대의식과 불신감을 해소하고 대북한 흡수통일을 지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상호 화해·협력함으로써 평화공존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체 속에서 복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민족통일의 관점에서 안보의 개념을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안전과 평화라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의식의 형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타인과의 합리적인 인간관계를 통한 조화와 공존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처럼 통일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sup>57)</sup>

다섯째, 통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제적 태도의 함양도 필요하다. 우리의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통일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통일문제는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혜택과 이들의 측면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sup>58)</sup>

여섯째,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심어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번영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교육을 말한다. 분단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활동 영역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시야를 왜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고, 민족적인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정서, 감흥을 불러일으키도록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갖추도록 하고 통일대비 태세의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통일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자세를 미리 교육하여야 한다.

### 6.2.2 통일교육 교수 학습 방법

학교 통일교육은 먼저 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교육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도덕 교과와 같은 특정 교과에 의해 특수하게 그리고 지엽적으로

57: 강성래, 위의 논문, pp.138~139.

58: 강성래, 위의 논문, pp.141~142.

북한과 통일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 통일교육은 통합적 접근을 통해 실시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교과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량시간, 특별활동이나 학생회활동을 포함한 통일관련 학교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습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학습활동이야말로 양질 모든 측면에서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담보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일교육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식 인지교육이 주된 교수학습 방법이었으며 아직도 많은 교사들에 의해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배후에는 교사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6-1〉 초등학교 통일교육 강화 방안

교과서에 내용 반영	특별활동시간 활용	재량활동시간 활용	체험활동	전체
52.1	4.3	13.7	29.9	100.0

※ 한만길, “학교통일교육의 현실과 과제-정치적 제약 벗어나고 네트워크화 해야 한다”, 통일한국, 통권 205호(2001년 1월), p.68. 재작성.

전반적으로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문제나 북한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교사의 관심이나 성향에 따라 학생들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이해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만공교육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일부 교사들에 의해 통일교육은 통일과 북한에 대한 호전적인 의식이나 냉소적인 태도나 급진적인 통일의식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통일교육이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면 합리적인 사고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분단과 남북통일 그리고 북한 인식의 접근을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진정한 우호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공학적인 교육방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강의식, 토의 탐구식 교육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청각 매체 활용 수업, 토론학습모형, 시사 자료 활용 수업(NIE), 가상현실 체험학습(simulation learning), 현장체험학습, 소집단 대화 학습, 문화이해 교육의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먼저, 강의식 수업의 경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순수 강의법보다는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담화식, 문답법 또는 토의·탐구식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통일교육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그밖에도 실천활동, 조사활동, 토론활동, 놀이학습 등 일반 교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교육방법이 통일교육에서도 적용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가상현실 체험학습은 멀티미디어를 통한 방법으로 원격교육과 개방교육을 활성화시켜 주며, 교육체계의 시·공간적 초월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인터넷 자료를 이용한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의 습득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업에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흥미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소단원 대화학습은 통일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감화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하는 수업방법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대화의 의미에 보다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는 포용적인 이해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문화이해 교육은 학생들에게 북한주민이나 학생이 입장에서 분단 문제나 의식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대북 쌀지원 문제의 경우 북한 학생이나 주민들이라면 어떠한 생각을 할까에 대해 학생 스스로 고민하는 내용을 통해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처음에는 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학생들에게 생각할 기회나 자료를 많이 부여한다면 토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방적인 통일교육의 교수학습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sup>59)</sup>

또한, 현장(견학)체험과 같은 통일교육 방법으로는 판문점, 오두산 통일전망대, 도라산 전망대, 제3땅굴, 통일공원, 임진각, 용산 전쟁기념관, 북한관(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 고성, 강원 철원, 임진각, 충북청주, 제주, 인천광역시, 강원 양구, 오두산, 경남 창원 등 11개), 북한자료센터(통일부),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철원군 전적지 등이 있다. 물론 상당수가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나 일부 지역에 편재해 있는 북한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sup>60)</sup> 아울러 특히 각 지역마다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수준과 방법으로 지도해야 한다. 저학년 단계에서는 정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61)</sup>

59) 한만길, "학교통일교육의 현실과 과제-정치적 제약 벗어내고 네트워크화 해야 한다-", 통일한국, 통권 205호(2001년 1월), pp.84~85.

60) 통일부, 『2001 통일교육기본지침서』, pp.146~157.

61) 김성원, 앞의 논문, p.83.

셋째,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학습자들이 통일교육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체험을 유도해야 하는데,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전쟁의 공포와 평화의 소중함, 남북한간의 이질화된 문화의 극복 등에 대해 집단적 또는 개별적인 체험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생활문화와 관련지어 구성하고 통일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학습주제를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일관련 다양한 주장들과 관점이 폭넓게 논의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유발될 수 있어야 한다.<sup>62)</sup> 그리고 다양한 교육방법 즉, 가치탐구식 토론학습, 현장체험학습, 모의실험학습, 역할극 등 여러 가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자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넷째, 웹기반교육(WBI)을 통한 교육자료의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은 영상 세대들이기 때문에 정보전달과 이미지 형성을 위한 교육에서는 영상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한 관계나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는 생생한 영상의 효과가 뛰어나므로 이런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사이버공간에서 가동 중인 여러 웹사이트들을 참고하여 창의적인 자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외의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website)로는 총 61개가 운영되고 있다. 먼저, 통일부, 통일교육원 등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곳이 12개이며,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통일학연구소, 세종연구소, 동북대 북한학과 등 14개이다. 또한 언론기관은 주요일간지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7개이다.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나 북한나눔운동 등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모두 9개이다. 그리고 기타 코리아스코프, 북한인명사전, 파주시 통일여행, 유홍준의 북한문화답사기와 같은 사이트 등 총 46개이다. 한편, 해외의 경우, 백악관, 미국CIA,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오레곤대학 북한정보서비스 등 모두 15개이다.<sup>63)</sup>

다섯째, 통일관련 교과내용에 대한 평가방식이나 문항의 개발도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지나 평가지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그동안 통일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의 통일정책, 안보문제, 북한의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통일문제와 관련된 평가는 북한의 사회생활이나 문화, 지리나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통일의지, 생활문화 중심의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로 설정되어야 한다.<sup>64)</sup>

62) 변용권, 앞의 논문, pp.87~88.

63) 통일부, 위의 책, pp.159~160.

### 6.2.3 교과교육 이외의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교과적 통합교육도 중요하지만, 특별활동, 재량시간 활동, 학교행사, 잠재적 교육과정 등의 교과교육 이외의 학교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의 하위 영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각 영역을 몇 개 영역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재량활동 시간에 통일교육 관련 수업을 배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권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장이나 부장교사 등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 전환과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재량활동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자료 및 시청각 자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sup>64)</sup>

통일교육 담당교사가 통일과 관련한 현장체험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의 교사들은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실질적인 통일교육과 관련된 자율적인 연수활동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통일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북한 이해나 통일 인식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sup>65)</sup> 이러한 학교 통일교육은 사회통일교육과 긴밀한 연계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향후 통일관련 각종 학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적극적인 의미의 학생 자치를 강화하여 학급회의나 학생회의 때 통일문제에 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이 학급과 교내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통일교육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사회 화합과 공동체, 평화에 관한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행사가 통일교육의 목적에 적합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통일관련 학생의 과외 활동을 지도할 교사들을 연수 프로그램과 같은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보급과 함께 담당교사들에 대한 연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학교 행사는 학생 수준에서 현실적이며 실질적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때 가급적

64) 이재성, "학교행사를 통한 통일교육 강화의 실제",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교육연구소, 「학교경영」13.12(2000.12).. 박신섭, "학교행사를 통한 통일교육의 실제",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교육연구소, 「학교경영」13.11(2000.11).. 최종열, 「교육 사례」, 강원도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연구소」, 2000년 9월호. 등의 논문 참조.

65) 한만길, "학교통일교육의 현실과 과제-정치적 제약 벗어나고 네트워크화해야 한다"-, pp.70~71.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를 이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급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량활동 시간은 특히 교과 학습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량활동 시간은 빚교과학습의 형태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제 탐구활동에서도 통일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북한 및 통일관련 주제를 선정한다거나 통일과 관련된 시시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토의하는 형태의 수업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업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자율적 교육활동으로서 현장학습 중심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장학습 활동으로서 역사유적지, 전쟁사적지, 통일관련 사적지 등을 방문하는 활동도 전개할 수 있다. 판문점, 통일전망대, 땅굴견학, 전쟁기념관, 자매군부대, 참전기념비, 북한관 등을 견학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다만 통일과 안보의식이 편중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클럽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이다.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문제를 학생들의 일상적인 관심사로 끌어들이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체험과 실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활동 공간인 클럽활동 시간에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통일관련 시사반, 통일반 등과 같은 클럽활동을 들 수 있다. 향토조사반에서의 통일전망대나 땅굴 견학을 가능하게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거나, 미술과 음악반의 경우 통일관련 전시회나 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영화감상반의 경우, 북한영화에 대한 감상을 통해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사냥반'과 같은 클럽활동의 경우 북한 및 통일 관련 각종 웹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직접 운영하며, 각종 경시대회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다른 학생들에게 통일에 관한 관심을 유인하거나 홍보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각종 학생회 활동에서 북한어린이 돕기 운동, 탈북자 가족 돕기 등의 프로그램을 전개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통일관련 학생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 6.3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교수-학습지도안)

본 교수모듈은 통일의 필요성, 북한사회의 모습, 통일한국의 미래상 등의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제재들은 앞서 논한 설문조사 결과와 선행연구들의 결과들<sup>66)</sup>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된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현행 통일교육 내용체계의 초등학교 단계에서 강조되고 있는 제재들을 중심으로 채택한 것이다.

본 교수모듈은 초등학생들에게 분단폐해와 통일이익을 견주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와 북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교정하여 남북한 이질성을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건전한 이해와 함께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의도한 것이다.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과거의 통일교육이 지향했던 정의적 측면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일방적인 강요와 부정적인 대북관, 체제 우월의식에 근거한 정치·경제체제의 차별을 위한 비교 중심의 통일교육을 지양하여야 한다. 아울러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현실적 측면의 인식을 유도하여 양자의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그리고 전쟁기념관과 판문점 등의 현장견학을 통한 학습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통일과 안보문제를 병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나친 통일지상주의를 경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다만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안보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반공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경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의도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범교과 통합교육의 효과를 감안하여 구상한 것이다. 즉, 제재별로 다양한 교과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업진행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의도하고 있는 인지, 정의, 참여적 차원의 3차시 수업모형에 준거하려고 노력하였다.

66) 대표적인 연구들로서 박찬석,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실천방안-평화 그리고 화합의 실 찾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연구』, 제3권 제1호, (2000), 최종열, "통일교육 사례", 강원도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정보』, (2000년 9월호), 정규원, "학교 통일교육의 발전적 지도방안",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교육연구소, 『학교경영』, 13,8(2000년 8월호), 박상구, "학생활동 중심의 통일교육 효율화 방안", 강원도교육청, 『강원교육』, 166(2001년 3월호), 정복환, "남북한 생활문화 탐구활동을 통한 하나된 마음 기르기", 강원도교육청, 『강원교육』, 166(2001년 3월호), 김정식, "역할극을 통한 가상통일 체험학습", 교육부, 『교육마당21』, (2000년 6월호), 이재성, "학교정사를 통한 통일교육 강화의 실제",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교육연구소, 『학교경영』, 13,12(2000년 12월호), 송봉석, "북한 바로 알기 WBI 자료",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 『충남교육』, 134호(2001년 3월호)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한편, 초등학생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인터넷, 비디오 등의 영상자료 등 시청각수업의 채택과 조별 분임 토론식 수업 등 수업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그동안 실시되어 온 교사에 의한 일방적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시사 잡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시사적인 수업자료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교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평가방식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학습지 및 평가를 통한 인지능력 검정이나 정의적인 감성의 자극을 피하였고, 각종 통일관련 행사 또는 프로그램의 참여도 및 그 성과물을 검정하는 등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평가방식을 고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토론자료로 활용할 학습과제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여 학교와 가정간에 통일교육의 공간적 지평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학부모들이 과거에 받았던 반공·안보교육에 대한 반성과 각성을 불러 일으키고 스스로 자신들의 시각을 교정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끝으로, 교과교육과 교과교육 외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수업시수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교과교육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구상되었다.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그동안 통일 표어짓기대회, 통일백일장, 포스터 그리고 및 강연 등과 같은 일회성 및 행사위주의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 다양한 통일교육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다.

<표 6-2> 교과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교수모듈(교수-학습지도안)

범교과 통합교육의 주요 내용	
개념명	분단폐해와 통일이익 비교, 북한사회의 모습 및 통일한국의 미래상
수업 대상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업 시기	6월에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학교 행사)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시기의 조정 필요성 때문
학습 목표	분단폐해와 통일이익을 건주어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고취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함양한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간 이질성 해소를 위해 북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교정한다.
학습 내용	통일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분단폐해와 통일이익을 건주어 비교하도록 한다. 통일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고, 잘못된 북한관에 대한 교정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유도한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정립과 남북한 주민간 이질성 해소와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다룬다. 이를 위해 북한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생활상, 지리, 문화에 대한 이해 학습을 포함시킨다.
학습 방법 및 자료	책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3차시 수업모형의 인지, 정의, 참다(실천)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다. 그리고 학습방법으로는 교사와 학생 및 학생들 상호간에 활발한 토론식 수업진행과 비디오나 인터넷 등 다양한 시청각교재(WBI 자료 포함), 만화, 시사잡지 및 신문 등을 이용한 학습방법을 고려한다.
평가 방식	학습지 및 평가지를 통한 인지능력의 검정과 각 주제별 토론 및 대화학습의 참여도 및 성과물로 점정한다.

차시	제재	주요 수업 내용 및 방법	활동 주제	준비물	소요 중심 시간	교과
1-3	분단 폐해와 통일이익 비교	학습목표 설명 및 문제제기 - 분단폐해와 통일이익을 비교 평가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지 고취 신문, 잡지 등 자료 이용 또는 이산가족상봉의 영상자료(또는 WBI 자료) 이용	교사	신문, 잡지 등 자료 이용 또는 이산가족상봉의 영상 자료 이용	5 20	도덕 국어
		자료를 본 감상문 쓰기 및 발표	교사 학생	평가지로 활용	30	
		과제물에 대한 조별 본인 발표 및 토론 - 이산가족의 아픔을 알아보고,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의지 고취	교사 학생	부모님과 함께 하는 과제물 부여(분단폐해와 통일 이익의 비교)	20	
		통일이익에 대한 WBI(웹기반교육) 자료 제시	교사	WBI 자료 활용	20	
		분단폐해와 통일이익을 비교 평가하여 통일의지 고취 : 과제물에 대해 조별 정리 발표 및 토론 요약 정리	학생 교사	평가지로 활용(토론자료) 5	15	
4-6	북한 사회의 모습	학습목표 설명 및 문제제기 - 우리나라와 북한은 한 민족임을 알고 분단으로 인한 삶의 차이를 이해시키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	교사	5	5	국어 체육 사회
		북한 어린이와의 언어 차이 이해 : 조별대항 북한어 맞추기 퀴즈대회	교사 학생	북한을 알기 위한 학습 자료(비디오, 인터넷)를 이용한 조별 수업 및 발표준비 활동 및 발표물의 다량 감상	30	
		북한 어린이의 놀이문화에 대한 시청각자료(만화) 시청 북한 어린이의 놀이문화에 대한 발표 : 조별 토론	학생	북한어린이 놀이문화에 대한 시청각자료(만화) 준비	20 10	
		북한 동요 부르기	교사 학생	음향시설, 북한 동요 자료	20	
		북한의 지리·가상현실 체험학습 캐릭터를 이용한 북한 여행)	교사 학생	시청각자료(WBI 자료)	20	
		북한 정권과 주민에 대한 적대감 교정, 남북화해 협력의 필요성 인식 : 교사와 학생간 대화학습법 요약 정리	교사 학생 교사	교사의 유도(토론 결과물)에 대한 평가지 활용 5	10	
7-9	통일한국의 미래상	학습목표 설명 및 문제제기 -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통일을 위한 준비와 노력의 자세 시청각자료 이용 후 느낀점을 조별로 발표 및 토론	교사	시청각자료(비디오) 이용 평가지로 활용	5 25	도덕 수학 국어
		통일에 관한 어린이의 의식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을 통해 통일의지 고취	학생	설문조사 결과자료 분석방법 지도(교사)	35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자신의 자세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방법에 관한 토론	교사 학생	토론수업 관련 자료 준비	25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그리는 동화를 듣고 조별 토론- 통일 이후의 사회상을 미리 그려보고 사회적 변화를 예상하여 이에 적응하도록 함	교사 학생	통일관련 동화 읽을 거리, 과제물 부여(학습지 -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25	
		요약 정리	교사	5		

〈표 6-3〉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학교 행사)을 통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학교 행사)의 주요 목표와 방향	
( )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교과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긴다. (가급적 학생 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유도함)
( )	다양한 교과와 동원을 통해 통합적인 통일교육이 되게 한다.
( )	가족을 비롯해 정부, 언론, 사회단체 등의 통일교육 사회화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 하다.
( )	각종 프로그램은 교과교육과 연계하여 개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	행사 참여도 및 그 성과물에 대하여 평가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행사명	주요 활동 내용 및 방법	장소 및 여건조성	중점 교과
1	사이버통일백일장과 토 론장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동서 짓기 대회 북한 어린이에 대해 편지쓰기	학교나 기관(통일부 등) 웹 사이트에 관련 페이지 개설	국어
2	북한 및 통일정보사냥 대회 학교 대항 북한 및 통 일관련 퀴즈대회	북한실상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제고를 위한 관련 웹사이트 검색 교육방송사(또는 지방방송사) 등으로부터 관련프로그 램 개발 및 운영	학교 웹사이트에 페이지 개 설 교육방송사 등으로부터 관련 프로그램 개발 협조	도덕 사회
3	통일(북한)캐릭터 공모 대회 또는 민화그리기 대회	통일한국과 북한 지리(권량명소)를 안내할 수 있는 상징 캐릭터 공모		미술
4	통일학교체험 학습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프로그램 체험 (민족공동체의식 고취, 통일문화 등)	기 자치단체별 통일학교 운영	
5	북한어린이돕기 등 통 일성 회복을 위한 프로 그램 참여	북한어린이돕기운동단체 등의 프로그램 참여 유도	관련 사회단체의 협조	
6	연극을 통한 학생의 참 여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상상한 주제의 선정 또는 남북 한 이질성 극복을 주제로 한 연극을 통해 민족적 통 일성 회복을 꾀함	강당(부모님과 함께 참여)	국어
7	통일농요 창작발표 대회	통일관련 농요 창작발표대회 공모	방송사 등의 협조	음악
8	전쟁기념관 참관(현장 견학)	민족강등 극복(안보관)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민주사 회 건설을 위한 자세 확립	관련 기관(전쟁기념관, 관문점 등)의 협조	도덕
9	통일관련 학생자치팀업 활성화	도시보내기 운동 등 학생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복 프로그램 개발(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학생자치 모임 건설 으로 능동적인 참여 유도	
10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 (미술품 전시회) 전시 회 관람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거나 학교에서 단체로 방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	민간기업이나 사회단체 등의 협조	사회, 미술
11	북한 어린이의 중요 물 기(또는 부르기 대회)	북한 어린이의 일상생활을 그려는 중요 물려주기(시 울에서 빙양까지, '휘파람' 등 일부 대중가요 포함)	교내방송시설(관련 대회 준비)	음악
12	북한 및 통일관련 전자 게시판 설치	시사적인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설치	도덕, 사회

## 【 참고문헌 】

- 교육부, 『통일교육 지도자료』, 서울 : 통일부, 1993.
- 통일부, 『2001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서울 : 통일부, 2000.
-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 모임, 『직녀에게 5』, 1996. 10.
-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수탁연구 CR 99-12, 한국교육개발연구원, 1999.
- 강성래, “바람직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 제15호, 2000.
- 권중주, “통일환경 변화와 학교통일교육”,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제16집, 2000.
- 김도태·이경화, “통일교육 개선방향 : 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김맹립, “사이버 매체를 활용한 통일교육 강화의 실제”,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교육연구사, 『학교경영』, 13.11, 2000년 11월호.
- 김성원, “제7차 교육과정과 통일교육의 방향”,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교육』, 제32호, 2000. 2.
- 김영하,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통일원, '97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 통일정책·환경(I), 1997.
- 김정식, “역할극을 통한 가상통일 체험학습”, 교육부, 『교육마당21』, 2000년 6월호.
- 박상구, “학생활동 중심의 통일교육 효율화 방안”, 강원도교육청, 『강원교육』, 166, 2001년 3월호.
- 박신섭, “학교 행사 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강화의 실제”,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교육연구사, 『학교경영』, 13.11, 2000년 11월호.
- 박영균, “통일교육의 변화과정과 전환적 제언”, 『학교통일교육내용의 바람직한 방향』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대구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제2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논문집, 1999. 8. 24.
- 박찬석,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실천방안-평화 그리고 화합의 길 찾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연구』, 제3권 제1호, 2000.
- , “학생들의 통일 의식을 반영하는 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도덕윤리과교육』, 제12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0.
- 백영철, “21세기의 남북관계 : 평화·협력·통합”, 한국정치학회 편, 『21세기 남북관계론』, 서울 : 법문사, 2000.

- 변용권, “교과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교육연구사, 「교육연구」, 제21권 1호, 2001년 1월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통일교육연구위원회, 『남북통일 대비 교육 준비에 관한 교육전문가의 의견조사 연구 보고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통일교육연구위원회, 1996.
- 송봉식, “북한 바로 알기 WBI 자료”,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 「충남교육」, 134호, 2001년 3월호.
- 오석운, “국화학습을 통한 통일교육 강화의 실제”,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교육연구사, 「학교경영」, 13.11, 2000년 11월호.
- 이장원, “남북정상회담 이후 학교 통일교육의 변화”,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12권 2호, 2000년 하반기.
- 이세성, “학교행사를 통한 통일교육 강화의 실제”,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교육연구사, 「학교경영」, 13.12, 2000년 12월호.
- 정규원, “학교 통일교육의 발전적 지도방안”,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교육연구사, 「학교경영」, 13.8, 2000년 8월호.
- 정복환, “남북한 생활문화 탐구활동을 통한 하나된 마음 기르기”, 강원도교육청, 「강원교육」, 166, 2001년 3월호.
- 최종열, “통일교육 사례”, 강원도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정보」, 2000년 9월호.
- 최준호,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교 통일교육 방안”,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교육연구사, 「학교경영」, 13. 11, 2000년 11월호.
- 한만길, “북한 이해를 위한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학교 통일교육의 내실화 방안』 (통일정보신문 제1회 학교 통일교육 세미나 논문집, 1999.
- “학교통일교육의 현실과 과제-정치적 제약 벗어내고 네트워크화 해야 한다-”, 통일한국, 통권 205호, 2001년 1월.
- 황영배, “통일비용과 제도적 호환성 : 독일통일의 경험과 김대중 정부 국내정책적 함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통일조건과 인문』 (한국언론재단·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12. 4.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 중·고생의 통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2000. 7. 20.
- 각 교육대학교별 학교편람 또는 요람(2000년).
- 통일부 웹사이트(<http://www.unikorea.go.kr>)
- 통일교육원 웹사이트(<http://www.uniedu.go.kr>)

# 우리나라 대학의 통일교육과 대학생의 통일의식 변화

- 대학통일교육에 대한 정책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김 주 찬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 목 차

【요약문】 .....	93
1. 서론 .....	95
2. 의식조사 분석 : 북한에 대한 인식 .....	99
3. 의식조사 분석 : 북한관 .....	103
4. 의식조사 분석 : 통일관 .....	109
5. 의식조사 분석 :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	118
6. 결론 및 정책제언 .....	126
※ 설문지 .....	130
※ 참고문헌 .....	135





## 【요약문】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우리사회에서는 남북한의 장래와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특히 대학 사회에서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 바 있다. 이 연구는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될 대학생 계층, 특히 통일 관련 교과목 수강생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대학 통일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로 교양과목 형태로 운영되는 통일 및 북한 관련 교과목 수강생들의 경우 이러한 과목을 수강한다는 자체만으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해 상대적 관심이 높은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관련 교과목 수강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적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이들에 장차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비단 이들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강사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통일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들 관련 교과목 수강생들에 대한 통일관, 북한관등의 의식 조사에 기초하여 정부의 대학 통일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 6개대학의 관련 강좌 수강생에 대해 집단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된 관심 영역은 수강생들의 통일관, 북한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교과목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의 4개 부문으로 이루어 졌다. 아울러 일부 수강생 및 관련 교과목 교·강사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심층적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영역별로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체제나 남북한 체제의 차이점,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 전달경로로는 TV, 신문등의 매체와 함께 관련 교과목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이들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북한의 경제체제나 정치체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던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이번 조사에서도 발견되었으며 특히 통일의 당위성에 회의적 견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견해는 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회의적 견해는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에게 더욱 넓

게 퍼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밖의 배경변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대북 지원 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은 통일교육을 통해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이 제시되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체적인 강의 형태로는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의 기회가 확대되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통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관련 연구자들의 확고한 방향제시가 필요한 부분이며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에 대한 정보의 습득방법과 이러한 정보의 활용방법에 대한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수강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재, 사이버 강좌의 개설, 인터넷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인터넷 콘텐츠의 개발 등은 개별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체험학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현장 방문의 기회를 통하여 분단의 현실을 실감있게 이해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강의실에서 토론되었던 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통일의 당위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넷째, 분야별 전문 강사진이나 공무원 강사진을 구성하여 대학의 통일교육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제 대학 현장의 통일교육을 많은 부분 담당하고 있는 관련 교과목 시간강사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우리사회에서는 남북한의 장래와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특히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의 남북 문제에 대한 관심은 지난 1년간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어 다양한 종류의 세미나와 동아리 활동 그리고 각종 집회나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NGO활동에의 참여를 통하여 구체화된 바 있다. 이에 부응하여 각 대학에서는 북한 및 통일 관련 강좌의 증설을 통해 접증하는 대학생들의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바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대학생들에 대한 통일 및 북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 통일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sup>1)</sup>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의 북한관이나 통일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일관련 교과목 수강생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별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현재 대학에서의 통일 및 북한관련 교육은 전공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 북한 학과를 통한 교육, 그리고 교양과목의 개설을 통한 교육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그밖에도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을 통한 교육, 그리고 학생 자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한 교육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교양과목의 개설을 통한 통일교육의 경우 70%이상의 대학교에서 강좌를 개설하고 있을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개 과목 이상의 강좌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도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1999). 이들 통일과목 교과목들은 많은 경우 교양선택 과목으로서, 이러한 과목을 수강한다는 것 자체가 통일 및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다른 학생들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교과목 수강생들이 과목 수강을 통해 북한이나 통일 관련 지식이나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이러한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간의 차

1) 우리 정부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반 교육"이라 정의하고 그 목표로서 첫째,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의 정립, 둘째,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셋째,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의지 함양의 세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통일부, 2001)

이는 없는지 또 이들 과목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은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통일교육의 유용성과 효과를 통일 및 북한 관련 교양과목 수강생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보고 이들 통일 관련 과목 수강생들의 통일관이나 북한관을 조사하여 봄으로써 향후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과 정부의 통일교육 지원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주요내용

이 연구에서는 통일 및 북한 관련 수강생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와 지식, 북한관, 통일관 등을 조사하여 보고 아울러 현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수강생들의 평가를 조사해 보았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과 정부의 대학 통일교육 지원 정책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 1.3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연구에서는 통일교육 및 북한학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특히 기존에 실시된 각종 의식 조사나 여론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통일 및 북한 관련 교과목 수강 대학생들에 대한 조사자료의 기초로 삼았다. 또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강사와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는 노력과 함께 설문지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관련 과목 수강생에 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 1.3.1. 표집

관련과목 수강생의 통일 및 북한관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6개대학의 관련 교과목 수강생을 조사대상으로 표집하여 집단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 교과목 수강이후의 의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 조사대상에 대해 학기말에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차조사와 2차조사의 조사간격이 짧았던 관계로 조사 결과의 시험효과가 작용하여 내적타당도가 낮아졌다고 판단하여 2차 설문조사는 이 연구에서는 일부분에 한하여 활용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2001년 4월 23일-27일 일주

간에 걸쳐 2차 설문조사는 6월4일-8일 일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 1.3.2. 조사도구

이 설문조사의 주된 관심사는 관련과목 수강생들의 통일관, 북한관, 그리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와 아울러 관련 교과목의 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설문지에서도 이러한 네가지 영역과 관련된 문항을 제시하였다. 각각을 구성하는 하위 문항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 대한 인식 :

북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주요 출처,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 북한의 사정에 대한 평가,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 북한의 지도층과 주민에 대한 태도

둘째, 통일에 대한 인식 :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 예상시기, 통일 후 사회의 모습에 대한 인식 등

셋째,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

포용정책에 대한 일반적 평가, 실효성 평가, 각종 대북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등

넷째, 통일 교육에 대한 평가 :

수강 교과목에 대한 평가,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강의 방식에 대한 평가,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수업 방식등

다섯째, 배경변인에 대한 조사 :

성별 (남, 여), 전공 (인문, 사회, 상경, 자연, 예체능등 기타), 학년, 부모님 고향

### 1.3.3. 설문 및 면접방법

설문은 실제 조사에 앞서 조사항목을 크게 4개 항목으로 구분한 다음 분야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을 작성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본 조사에 앞서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문을 수정하여 최종문항을 확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4월말에 서울·경기지역 6개 대학의<sup>2)</sup> 통일 및 북한관련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집단 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남학생은 54.1% 여학생은 45.9%를 차지하고 있고 학년별로는 2학년 학생들의 비율

2) 6개 대학은 연세대, 명지대, 숙명여대, 경희대, 경기대, 성균관대학이다.

이 높고 전공별로는 사회계열 학생이 47.7%로 가장 많았고 경상, 인문 계열의 순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통일 및 북한 관련 과목이 교양 선택과목으로 개설되는 강좌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전공별로도 사회계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항 목	사태수	%
성별	남자	180	54.1
	여자	153	45.9
학년별	1학년	71	21.3
	2학년	114	34.2
	3학년	69	20.7
	4학년	79	23.7
전공별	인문	42	12.6
	사회	159	47.7
	자연·공학	31	9.3
	상경	53	15.9
	예체능	25	7.5
	의학·기타	22	6.6
부모님고향	서울/경기/강원	96	28.9
	대전/충청	47	14.2
	광주/전라	93	27.9
	대구/부산/경상	80	24.1
	북한/제주/기타	16	4.8

#### 1.3.4 통계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개개의 설문지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코딩하여 퍼스널 컴퓨터에서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항목별로 기본빈도(frequency)를 구하고 각각의 문항에 대한 배경변인별 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위한 배경변인으로는 성별, 전공별 배경변인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학년별, 부모님의 출신고향별 배경변인도 사용하였으나 본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 한하여 표를 제시하고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 2. 의식조사 분석 : 북한에 대한 인식

대학 통일교육의 목표는 수강생 스스로가 분단 현실이나, 북한 실상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정책등에 대한 균형있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강생 스스로가 통일 및 북한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또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지 등은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대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모습에 대한 수강생의 인식을 통해서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스스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평가해 보고 이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통일교육에 있어서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해 보기로 한다.

우선 북한에 대한 지식 습득 경로를 알아보았다. 북한에 대한 지식을 얻는 창구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복수로 응답케 한 결과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T.V.를 통해 북한관련 지식과 정보를 얻어진다고 응답하고 신문을 통한 지식습득은 57%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대중매체의 북한 관련 정보 전달체로서의 위력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특히 TV방송에서 제공되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실시된 1061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TV가 약 70%로 다수를 점하고 있고 신문이 17.5%로서 신문과 TV를 합하면 절대 다수가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학교 정규수업을 통한 지식습득은 45%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로 학교교육이 정보 전달 경로로서 활용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조사대상자가 북한이나 통일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임을 감안할 때 학교 정규수업이 북한에 대한 정보획득의 창구로서 T.V. 나 신문등의 미디어보다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언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교육 현장에서의 북한, 통일 교육 교·강사들이 최신의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에 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경우 12.3%의 응답자가 정보획득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학교 정규수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다른 매체와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발전속도와 인터넷 콘텐츠의 다양화 정도를 고려해 보면 향후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2〉 북한 관련 정보와 지식의 습득 경로

		빈도수	비율(%)
구 분	학교 정규수업	150	45.0
	동아리 활동	8	2.4
	신문	192	57.7
	TV	218	65.5
	라디오	6	1.8
	멀티미디어(인터넷, 통신)	41	12.3
	사회단체	7	2.1
	가족, 친척	4	1.2
	친구	6	1.8
	기타	12	3.6
	합계	644	100.0
합 계		644	100.0

현재 각 대학에서 사이버 강좌의 개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통일 및 북한 교육도 사이버 강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 강의를 다양한 매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대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시청각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교재 개발은 개개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강사 수준에서의 개발과 함께 정부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담당 교·강사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강의를 이루어질 것이다.<sup>3)</sup>

예를 들어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를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통일부에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를 200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통일교육원, 열린통일강좌, 대학통일연구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대학통일연구는 통일 및 북한 관련 학

3) 2001년 통일교육 기본지침서에서도 사이버 교육의 중요성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북한 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로 국내외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의 다양한 자료 은행과의 연결이 가능하며 자료공급에 있어서 일방 통행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 점차 무관심 내지 냉소적 경향을 보이는 신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 및 흥미를 유도해 통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이버 통일교육이 중요하다.」



자의 논문을 소개하여 관련 학자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북한 관련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통일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각종 인터넷 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교과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 교안을 만들어 제공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담고 있는 논문을 자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미 제기된 바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간접 체험 학습 (통일부, 2000) 방법은 디지털시대의 대학 교육의 새로운 통일교육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학습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 통일부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관련 수업이나 학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 진다면 현재 통일·북한 관련 교과목 수강생들 조차 학교 정규수업이나 T.V.를 통한 수동적인 자세로 북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을 탈피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수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습득한 북한 사회에 관한 일반적 지식과 남북한 사회의 차이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 지를 묻은 결과 북한 및 통일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자신들이 북한사회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수강생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의 하나는 그동안 우리의 통일교육이 북한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이념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북한에 대한 기술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남북한 사회의 차이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표 3>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그 차이점에 대해 많이 혹은 약간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고 나머지 응답자의 경우 그 차이점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성별, 혹은 전공별 배경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남북한 사회체제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교육이 현장에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교육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남북한 체제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통일교육의 목표를 종전의 반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을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포용하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대학에서의 통일 교육, 북한 교육은 우선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체제, 북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그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표 3〉 남북한 사회의 차이점에 대한 지식 정도4)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많이 알고 있다	19	5.7	5.8
	약간 알고 있다	168	50.5	57.0
	그저 그렇다	113	33.9	91.5
	거의 모른다	26	7.8	99.4
	전혀 모른다	2	.6	100.0
	합계	328	98.5	
합 계		333	100.0	

이와 관련하여 북한체제와 지도층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평가하게 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35% 정도만이 어느 정도 혹은 많이 알고 있다고 답하여 북한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배경변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북한체제와 지도층에 대한 지식 정도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많이 알고 있다	9	2.7	2.7
	약간 알고 있다	110	33.0	36.2
	그저 그렇다	115	34.5	71.1
	거의 모른다	84	25.2	96.7
	전혀 모른다	11	3.3	100.0
	합계	329	98.8	
합 계		333	100.0	

그러나 북한 주민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표 5〉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43.8%가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북정상회담이후 언론매체에서 북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보도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언론매체의 북한 바로알기 기획기사가 강화된 것이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문항 역시 응답자의 배경변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비율은 단순비율을 사용하고 누적비율은 유효누적비율을 사용하였다.

〈표 5〉 북한주민의 생활상에 대한 지식 정도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많이 알고 있다	8	2.4	2.4
	약간 알고 있다	136	40.8	43.8
	그저 그렇다	115	34.5	78.7
	거의 모른다	64	19.2	98.2
	전혀 모른다	6	1.8	100.0
	합계	329	98.8	
합 계		333	100.0	

마지막으로 정부의 통일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보았다.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표 6〉에서 제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인지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성 별		Total
		남	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13 7.3%	5 3.3%	18 5.5%
	약간 알고 있다.	94 52.8%	54 35.8%	148 45.0%
	그저 그렇다.	52 29.2%	70 46.4%	122 37.1%
	거의 모른다.	16 9.0%	21 13.9%	37 11.2%
	전혀 모른다.	3 1.7%	1 0.7%	4 1.2%
합 계		178 100.0%	151 100.0%	329 100.0%

유의도 :  $\chi^2=16.594$   $p=.002$   $df=4$

### 3. 의식조사 분석 : 북한관

#### 3.1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체계는 현실적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는 경쟁대상이며 특히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로운 수단을 통한 민족단일국가 형성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북한이 그것일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수준이나 지식수준과는 별개로 북한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을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 지도층, 일반주민, 경제 상황, 북한의 미래에 대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보았다.

이러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우선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 75% 이상의 응답자들이 약간 나쁘거나, 매우 나쁜 정치체제라고 평가하고 있고 경제 체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율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표 7> 및 <표 8> 참조). 북한의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정치체제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2%에 불과하고 경제체제의 경우 2.1%에 불과하여 북한 체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은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없이 공통된 견해였다.

〈표 7〉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견해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매우 좋다	2	.6	.6
	약간 좋다	12	3.6	4.2
	그저 그렇다	65	19.5	23.8
	약간 나쁘다	95	28.5	52.4
	매우 나쁘다	158	47.4	100.0
	합 계	332	99.7	
합 계		333	100.0	

〈표 8〉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한 견해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매우 좋다	1	.3	.3
	약간 좋다	6	1.8	2.1
	그저 그렇다	19	5.7	7.9
	약간 나쁘다	71	21.3	29.3
	매우 나쁘다	234	70.3	100.0
	합계	331	99.4	
합 계		333	100.0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의료사정,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약간 나쁘거나 매우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12 참조). 북한의 경제상황 등이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라는 견해는 최근 북한의 경제난과 정치상황이 외부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그 실상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9〉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약간 좋다	1	.3	.3
	그저 그렇다	7	2.1	2.4
	약간 나쁘다	46	13.8	16.3
	매우 나쁘다	276	82.9	99.7
	합계	331	99.4	
합 계		333	100.0	

〈표 10〉 북한의 의료사정에 대한 의견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약간 좋다	4	1.2	1.2
	그저 그렇다	19	5.7	7.0
	약간 나쁘다	71	21.3	28.5
	매우 나쁘다	236	70.9	100.0
	합계	330	99.1	
합 계		333	100.0	

〈표 11〉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의견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약간 좋다	1	.3	.3
	그저 그렇다	7	2.1	2.4
	약간 나쁘다	51	15.3	17.8
	매우 나쁘다	272	81.7	100.0
	합계	331	99.4	
합 계		333	100.0	

〈표 12〉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의견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매우 좋다	1	.3	.3
	약간 좋다	4	1.2	1.5
	그저 그렇다	26	7.8	9.4
	약간 나쁘다	68	20.4	30.1
	매우 나쁘다	230	69.1	100.0
	합계	329	98.8	
합 계		333	100.0	

북한의 장래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도 〈표 13〉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75% 이상이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북한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0년도에 실시한 안완기의 조사시 북한체제의 장래에 대해 “경제난을 극복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응답,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20.9%에 불과한 반면 “겨우 생존해 나갈 것이다” (45.2%), “경제난으로 붕괴할 것이다” (27.2%)라는 판단이 주류를 이루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북한의 장래에 대한 젊은층의 부정적 인식이 남북교류나 협력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형성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표 13〉 북한의 장래에 대한 견해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매우 좋다	2	.6	.6
	약간 좋다	23	6.9	7.6
	그저 그렇다	56	16.8	24.5
	약간 나쁘다	121	36.3	61.2
	매우 나쁘다	128	38.4	100.0
	합계	330	99.1	
합 계		333	100.0	

### 3.2 북한 지도층과 주민에 대한 생각

북한체제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이 김정일을 비롯한 현 지도층에 대한 평가와 일반 주민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두 계층을 분

리하여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았다.

북한체제와 현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북한의 지도층에 대해서도 <표 14>와 같이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그 강도에 있어서는 과거의 조사보다 훨씬 약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의 지도층에 대한 응답자의 느낌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경계하고 싸워야할 대상”, “별 관련 없는 다른 나라 사람”,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할 이웃”, 그리고 “별 느낌이 없다”는 의견에 고루 분포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사한 설문문항이 들어있었던 1999년 조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9년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대학생의 56.4%가 북한의 지도층을 경계하고 싸워야할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25.6%의 응답자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평가는 남북관계의 진전여부에 따른 조사시점의 차이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과 지도층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번 조사대상자가 북한 및 통일관련 교과목 수강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과목에 대한 수강을 통해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5)</sup>

<표 14> 북한의 지도층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매우 좋다	14	4.2	4.2
	약간 좋다	18	5.4	9.7
	그저 그렇다	51	15.3	25.2
	약간 나쁘다	89	26.7	52.1
	매우 나쁘다	158	47.4	100.0
	합계	330	99.1	
합 계		333	100.0	

5) 직접적인 비교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만 현 정부 출범이전과 청년층과 현재의 청년층의 의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민족통일연구원 (현 통일연구원)이 1995년도에 실시한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시 조사한 유사한 질문에 당시의 20대들이 어떻게 응답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20대 응답자의 38.9%로 가장 많았으며 협력대상(34.1%), 지원대상(13.6%), 적대대상(9.8%), 경쟁대상(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을 지원 또는 협력의 대상으로 긍정적 인식을 가진 20대와 경계, 경쟁, 적대 대상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을 가진 20대가 반반 정도로 조사된 바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11~14

북한의 지도층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학생과 주민을 비롯한 보통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조사대상자에게 물어보았다. 기대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보통주민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조사대상자의 70%에 달하고 있다.<sup>6)</sup> 이는 <표 14>와 <표 15>의 비교를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는 바 북한의 일반주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북한의 지도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의 삼분의 일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이는 북한의 지도층에 대해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 생각하는 비율 20%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대학생들이 북한 지도층과 북한의 주민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정향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표 15>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통일관련 교과목 수강생들이 남북문제를 국가 중심적 시각보다는 민족 중심적 시각에서 보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중심적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경우 대북정책의 중심이 북한 주민에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정책은 유화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지지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sup>7)</sup>

<표 15> 북한의 일반주민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매우 좋다	9	2.7	2.7
	약간 좋다	62	18.6	21.6
	그저 그렇다	164	49.2	71.6
	약간 나쁘다	44	13.2	85.1
	매우 나쁘다	49	14.7	100.0
	합계	328	98.5	
합 계		333	100.0	

6) 안완기(2000)의 연구에서 2000년에 실시한 대학생의 의식조사에 의하면 북한체제를 협력 혹은 지원대상으로 보는 긍정적 인식의 비율이 75.5%로 경계 혹은 적대적 대상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의 비율 18.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는 대 북한인식이 지속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김기정 (2000)은 한국사회내의 북한과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을 독립된 국가간의 관계로 보는 국가중심적 패러다임 (state-centric) 과 민족간의 내부문제로 보는 민족중심적 패러다임 (nation-centric)으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15-1〉 북한의 일반주민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성별)

		성 별		Total
		남자	여자	
북한의 일반주민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매우 좋다	7 4.0%	2 1.3%	9 2.7%
	약간 좋다	35 19.8%	27 17.9%	62 18.9%
	그저 그렇다	83 46.9%	81 53.6%	164 50.0%
	약간 나쁘다	27 15.3%	17 11.3%	44 13.4%
	매우 나쁘다	25 14.1%	24 15.9%	49 14.9%
합 계		177 100.0%	151 100.0%	328 100.0%

유의도 :  $\chi^2=4.092$   $p=.0394$   $df=4$

그러나 1999년의 조사와 비교해 보면 당시 조사대상 대학생의 90%가 북한의 보통주민에 대해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 생각하였던 것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호의적 감정을 보이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이 있는 반면 별 느낌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다른나라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비율 역시 30%에 달하고 있다. 이는 많은 조사대상자들의 북한 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 4. 의식조사 분석 : 통일관

통일, 북한 관련 교과목 수강생들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관심은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통일의 시기와 통일후의 사회상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조사하여 보았다. 이 조사결과와 선행 연구들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먼저 통일에 대한 관심도 측정을 위해서 통일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한 대

화의 빈도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43.5% 정도는 가끔 또는 자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위의 친구들과 대화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응답자의 경우는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들이 자신들의 장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될 통일이나 북한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2-3년간 남북한 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변화과정을 겪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들 조사대상자의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실시된 비슷한 조사에서 20대 응답자의 42%가 북한에 대해서 자주 (4.3%) 혹은 가끔(37.7%) 대화를 나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여도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민족통일연구원 1995).

통일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무관심 혹은 “탈통일의식” (이현근 2000)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신세대들의 특징을 반영 통일문제가 “나”의 문제화 되기에는 무거운 것으로 느끼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당위론적 통일교육이 갖는 한계의 하나로서 나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에는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갖는 신세대들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관심한 경향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수행 방식에 그 원인의 일부가 있을 수 있다. 현 정부의 포용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북정책의 구체적 수행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비판이 중심에는 개개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파적 이해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다. 대북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방관자적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며 특히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대학생 세층의 무관심은 국가의 장래를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대학생 세층의 체계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통일 및 북한 관련 교과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통일이나 북한 문제의 정책 수립에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이들 관련 교과목에 초빙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한다던가 관련 교과목 수강생을 남북대화 사무국이나 통일교육원에 초청하여 남북대화의 진행상황과 준비과정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면 보다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6〉 통일, 북한문제에 대한 대화빈도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자주 한다	12	3.6	3.6
	가끔 한다	133	39.9	43.5
	거의 하지 않는다	161	48.3	91.9
	전혀 하지 않는다	26	7.8	99.7
	합 계	333	100.0	

## 4.2 통일의 당위성과 시기

많은 여론 조사에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설문을 하고 있지만 민족적 과제인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비율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당위성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단일 국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의 분단상황이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일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 현재의 분단상황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통일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형성은 우리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우리시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태도를 물어보는 경우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통일이후의 후유증을 예상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견해가 상당수 나타나는 것이 상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표 17〉에서와 같이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조사대상자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9.2%를 점하고 있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의식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설문 문항의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199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조사대상 대학생의 73%가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1995년의 전국민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20대 응답자의 의식에서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율이 55.2%.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비율은 38.6%로 조사된 바 있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가 오히려 과거보다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과거의 조사와 조사대상이나 설문 문항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회의는 북한 체제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북한 사회의 실상이 공개 되면서 통일 후 경제·사회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7〉 통일에 대한 견해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만드시 이루어야 한다	150	45.0	45.0
	되면 좋지만 만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64	49.2	94.3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9	2.7	97.0
	관심이 없다	7	2.1	99.1
	모르겠다	3	.9	100.0
	합 계	333	100.0	

		성 별		Total
		남	여	
통일에 대한 견해	만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93	57	150
		51.7%	37.3%	45.0%
	되면 좋지만 만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79	85	164
		43.9%	55.6%	49.2%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4	5	9
		2.2%	3.3%	2.7%
관심 없다.	3	4	7	
	1.7%	2.6%	2.1%	
모르겠다.	1	2	3	
	0.6%	1.3%	0.9%	
합 계		180	153	333
		100.0%	100.0%	100.0%

이러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견해는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보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51.7%)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통일이 만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높은 비율 (55.6%)을 차지하고 있다. 학년별로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견해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2 학년 학생들의 경우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40%정도인 반면 3,4 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같은 응답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년이 높을수록 통일의 당위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관념적인 당위론의 차원만으로는 더 이상 자라나는 젊은 세대를 교육시킬 수 없음을 감안하여 통일 후의 미래상에 대한 분명한 제시를 통하여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교과목을 통해서 수강생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은 한반도의 안보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측면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남북은 공히 군비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안보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남한의 경우 2000년도 국방예산이 14조5천억원에 달해 GDP대비 3.1%를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GDP대비 국방비 비율이 무려 14.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방부 2000). 이와같이 국방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외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요인의 제거내지는 완화를 위한 각종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쟁위험의 상존으로 인한 기회 상실의 비용 크기도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남북 분단과 교류 단절 상황이 초래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탐구, 언어의 이질화 문제, 문화적 이질화 문제, 더 나아가 민족 이질화 문제등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산의 아픔을 직접 느끼기 어려운 교과목 수강생들로 하여금 적십자사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의 가족사를 면접을 통하여 듣고 관련 역사자료를 조사하게 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분단이 초래한 비인도적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회의적 태도는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한 설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이상시기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20년 이상 혹은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견해가 각각 40.8%와 5.4%를 집하고 있어 기존의 선행연구 보다는 훨씬 비관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5년 이내 혹은 1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는 전체 응답자의 14.4%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1999년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인 35%보다도 훨씬 줄어든 수치이다. 1993년도 통일연구원의 전국민 대상 조사에서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본 응답자의 비율 45.1%에는 많이 못 미치는 수치이며 1995년도 전국민 여론조사에서 20대 응답자의 76.4%가 20년

이러한 의견은 통일 이후에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할 경제·사회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향은 성별로 보았을 때 앞의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3분의 2의 조사대상자가 대체로 삶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도 8%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문계열 전공학생들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70% 정도의 인문계열 전공학생들이 삶이 어려워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응답자는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과 통일 이후 그 후유증을 극복하고 북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남한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위 통일비용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그 크기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비용에 못지 않게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것은 분단에 따른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르는 부정적인 대가를 “분단비용”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 누적된 이 비용 역시 엄청난 규모이며, 또 향후 지불해야할 규모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분단비용”이란 통일상황과 비교할 때 훨씬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 하는 국방비 등과 같이 계산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 영향을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여론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분단비용의 크기와 통일 비용의 부담분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곳으로 판단된다.<sup>8)</sup> 따라서 이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통일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통일 이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위해 통일세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북한·통일 관련 교과목 수강생들의 견해를 조사하여 보았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42.8%는 통일세 징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편 35% 정도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통일비용 부담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8) 1995년도 민족통일연구원 (현 통일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통일일방과 통일비용 부담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통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견해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 그 결과 “전적으로 동의” 혹은 “동의하는 편”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은 조사대상자의 69.5%를 차지하였고 “대체로 반대하는 편”과 “절대반대”의 부정적 반응은 30.5%로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통일비용에 상관없이 빠른 통일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pp.108~110)

〈표 20〉 통일후 통일세 징수에 대한 의견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적극 찬성한다	13	3.9	3.9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129	38.7	42.8
	그저 그렇다	74	22.2	65.1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88	26.4	91.6
	절대 반대한다	28	8.4	100.0
	합계	332	99.7	
합 계		333	100.0	

이러한 긍정적인 성향은 남학생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들의 경우 통일세 징수에 긍정적인 의견은 조사대상자의 3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과반수가 넘는 비율이 통일세 징수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년별로 살펴보면 1,2학년 학생들의 경우 통일세 징수에 긍정적인 비율이 40%미만인 반면 4학년 학생들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통일세 징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9년 조사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통일세 징수에 긍정적인 비율이 많아지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현실적 안목이 높아질수록 통일세 징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당위론적 통일론보다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이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우리의 부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방향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에서 통일을 위한 통일비용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분단에 따른 비용, 즉 “분단비용”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통일비용에 부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통일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일 비용의 크기와 분단비용의 크기를 비교하고 통일비용의 생산적 측면과 분단비용의 소비적 측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세 징수가 불가피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소득에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았다. 물론 이들 대학생들이 현재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계층은 아니라는 점에서 설문 문항의 타당성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으나 대학생들의 의식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방형 설문으로 조사된 이 문항에 대해 가장 많은 응

답자가 본인 소득의 3%정도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21.9%) 그 뒤로 1%(18.9%), 2%(18.3%) 정도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5. 의식조사 분석 :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무력도발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와 협력의 적극추진’이라는 3대 추진 원칙을 근간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남북한간의 평화체제 구축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포용정책은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관계를 발전적이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sup>9)</sup>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시작하여 6.15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2000년 하반기 동안 세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과 네차례의 남북 장관급 회담, 국방장관 회담 등으로 구체화되었으나 현재 김정일 위원장의 담방 문제를 두고 소강상태에 있는 국면이라 할 것이다. 양측이 쉽게 합의한 바 있는 경의선 철도 복원 공사도 북측지역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미, 북-일 간의 관계개선도 담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을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지원 문제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전력지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 문제도 남한의 경제상황을 고려, 그 재원 조달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남한 정부가 일방적 지원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결과 현재 우리사회는 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시각차이로 인한 소위 남·남 갈등을 겪고 있다. 가깝게는 8.15 축전에 참가한 일부 남측 참가자들의 행태로 소위 남남 갈등이 표면화되었지만 그 근원은 북한에 대한 현 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9)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정부의 공식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은 안보와 대화라는 이중적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으로서, 남북관계를 특징짓는 현재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이중적인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이다.』 (통일부, 2001)



## 5.1 포용 정책에 대한 평가

이번 조사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현 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대북 지원사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63.6%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비율은 7.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견해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 조사대상 남학생의 70%이상이 현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55%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른 설문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부모님 고향"의 배경 변수에서 부모님 고향이 전라남·북도인 경우 그 지지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74%) 현 정부의 지역적 지지기반인 전라남·북도 출신들의 대북한 정책 지지도가 타 지역 출신 학생들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 현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견해

		빈도수	비율(%)	유효누적비율(%)
구분	매우 바람직하다	50	15.0	15.1
	바람직하다	161	48.3	63.6
	그저 그렇다(보통이다)	92	27.6	91.3
	바람직하지 않다	17	5.1	96.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7	2.1	98.5
	잘 모르겠다	5	1.5	100.0
	합계	332	99.7	
합계		333	100.0	

		성 별		Total
		남	여	
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견해	매우 바람직하다	34	16	50
		18.9%	10.5%	15.1%
	바람직하다	93	68	161
		51.7%	44.7%	48.5%
그저 그렇다	41	51	92	
	22.8%	33.6%	27.7%	
바람직하지 않다	7	10	17	
	3.9%	6.6%	5.1%	

		성 별		Total
		남	여	
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견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3 1.7%	4 2.6%	7 2.1%
	잘 모르겠다	2 1.1%	3 2.0%	5 1.5%
Total		180	152	332
		100.0%	100.0%	100.0%

유의도 :  $\chi^2 = 10.031$   $p = .074$   $df = 5$

한편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와는 관계없이 현정부의 대북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으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남북한간의 긴장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80.2%가 어느 정도 이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북 정책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진 학생들(63.6%)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그 실효성 자체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견해는 <표 22>에서와 같이 남학생들 사이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서 조사대상 남학생의 90% 가까이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 실효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 원인을 “북한정부의 남한에 대한 인식변화가 없어 보여”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북한정부의 변화의지에 대한 회의적 견해는 학년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대북 정책의 전개과정을 상대적으로 주의 깊게 보아왔을 고학년 학생들의 북한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표 22> 포용정책의 남북긴장해소 기여여부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매우 그렇다	34	10.2	10.2
	어느 정도 그렇다	233	70.0	80.2
	별 실효가 없을 것이다	57	17.1	97.3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3	.9	98.2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이다	2	.6	98.8
	잘 모르겠다	4	1.2	100.0
	합 계	333	100.0	

〈표 22-1〉 포용정책의 남북긴장해소 기여여부 (성별)

		성 별		Total
		남	여	
정부정책이 긴장해소와 평화구축으로 이어질까	매우 그렇다	24	10	34
		13.3%	6.5%	10.2%
	어느 정도 그렇다	132	101	223
		73.3%	66.0%	70.0%
	별 실효가 없을 것이다	18	39	57
		10.0%	25.5%	17.1%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2	1	3
1.1%		0.7%	0.9%	
역효과가 있을 것이다.	1	1	2	
	0.6%	0.7%	0.6%	
잘 모르겠다	3	1	4	
	1.7%	0.7%	1.2%	
합 계		180	153	333
		100.0%	100.0%	100.0%

유의도 :  $\chi^2=16.881$   $p=.005$   $df=5$

〈표 22-2〉 포용정책이 실효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원인

		빈도수	비율(%)
구분	북한 정부의 남한에 대한 인식변화가 없어서	34	50.7
	남한 정부의 변화의지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20	29.9
	주변 강대국들의 반대로	5	7.5
	남북한 모두 실천의지가 없어서	8	11.9
	합계	67	100.0
합 계		333	100.0

## 5.2 북한의 변화가능성

통일 및 북한관련 교과목 수강생들이 변화하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고수하려는 입장을 강하게 취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체제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변화의 모습은 나진·선봉 지구에 대한 경제특구 지정이나 각 지방마다 등장하고 있는 상설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금강산

관광, 경의선 철도공사, 개성공단의 추진등 남한과의 경제교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998년 9월의 헌법개정에서는 경제관련 조항을 실용주의적으로 바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일부 2001). 이에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의 대학생들도 역시 최근 2-3년간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이 거의 변한 것이 없다는 견해는 모두 13.5%에 달하는 반면 많이, 혹은 약간 변하였다는 견해가 83.2%에 달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응답자의 배경변수에 따라서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1995년도의 민족통일연구원 조사와 비교해 보면 그 인식의 차이가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자중 북한의 변화정도를 묻는 같은 질문에 대하여 지난 2-3년 동안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다” 혹은 “약간 변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9.5%와 38.7%였고 그중 20대 응답자는 각각 10.2%와 45.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나머지 응답자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하여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과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2%가 변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북한의 변화정도를 지켜보는 응답자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북한의 변화 정도에 대한 변화론과 불변론, 또 이에따른 남북 관계의 진전에 대한 성과론과 경계론의 논쟁에 대해 일단 우리의 대학생들은 변화론, 성과론의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0)</sup>

〈표 23〉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견해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많이 변하고 있다	121	36.3	36.3
	약간 변하고 있다	156	46.8	83.2
	별로 변하지 않았다	38	11.4	94.6
	거의 변하지 않았다	7	2.1	96.7
	모르겠다	11	3.3	100.0
	합 계	333	100.0	

10) 변화론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본질적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으로 북측이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에 실현의지에 대해 신뢰하게 되었고 남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체제유지와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불변론은 북한의 유희적인 태도는 단지 체제와 병력의 유지를 위한 것이며 경제원조를 최대한 얻기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영수 2000, pp.43~55 참조)

### 5.3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대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는 구체적인 대북 정책들의 추진에도 긍정적인 태도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구체적 방안으로 6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개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sup>11)</sup>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4>에서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교류나 경제특구의 건설 등에 대한 견해는 90%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식량지원 문제나 전력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84.5% 와 70.5%의 응답자가 필요한 정책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견해들은 응답자의 배경변인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언론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는 전력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이산가족 서신교환등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그 필요성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장·노년층의 아픔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8> <표 29> 참조).

<표 24> 관광교류 정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매우 필요	90	27.0	27.5
	어느 정도 필요	205	61.6	90.2
	어느 정도 불필요	24	7.2	97.6
	매우 불필요	8	2.4	100.0
	합계	327	98.2	
합 계		333	100.0	

11) 대북 포용정책의 6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의 추구",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결지원",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남북대화를 통한 상호주의적 협력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통제 실현 노력" 등이다.

〈표 25〉 경제특구 건설에 관한 귀하의 생각은?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매우 필요	105	31.5	32.0
	어느 정도 필요	191	57.4	90.2
	어느 정도 불필요	22	6.6	97.0
	매우 불필요	10	3.0	100.0
	합계	328	98.5	
합 계		333	100.0	

〈표 26〉 대북정책중 식량지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매우 필요	80	24.0	24.3
	어느 정도 필요	198	59.5	84.5
	어느 정도 불필요	39	11.7	96.4
	매우 불필요	12	3.6	100.0
	합계	329	98.8	
합 계		333	100.0	

〈표 27〉 대북정책중 전력지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매우 필요	47	14.1	14.3
	어느 정도 필요	185	55.6	70.5
	어느 정도 불필요	78	23.4	94.2
	매우 불필요	19	5.7	100.0
	합계	329	98.8	
합 계		333	100.0	

		성 별		Total
		남	여	
대북정책중 전력지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매우 필요	35	12	47
		19.7%	7.9%	14.3%
	어느 정도 필요	94	91	1185
		52.8%	60.3%	56.2%
	어느정도 불필요	37	41	78
		20.8%	27.2*	23.7%
	매우 불필요	12	7	19
		6.7%	4.6%	5.8%
합 계		178	151	329
		100.0%	100.0%	100.0%

유의도 :  $\chi^2=10.681$   $p=.014$   $df=3$

〈표 28〉 대북정책중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매우 필요	266	79.9	80.9
	어느 정도 필요	55	16.5	97.6
	어느 정도 불필요	6	1.8	99.4
	매우 불필요	2	.6	100.0
	합계	329	98.8	
합 계		333	100.0	

〈표 29〉 대북정책중 이산가족 서신교환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빈도수	비율(%)	누적비율(%)
구분	매우 필요	271	81.4	82.4
	어느 정도 필요	51	15.3	97.9
	어느 정도 불필요	6	1.8	99.7
	매우 불필요	1	.3	100.0
	합계	329	98.8	
합 계		333	100.0	

## 6. 결론 및 정책제언

### 6.1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

통일 교육의 방향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 이미 이를 주제로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이 원하는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통일교육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수강생들이 통일교육을 통해 어떠한 지식과 비전을 갖추기를 원하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대비한 교육 중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2가지를 골라달라는 설문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으로 제시된 것은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한 교육으로 45.6%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통일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통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관련 연구자들의 확고한 방향제시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과의 공동 생활 방안에 대한 교육 역시 비슷한 비중(41.7%)으로 많은 응답자가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역시 통일 후 견게될 가치관의 혼란이나 사회의 혼란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는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역시 비슷한 비율로 많은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교육으로 42.6%의 응답자가 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표 30〉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필요한 것

		빈도수	비율(%)
구분	북한의 실상	111	33.3
	통일 이후의 상황	152	45.6
	독일과 같은 통일된 국가의 경험	72	21.6
	북한 주민들과의 공동생활 방안	139	41.7
	남북한의 통일정책	38	11.4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자세	142	42.6
	특별한 교육 필요 없음	3	1.0
합 계		333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통일교육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고 이 논문의 주된 관



심사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사를 통해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우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의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볼 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민족중심적인 관념론적 통일론으로는 북한에 대해 과거보다 개방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일 후의 미래상에 대한 분명한 비전 제시를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 6.2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북한 및 통일관련 강좌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수강생들과 관련 과목 교·강사들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알아보고 특히 정부의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자가 만나본 수강생들의 대부분은 강의 위주의 교육방식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이미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으로서 이론 중심의 교육과는 달리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학습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통일 및 북한 관련 과목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과목으로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정보의 습득방법과 이러한 정보의 활용방법에 대한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방법의 수업방식이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미 각 대학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강의의 활용을 통해 보다 폭 넓은 수강생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시청각 교재의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이루어 진다면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사이버 강의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개개의 수업 단위나 학교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은 판문점을 비롯한 관련 현장 방문의 기회를 통하여 분단의 현실을 실감있게 이해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강의실에서 토론되었던 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별도의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영화나 TV화면이외에 남북분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방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개봉된바 있는 JSA 와 같은 영화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어찌보면 조금은 낭만적인 북한관이 북한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 과목 수강생들에 대한 현장 체험 학습의 기회를 학교 혹은 정부 주선하에 실시할 수 있다면 그 교육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된다. 과거 정부하에 실시된 것과 같은 반공교육의 현장으로서의 체험학습이 아닌 분단을 체험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체험학습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체험 학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북한 동포 돕기 운동에 관련 수업 수강생들이 참여한 비율은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7% 정도에 불과해 이들 수업 수강생들도 각종 대북 관련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던가 각종 NGO 단체에서 북한 동포를 위한 행사가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활발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의 조사와 참여율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험위주, 실천위주의 통일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31> 북한동포 돕기운동 참여 여부

		빈도수	비율(%)
구분	있다	123	36.9
	없다	205	61.6
	합계	329	98.8
합 계		333	100.0

아울러 이들 교과목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강연이 보조적인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담당 과목 교강사들에게서 제기되었다. 특히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양 과목의 경우 다루고 있는 주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 전문가가 그 문제에 대해 특강 형식으로 참여해 준다면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학교에서 이미 이러한 특강이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등의 문제와 타 과목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들 과목에 대해서만 전문강사 활용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문학에 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면서 강의 할 수 있는 강사를 통일부나 통일교육원에서 확보하고 이들로 하

여급 원하는 대학의 관련 교과목에 초빙 강사 형식으로 한학기에 한, 두차례 출강토록 한다면 학생들의 북한 문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문 강사진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혹은 특정 분야에서 종사하던 북한이탈주민중 대학 교양 과정 정도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교육효과가 높아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 관련 교과목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특히 남북 대화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관련 공무원들의 참여는 현업에서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실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일교육 담당 부서에 이러한 외부 강의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선정,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중 남북대화 과정에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이 직책을 맡도록 한 후 대학교육 현장에서 이들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면 통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특기할 만한 점은 학생들의 교과목에 대한 불만은 시간 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양 과목에서 두드러진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만나본 시간강사의 대부분은 북한이나 통일 문제를 주전공으로 하기 보다는 정치학등을 전공하고 관련 교과목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경우 북한 및 통일관련 교과목을 여러학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담당하기 보다는 한 두학기정도의 관련 강의 경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교·강사들은 적절한 시청각 교재 부족과 학교나 관계당국의 지원 부족을 애로 사항으로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통일관련 교과목이 가진 특수성을 감안, 이들 통일 및 북한관련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방학기간중에 북한 및 통일관련 교과목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특별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과목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통일 및 북한 관련 연구자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관련 교과목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설문지 : 통일문제 여론조사

1. 귀하의 성별은?

\_\_\_\_\_ ① 남자                      \_\_\_\_\_ ② 여자

2. 귀하의 학년은?

\_\_\_\_\_ ① 1학년    \_\_\_\_\_ ② 2학년    \_\_\_\_\_ ③ 3학년    \_\_\_\_\_ ④ 4학년

3. 귀하의 전공은?

\_\_\_\_\_ ① 인문계열    \_\_\_\_\_ ② 사회계열    \_\_\_\_\_ ③ 자연계열    \_\_\_\_\_ ④ 공학계열  
 \_\_\_\_\_ ⑤ 상경계열    \_\_\_\_\_ ⑥ 예·체능계열    \_\_\_\_\_ ⑦ 의·치·약학계열  
 \_\_\_\_\_ ⑧ 기타

4. 귀하의 부모님의 고향은?(부모가 다른 경우 아버지의 고향)

\_\_\_\_\_ ① 북한지역                      \_\_\_\_\_ ② 서울·경기                      \_\_\_\_\_ ③ 강원도  
 \_\_\_\_\_ ④ 충청남북도                      \_\_\_\_\_ ⑤ 전라남북도                      \_\_\_\_\_ ⑥ 경상남북도  
 \_\_\_\_\_ ⑦ 제주도                              \_\_\_\_\_ ⑧ 기타

5. 주위의 친구들과 통일문제나 북한문제에 대해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_\_\_\_\_ ① 자주 한다.                              \_\_\_\_\_ ② 가끔 한다.  
 \_\_\_\_\_ ③ 거의 하지 않는다.                              \_\_\_\_\_ ④ 전혀 하지 않는다.

6. 귀하는 최근 2~3년 동안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많이 변하고 있다.                              \_\_\_\_\_ ② 약간 변하고 있다.  
 \_\_\_\_\_ ③ 별로 변하지 않았다.                              \_\_\_\_\_ ④ 거의 변하지 않았다.  
 \_\_\_\_\_ ⑤ 모르겠다.

7. 남북한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_\_\_\_\_ ②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_\_\_\_\_ ③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_\_\_\_\_ ④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  
 \_\_\_\_\_ ⑤ 모르겠다.

8.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5년 이내      \_\_\_\_\_ ② 10년 이내      \_\_\_\_\_ ③ 20년 이내  
 \_\_\_\_\_ ④ 20년 이상      \_\_\_\_\_ ⑤ 통일이 될 것 같지 않다.

9. 북한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현정부의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바람직하다.  
 \_\_\_\_\_ ② 바람직하다.  
 \_\_\_\_\_ ③ 그저 그렇다(보통이다.)  
 \_\_\_\_\_ ④ 바람직하지 않다.  
 \_\_\_\_\_ 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_\_\_\_\_ ⑥ 잘 모르겠다.

10.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으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한간의 긴장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그렇다.  
 \_\_\_\_\_ ② 어느 정도 그렇다.  
 \_\_\_\_\_ ③ 별 실효가 없을 것이다.  
 \_\_\_\_\_ ④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_\_\_\_\_ ⑤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이다.  
 \_\_\_\_\_ ⑥ 잘 모르겠다.

10-1. 10번에서 3, 4번에 답하신 경우 현정부의 정책이 실효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_\_\_\_\_ ① 북한 정부의 남한에 대한 인식변화가 없어 보여서.  
 \_\_\_\_\_ ② 남한 정부의 변화의지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아서  
 \_\_\_\_\_ ③ 주변 강대국들의 반대로  
 \_\_\_\_\_ ④ 남한내 대북 강경세력 때문에  
 \_\_\_\_\_ ⑤ 남북한 모두 실천의지가 없어서

11.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나아질 것이다.      \_\_\_\_\_ ② 대체로 나아질 것이다.  
 \_\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_ ④ 대체로 어려워질 것이다.  
 \_\_\_\_\_ ⑤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15. 북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주로 어떻게 얻습니까?(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_\_\_ ① 학교 정규수업                      \_\_\_ ② 동아리 활동
- \_\_\_ ③ 신문                                      \_\_\_ ④ TV
- \_\_\_ ⑤ 라디오                                    \_\_\_ ⑥ 멀티미디어: 인터넷 혹은 컴퓨터통신
- \_\_\_ ⑦ 사회단체                                \_\_\_ ⑧ 부모 형제 등의 가족, 친척
- \_\_\_ ⑨ 친구                                      \_\_\_ ⑩ 기타(구체적으로:                      )

16. 북한의 김정일을 비롯한 지도층에 대한 귀하의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 \_\_\_ ①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할 대상으로 느껴진다
- \_\_\_ ② 우리와 별 관련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처럼 느껴진다
- \_\_\_ ③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 느껴진다
- \_\_\_ ④ 별 느낌이 없다.

17. 북한의 학생과 주민을 비롯한 보통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할 대상으로 느껴진다
- \_\_\_ ② 우리와 관련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처럼 느껴진다
- \_\_\_ ③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할 이웃처럼 느껴진다
- \_\_\_ ④ 별 느낌이 없다

18. 북한동포 돕기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_\_\_ ① 참여한 적이 있다.                      \_\_\_ ② 참여한 적이 없다.

19.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북 정책들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③ 어느 정도 불필요하다고 생각	④ 매우 불필요하다고 생각
① 관광 교류				
② 경제특구 건설				
③ 식량지원				
④ 전력지원				
⑤ 이산가족 상봉				
⑥ 이산가족 서신교환				

20.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알고 있다.	② 약간 알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거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1)북한주민의 생활상					
(2)북한체제와 지도층					
(3)남북한 사회의 차이점					
(4)정부의 통일정책					
(5)통일사회의 모습					

21. 귀하는 통일에 대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의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개를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1. \_\_\_\_\_ 2. \_\_\_\_\_

- \_\_\_\_\_ ① 북한의 실상
- \_\_\_\_\_ ② 통일 이후의 상황
- \_\_\_\_\_ ③ 독일과 같이 통일된 국가의 경험
- \_\_\_\_\_ ④ 북한주민들과의 공동생활 방안
- \_\_\_\_\_ ⑤ 남북한의 통일정책
- \_\_\_\_\_ ⑥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자세
- \_\_\_\_\_ ⑦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음

21. 통일이후 귀하의 배우자가 북한출신이라면 다음 중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언어 차이
- \_\_\_\_\_ ② 생활습관의 차이
- \_\_\_\_\_ ③ 가족개념의 차이
- \_\_\_\_\_ ④ 여기선용
- \_\_\_\_\_ ⑤ 문제가 없을 것이다
- \_\_\_\_\_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 참고문헌 】

- 교육부,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통일 대비교육 방안의 모색』, 통일교육 세미나 자료, (서울: 교육부, 1998)
- 권세기, “통일한국의 사회 통합과 정치 교육” 한국 국제 정치학회 제3회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3.7.21-22)
- 권영경, “남북화해협력시대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통일교육원, 2000. 11.
- 김기정, “포용정책과 대북정책의 방향”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6. 20.
- 김 혁,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안적 이론 체계의 모색: 인식론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통일경제(현대 사회경제연구원), 1997. 3.
-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서경하, “한국대학의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 오수성, “통일 한국과 심리적 화합”, 『통일 이후의 사회와 생활』, (서울:미래인력 연구센터, 1996)
- 오인택, “통일 교육의 방향”, 이영선(편), 『통일 준비』, (서울: 오름, 1997)
- 이돈희, 한만길, 조난심, 『학교 통일교육 자료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6)
- 이우영 외,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 통일대비 태세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1997)
- 이종석, “남북한 정치 통합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정치학회, 남북한 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 정치학회, 1997)
- 인천대 평화통일 연구소, 21세기 한민족 통합론, 인천대 평화통일 연구소, 2000.
- 최진욱 외,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01)
-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01)

통일부, 『2001년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정책실, 2001)

통일부, 『통일의식조사에 기초한 통일교육 및 통일홍보방안』 (서울: 통일부, 2000)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7)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한국방송공사 (편), 『국민통일의식조사』, (서울: 한국방송공사, 1999)

#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이 창 식  
(한서대 부교수)

## 목 차

【요약문】 .....	13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41
2. 문헌 고찰 .....	142
3. 연구의 방법 .....	146
4.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149
5. 결론 및 제언 .....	194
※ 참고문헌 .....	196
※ 설문지 .....	198



## 【요약문】

이 연구는 통일 후 세대의 주역이 될 남북 청소년들의 이질감은 무엇이고, 이러한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의 가능성을 탐색한 다음, 청소년 자원봉사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 것인가를 조사하여, 이질감 해소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자료는 충남 서북부권의 H대학교, S고등학교, B중학교 3개교 688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기법은 Chi-square, t-test, F-통계량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남한 청소년들은 북한 청소년들이 경제적 고통과 정치적 억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 2) 북한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과 비교할 때 집단적, 협동적, 획일적, 과정적, 폐쇄적, 수동적, 예측적, 권위적, 이상적, 건전, 보수적, 무기력 및 단순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 3) 남북 청소년 교류방안 중 가장 적절한 방안은 인터넷 교류(28.5%)방안이었으며 다음으로 수학여행·관광(21.4%), 체육교류(14.9%), 청소년 자원봉사(12.5%) 순으로 나타났다.
- 4)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요구조사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 기간은 1~2주, 자원봉사 활동 영역은 농촌·장애인 시설 등에서 일손 돕기, 자원봉사활동 집단은 11~20명, 활동 장소는 남한과 북한의 두 곳, 자원봉사활동 시에 남북 청소년간 이질감 해소를 촉진할 수 있는 부수적인 활동은 체육대회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모형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은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도모하며, 목표는 집단적-개인적, 협동적-경쟁적, 획일적-다양성, 독주적-과정적, 폐쇄적-개방적, 수동적-능동적, 주체적-예속적, 권위적-자유주의, 이상적-현실적, 건전-퇴폐, 보수-진보, 무기력-의욕적, 단순-복잡 등 남북 청소년간 이질감이 큰 항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설정한다.
  - (2) 프로그램 내용으로서 자원봉사의 활동 영역은 농촌·장애인 시설 등에서 일손 돕기, 고아원·양로원 등에서 위문활동, 불우이웃 돕기 등 자선·구호활동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으로 한다.

- (3) 프로그램 방법으로 자원봉사활동 구성 인원은 11~20명, 자원봉사활동 장소는 남한과 북한의 두 곳, 봉사활동과 함께 체육대회, 문화제·유적지 탐방, 거리체험 등을 병행한다.
- (4) 프로그램의 평가는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과정 및 결과 평가를 실시한다.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정부의 일관된 햇볕정책은 남북 통일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를 맞고 있다.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수녀의 교환 방문 등은 통일의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사건들이다.

그러나 남북 분단이후 반세기 동안 남한과 북한은 각기 다른 정치, 사회, 문화적 토양으로 인하여 단일민족임을 무색케 할 정도로 상당 부분 이질화되었음에 틀림없다. 1997년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한반도 총인구의 84%가 분단이후 세대란 사실이 남북한간의 의식과 생활양식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공보처(1996)가 20세이상 남한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한 주민들의 94.6%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있어서 남북한간 이질감과 차이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생활방식(88.2%)과 언어생활(65.8%)에 대해서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요컨대 남북한은 집단주의적 사고 대 개인주의적 사고, 협동주의적 사회구조 대 상호 경쟁적 사회구조, 전체성의 가치구조 대 다양성의 가치구조, 목적 중시주의 사고 대 과정 중시주의 사고, 그리고 폐쇄적 사회구조 대 개방적 사회구조 등 대립되는 사고와 사회체제로 구분되어 있어,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촉발하고 있다(김동규, 2000:102~104).

이러한 남북한간의 이질감은 통일의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국가 통합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발달기의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신체의 발달은 물론 자아관, 가치관, 세계관 등을 정립하는 시기이며, 청소년기에 정립된 이러한 사고체계는 성인기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은 조만간 성사될지 모를 통일 후 세대의 주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통일의 시작은 기성세대가 하지만 통일의 완성은 지금의 청소년들일 수 있다(송광성, 1994:1). 실제 통일 독일의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이질감 해소 정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이상오, 2000:82).

그러나 남북 청소년 교류가 단순한 수행여행이나 청소년들의 축제행사로 진행될 경우 반세기 동안 형성된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 통일 독일의 경우도 이러한 노력들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바 있다(이상오, 2000:92).

한편 청소년 자원봉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의미와 주변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또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활동함으로써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깨우도록 하

는 청소년 활동의 하나이다(김정배, 1999:1).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인간존중, 공동체 의식함양, 이웃사랑 실천, 상부상조 정신함양, 정의감 구현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자원봉사는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 해소는 물론 더 나아가서 통일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자원봉사는 자발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가장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 어떤 다른 접근보다도 청소년 이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연구자들(김동일, 2000; 김동규, 2000; 조명승, 2000; 김정배, 1997)이 남북 청소년 교류와 이질감 해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청소년 자원봉사를 통한 이질감 해소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남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은 무엇이고, 이러한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의 가능성을 탐색한 다음, 청소년 자원봉사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 것인가를 조사하여, 이질감 해소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문헌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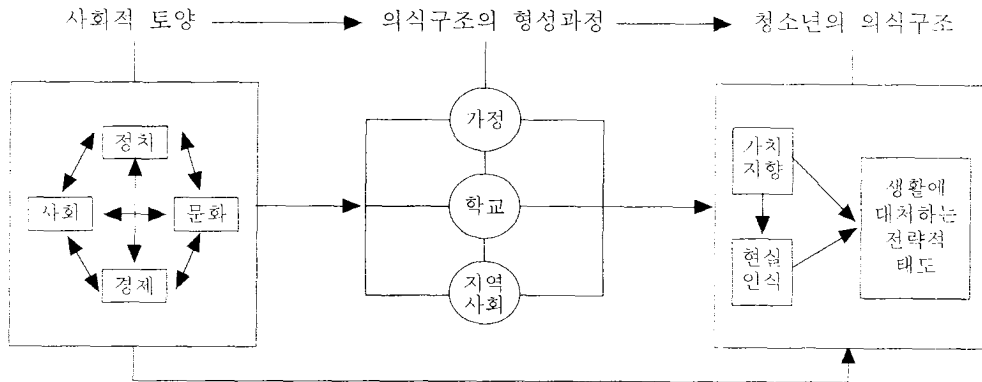
### 2.1 청소년 의식구조의 개념과 형성 배경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식구조의 차이이다(공보처, 1996). 의식구조란 자연 속의 인간의 위치, 인간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 대 자연, 인간관계 등에서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개념으로 정의한다(Kulckhohn, 1962). 황정규(1979)는 의식구조를 개인이 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사고 방향으로 정의하고 지각과 사고를 나타내는 인지적 의식구조와 태도, 가치관, 도덕성 등을 포함하는 정의적 의식구조로 나누었다.

이재창 등(1983)은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같은 총체적 사회적 토양 위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와 같은 의식구조 형성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가치지향과 현실인식이 생겨나고 또 각기 다른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적 태도가 생기는데 이와 같은 마지막 산물을 청소년의 의식구조라고 <그림 1>에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의식구조는 인식적 요소인 사회적



토양과 활동적 요소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 의식구조란 가치지향, 현실인식, 생활에서의 전략적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그림 1〉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배경 관련 모형(이재창 외, 1983)

위 그림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의 다른 사회적 토양은 결국 남북 청소년의 의식구조에 차이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이질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 2.2 남북 청소년 이질감

북한은 남한과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토양을 구성한다. 첫째, 북한의 정치적 토양은 (1) 당·국가체제의 구축, (2) 수령의 유일영도 체제화, (3) 김정일 체제 등장, 그리고 (4) 정치체제 하부구조로서의 청소년 조직과 활동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이원봉, 1996:106). 즉, 북한은 노동당이 라는 유일한 당이 국가를 조직하고 지배하며 당은 곧 국가라는 등식을 따라가고 있다.

둘째, 북한의 경제적 토양은 (1) 당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2)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의 배합, (3) 계획의 일원화·세분화 원칙, (4) 독립재산제의 원칙이다(이원봉, 1996:106). 이러한 경제체제는 사유재산의 인정, 균등한 자원배분, 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전제로 하는 남한 경제체제와 매우 다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사회적 토양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원봉, 1996:106).

(1)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고 단일정당에 의한 완전한 지배권이 확

립되어 있는 사회

- (2) 주체사상과 당의 유일 사상체계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획일적 사회
- (3) 집단주의적 원칙에 준거한 통제적 조직사회
- (4) 공산주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인간개조작업이 끊임없이 수행되는 사회
- (5) 새로운 유형의 계급사회가 형성되는 사회

이와 같은 북한 특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토양은 남한과 다른 의식구조를 형성하였다. 특히, 분단이후 세대 구성이 한반도 총인구의 84% (통계청, 1997)를 차지한다고 할 때 각기 다른 사회적 토양에서 성장한 남북의 세대가 의식구조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김동규(2000)는 가치관과 문화요인에서 남북한간 이질적 요소를 논의하였는데 북한은 집단주의적 사고태도, 협동주의적 사회구조, 전체성, 목적 중시주의, 폐쇄적 사회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반면 남한은 개인주의적 사고태도, 상호 경쟁적 사회구조, 다양성의 가치구조, 과정중시주의, 개방적 사회구조를 특징짓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치관과 문화요인은 결국 북한 주민에게 수동적 사고태도, 단순성, 지나친 주체성의 성격 특성을 형성시켰고, 반면 남한의 주민에게는 능동적 사고태도, 다양성, 지나친 예속성의 국민적 성격을 형성케 하였다.

실제적으로 공보처(1996)가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의 이질감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6%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서 이질감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방식 88.2%, 언어생활 65.8%로 반응하여 남한과 북한의 이질감은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질감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의식구조인 것이다.

또한 민족통일연구원(1995) 조사에 의하면 남북한간의 이질감은 89.0%가 언어에서 이질감이 나타날 것으로 반응하였고 다음으로 여가생활 82.1%, 직장생활 80.8%, 풍습 71.7%, 가족생활 69.6%로 응답하여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대하여 큰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이질감은 청소년의 의식구조로 범위를 한정하여 14개 항목에 대하여 남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차이로 설정하였다.

## 2.3 이질감 해소 방안으로서의 청소년 자원봉사의 기능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 해소는 통일과제의 주요 핵심이다.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오기성, 1996:121-122).

- (1)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화된 생활공간을 재통합시키는데 촉진제가 될 수 있는 통일 지향적인 방향이 강조되어야 한다.
- (2) 의식적인 차원의 이질성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야 한다.
- (3)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은 이질화 상태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동질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 (4) 단일의 정치공동체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통일을 위한 준비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 이질감 해소의 방안은 청소년 생활공간의 재통합, 공동체 의식 함양, 정치 통일 교육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매우 적합한 수단인 셈이다.

청소년 자원봉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의미와 주변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또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활동함으로써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깨우도록 하는 청소년 활동의 하나이다(김정배, 1999:1). 그리고 청소년 봉사활동은 봉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청소년의 인성개발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원과 조건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단계적으로 자세히 편성해 놓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정배, 2000:122). 즉, 봉사활동은 청소년 자신의 개발뿐만 아니라 봉사의 수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2.4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과정

프로그램이란 어떤 활동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열한 진행 순서표나 사전 계획표라고 볼 수 있다. 즉, 프로그램은 일정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환경으로써 활동내용 그 자체와 함께 활동목적과 목표, 활동 대상자, 과정, 방법, 장소, 시기, 조직 등 모든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김정배, 2000).

Tyler(1949:1)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네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 (1)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
- (2)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 (3) 이 교육적인 경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가 ?
- (4) 이 목적의 달성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이영덕(1960:28)은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Tyler와 같이 네 가지를 제

시하고 있다.

- (1) 교육목표
- (2) 내용(선정 및 조직)
- (3) 학습경험과정(지도방법, 자료, 상호작용, 분위기)
- (4) 평가

따라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는 자원봉사의 목적/목표, 활동 대상자, 과정, 방법, 장소, 시기, 조직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이러한 구성 요소의 단계적 설정과 같은 것이다.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목적 및 목표의 설정

목적은 특정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포괄적, 궁극적 목표로서 보통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되며, 프로그램이 어디로 향해 가고자 하는가를 말로 표현한다.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성취하여야 할 단기간의 소범위 활동을 의미한다.

#### (2) 프로그램 내용의 선정

프로그램 목표가 지시하는 것이 내용이며,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능력 수준과 흥미에의 적합성, 활동을 지도할 교사나 지도자의 지도 가능성, 실용성, 지역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3) 프로그램 방법의 선정

방법은 자원봉사의 목적/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의 방법은 다양성과 학교의 활동 중심으로 선정한다.

#### (4) 평가

목적/목표 달성 여부의 확인과 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하는 활동이 평가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을 (1) 자원봉사 활동 목표, (2) 자원봉사 활동의 개요, (3) 지도시 유의사항, (4) 활동의 실제(준비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의 방법

### 3.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남한 청소년이 생각하는 북한 청소년과의 이질감에 관한 조사

로부터 이질감 해소 방안, 이질감 해소 방안으로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프로그램 제시까지를 연구 범위로 정하였다.

## 3.2 조사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조사 내용

내 용	항 목
1) 남북 청소년 이질감	1) 남북 청소년의 이미지 차이. 2) 남북 청소년 의식구조 상의 이질감: 집단주의, 협동주의, 획일성, 목적주의, 폐쇄성, 수동성, 주체성, 권위주의, 이상성, 건전성, 보수성, 무기력, 이성주의, 단순성 등 사회적 토양의 차이에 의한 청소년 의식 관련 항목.
2) 남북 청소년의 교류 방안	학문적 교류, 청소년 자원봉사, 자매결연, 체육교류, 수학여행 또는 관광, 문화행사, 인터넷 교류 등 청소년 교류 방식에 기초한 항목
3) 이질감 해소를 위한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요구	자원봉사의 주체, 자원봉사 기간, 자원봉사 영역, 자원봉사 집단, 자원봉사 장소, 부수적 활동 등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항목.
4)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이질감의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모형 및 예시

## 3.3 조사 방법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3.3.1 문헌조사

연구의 개념인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 청소년 자원봉사,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 3.3.2 설문조사

북한 청소년의 이미지,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 정도,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청소년 교류 방안,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3.4 조사 대상의 선정

조사대상은 연구자가 임의로 충남 서북부권의 H대학교, S고등학교, B중학교 3개교를 선정하였으며, 학년별 및 성별 구성이 최대한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였다.

## 3.5 조사도구의 제작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북한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5가지 이상 적도록 하였으며, 이를 남한 청소년과 비교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남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하였다.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질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자들이 제시한 북한 청소년 의식의 특성 14개의 단어를 도출하고 그와 반대되는 단어를 양극에 배열하여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남한 청소년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척도를 만들었다. 점수는 북한 청소년의 의식에 가까울수록 5점 3, 0, -3, -5점 순서로 부여하였다.

이질감 해소 방안은 독일 청소년 교류 및 문헌조사를 토대로 설정한 7개의 방안에 대해 Likert 3점 척도(매우 효과적, 보통, 전혀 효과 없음)로 측정하였다.

## 3.6 자료 수집

자료는 연구자가 3개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설문지의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학생들이 응답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01년 6월 18에서 2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 3.7 자료 분석

설문지 750부를 배포하여 미회수된 설문지와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688명에 대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이며, 적용된 통계기법은 Chi-square, t-test, F-통계량이다.

## 4.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4.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은 성별로 남자 46.9%, 여자 53.1%로 여자가 다소 많았고, 학교급별로 중학생 30.9%, 고등학생 33.8%, 대학생 35.3%로 대학생이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을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 54.2%, 농어촌 28.9%, 그리고 서울과 인천 등의 대도시 거주자는 16.9%였다.

〈표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명	%
성별	남		323	46.9
	여		365	53.1
	계		688	100.0
학교급 및 학년별	중 학 교	1학년	65	9.4
		2	80	11.6
		3	68	9.9
	고등학교	1	112	16.3
		2	41	6.0
		3	79	11.5
	대 학 교	1	67	9.7
		2	68	9.9
		3	70	10.2
		4	38	5.5
	계		688	100.0
	거주지별	대 도시		116
중소도시		373	54.2	
농 어 촌		199	28.9	
계		688	100.0	

## 4.2 남북 청소년의 이미지

남한과 북한 청소년의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남북 청소년 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각각 다섯 가지 이상 적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가 모두 400가지 이상의 단어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굶주림, 불쌍하다, 빈곤, 억압, 김정일·김일성, 군대, 빨간 마후라, 마른 몸, 촌스럽다, 북한 말씨 등이 전체 응답자의 빈도 순위 10위안에 포함되는 단어였다. 이들을 빈도 순위에 따라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별로 분석하여 <표 3>, <표 4>, <표 5>, <표 6>, <표 7>, <표 8>에 제시하였다(빈도가 동수인 이미지의 순위는 전체 순위를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

### 4.2.1 북한 청소년 이미지

성별에 따른 북한 청소년 이미지의 비교는 <표 3>에 나타났다. 남녀 공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미지 1순위는 굶주림으로 표현하였다. 그 다음으로 남자 청소년은 빈곤, 불쌍하다, 김정일·김일성 순으로 표현한 반면 여자 청소년은 불쌍하다, 북한 말씨, 빈곤 순으로 표현하여 북한에 대한 이미지 연상이 우리 나라 청소년 남녀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표 3> 성별에 따른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순위	남자		여자	
	이미지	빈도	이미지	빈도
1	굶주림	96	굶주림	83
2	빈곤	63	불쌍하다	76
3	불쌍하다	52	말씨	58
4	김정일·김일성	44	빈곤	55
5	군대	35	빨간 마후라	52
6	빨간 마후라	30	촌스럽다	47
7	억압	26	마른 몸	41
8	촌스럽다	19	김정일·김일성	26
9	마른 몸	19	억압	22
10	말씨	16	군대	19

학교급별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굶주림을 1순위로 표현한 반면 다음 순위에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즉, 중학생은 빈곤, 불쌍하다 순으로 표현하고 고등학생은 빨간 마후라, 불쌍하다 순으로



그리고 대학생은 불쌍하다, 빈곤 순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이 조사에서 가장 연령이 낮은 집단인 중학생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과는 달리 억압과 같은 추상적 이미지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어 차이를 보였다.

〈표 4〉 학교급별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순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미지	빈도	이미지	빈도	이미지	빈도
1	굶주림	47	굶주림	66	굶주림	66
2	빈곤	47	빨간 마후라	54	불쌍하다	41
3	불쌍하다	43	불쌍하다	44	빈곤	41
4	말씨	29	말씨	34	억압	31
5	촌스럽다	25	빈곤	30	김정일·김일성	24
6	마른 몸	25	촌스럽다	26	군대	21
7	김정일·김일성	22	김정일·김일성	24	촌스럽다	15
8	빨간 마후라	14	군대	24	빨간 마후라	14
9	군대	9	마른 몸	23	마른 몸	12
10	억압	0	억압	17	말씨	11

거주지별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굶주림이란 단어가 1순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불쌍하다, 빈곤이 각각 2순위와 3순위로 나타나 성별, 학교급별에 따른 이미지보다는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거주지별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순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미지	빈도	이미지	빈도	이미지	빈도
1	굶주림	32	굶주림	90	굶주림	57
2	불쌍하다	20	불쌍하다	71	불쌍하다	37
3	빈곤	19	빈곤	11	빈곤	33
4	억압	18	촌스럽다	47	빨간 마후라	33
5	김정일·김일성	16	말씨	41	말씨	28
6	군대	12	김정일·김일성	41	군대	24
7	빨간 마후라	8	빨간 마후라	41	마른 몸	14
8	마른 몸	8	마른 몸	38	김정일·김일성	13
9	촌스럽다	6	군대	18	촌스럽다	13
10	말씨	5	억압	18	억압	12

## 4.2.2 남한 청소년 이미지

남한 청소년에 대해 연상되는 이미지는 자유, 개성적, 이기적, 개방적, 공부, 비행, 술, 부유하다, 명확하다, 싸가지 등이 빈도 순위 10위안에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 북한 청소년의 이미지와 관련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굶주림과 부유하다나 억압이나 자유와 같은 정반대의 단어가 남한 청소년에게서 표현되어 남북 청소년의 이미지는 전혀 다르거나 반대임을 볼 수 있다.

남한 청소년이 연상하는 남한 청소년의 이미지를 성별로 보면 <표 6>과 같이 남녀 공통적으로 자유라는 단어를 1순위로 표현하였고 다음으로 개성적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살펴볼 때 남녀간에 남한 청소년의 이미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성별에 따른 남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순위	남 자		여 자	
	이미지	빈도	이미지	빈도
1	자유	103	자유	155
2	개성적	35	개성적	68
3	명확하다	30	이기적	40
4	이기적	29	개방적	37
5	공부	28	공부	35
6	술	26	비행	26
7	싸가지	25	술	18
8	부유하다	19	부유하다	17
9	비행	14	명확하다	15
10	개방적	12	싸가지	15

학교급별에 따른 남한 청소년의 이미지는 빈도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순위에서는 자유와 개성적이 각각 1, 2순위로 나타나 학교급별로 유사점을 보였다.

〈표 7〉 학교급별 남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순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미지	빈도	이미지	빈도	이미지	빈도
1	자유	52	자유	79	자유	127
2	개성적	21	개성적	46	개성적	36
3	공부	20	이기적	40	개방적	27
4	이기적	15	공부	28	명확하다	21
5	부유하다	15	싸가지	22	술	20
6	개방적	9	명확하다	20	비행	20
7	싸가지	9	술	20	부유하다	17
8	명확하다	4	비행	17	공부	15
9	술	4	개방적	13	이기적	14
10	비행	3	부유하다	4	싸가지	9

거주지별에 따른 남한 청소년의 이미지는 〈표 8〉과 같이 1, 2순위가 모두 각각 자유, 개성적으로 나타나 집단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8〉 거주지별 남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순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미지	빈도	이미지	빈도	이미지	빈도
1	자유	55	자유	114	자유	89
2	개성적	18	개성적	45	개성적	40
3	명확하다	13	이기적	38	이기적	27
4	개방적	11	공부	38	술	21
5	공부	9	개방적	25	싸가지	21
6	비행	6	부유하다	20	공부	16
7	부유하다	6	비행	19	명확하다	16
8	술	6	술	17	비행	15
9	이기적	4	명확하다	16	개방적	13
10	싸가지	3	싸가지	16	부유하다	10

남북 청소년 이미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남한 청소년들은 북한 청소년들이 경제적 고통과 정치적 억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둘째, 남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에 대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자유와 개인주의를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반면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남북 청소년들간에 이미지 공통점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정반대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한 청소년들의 북한 청소년에 대한 지각은 남녀, 학교급, 거주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 4.3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과 관련 변인별 차이

#### 4.3.1 남북 청소년 이질감

남한 청소년이 북한 청소년에 대해 이질감을 어느 정도 느끼는가를 t-test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그림 2>와 같다. 전체적으로, 이질감을 측정한 14개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t-test 결과 남북간에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북한 청소년은 남한 청소년보다 집단적-개인적, 협동적-경쟁적, 획일적-다양성, 폐쇄적-개방적, 수동적-능동적, 권위적-자유주의, 이상적-현실적, 건전-퇴폐, 보수-진보, 무기력-의욕적, 단순-복잡 등 11개 이질감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목적적-과정적과 주체적-예속적 항목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즉, 북한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보다 집단적, 협동적, 획일적, 과정적, 폐쇄적, 수동적, 예속적, 권위적, 이상적, 건전, 보수적, 무기력 및 단순한 것으로 남한 청소년들에 의해 지각되었다. 반대로 남한 청소년은 북한 청소년보다 개인적, 경쟁적, 다양성, 목적적, 개방적, 능동적, 주체적, 자유주의, 현실적, 퇴폐, 진보적, 의욕적 및 복잡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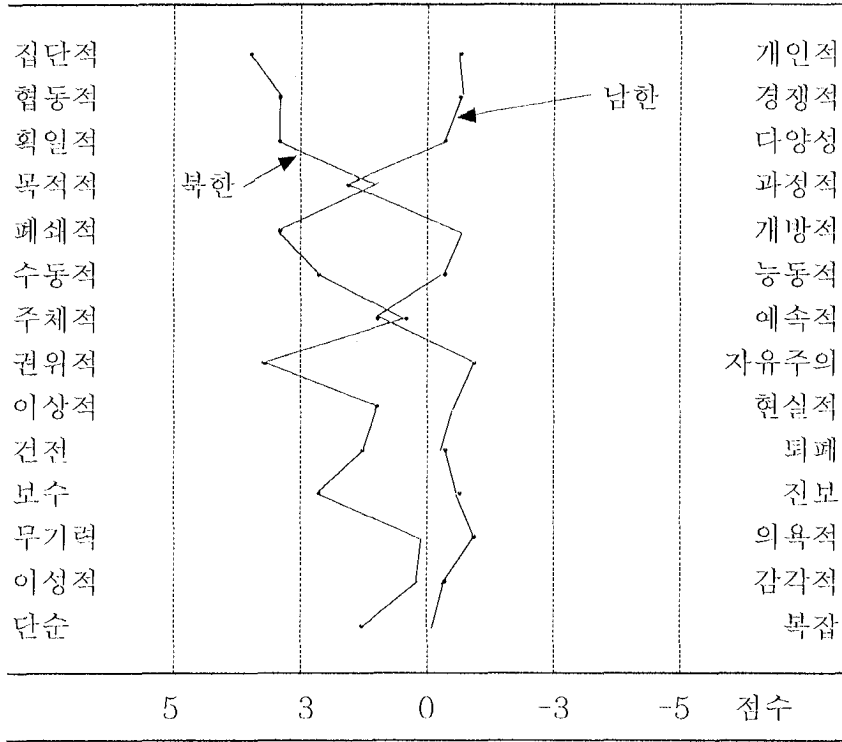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 차이 정도를 보면 <그림 2>에서와 같이 집단적-개인적 항목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권위적-자유주의, 폐쇄적-개방적, 협동적-경쟁적, 획일적-다양성 순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북한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보다 목적적이고 주체적일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은 설문조사 결과 남한 청소년이 북한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목적적이고 주체적이라고 반응하여 이론적 주장과 설문조사 결과간에 차이가 있었다.

〈표 9〉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에 대한 t-test

구분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P)
집단적- 개인적	북 남	675 677	3.8578 -0.8892	1.965 2.306	-40.73	0.000**
협동적- 경쟁적	북 남	676 676	3.1036 -0.9332	2.402 2.040	-33.27	0.000**
획일적- 다양성	북 남	670 670	3.3672 -0.5134	2.249 2.115	-32.53	0.000**
목적적- 과정적	북 남	673 673	1.7727 2.1947	2.791 2.780	2.78	0.006**
폐쇄적- 개방적	북 남	673 677	3.5245 -0.9424	2.092 1.750	-42.56	0.000**
수동적- 능동적	북 남	670 669	2.6701 -0.3423	2.518 2.418	-22.33	0.000**
주체적- 예속적	북 남	663 664	0.5279 1.1024	2.679 2.653	3.93	0.000**
권위적- 자유주의	북 남	677 678	3.5214 -0.9646	2.082 1.801	-42.42	0.000**
이상적- 현실적	북 남	672 674	1.3229 -0.0846	2.810 2.566	-9.60	0.000**
건전- 퇴폐	북 남	669 671	1.6457 -0.2593	2.562 2.508	-13.76	0.000**
보수- 진보	북 남	671 669	2.6528 -0.7354	2.510 2.256	-25.99	0.000**
무기력- 의욕적	북 남	673 674	0.0163 -1.1380	3.565 3.285	-6.18	0.000**
이성적- 감각적	북 남	674 675	0.0490 -0.2489	3.170 3.619	-1.61	0.108
단순- 복잡	북 남	674 676	2.1795 -0.0917	2.522 2.608	-16.26	0.000**

주) \*: P<0.05, \*\*: P<0.01



〈그림 2〉 남북 청소년 이질감

#### 4.3.2 북한 청소년의 의식 지각에 따른 변인별 차이

남북 청소년간 이질감을 구성하는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의식의 지각은 남한 청소년들의 어떤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별 북한 청소년의 의식에 대한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 <표 11>, <표 12>에 나타냈다.

먼저 남한 청소년들이 보는 북한 청소년의 의식에 대해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협동적-경쟁적 항목과 주체적-예속적 항목은 1% 수준에서, 그리고 보수-진보와 이성적-감각적 항목은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즉, 남한의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북한 청소년을 협동적, 주체적, 보수적, 감각적이라고 지각하였다.

〈표 10〉 성별 북한 청소년의 의식에 대한 t-test

구분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P)
집단적-개인적	남	318	3.7610	2.317	0.69	0.493
	여	357	3.6303	2.605		
협동적-경쟁적	남	318	3.3616	2.452	3.54	0.000**
	여	358	2.6285	2.880		
획일적-다양성	남	316	3.1709	2.637	-0.79	0.427
	여	354	3.3277	2.467		
목적적-과정적	남	318	1.4874	3.400	0.86	0.389
	여	355	1.2620	3.383		
폐쇄적-개방적	남	317	3.4826	2.349	0.99	0.323
	여	356	3.2921	2.617		
수동적-능동적	남	317	2.3754	3.117	-0.51	0.612
	여	353	2.4929	2.870		
주체적-예속적	남	313	0.2268	3.609	3.64	0.000**
	여	350	-0.7571	3.352		
권위적-자유주의	남	319	3.4326	2.289	0.30	0.776
	여	358	3.3771	2.253		
이상적-현실적	남	317	0.7508	3.637	0.95	0.345
	여	355	0.4817	3.725		
건전-퇴폐	남	317	1.3628	3.225	0.99	0.320
	여	352	1.1165	3.174		
보수-진보	남	317	2.2776	2.823	-2.15	0.032*
	여	354	2.7401	2.740		
무기력-의욕적	남	316	-0.1130	3.575	-0.89	0.373
	여	357	0.1317	3.557		
이성적-감각적	남	316	-0.2658	3.188	-2.43	0.015*
	여	358	0.3268	3.132		
단순-복잡	남	317	2.1609	3.009	2.11	0.35
	여	357	1.6695	3.033		

주) \*: P<0.05, \*\*: P<0.01

학교급에 따른 북한 청소년 의식 지각에 대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적-개인적, 협동적-경쟁적, 획일적-다양성, 목적적-과정적, 폐쇄적-개방적, 수동적-능동적, 권위적-자유주의, 이상적-현실적, 건전-퇴폐, 보수-진보, 무기력-의욕적, 단순-복잡의 이질감 항목은 5%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고등학생들은 북한 청소년을 다른 집단보다 집단적, 협동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획일적, 목적적, 폐쇄적, 수동적, 권위적, 이상적, 건전, 보수, 무기력, 단순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은 이질감 항목에 대해 모두 낮게 평가하여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년이 낮을수록 이질감은 낮게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1〉 학교급별 북한 청소년 의식에 대한 ANOVA

구분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도(P)
집단적-개인적	중고대	204	2.8873	3.0821	16.8080	0.0000**
		230	4.1652	1.9689		
		241	3.9212	2.1482		
	계	675	3.6919	2.4724		
협동적-경쟁적	중고대	204	2.4216	2.9072	9.7498	0.0001**
		230	3.5478	2.3798		
		242	2.8926	2.7369		
	계	676	2.9734	2.7101		
획일적-다양성	중고대	203	2.2266	3.0325	28.0604	0.0000**
		227	3.4405	2.5136		
		240	3.9458	1.7360		
	계	670	3.2537	2.5479		
목적적-과정적	중고대	204	0.7745	3.4238	7.3474	0.0007**
		229	1.2533	3.6499		
		240	1.9833	2.9923		
	계	673	1.3685	3.3900		
폐쇄적-개방적	중고대	203	2.7635	2.9389	11.9031	0.0000**
		229	3.3799	2.6291		
		241	3.9046	1.7282		
	계	673	3.3819	2.4943		
수동적-능동적	중고대	200	1.9050	2.9985	5.5658	0.0040**
		229	2.4672	3.2152		
		241	2.8506	2.6838		
	계	670	2.4373	2.9880		
주체적-예속적	중고대	198	-0.0101	3.1926	1.6118	0.2003
		224	-0.2143	3.5559		
		241	-0.5975	3.6946		
	계	663	-0.2926	3.5073		



구분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도(P)
권위적- 자유주의	중 고 대	205	2.8780	2.9053	7.0453	0.0009**
		230	3.6174	2.3047		
		242	3.6446	1.9807		
	계	677	3.4032	2.4218		
이상적- 현실적	중 고 대	202	0.3564	3.7018	3.9440	0.0198*
		228	0.2719	3.8525		
		242	1.1364	3.4536		
	계	672	0.6086	3.6835		
건전- 퇴폐	중 고 대	202	0.5792	3.4347	6.5230	0.0016**
		226	1.3850	3.4160		
		241	1.6390	2.6658		
	계	669	1.2332	3.1984		
보수- 진보	중 고 대	202	1.4109	3.0655	27.0931	0.0000**
		228	2.7237	2.9411		
		241	3.2614	2.0006		
	계	671	2.5216	2.7868		
무기력- 의욕적	중 고 대	202	0.5347	3.4929	5.4029	0.0047**
		230	-0.5652	3.7941		
		241	0.1369	3.3270		
	계	673	0.0163	3.5650		
이성적- 감각적	중 고 대	204	-0.2010	3.1221	2.0639	0.1278
		229	-0.0699	3.4634		
		241	0.3734	2.8928		
	계	674	0.0490	3.1701		
단순- 복잡	중 고 대	204	1.3088	3.3244	6.2145	0.0021**
		229	2.0087	3.1789		
		241	2.2988	2.5137		
	계	674	1.9006	3.0294		

주) \*: P<0.05. \*\*: P<0.01

거주지별로 북한 청소년의 의식에 대한 지각을 보면 <표 12>와 같이 집단적-개인적, 획일적-다양성, 폐쇄적-개방적, 수동적-능동적, 이상적-현실적, 보수-진보, 단순-복잡의 항목만이 5%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거주 청소년은 다른 집단보다 북한 청소년을 획일적, 폐쇄적, 수동적, 이상적, 보수적, 단순하다고 보는 경향이 높았고, 농어촌은 보다 집단적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즉, 대도시 거주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자보다 북한 청소년과의 이질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표 12〉 거주지별 북한 청소년의 의식에 대한 ANOVA

구분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도(P)
집단적- 개인적	대 도시	116	3.7845	2.3436	3.8828	0.0211*
	중소도시	362	3.4613	2.6650		
	농 어 촌	197	4.0609	2.1156		
	계	675	3.6919	2.4724		
협동적- 경쟁적	대 도시	116	3.0086	2.6914	1.8503	0.1580
	중소도시	362	2.8039	2.7404		
	농 어 촌	198	3.2626	2.6528		
	계	676	2.9734	2.7101		
획일적- 다양성	대 도시	114	3.8509	1.8204	9.4255	0.0001**
	중소도시	361	2.8698	2.7573		
	농 어 촌	195	3.6154	2.3943		
	계	670	3.2537	2.5479		
목적적- 과정적	대 도시	116	1.8707	3.0830	1.7728	0.1707
	중소도시	360	1.3361	3.2953		
	농 어 촌	197	1.1320	3.7050		
	계	673	1.3685	3.3900		
폐쇄적- 개방적	대 도시	115	3.9826	1.7013	5.9367	0.0028**
	중소도시	360	3.1083	2.6926		
	농 어 촌	198	3.5303	2.4426		
	계	673	3.3819	2.4943		
수동적- 능동적	대 도시	115	2.9565	2.7383	3.9378	0.0199*
	중소도시	358	2.1508	3.0190		
	농 어 촌	197	2.6548	3.0258		
	계	670	2.4373	2.9880		
주체적- 예속적	대 도시	115	0.2000	3.8026	1.7680	0.1715
	중소도시	353	-0.2975	3.3472		
	농 어 촌	195	-0.5744	3.5953		
	계	663	-0.2926	3.5073		
권위적- 자유주의	대 도시	116	3.6466	2.1720	1.1266	0.3247
	중소도시	363	3.2837	2.5347		
	농 어 촌	198	3.4798	2.3451		
	계	677	3.4032	2.4218		
이상적- 현실적	대 도시	116	1.3534	3.3680	3.5296	0.0299*
	중소도시	360	0.5833	3.6242		
	농 어 촌	196	0.2143	3.9151		
	계	672	0.6086	3.6835		

구분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도(P)
건전- 퇴폐	대 도시	116	1.6466	2.8749	1.2102	0.2988
	중소도시	356	1.1742	3.2489		
	농 어 촌	197	1.0964	3.2820		
	계	669	1.2332	3.1984		
보수- 진보	대 도시	116	3.2672	1.9841	6.8380	0.0011**
	중소도시	358	2.2039	2.9287		
	농 어 촌	197	2.6599	2.8430		
	계	671	2.5216	2.7868		
무기력- 의욕적	대 도시	116	0.3103	3.5787	0.6986	0.4976
	중소도시	360	-0.1194	3.5475		
	농 어 촌	197	0.0914	3.5945		
	계	673	0.0163	3.5650		
이성적- 감각적	대 도시	116	0.3621	3.0826	0.6841	0.5049
	중소도시	361	-0.0111	3.1251		
	농 어 촌	197	-0.0254	3.3050		
	계	674	0.0490	3.1701		
단순- 복잡	대 도시	116	2.4741	2.5003	3.3270	0.0365*
	중소도시	361	1.6620	3.0996		
	농 어 촌	197	2.0000	3.1445		
	계	674	1.9006	3.0294		

주) \*:  $P < 0.05$ , \*\*:  $P < 0.01$

#### 4.3.3 남한 청소년의 의식 지각에 따른 변인별 차이

남북 청소년간 이질감을 구성하는 남한 청소년의 의식에 대한 지각은 어떤 특성에 의하여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별로 남한 청소년의 의식 지각에 대한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 <표 14>, <표 15>에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남한 청소년에 대한 의식을 t-test한 결과를 보면 <표 13>과 같이 협동적-경쟁적, 건전-퇴폐, 무기력-의욕적 등의 이질감 항목에 대해 남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들은 남한의 청소년에 대하여 여자 청소년보다 경쟁적, 퇴폐적이라고 보는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에 대하여 보다 의욕적이라고 지각하였다.

〈표 13〉 성별 남한 청소년의 의식에 대한 t-test

구분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P)
집단적-개인적	남 여	320 357	-2.5969 -2.3053	3.051 3.098	-1.23	0.219
협동적-경쟁적	남 여	317 357	-2.6309 -2.1373	2.719 2.920	-2.26	0.024*
획일적-다양성	남 여	315 355	-2.4381 -2.6254	3.339 3.138	0.75	0.455
목적적-과정적	남 여	318 355	1.7264 1.8930	3.530 3.277	-0.63	0.526
폐쇄적-개방적	남 여	319 358	-3.4702 -3.4162	2.704 2.635	-0.26	0.793
수동적-능동적	남 여	317 352	-1.3028 -1.6932	3.408 3.134	1.54	0.123
주체적-예속적	남 여	313 351	0.5591 0.8348	3.341 3.038	-1.11	0.266
권위적-자유주의	남 여	320 358	-3.3219 -3.3268	2.689 2.713	0.02	0.981
이상적-현실적	남 여	316 358	-1.4525 -1.1899	3.561 3.445	-0.97	0.331
건전-퇴폐	남 여	317 354	-1.3943 -0.6893	3.192 3.070	-2.91	0.004**
보수-진보	남 여	316 353	-1.8481 -2.1643	3.050 3.031	1.34	0.180
무기력-의욕적	남 여	316 358	-0.7278 -1.5000	3.351 3.188	3.06	0.002**
이성적-감각적	남 여	317 358	-0.1483 -0.3380	3.614 3.625	0.68	0.497
단순-복잡	남 여	318 358	-1.2704 -0.9777	3.535 3.320	-1.11	0.267

주) \*: P<0.05, \*\*: P<0.01

학교급별 남한 청소년 의식의 지각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집단적-개인적, 협동적-경쟁적, 목적적-과정적, 폐쇄적-개방적, 주체적-예속적, 이상적-현실적, 건전-퇴폐, 보수-진보, 무기력-의욕적, 이상적-감각적

등 이질감 항목에서 5%수준 내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한 청소년에 대한 의식의 지각은 중고대학별로 10개 항목에 걸쳐 차이를 보여,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에 기여하는 정도가 학교급에 따라서 매우 달랐다.

오컨대 남한의 대학생들은 남한 청소년에 대해 다른 집단보다 개인적, 경쟁적, 개방적, 현실적, 퇴폐적, 진보적, 감각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고등학생들은 목적적, 능동적, 주체적으로 그리고 중학생들은 의욕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표 14〉 학교급별 남한 청소년의 의식에 대한 ANOVA

구분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도(P)
집단적- 개인적	중	205	-1.0781	3.5319	34.9343	0.0000**
	고	230	-2.6913	2.9590		
	대	242	-3.3636	2.2774		
	계	677	-2.4431	3.0772		
협동적- 경쟁적	중	204	-1.5980	3.1396	13.0523	0.0000**
	고	230	-2.4522	2.8781		
	대	240	-2.9458	2.3432		
	계	674	-2.3694	2.8360		
획일적- 다양성	중	204	-2.1422	3.3827	2.5847	0.0762
	고	226	-2.8451	3.2847		
	대	240	-2.5833	3.0259		
	계	670	-2.5373	3.2330		
목적적- 과정적	중	202	1.3267	3.5551	3.8765	0.0212*
	고	229	2.2358	3.4471		
	대	242	1.8223	3.1671		
	계	673	1.8143	3.3973		
폐쇄적- 개방적	중	206	-2.9854	3.0500	4.6703	0.0097**
	고	229	-3.5459	2.7711		
	대	242	-3.7314	2.1184		
	계	677	-3.4417	2.6661		
수동적- 능동적	중	200	-1.4450	3.2712	0.9897	0.3722
	고	229	-1.7467	3.3281		
	대	240	-1.3333	3.2130		
	계	669	-1.5082	3.2701		
주체적- 예속적	중	196	0.2041	3.0733	3.4667	0.0318*
	고	226	0.9292	3.3618		
	대	242	0.9008	3.0701		
	계	664	2.7364	3.1851		

구분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도(P)
권위적- 자유주의	중 고 대	206	-3.2039	2.8775	0.6372	0.5291
		230	-3.4826	2.7828		
		242	-3.2769	2.4549		
	계	678	-3.3245	2.6993		
이상적- 현실적	중 고 대	203	-1.2562	3.5840	5.6504	0.0037**
		229	-0.7860	3.8403		
		242	-1.8595	2.9863		
	계	674	-1.3131	3.4997		
건전- 퇴폐	중 고 대	202	-0.2426	3.4114	12.1197	0.0000**
		227	-1.0000	3.2465		
		242	-1.6942	2.6382		
	계	671	-1.0224	3.1459		
보수- 진보	중 고 대	200	-1.1550	3.3023	12.5572	0.0000**
		228	-2.2061	3.1854		
		241	-2.5477	2.4864		
	계	669	-2.0149	3.0421		
무기력- 의욕적	중 고 대	203	-1.7734	3.1478	5.5335	0.0041**
		230	-0.9000	3.4834		
		241	-0.8299	3.1398		
	계	674	-1.1380	3.2854		
이성적- 감각적	중 고 대	205	0.1317	3.5669	3.3854	0.0344*
		229	-0.0961	3.9269		
		241	-0.7178	3.3083		
	계	675	-0.2489	3.6187		
단순- 복잡	중 고 대	206	-0.9660	3.5163	0.3937	0.6747
		229	-1.2576	3.6151		
		241	-1.1079	3.1525		
	계	676	-1.1154	3.4230		

주) \*:  $P < 0.05$ , \*\*:  $P < 0.01$

거주지에 따른 남한 청소년 의식 지각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집단적-개인적, 협동적-경쟁적, 확일적-다양성, 폐쇄적-개방적, 건전-퇴폐, 보수-진보 등의 이질감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대도시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보다 남한 청소년에 대하여 개인적, 경쟁적, 개방적, 퇴폐적, 진보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은 반면 농어촌 청소년은 확일적보다는 다양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표 15〉 거주지별 남한 청소년의 의식에 대한 ANOVA

구분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도(P)
집단적- 개인적	대 도시	116	-3.4138	2.1832	17.0068	0.0000**
	중소도시	363	-1.8292	3.3155		
	농 어 촌	198	-3.0000	2.8194		
	계	677	-2.4431	3.0772		
협동적- 경쟁적	대 도시	115	-2.8087	2.5371	5.5116	0.0042**
	중소도시	362	-2.0359	2.9504		
	농 어 촌	197	-2.7259	2.7192		
	계	674	-2.3694	2.8360		
획일적- 다양성	대 도시	115	-2.4174	3.1119	3.2756	0.0384*
	중소도시	360	-2.3083	3.3549		
	농 어 촌	195	-3.0308	3.0289		
	계	670	-2.5373	3.2330		
목적적- 과정적	대 도시	116	1.6897	3.2954	1.6971	0.1840
	중소도시	359	1.6490	3.4063		
	농 어 촌	198	2.1869	3.4273		
	계	673	1.8143	3.3973		
폐쇄적- 개방적	대 도시	116	-3.8448	2.0583	4.4977	0.0115*
	중소도시	363	-3.1598	2.9239		
	농 어 촌	198	-3.7222	2.4263		
	계	677	-3.4417	2.6661		
수동적- 능동적	대 도시	115	-1.3043	3.4772	1.9746	0.1396
	중소도시	356	-1.3596	3.2397		
	농 어 촌	198	-1.8939	3.1837		
	계	669	-1.5082	3.2701		
주체적- 예속적	대 도시	116	0.5603	3.2552	0.1576	0.8542
	중소도시	352	0.7188	3.0890		
	농 어 촌	196	0.7653	3.3245		
	계	664	0.7048	3.1851		
권위적- 자유주의	대 도시	116	-3.5862	2.2806	1.0323	0.3568
	중소도시	364	-3.1978	2.8390		
	농 어 촌	198	-3.4040	2.6598		
	계	678	-3.3245	2.6993		
이상적- 현실적	대 도시	116	-1.9138	3.1251	2.1260	0.1201
	중소도시	361	-1.2244	3.4940		
	농 어 촌	197	-1.1218	3.6930		
	계	674	-1.3131	3.4997		

구분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도(P)
건전- 퇴폐	대 도시	116	-1.6897	2.8019	4.6891	0.0095**
	중소도시	358	-0.7123	3.2321		
	농 어 촌	197	-1.1929	3.1190		
	계	671	-1.0224	3.1459		
보수- 진보	대 도시	116	-2.6207	2.6724	4.9939	0.0070**
	중소도시	356	-1.6882	3.1784		
	농 어 촌	197	-2.2487	2.9301		
	계	669	-2.0149	3.0421		
무기력- 의욕적	대 도시	116	-1.0776	3.2602	0.4346	0.6477
	중소도시	361	-1.2438	3.2790		
	농 어 촌	197	-0.9797	3.3212		
	계	674	-1.1380	3.2854		
이성적- 감각적	대 도시	116	-0.7241	3.2958	1.8852	0.1526
	중소도시	362	-0.0193	3.6224		
	농 어 촌	197	-0.3909	3.7735		
	계	675	-0.2489	3.6187		
단순- 복잡	대 도시	116	-1.3362	3.2328	1.3894	0.2499
	중소도시	363	-0.9118	3.4725		
	농 어 촌	197	-1.3604	3.4326		
	계	676	-1.1154	3.4230		

주) \*:  $P < 0.05$ , \*\*:  $P < 0.01$

위의 결과를 토대로 남북 청소년간 이질감과 관련 변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청소년과 북한 청소년의 의식에 대한 지각을 기초로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을 측정된 결과 남한 청소년들은 북한 청소년과 이질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 학교급별, 그리고 거주지별에 따른 남북 청소년 이질감 격차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면 다른 집단보다 남자, 대학생, 대도시 거주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4.4 남북 청소년 교류방안

남북 청소년 교류방안에 대한 남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문적 교류,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간 자매결연, 체육교류, 수학여행 또는



관광, 문화행사 교류, 인터넷 교류(채팅, 전자우편) 등에 대하여 매우 효과적, 보통, 전혀 효과 없음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여 이를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6>, <표 17>, <표 18>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남한 청소년들의 68.4%가 수학여행 또는 관광을 가장 효과적인 청소년 교류 방식으로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인터넷 교류(62.2%), 체육교류(56.8%), 청소년 자원봉사(54.1%) 순으로 높게 반응하였다. 반면 학문적 교류는 36.3%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반응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성별에 따른 청소년 교류 방안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표 16>과 같이 체육교류만이 남녀간 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을 뿐 다른 교류 방식에 대하여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체육교류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보다 선호하는 방안이었다.

<표 16> 성별 남북 청소년 교류방안

구 분	집단	매우 효과 있음	보통	전혀 효과 없음	계	$\chi^2$
· 학문적 교류	남	115(35.8)	156(48.6)	50 (15.6)	321 (47.1)	0.528
	여	132(36.7)	179(49.7)	49 (13.6)	360 (52.9)	
	계	247(36.3)	335(49.2)	99 (14.5)	681(100.0)	
· 청소년 자원봉사	남	173(54.2)	124(38.9)	22 (6.9)	319 (46.9)	0.964
	여	195(54.0)	134(37.1)	32 (8.9)	361 (53.1)	
	계	368(54.1)	258(37.9)	54 (7.9)	680(100.0)	
· 학교간 자매결연	남	160(50.0)	121(37.8)	39 (12.2)	320 (46.9)	1.065
	여	195(53.9)	128(35.4)	39 (10.8)	362 (53.1)	
	계	355(52.1)	249(36.5)	78 (11.4)	682(100.0)	
· 체육교류	남	206(64.4)	101(31.6)	13 (4.1)	320 (47.1)	16.684**
	여	180(50.0)	147(40.8)	33 (9.2)	360 (52.9)	
	계	386(56.8)	248(36.5)	46 (6.8)	680(100.0)	
· 수학여행 또는 관광	남	214(66.9)	81(25.3)	25 (7.8)	320 (47.1)	1.074
	여	251(69.7)	79(21.9)	30 (8.3)	360 (52.9)	
	계	465(68.4)	160(23.5)	55 (8.1)	680(100.0)	
· 문화행사 교류	남	160(50.0)	126(39.4)	34 (10.6)	320 (47.2)	0.282
	여	184(51.4)	140(39.1)	34 (9.5)	358 (52.8)	
	계	344(50.7)	266(39.2)	68 (10.0)	678(100.0)	
· 인터넷 교류	남	196(61.3)	91(28.4)	33 (10.3)	320 (46.9)	0.225
	여	228(63.0)	99(27.3)	35 (9.7)	362 (53.1)	
	계	424(62.2)	190(27.9)	68 (10.0)	682(100.0)	

주) \*\*: P<0.01

다음으로 학교급별 남북 청소년 교류방안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행사 교류를 제외한 모든 교류방안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대학생들은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간 자매결연, 문화행사를 보다 선호하는 교류로 선택한 반면 고등학생은 학문적 교류, 체육교류, 수행여행 또는 관광, 인터넷 교류를 보다 선호하는 교류방안으로 반응하였다.

〈표 17〉 학교급별 남북 청소년 교류방안

구 분	집단	매우 효과 있음	보통	신혀 효과 없음	계	$\chi^2$
· 학문적 교류	중	64(30.6)	110(52.6)	35 (16.7)	209 (30.7)	16.777**
	고	94(41.3)	93(40.4)	42 (18.3)	230 (33.8)	
	대	88(36.4)	132(54.5)	22 (9.1)	242 (35.5)	
	계	247(36.3)	335(49.2)	99 (14.5)	681(100.0)	
· 청소년 자원봉사	중	89(42.6)	94(45.0)	26 (12.4)	209 (30.7)	33.644**
	고	115(50.2)	97(42.4)	17 (7.4)	229 (33.7)	
	대	164(67.8)	67(27.7)	11 (4.5)	242 (35.6)	
	계	368(54.1)	258(37.9)	54 (7.9)	680(100.0)	
· 학교간 자매결연	중	84(40.2)	91(43.5)	34 (16.3)	209 (30.6)	22.158**
	고	131(56.7)	72(31.2)	28 (12.1)	231 (33.9)	
	대	140(57.9)	86(35.5)	16 (6.6)	242 (35.5)	
	계	355(52.1)	249(36.5)	78 (11.4)	682(100.0)	
· 체육교류	중	92(44.0)	99(47.4)	18 (8.6)	209 (30.7)	21.614**
	고	147(63.9)	67(29.1)	16 (7.0)	230 (33.8)	
	대	147(61.0)	82(34.0)	12 (5.0)	241 (35.4)	
	계	386(56.8)	248(36.5)	46 (6.8)	680(100.0)	
· 수행여행 또는 관광	중	139(66.8)	49(23.6)	20 (9.6)	208 (30.6)	10.432**
	고	174(75.7)	41(17.8)	15 (6.5)	230 (33.8)	
	대	152(62.8)	70(28.9)	20 (8.3)	242 (35.6)	
	계	465(68.4)	160(23.5)	55 (8.1)	680(100.0)	
· 문화행사 교류	중	96(46.4)	86(41.5)	25 (12.1)	207 (30.5)	3.146
	고	120(52.2)	87(37.8)	23 (10.0)	230 (33.9)	
	대	128(53.1)	93(38.6)	20 (8.3)	241 (35.5)	
	계	344(50.7)	266(39.2)	68 (10.0)	678(100.0)	
· 인터넷 교류	중	119(56.9)	58(27.8)	32 (15.3)	209 (30.6)	10.184*
	고	150(64.9)	65(28.1)	16 (6.9)	231 (33.9)	
	대	155(64.0)	67(27.7)	20 (8.3)	242 (35.5)	
	계	424(62.2)	190(27.9)	68 (10.0)	682(100.0)	

주) \*: P<0.05, \*\*: P<0.01

거주지별 남북 청소년 교류방안에서는 학문적 교류,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간 자매결연, 체육교류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즉, 대도시 거주 청소년은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간 자매결연, 체육교류를 보다 선호하는 반면 농어촌 청소년들은 학문적 교류를 보다 선호하여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표 18〉 거주지별 남북 청소년 교류방안

구분	집단	매우 효과 있음	보통	전혀 효과 없음	계	$\chi^2$
· 학문적 교류	대 도시	36(31.0)	66(56.9)	14 (12.1)	116 (17.0)	13.365**
	중소도시	120(32.7)	186(50.7)	61 (16.6)	367 (53.9)	
	농 어 촌	91(46.0)	83(41.9)	24 (12.1)	198 (29.1)	
	계	247(36.3)	335(49.2)	99 (14.5)	681(100.0)	
· 청소년 자원봉사	대 도시	81(69.8)	28(24.1)	7 (6.0)	116 (17.1)	16.442**
	중소도시	179(48.8)	154(42.0)	34 (9.3)	367 (54.0)	
	농 어 촌	108(54.8)	76(38.6)	13 (6.6)	197 (29.0)	
	계	368(54.1)	258(37.9)	54 (7.9)	680(100.0)	
· 학교간 자매결연	대 도시	73(62.9)	38(32.8)	5 (4.3)	116 (17.0)	12.271*
	중소도시	175(47.7)	145(39.5)	47 (12.8)	367 (53.8)	
	농 어 촌	107(53.8)	66(33.2)	26 (13.1)	199 (29.2)	
	계	355(52.1)	249(36.5)	78 (11.4)	682(100.0)	
· 체육교류	대 도시	83(72.2)	26(22.6)	6 (5.2)	115 (16.9)	23.635**
	중소도시	179(48.8)	159(43.3)	29 (7.9)	367 (54.0)	
	농 어 촌	124(62.6)	63(31.8)	11 (5.6)	198 (29.1)	
	계	386(56.8)	248(36.5)	46 (6.8)	680(100.0)	
· 수학여행 또는 관광	대 도시	76(65.5)	33(28.4)	7 (6.0)	116 (17.1)	2.860
	중소도시	255(69.7)	82(22.4)	29 (7.9)	366 (53.8)	
	농 어 촌	134(67.7)	45(22.7)	19 (9.6)	198 (29.1)	
	계	465(68.4)	160(23.5)	55 (8.1)	680(100.0)	
· 문화행사 교류	대 도시	60(52.2)	45(39.1)	10 (8.7)	115 (17.0)	0.851
	중소도시	180(49.3)	147(40.3)	38 (10.4)	365 (53.8)	
	농 어 촌	104(52.5)	74(37.4)	20 (10.1)	198 (29.2)	
	계	344(50.7)	266(39.2)	68 (10.0)	678(100.0)	
· 인터넷 교류	대 도시	73(62.9)	31(26.7)	12 (10.3)	116 (17.0)	0.786
	중소도시	227(61.9)	101(27.5)	39 (10.6)	367 (53.8)	
	농 어 촌	124(62.3)	58(29.1)	17 (8.5)	199 (29.2)	
	계	424(62.2)	190(27.9)	68 (10.0)	682(100.0)	

주) \*: P<0.05, \*\*: P<0.01

종합적으로 남북 청소년 교류방안 중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는 <표 19>에 제시하였다. 인터넷 교류는 28.5%가 선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수학여행·관광 21.4%, 체육교류 14.9%, 청소년 자원봉사 12.5% 순으로 높게 반응하였다. 반면 학문적 교류는 4.9%로 가장 낮았고 문화행사를 통한 교류도 7.1%로 다음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남북 청소년 교류의 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향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 최적의 남북 청소년 교류 방안

구분	빈도	%
· 학문적 교류	31	4.9
· 청소년 자원봉사	79	12.5
· 학교간 자매결연	67	10.6
· 체육교류	94	14.9
· 수학여행 또는 관광	135	21.4
· 문화행사(사진전, 음악회, 연극)교류	45	7.1
· 인터넷(채팅, 전자우편) 교류	180	28.5
계	631	100.0
무응답	57	

한편 이 연구의 주제인 남북 청소년 교류를 위한 방안으로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대학생 67.8%, 대도시 거주 청소년 69.8%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북 청소년간 이질감이 가장 큰 대학생과 대도시 거주 청소년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적용은 이질감 해소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4.5 이질감 해소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요구

이질감 해소를 위한 남북 청소년 교류 방안으로서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의견을 자원봉사의 주체, 청소년 단체 중심일 경우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 자원봉사 기간,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 자원봉사 활동 장소, 이질감 해소를 위한 촉진 활동, 자원봉사 참가 의향 등을 조사하여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별로 교차분석하였다.

#### 4.5.1 자원봉사활동의 주체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로서 가장 적절한 단체나 개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남한 청소년들은 자치단체(56.7%), 중앙정부(15.8%), 시민단체(13.3%)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성별( $\chi^2 = 18.5271^{**}$ ) 및 학교급( $\chi^2 = 23.5892^{**}$ )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것을 매우 선호한 데 기인한다.

〈표 2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주체

구분	중앙정부	시민단체	자치단체	청소년 단체	청소년 개인	계	
성	남	52 (16.7)	48 (15.4)	153 (49.0)	19 (6.1)	40 (12.8)	312 (46.6)
	여	54 (15.1)	41 (11.5)	227 (63.4)	8 (2.2)	8 (7.8)	358 (53.4)
	계	106 (15.8)	89 (13.3)	380 (56.7)	27 (4.0)	68 (10.1)	670 (100.0)
학 교 급	중	25 (12.3)	23 (11.3)	109 (53.7)	13 (6.4)	33 (16.3)	203 (30.3)
	고	32 (14.0)	29 (12.7)	140 (61.4)	8 (3.5)	19 (8.3)	228 (34.0)
	대	49 (20.5)	37 (15.5)	131 (54.8)	6 (2.5)	16 (6.7)	239 (35.7)
	계	106 (15.8)	89 (13.3)	380 (56.7)	27 (4.0)	68 (10.1)	670 (100.0)
거 주 지	대 도시	19 (16.8)	17 (15.0)	66 (58.4)	7 (6.2)	4 (3.5)	113 (16.9)
	중소도시	51 (14.2)	50 (13.9)	205 (56.9)	12 (3.3)	42 (11.7)	360 (53.7)
	농 어 촌	36 (18.3)	22 (11.2)	109 (55.3)	8 (4.1)	22 (11.2)	197 (29.4)
	계	106 (15.8)	89 (13.3)	380 (56.7)	27 (4.0)	68 (10.1)	670 (100.0)

#### 4.5.2 청소년 단체 중심 자원봉사활동의 주체

청소년 단체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할 때의 주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또래 집단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교(31.8%), 클럽·동호회(26.1%)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단체 중심 자원봉사활동의 주체와 성별, 학교급 및 거주지별 관계를 살펴본 결과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청소년 단체 중심 자원봉사활동의 주제

구분		학교	또래집단	클럽·동호회	가족	계
성	남	97 (31.4)	109 (35.3)	88 (28.5)	15 (4.9)	309 (46.4)
	여	115 (32.2)	147 (41.2)	86 (24.1)	9 (2.5)	357 (53.6)
	계	212 (31.8)	256 (38.4)	174 (26.1)	24 (3.6)	666 (100.0)
학 교 급	중	68 (34.7)	70 (35.7)	48 (24.5)	10 (5.1)	196 (29.4)
	고	73 (32.0)	91 (39.9)	62 (27.2)	2 (0.9)	228 (34.2)
	대	71 (29.3)	95 (39.3)	64 (26.4)	12 (5.0)	242 (36.3)
	계	212 (31.8)	256 (38.4)	174 (26.1)	24 (3.6)	666 (100.0)
거 주 지	대 도시	33 (28.4)	46 (39.7)	30 (25.9)	7 (6.0)	116 (17.4)
	중소도시	118 (33.4)	133 (37.7)	89 (25.2)	13 (3.7)	353 (53.0)
	농 어 촌	61 (31.0)	77 (39.1)	55 (27.9)	4 (2.0)	197 (29.6)
	계	212 (31.8)	256 (38.4)	174 (26.1)	24 (3.6)	666 (100.0)

## 4.5.3 자원봉사 활동 기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1-2주 (26.6%)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3-7일(23.7%), 3주-1월(22.5%), 1월 이상(20.4%)로 나타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자원봉사활동 기간에 대한 학교급별( $\chi^2 = 51.8419^{**}$ ), 거주지별( $\chi^2 = 27.648^{**}$ )교차분석 결과 1%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22〉 자원봉사활동 기간

구분		3일 이하	3-7일	1-2주	3주-1월	1월 이상	계
성	남	19 (6.1)	70 (22.5)	86 (27.7)	61 (19.6)	75 (24.1)	311 (46.6)
	여	27 (7.6)	88 (24.6)	92 (25.8)	89 (24.9)	61 (17.1)	357 (53.4)
	계	46 (6.9)	158 (23.7)	178 (26.6)	150 (22.5)	136 (20.4)	668 (100.0)
학 교 급	중	31 (15.8)	58 (29.6)	40 (20.4)	33 (16.8)	34 (17.3)	196 (29.3)
	고	10 (4.4)	51 (22.3)	68 (29.7)	46 (20.1)	54 (23.6)	229 (34.3)
	대	5 (2.1)	49 (20.2)	70 (28.8)	71 (29.2)	48 (19.8)	243 (36.4)
	계	46 (6.9)	158 (23.7)	178 (26.6)	150 (22.5)	136 (20.4)	668 (100.0)
거 주 지	대 도시	3 (2.6)	18 (15.5)	33 (28.4)	38 (32.8)	24 (20.7)	116 (17.4)
	중소도시	37 (10.5)	93 (26.3)	84 (23.7)	70 (19.8)	70 (19.8)	354 (53.0)
	농 어 촌	6 (3.0)	47 (23.7)	61 (30.8)	42 (21.2)	42 (21.2)	198 (29.6)
	계	46 (6.9)	158 (23.7)	178 (26.6)	150 (22.5)	136 (20.4)	668 (100.0)

## 4.5.4 자원봉사활동 영역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영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25.9%가 농촌·장애인 시설 등에서 일손 돕기로 반응하였고, 다음으로 고아원·양로원 등에서의 위문활동 21.7%, 불우이웃 돕기 등 자선·구호활동 19.2%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소외된 인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성별( $\chi^2=37.1180$ )로 교차분석한 결과 1%수준에서 유의성을 보였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29.4%가 고아원·양로원 등에서 위문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자원봉사활동 영역

구분	농촌·장애인 시설 등에서 일손돕기	고아원·양로원 등에서 위문활동	교통·안전지도 등 지도활동	공공질서 유지 등 캠페인	
성	남	84 (27.5)	39 (12.7)	6 (2.0)	56 (18.3)
	여	87 (24.6)	104 (29.4)	8 (2.3)	45 (12.7)
	계	171 (25.9)	143 (21.7)	14 (2.1)	101 (15.3)
학교급	중	38 (19.6)	55 (28.4)	10 (5.2)	27 (13.9)
	고	61 (27.1)	46 (20.4)	0 (0.0)	35 (15.6)
	대	72 (29.9)	42 (17.4)	4 (1.7)	39 (16.2)
	계	171 (25.9)	143 (21.7)	14 (2.1)	101 (15.3)
거주지	대도시	34 (29.6)	20 (17.4)	4 (3.5)	20 (17.4)
	중소도시	81 (23.0)	81 (23.0)	10 (2.8)	51 (14.5)
	농어촌	56 (29.0)	42 (21.8)	0 (0.0)	30 (15.5)
	계	171 (25.9)	143 (21.7)	14 (2.1)	101 (15.3)

구분	불우이웃 돕기 등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존 활동	지역사회개발 활동	계	
성	남	57 (18.6)	28 (9.2)	36 (11.8)	306 (46.4)
	여	70 (19.8)	24 (6.8)	16 (4.5)	354 (53.6)
	계	127 (19.2)	52 (7.9)	52 (7.9)	660 (100.0)
학교급	중	31 (16.0)	15 (7.7)	18 (9.3)	194 (29.4)
	고	48 (2.3)	20 (8.9)	15 (6.7)	225 (34.1)
	대	48 (19.9)	17 (7.1)	19 (7.9)	241 (36.5)
	계	127 (19.2)	52 (7.9)	52 (7.9)	660 (100.0)
거주지	대도시	14 (12.2)	12 (10.4)	11 (9.6)	115 (17.4)
	중소도시	74 (21.0)	22 (6.3)	33 (9.4)	352 (53.3)
	농어촌	39 (20.2)	18 (9.3)	8 (4.1)	193 (29.2)
	계	127 (19.2)	52 (7.9)	52 (7.9)	666 (100.0)

## 4.5.5 자원봉사활동 인원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인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한 청소년들은 37.7%가 11-20명으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1-30명 22.9%, 30명 이상 20.3%로 응답하였다.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학교급별( $\chi^2=22.6868^{**}$ )로 1%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생들의 41.2%가 11-20명의 인원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자원봉사활동 인원

구분		10명 이하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계
성	남	54 (17.4)	123 (39.7)	63 (20.3)	70 (22.6)	310 (46.6)
	여	73 (20.6)	128 (36.1)	89 (25.1)	65 (18.3)	355 (53.4)
	계	127 (19.1)	251 (37.7)	152 (22.9)	135 (20.3)	665 (100.0)
학 교 급	중	49 (25.3)	71 (36.6)	31 (16.0)	43 (22.2)	194 (29.2)
	고	34 (14.9)	80 (35.1)	55 (24.1)	59 (25.9)	228 (34.3)
	대	44 (18.1)	100 (41.2)	66 (27.2)	33 (13.6)	243 (36.5)
	계	127 (19.1)	251 (37.7)	152 (22.9)	135 (20.3)	665 (100.0)
거 주 지	내 도시	23 (19.8)	44 (37.9)	32 (27.6)	17 (14.7)	116 (17.4)
	중소도시	76 (21.5)	134 (38.0)	69 (19.5)	74 (21.0)	353 (53.1)
	농 이 촌	28 (14.3)	73 (37.2)	51 (26.0)	44 (22.4)	196 (29.5)
	계	127 (19.1)	251 (37.7)	152 (22.9)	135 (20.3)	665 (100.0)

## 4.5.6 자원봉사활동 장소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장소에 대한 질문 결과는 81.5%의 높은 비율이 남한과 북한 두 곳에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장소와 성별( $\chi^2=9.0235^*$ )에 따른 카이 검정 결과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남북한에서의 자원봉사를 원하였다.

〈표 25〉 자원봉사활동 장소

구분		남한	북한	남한과 북한	제3국	계
성	남	8 (2.6)	24 (7.8)	244 (79.0)	33 (10.7)	309 (46.5)
	여	17 (4.8)	13 (3.7)	298 (83.7)	28 (7.9)	356 (53.5)
	계	25 (3.8)	37 (5.6)	542 (81.5)	61 (9.2)	665 (100.0)



구분		남한	북한	남한과 북한	제3국	계
학 교 급	중	14 (7.2)	12 (6.2)	149 (76.4)	20 (10.3)	195 (29.3)
	고	7 (3.1)	13 (5.7)	186 (81.9)	21 (9.3)	227 (34.1)
	대	4 (1.6)	12 (4.9)	207 (85.2)	20 (8.2)	243 (36.5)
	계	25 (3.8)	37 (5.6)	542 (81.5)	61 (9.2)	665 (100.0)
거 주 지	대 도시	3 (2.6)	4 (3.4)	96 (82.8)	13 (11.2)	116 (17.4)
	중소도시	19 (5.4)	19 (5.4)	284 (80.5)	31 (8.8)	353 (53.1)
	농 어 촌	3 (1.5)	14 (7.1)	162 (82.7)	17 (8.7)	196 (29.5)
	계	25 (3.8)	37 (5.6)	542 (81.5)	61 (9.2)	665 (100.0)

#### 4.5.7 이질감 해소를 위한 촉진 활동

자원봉사 할 때 이질감 해소를 촉진할 수 있는 부수적인 활동을 질문한 결과 남북 청소년간 체육대회를 38.5%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1.9%가 문화재·유적지 탐방, 14.6% 거리체험 순으로 반응하였다.

이질감 해소를 위한 촉진 활동은 학교급별( $\chi^2 = 34.4297^{**}$ )로 1%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체육대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표 26〉 자원봉사 할 때의 이질감 해소를 위한 촉진 활동

구분		홈 스테이	산업시찰	문화재·유적지 탐방	체육대회
성	남	27 (8.8)	10 (3.3)	63 (20.6)	140 (45.8)
	여	50 (14.2)	11 (3.1)	81 (23.1)	113 (32.2)
	계	77 (11.7)	21 (3.2)	144 (21.9)	253 (38.5)
학 교 급	중	17 (8.9)	5 (2.6)	48 (25.1)	79 (41.4)
	고	16 (7.1)	7 (3.1)	43 (19.2)	102 (45.5)
	대	44 (18.2)	9 (3.7)	53 (21.9)	72 (29.8)
	계	77 (11.7)	21 (3.2)	144 (21.9)	253 (38.5)
거 주 지	대 도시	21 (18.1)	7 (6.0)	24 (20.7)	38 (32.8)
	중소도시	43 (12.4)	9 (2.6)	79 (22.7)	124 (35.6)
	농 어 촌	13 (6.7)	5 (2.6)	41 (21.2)	91 (47.2)
	계	77 (11.7)	21 (3.2)	144 (21.9)	253 (38.5)

구분		거리체험	집단토의	계
성	남	35 (11.4)	31 (10.1)	306 (46.6)
	여	61 (17.4)	35 (10.0)	351 (53.4)
	계	96 (14.6)	66 (10.0)	657 (100.0)
학 교 급	중	23 (12.0)	19 (9.9)	191 (29.1)
	고	42 (18.8)	14 (6.3)	224 (34.1)
	대	31 (12.8)	33 (13.6)	242 (36.8)
	계	96 (14.6)	66 (10.0)	657 (100.0)
거 주 지	대 도시	10 (8.6)	16 (13.8)	116 (17.7)
	중소도시	56 (16.1)	37 (10.6)	348 (53.0)
	농 어 촌	30 (15.5)	13 (6.7)	193 (29.4)
	계	96 (14.6)	66 (10.0)	657 (100.0)

#### 4.5.8 자원봉사 참여 의향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참여 의향을 질문한 결과 참여하겠다는 반응이 78.3%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반응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 의향과 성별( $\chi^2=9.4213^{**}$ ), 학교급( $\chi^2=16.9231^{**}$ ), 거주지( $\chi^2=7.8656^*$ )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보다는 여자가, 중고생보다는 대학생이, 그리고 중소도시나 농어촌 거주자보다는 대도시 거주 청소년이 자원봉사 참여 의향이 높았다.

〈표 27〉 자원봉사 참여 의향

구분		참여	불참	계
성	남	223 (72.9)	83 (27.1)	306 (46.4)
	여	294 (83.1)	60 (16.9)	354 (53.6)
	계	517 (78.3)	143 (21.7)	660 (100.0)
학 교 급	중	134 (69.1)	60 (30.9)	194 (29.4)
	고	178 (78.8)	48 (21.2)	226 (34.2)
	대	205 (85.4)	35 (14.6)	240 (36.4)
	계	517 (78.3)	143 (21.7)	660 (100.0)
거 주 지	대 도시	98 (86.7)	15 (13.3)	113 (17.1)
	중소도시	262 (74.6)	89 (25.4)	351 (53.2)
	농 어 촌	157 (80.1)	39 (19.9)	196 (29.7)
	계	517 (78.3)	143 (21.7)	660 (100.0)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이 바람직하고, 후 청소년단체가 중심이 될 때에는 또래나 동아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간은 1~2주가 가장 적합하며 다음으로 3~7일이 적절하다.

셋째,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영역은 농촌·장애인 시설 등에서 일손 돕기, 고아원·양로원 등에서 위문활동, 불우이웃 돕기 등 자선·구호활동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적절하다.

넷째,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집단은 11~20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은 남한과 북한의 두 곳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섯째, 자원봉사활동 시에 남북 청소년간 이질감 해소를 촉진할 수 있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체육대회, 문화재·유적지 탐방, 거리체험 등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곱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대상의 우선 순위는 성별로는 여자, 학교급별로는 대학생, 거주지별로는 대도시 거주 청소년이다. 특히, 여자 청소년을 제외한 대학생과 대도시 거주 청소년들은 남북 청소년 이질감의 격차가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 4.6 이질감 해소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4.6.1 이질감 해소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모형

프로그램 모형(model)은 복잡한 프로그램 과정 요소를 단순화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은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도모하며, 목표는 집단적-개인적, 협동적-경쟁적, 획일적-다양성, 목적적-과정적, 폐쇄적-개방적, 수동적-능동적, 주체적-예속적, 권위적-자유주의, 이상적-현실적, 건전-퇴폐, 보수-진보, 무기력-의욕적, 단순-복잡 등 남북 청소년간 이질감이 큰 항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설정한다.
- (2) 프로그램 내용으로서 자원봉사의 활동 영역은 농촌·장애인 시설 등

에서 일손 돕기, 고아원·양로원 등에서 위문활동, 불우이웃 돕기, 자선·구호활동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으로 한다.

- (3) 프로그램 방법으로서는 자원봉사활동 구성 인원은 11~20명, 자원봉사활동 장소는 남한과 북한의 두 곳, 봉사활동과 함께 체육대회, 문화제·유적지 탐방, 거리체험을 병행한다.
- (4) 프로그램의 평가는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과정 및 결과 평가를 실시한다.

#### 4.6.2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예시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모형을 근거로 실제 적용 가능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1) 자원봉사 활동 목적/목표, (2) 자원봉사 활동의 개요, (3) 지도시 유의사항, (4) 활동의 실제(준비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의 절차에 따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예시 1〉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프로그램

활동 목적	목적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 해소	하위목표 1	협동심 함양
			하위목표 2	집단 응집력 함양
			하위목표 3	능동적 태도 함양
활동 개요	활동 인원	11 ~ 20 명		
	시기 및 장소	시 기	겨울 및 여름 방학(15일)	
		장 소	남한과 북한의 장애인 생활시설 각각 1개소	
	활동 내용	① 청소(복도, 계단, 유리창, 식당, 화장실)		
		② 식사보조(배식, 설거지, 반찬 만들기)		
		③ 목욕보조(목욕, 머리 감기기, 목욕용품정리)		
		④ 세탁(옷 세탁 및 정리)		
		⑤ 위생생활보조(대변처리, 소변처리)		
⑥ 학습보조(컴퓨터 교육, 숫자교육, 국어교육)				
⑦ 문화재-유적지 탐방(해당 지역 문화재)				
⑧ 거리 체험하기(서울 또는 평양 거리 체험)				
활동 준비물	구급약품, 편한 옷, 여벌의 옷, 세면도구, 필기도구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① 남북 청소년간 이념 논쟁을 자제하도록 교육한다.			
	② 남북 청소년 서로간에 언어 및 행위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③ 남한과 북한의 언어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④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한다.			
	⑤ 서로 협동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도 및 격려한다.			
	⑥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에 유념하도록 지도한다.			

<p>활동의 실제</p>	<p>준비 단계</p>	<p>① 문제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시설 장애인의 생활을 담은 비디오 시청</li> <li>→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남북 청소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li> <li>→ 남북 청소년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인식</li> <li>→ 장애인의 생활방식을 이해.</li> </ul> <p>② 사전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장애인 보호 방법에 대한 학습</li> <li>· 장애인에 대한 용어 이해</li> <li>· 장애의 종류 이해</li> <li>· 장애인 자원봉사자의 자세에 대한 학습</li> <li>· 남북한 언어의 차이에 대한 학습</li> <li>· 남북한 생활 방식 차이에 대한 학습</li> </ul> <p>③ 실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장애인 자원봉사 기간 선정</li> <li>· 남북한 각 1개 장애인 생활 시설 선정</li> <li>· 생활시설과 업무 협조</li> <li>·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자 선정</li> <li>· 자원봉사 계획 수립 (활동내용, 교통편, 숙식)</li> <li>· 자원봉사 교육 실시</li> </ul>
	<p>실행 단계</p>	<p>① 판문점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남북 청소년의 만남</p> <p>②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p> <p>③ 북한 장애인 생활시설에 도착</p> <p>④ 장애인 생활 시설의 생활교사 및 장애인과의 만남의 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소개</li> <li>· 북한의 장애인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li> </ul>

<p>활동의 실제</p>	<p>실행 단계</p>	<p>⑤ 장애인 봉사활동(1일~7일)                  · 장애인 일상생활 보조(1일~3일.7일)                  · 장애인과 함께 평양 거리 체험하기(4일)                  · 장애인과 함께 문화재-유적지 탐방(5일~6일)</p> <p>⑥ 남북 청소년의 생활교사들과의 작별의 시간</p> <p>⑦ 남한 장애인 시설에 도착</p> <p>⑧ 장애인 생활 시설의 생활교사 및 장애인과의 만남의 시간                  · 시설 소개                  · 남한의 장애인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p> <p>⑨ 장애인 봉사활동(8일~15일)                  · 장애인 일상생활 보조(1일~3일.7일)                  · 장애인과 함께 서울 거리 체험하기(4일)                  · 장애인과 함께 문화재-유적지 탐방(5일~6일)</p> <p>⑩ 남북 청소년의 생활교사와의 작별의 시간</p> <p>⑪ 판문점 도착</p> <p>⑫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 평가 및 결의식 '우리는 하나'</p> <p>⑬ 귀가</p>			
	<p>평가 단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평가 내용</p> </td> <td> <p>① 장애인 봉사활동에서 느낀 점은?</p> <p>②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처음과 어떻게 다른가?</p> <p>③ 서로 힘든 일을 도와가면서 장애인 봉사활동에 임했는가?</p> <p>④ 장애인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였는가?</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평가 방법</p> </td> <td> <p>① 결의식 행사 때 결과 평가회 개최</p> <p>② 북한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을 후 과정 평가회 개최</p> <p>③ 소감문 작성 및 발표</p> </td> </tr> </table>	<p>평가 내용</p>	<p>① 장애인 봉사활동에서 느낀 점은?</p> <p>②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처음과 어떻게 다른가?</p> <p>③ 서로 힘든 일을 도와가면서 장애인 봉사활동에 임했는가?</p> <p>④ 장애인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였는가?</p>	<p>평가 방법</p>
<p>평가 내용</p>	<p>① 장애인 봉사활동에서 느낀 점은?</p> <p>②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처음과 어떻게 다른가?</p> <p>③ 서로 힘든 일을 도와가면서 장애인 봉사활동에 임했는가?</p> <p>④ 장애인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였는가?</p>				
<p>평가 방법</p>	<p>① 결의식 행사 때 결과 평가회 개최</p> <p>② 북한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을 후 과정 평가회 개최</p> <p>③ 소감문 작성 및 발표</p>				

〈예시 2〉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선구호활동 프로그램

활동 목적	목적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 해소	하위목표 1	집단주의 함양
			하위목표 2	협동심 함양
			하위목표 3	개방적인 성격 함양
활동 개요	활동 인원	11 ~ 20 명		
	시기 및 장소	시 기	여름방학(1~7일 북한, 8~15일 남한)	
		장 소	서울과 평양의 거리와 재해지역	
	활동 내용	① 길거리 홍보 캠페인		
② 자선 냄비 활동				
③ 재해지역 일손 돕기				
④ 거리 체험하기(서울, 평양)				
활동 준비물	구급약품, 모자, 장갑, 수건, 세면도구, 여벌의 옷, 체육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① 남북 청소년간 이념적 논쟁을 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② 남북 청소년 서로간 언어 및 행동에 대해 놀리지 않도록 교육한다.			
	③ 남한과 북한의 언어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④ 활동 시 용모, 의상, 미용, 언어에 유의하도록 사전 지도한다.			
	⑤ 자선 구호 활동 시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게 한다.			
	⑥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에 유념하도록 지도한다.			



<p>활동의 실제</p>	<p>준비 단계</p>	<p>① 문제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선구호 활동 현장의 비디오를 시청하고 경한자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또 불우이웃의 생활상을 그린 비디오를 시청한다.</li> <li>→ 자선구호활동에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인식</li> <li>→ 자선구호활동에 대한 남북 청소년의 생각이 부족했음을 인식</li> <li>→ 불우한 사람들의 생활의 빈약함을 인식</li> </ul> <p>② 사전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선구호 활동의 요령</li> <li>· 남북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자선 구호 활동 작성</li> <li>· 대상지역에 필요한 자선구호 활동 사전 조사</li> <li>· 남북한 언어의 차이에 대한 학습</li> <li>· 남북한 생활 방식에 대한 학습</li> </ul> <p>③ 실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 기간 선정</li> <li>·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 기관 선정</li> <li>· 기관과 업무 협조</li> <li>·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자 선정</li> <li>· 자원봉사 계획 수립 (활동내용, 교통편, 숙식)</li> <li>· 자원봉사 교육 실시 (각 분야에 대한 교육)</li> </ul>
---------------	------------------	---



〈예시 3〉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양로원 봉사활동 프로그램

활동 목적	목적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 해소	하위목표 1	공감대 형성	
			하위목표 2	협동심 함양	
			하위목표 3	개방성 함양	
활동 개요	활동 인원	11 ~ 20 명			
	시기 및 장소	시 기	여름방학(1~7일 남한, 8~15일 북한)		
		장 소	서울과 평양의 근거리 양로원 각 7개소		
	활동 내용	① 1:1 결연			
		② 1:1 이야기 시간			
		③ 1:1 효도하기(예: 안마하기)			
④ 노인들께 식사와 다과 대접하기					
⑤ 노래자랑 효도하기					
⑥ 체육 활동(배드민턴)					
활동 준비물	사진기, 구급약품, 모자, 여벌의 옷, 세면도구, 노래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① 남북한 간 이념 논쟁을 삼가도록 교육한다.				
	② 남북 청소년 서로간 언어나 행동에 대해 놀리는 행위 금지시킨다.				
	③ 남한과 북한의 언어의 이해에 대하여 교육한다.				
	④ 노인의 심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⑤ 노래자랑시간의 노래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⑥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에 유념하도록 지도				

<p>활동의 실제</p>	<p>준비 단계</p>	<p>① 문제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청소년은 양로원의 생활을 담은 비디오를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li> <li>· 노인들은 사람의 방문을 좋아한다는 것을 인식</li> <li>→ 위문 활동의 필요성 인식</li> </ul> </li> </ul> <p>② 사전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알아보기</li> <li>·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 알아보고 익히기</li> <li>· 재미있는 이야기 찾아보기</li> <li>· 노인 모시는 방법과 기술 익히기</li> <li>· 남북한 언어의 차이에 대한 학습</li> <li>· 남북한 생활 방식에 대한 학습</li> </ul> <p>③ 실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 기간 선정</li> <li>·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 시설 선정</li> <li>· 시설과 업무 협조</li> <li>·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자 선정</li> <li>· 자원봉사 계획 수립(활동내용, 교통편, 숙식)</li> <li>· 자원봉사 교육 실시</li> </ul>
---------------	--------------	--

<p>활동의 실제</p>	<p>실행 단계</p>	<p>① 판문점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남북 청소년의 만남</p> <p>②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교육</p> <p>③ 남한 양로원 봉사활동(7개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전 → 도착 및 레크리에이션, 1:1 결연</li> <li>· 점심식사 → 식사와 다과 대접</li> <li>· 오후 → 1:1 이야기 시간, 1:1 효도하기 체육활동(배드민턴)</li> <li>· 저녁식사 → 식사와 다과 및 노래 자랑</li> <li>· 밤 → 작별의 시간 및 다음 시설로 이동</li> </ul> <p>④ 북한 양로원 봉사활동(7개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전 → 도착 및 레크리에이션, 1:1 결연</li> <li>· 점심식사 → 식사와 다과 대접</li> <li>· 오후 → 1:1 이야기 시간, 1:1 효도하기 체육활동(배드민턴)</li> <li>· 저녁식사 → 식사와 다과 및 노래 자랑</li> <li>· 밤 → 작별의 시간 및 다음 시설로 이동</li> </ul> <p>⑤ 남북 청소년들의 작별의 행사 및 휴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청소년들의 작별의 캠프파이어</li> <li>· 선물 교환</li> </ul> <p>⑪ 판문점 도착</p> <p>⑫ 남북 청소년 평가회 및 결의식 '우리는 하나'</p> <p>⑬ 귀가</p>			
	<p>평가 단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평가 내용</p> </td> <td> <p>① 양로원 봉사활동에서 느낀 점을 남북 청소년이 발표하게 한다.</p> <p>②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졌는가?</p> <p>③ 봉사 활동 중에 서로 협동적이었는가?</p> <p>④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인들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였는가?</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평가 방법</p> </td> <td> <p>① 결의식 행사 때 결과 평가회 개최</p> <p>② 남한 양로원 봉사활동을 끝낸 후 과정 평가회 개최</p> <p>③ 소감문 작성 및 발표</p> </td> </tr> </table>	<p>평가 내용</p>	<p>① 양로원 봉사활동에서 느낀 점을 남북 청소년이 발표하게 한다.</p> <p>②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졌는가?</p> <p>③ 봉사 활동 중에 서로 협동적이었는가?</p> <p>④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인들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였는가?</p>	<p>평가 방법</p>
<p>평가 내용</p>	<p>① 양로원 봉사활동에서 느낀 점을 남북 청소년이 발표하게 한다.</p> <p>②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졌는가?</p> <p>③ 봉사 활동 중에 서로 협동적이었는가?</p> <p>④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인들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였는가?</p>				
<p>평가 방법</p>	<p>① 결의식 행사 때 결과 평가회 개최</p> <p>② 남한 양로원 봉사활동을 끝낸 후 과정 평가회 개최</p> <p>③ 소감문 작성 및 발표</p>				

## 〈예시 4〉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 해소를 위한 농촌 봉사활동 프로그램

활동 목적	목적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 해소	하위목표 1	남북 농업의 현실 이해
			하위목표 2	협동심 함양
			하위목표 3	개방적 성격 변화
활동 개요	활동 인원	11 ~ 20 명		
	시기 및 장소	시 기	여름방학(1~7일 남한, 8일~15일 북한)	
		장 소	서울과 평양에서 근거리 및 원거리 농촌지역 각 1개 지역	
	활동 내용	① 도로 주변 제초 작업 및 마을 청소		
		② 논농사일 돕기		
		③ 밭농사일 돕기		
		④ 농촌 노인 경로 잔치		
⑤ 과수 관리				
⑥ 농촌 어린이와 체육활동				
⑦ 농촌 견학 및 농민과의 대화				
활동 준비물	사전기, 구급약품, 장갑, 모자, 여벌의 옷, 세면도구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① 농작물에 대한 교육			
	② 이념 논쟁을 하지 않도록 교육			
	③ 남북 청소년 서로간 언어 및 행동에 대해 놀리지 않도록 지도			
	④ 남한과 북한의 언어 이해에 대한 교육			
	⑤ 남북 청소년간은 물론 봉사활동 지역의 농민을 무시하거나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지도			
	⑥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에 유념하도록 지도			

<p style="text-align: center;">활동의 실제</p>	<p>준비 단계</p>	<p>① 문제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청소년의 농촌 경험에 대한 이야기</li> <li>→ 농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li> <li>→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이해</li> </ul> <p>② 사전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 관리 요령</li> <li>· 봉사활동 대상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 조사</li> <li>· 남북한 언어의 차이에 대한 학습</li> <li>· 남북한 생활 방식에 대한 학습</li> </ul> <p>③ 실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대상 지역 선정</li> <li>· 이질감 해소를 위한 농촌 봉사 활동 예비 교육</li> <li>· 세부 계획 수립 (기간, 인원, 교통편, 숙식, 봉사활동내용)</li> </ul>
	<p>실행 단계</p>	<p>① 관문집에서 남북 봉사활동 청소년의 만남</p> <p>② 남북 청소년 봉사활동 교육</p> <p>③ 남한 농촌 봉사 활동지역 도착</p> <p>④ 남한 농촌 봉사 활동지역 주민과의 만남</p> <p>⑤ 봉사활동 실시(7일)</p> <p>⑥ 남한 농촌 주민들과의 작별의 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 농촌 주민과 남북 청소년의 대화의 시간</li> </ul> <p>⑦ 북한 농촌 봉사 활동지역 도착</p> <p>⑧ 북한 농촌 봉사 활동지역 주민과의 만남</p> <p>⑨ 봉사활동 실시(7일)</p> <p>⑩ 북한 농촌 주민들과의 작별의 시간</p>

활동의 실제	실행 단계	① 판문점 도착 ② 남북 청소년의 평가회 및 결의식 '우리는 하나' ③ 귀가
	평가 내용	① 농촌 일손 돕기 내용에서 느낀 점은?
		② 남북 청소년에 농촌 봉사 활동 시 협동적이 있는가?
	평가 단계	③ 남북 청소년이 농촌 봉사 활동 시 서로 개방적 이었는가?
		④ 남북 청소년이 활동 시 남쪽 또는 북쪽 청소년의 활동에 관한 문제가 발생 시 문제를 관계없는 타인이 도와주었는가?
	평가 방법	① 결의식 행사 때 결과 평가회 개최
② 남한 농촌 봉사 활동을 끝낸 후 과징 평가회 개최		
③ 소감문 작성 및 발표		



## 〈예시 5〉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 해소를 위한 고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동 목적	목적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 해소	하위목표 1	협동심 함양
			하위목표 2	주체성 함양
			하위목표 3	다양성 함양
활동 개요	활동인원	11 ~ 20 명		
	시기 및 장소	시 기	겨울 및 여름방학(1~7일 북한, 8~15일 남한)	
		장 소	남한과 북한의 고아원 각 1개소	
	활동내용	① 학습보조		
		② 고아원 청결 유지하기(청소)		
		③ 영화 감상하기		
		④ 편지 쓰기		
⑤ 식사 준비하기				
⑥ 체육활동(축구, 야구, 농구, 피구 등)				
⑦ 문화재 및 유적지 탐방				
활동 준비물	구급약품, 사진기, 여벌의 옷, 세면도구, 선물, 장갑, 모자, 필기 도구, 체육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① 이념적 논쟁을 하지 않도록 교육			
	② 남북 청소년 서로간 언어 및 행동에 대해 놀리지 않도록 교육			
	③ 남한과 북한의 언어 이해에 대한 교육			
	④ 어린이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언행에 주의한다.			
	⑤ 어린이들을 진실과 사랑으로 대한다.			
	⑥ 어린이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			
	⑦ 봉사활동의 보람과 성과를 성급하게 기대하지 않는다.			
	⑧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에 유념하도록 지도			

<p>활동의 실제</p>	<p>준비 단계</p>	<p>① 문제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원생들의 삶에 대한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청소년 모두 고아원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음을 인식</li> <li>▶ 남북 청소년이 함께 고아원생들을 위하여 할 일은 사랑의 손길을 주는 것임을 인식</li> <li>▶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li> </ul> </li> </ul> <p>② 사진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원의 시설과 고아원생들의 특성 알아보기</li> <li>· 고아원생들이 필요로 하는 집 조사하기</li> <li>· 고아원생들에 대한 접근방법과 봉사활동 기술 익히기</li> <li>· 고아원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체육활동을 조사하고 규칙 익히기</li> <li>· 남북한 언어의 차이에 대한 학습</li> <li>· 남북한 생활 방식에 대한 학습</li> </ul> <p>③ 실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 기간 선정</li> <li>·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 시설 선정</li> <li>· 시설과 업무 협조</li> <li>·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자 선정</li> <li>· 자원봉사 계획 수립(활동내용, 교통편, 숙식)</li> <li>· 자원봉사 교육 실시</li> </ul>
---------------	------------------	---

<p>활동의 실제</p>	<p>실행 단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판문점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남북 청소년의 만남</li> <li>②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교육</li> <li>③ 북한의 봉사활동 할 고아원 도착</li> <li>④ 고아원생들과의 만남의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소개</li> <li>· 일정 소개</li> </ul> </li> <li>⑤ 고아원 봉사활동(1일~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유적지 탐방(3일~4일)</li> </ul> </li> <li>⑥ 고아원생들과의 작별의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원생들과 남북 청소년의 캠프파이어</li> <li>· 선물주기</li> </ul> </li> <li>⑦ 남한의 봉사활동 할 고아원 도착</li> <li>⑧ 고아원생들과의 만남의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소개</li> <li>· 일정 소개</li> </ul> </li> <li>⑨ 고아원 봉사활동(8일~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유적지 탐방(10일~11일)</li> </ul> </li> <li>⑩ 고아원생들과의 작별의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원생들과 남북 청소년의 캠프파이어</li> <li>· 선물주기</li> </ul> </li> <li>⑪ 판문점 도착</li> <li>⑫ 남북 청소년 평가회 및 결의식 '우리는 하나'</li> <li>⑬ 귀가</li> </ol>								
	<p>평가 단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평가 내용</p> </td> <td>① 고아원 봉사활동 시 느낀 점은?</td> </tr> <tr> <td>② 남북 청소년이 고아원 봉사활동 시 협동적이었는가?</td> </tr> <tr> <td>③ 활동 시 남쪽 또는 북쪽 청소년의 활동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한 쪽의 청소년이 도와주었는가?</td> </tr> <tr> <td>④ 남북 청소년이 봉사활동 중에 생각을 일치하는 내용이 있었는가?</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평가 방법</p> </td> <td>① 결의식 행사 때 결과 평가회 개최</td> </tr> <tr> <td>② 북한 고아원 봉사활동을 끝낸 후 과정 평가회 개최</td> </tr> <tr> <td>③ 소감문 작성 및 발표</td> </tr> </table>	<p>평가 내용</p>	① 고아원 봉사활동 시 느낀 점은?	② 남북 청소년이 고아원 봉사활동 시 협동적이었는가?	③ 활동 시 남쪽 또는 북쪽 청소년의 활동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한 쪽의 청소년이 도와주었는가?	④ 남북 청소년이 봉사활동 중에 생각을 일치하는 내용이 있었는가?	<p>평가 방법</p>	① 결의식 행사 때 결과 평가회 개최	② 북한 고아원 봉사활동을 끝낸 후 과정 평가회 개최
<p>평가 내용</p>	① 고아원 봉사활동 시 느낀 점은?									
	② 남북 청소년이 고아원 봉사활동 시 협동적이었는가?									
	③ 활동 시 남쪽 또는 북쪽 청소년의 활동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한 쪽의 청소년이 도와주었는가?									
	④ 남북 청소년이 봉사활동 중에 생각을 일치하는 내용이 있었는가?									
<p>평가 방법</p>	① 결의식 행사 때 결과 평가회 개최									
	② 북한 고아원 봉사활동을 끝낸 후 과정 평가회 개최									
	③ 소감문 작성 및 발표									

## 5. 결론 및 제언

### 5.1 결론

분단 이후 통일의 염원은 계속되었지만 통일의 시기는 예측불허이다. 그래도 현재 남북의 청소년은 통일의 주역임에 틀림없다. 통일의 주역인 남북 청소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동질감을 요구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남한 청소년들은 북한 청소년을 보는 이미지와 자신을 보는 이미지간에 큰 괴리감을 지각하고 있다.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동질성은 거의 없는 반면 이미지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은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 청소년을 동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점뿐이다.

특히, 이러한 남북 청소년의 다른 이미지의 형성은 이질감에서도 큰 차이를 조성한다. 조사한 14개 항목의 이질감 중 남북 청소년간 이질감은 13개 항목에서 나타나 이질감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확신할 수 있다. 즉, 남한 청소년들은 북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집단적, 협동적, 획일적, 과정적, 폐쇄적, 수동적, 애속적, 권위적, 이상적, 건전, 보수적, 무기력 및 단순한 것으로 지각한 반면 자신들은 북한 청소년보다 개인적, 경쟁적, 다양성, 목적적, 개방적, 능동적, 주체적, 자유주의적, 현실적, 퇴폐적, 진보적, 의욕적 및 복잡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 청소년간 이질감을 해소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남북 청소년이 함께 만남의 자리를 이용, 자원봉사활동과 토론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서로의 다른 사회적 토양을 이해·인정하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합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러한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은 여러 가지 제약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 5.2 제언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배정과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원 및 전담 부서가 확보되면 이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하고 실천 가능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 (5) 남북 청소년 공히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의 자발성을 높여야 한다.

## 【 참고문헌 】

- 공보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74, (1996)
- 국토통일원, 「남북한 청소년의 문제와 전망」, (1980)
- 국토통일원, 「남북한 이질화 : 그 현황과 극복」, (1997)
- 권이중, “남북 청소년 교류를 위한 청소년 의식 조사”, 한국청소년학회 학술세미나 자료, (2000)
- 김동규, “남북한간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와 문화가치의 접점과 시사점”, 한국청소년학회 학술 세미나 자료, (2000)
- 김정배, “21세기 한국형 청소년자원봉사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관광부, (2000)
- 김정배, “21세기 청소년자원봉사 정책과 추진방향”,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99-R 56, (1999)
- 김정배, “주요 외국의 청소년자원봉사”, (1997),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97-29. 문화관광부(2000), 청소년백서.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제국민여론조사 결과」, 45-52, (1995)
- 박성희 외,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 박성희, “북한 청소년단체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육성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8, (1995)
- 송광성, “독일 통일과 청소년”,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94-04, (1994)
- 오기성, “동질성회복을 위한 청소년 통일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7권, 제2호, (1996)
- 윤철경, “한일교류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이상오, “통독 전 독일의 청소년교류와 시사점”, 한국청소년학회 학술 세미나 자료, (2000)
- 이영택(이영택), 「교육의 과정」, 서울 : 배영사.
- 이원봉, “북한 청소년생활의 심층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4호 봄」, (1996)

- 이재창 · 최운실 · 정영애 · 최경선,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배경」, 한국교육개발원, (1983)
- 이춘재, 「청년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93)
- 정회욱, “북한에 관한 청소년 의식 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97-10, (1997)
- 조복희 · 강완숙, “청소년의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거리감과 정보 종류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5권 제3호」, 한국청소년학회, (1998)
- 조영승, “남북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한국청소년학회 학술 세미나 자료, (2000)
- 황정규, 「한국학생의 의식구조」, (서울 :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79)
- Kulckhohn, K. (1962). Values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In Parsons, T., & Shils, E. A.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Ralph W. Tyler.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49.

부록: 설문지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상호 방문을 계기로 국민적 숙원인 통일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가까워 올수록 그 동안 다른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 남북 주민들의 이질감은 통일 후에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특히, 6.25 전후세대인 남북의 청소년들 간에는 서로 다른 점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주인인 우리 남한 청소년들은 북한 청소년들과 무엇이 어느 정도 다르고, 이러한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설문지는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을 조사하고, 이질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설문지에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만이 정답이며, 여러분의 응답은 집단으로 통계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학업에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질문을 잘 읽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6월

한서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이창식 드림

I. 다음은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 위에 V표 해주세요.

1. 나는 (① 남자, ② 여자)입니다.
2. 나는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입니다.



3. 나는 현재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Ⅱ. 다음은 남한 청소년과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따라 생각나는 단어를 5가지 이상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북한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5가지 이상)

---



---

2. 남한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5가지 이상)

---



---

Ⅲ. 다음은 남북 청소년의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답의 번호(①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② 보통이다, ③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위에 V 표시하여 주세요.

이질감 해소 방안	응답표						
1. 남북 청소년간 학문적 교류(학술발표회·토론회 등)	①	②	③				
2. 남북 청소년간 자원봉사	①	②	③				
3. 남북 학교간 자매결연	①	②	③				
4. 남북 청소년간 체육교류	①	②	③				
5. 남북 청소년간 수학여행 또는 관광	①	②	③				
6. 남북 청소년간 문화행사(사진전, 음악회, 연극 등)	①	②	③				
7. 남북 청소년간 인터넷(채팅, 전자우편) 교류	①	②	③				
8. 위의 7가지 이질감 해소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은?							
	1	2	3	4	5	6	7

IV. 다음은 남한 청소년과 북한 청소년의 이질감 차이를 알아보려는 질문입니다. 아래 응답 요령과 같이 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점수 위에 V 표시하여 주세요.

아 래

“내 생각으론 남한 청소년은 매우 적극적인데  
북한 청소년은 약간 적극적이다.”

남한 청소년

북한 청소년

적극적 1—2—3—4—5 소극적      적극적 1—2—3—4—5 소극적

남한 청소년		북한 청소년	
집단주의	1—2—3—4—5 개인주의	집단주의	1—2—3—4—5 개인주의
협동주의	1—2—3—4—5 경쟁주의	협동주의	1—2—3—4—5 경쟁주의
회 일 성	1—2—3—4—5 다 양 성	회 일 성	1—2—3—4—5 다 양 성
목적중시	1—2—3—4—5 과정중시	목적중시	1—2—3—4—5 과정중시
폐 쇄 성	1—2—3—4—5 개 방 성	폐 쇄 성	1—2—3—4—5 개 방 성
수 동 성	1—2—3—4—5 능 동 성	수 동 성	1—2—3—4—5 능 동 성
주 체 성	1—2—3—4—5 예 속 성	주 체 성	1—2—3—4—5 예 속 성
권위주의	1—2—3—4—5 자유주의	권위주의	1—2—3—4—5 자유주의
이 상 성	1—2—3—4—5 현 실 성	이 상 성	1—2—3—4—5 현 실 성
건 전 성	1—2—3—4—5 퇴 폐 성	건 전 성	1—2—3—4—5 퇴 폐 성
보 수 성	1—2—3—4—5 진 보 성	보 수 성	1—2—3—4—5 진 보 성
의 욕 성	1—2—3—4—5 무 기 렷	의 욕 성	1—2—3—4—5 무 기 렷
감각주의	1—2—3—4—5 이성주의	감각주의	1—2—3—4—5 이성주의
단 순 성	1—2—3—4—5 복 잡 성	단 순 성	1—2—3—4—5 복 잡 성

V. 다음은 남북 청소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답의 번호 위에 V 표시하여 주세요(반드시 하나만 선택).

1. 내 생각에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는 (① 정부, ② 시민 단체, ③ 청소년 단체, ④ 지방자치단체, ⑤ 청소년 개인)가(이) 가장 바람직하다.
2. 만일 청소년 단체가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주체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① 학교 중심, ② 또래집단 중심, ③ 클럽·동호회 중심, ④ 가족단위 중심)이 적절하다.
3. 내 생각에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기간은 (① 3일 이하 ② 3-7일 ③ 1-2주 ④ 3주-1개월 ⑤ 1개월 이상)가(이) 적당하다.
4. 내 생각에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은 (① 농촌·장애인 시설 등에서 일손 돕기, ② 고아원·양로원 등에서의 위문활동, ③ 교통·안전지도 등 지도활동, ④ 공공질서 유지 등 캠페인 활동, ⑤ 불우이웃 돕기 등 자선·구호활동, ⑥ 환경·시설보전활동, ⑦ 지역사회개발활동)이(가) 가장 적당하다.
5. 내 생각에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남북 청소년을 합쳐 모두 (① 10명 이하, ② 11-20명, ③ 21-30명, ④ 31명 이상)이(가) 가장 적당하다.
6. 내 생각에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장소는 (① 남한, ② 북한, ③ 남한+북한, ④ 제3의 국가)이 적절하다.
7. 내 생각에 남북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중 이질감 해소를 위해서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① 홈 스테이, ② 산업시찰, ③ 문화제·유적지 탐방, ④ 체육대회, ⑤ 거리체험, ⑥ 남북 청소년 집단 토의)가(이) 첨가되어야 한다.
8. 나는 남북 청소년이 함께 자원봉사를 한다면 (① 참여하겠다, ② 참여하지 않겠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 빠진 문항이나 중복 응답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학교통일교육 극대화 방안



최 승 규  
(부산대 강사)

## 목 차

【 요약문 】 .....	205
1. 서 론 .....	207
2. 통일교육의 목표 및 방향 .....	210
3.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 .....	215
4.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모형 .....	221
5.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통일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	235
6. 결론 .....	238
※ 참고문헌 .....	239



## 【요약문】

남북한간 금강산 관광·스포츠 교류·경제협력 등이 날로 증대되어 통일을 재촉하는 적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바야흐로 한반도에서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 나아가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통일여건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통일 준비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민족적 통합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분야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통일교육의 방향이나 목적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으나, 교수방법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청소년들의 의도에 맞는 교수 학습방법의 연구 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에 따른 보다 적절한 교수 모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학습 방안 연구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통일교육의 목표와 지도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상의 현 실태와 방향을 탐색하여 그 보완책으로 제시하는 정보통신기술(ICT)활용 통일교육 방안의 필요성과 연계된다. 정보통신기술(ICT)활용 통일교육 방안으로는 타 교육에서도 사용되는 기본 교수 학습방안을 기초로 하여 통일교육의 적용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수업 모형으로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 학습, 협력학습, 상황학습, 원격토론 학습 등을 제시하여 통일교육의 방법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수업 환경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 소집단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 학습을 위한 매체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논의는 교수 학습 모형에 대한 제시에 그치지 않고 통일교육의 수업 모형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사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방안은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 방향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 이전의 교과서와 교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통일교육을 최신 정보와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러한 최신의 정보들은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학습자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통일교육 수업방안은 다양한 장점 내지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완할 점도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1. 서론

## 1.1 문제제기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의 개최와 이에 따른 6·15 남북 공동 선언은 남북한 관계 및 통일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립과 긴장 및 갈등으로 특징 지워지던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 및 평화 공존의 시대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학교 통일 교육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이라는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남북한간 금강산 관광·스포츠 교류·경제협력 등이 날로 증대되어 통일을 재촉하는 적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바야흐로 한반도에서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 나아가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통일여건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통일 준비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민족적 통합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분야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

이런 일련의 객관적 조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어떻게 구상하고 내용을 만들어 현장에서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학교 통일교육에 있어서 통일교육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교육과정에 적용된 교과내용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방법설정이 어려운 점은 통일교육의 대상이며 통일의 주체가 될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체로 '무관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1)</sup> 오늘날 학교 교육 자체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만들어 실제 적용을 하는 교육현장에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부합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적용이 통일교육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교육에 관한 한 준비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교과교육이나 교과 외 교육 등은 보

1) 민주평등보고서 『통일문제 및 학교통일교육 실태 조사결과』(2000.5)를 보면 전국 중·고교 도덕, 윤리교사 중 15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통일관련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에서 75.2%의 학생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유는 학생들의 낮은 통일의식(58.9%), 교과서 등 교육자료문제(20.9%), 수능시험 등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18.9%)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편·특수한 지식과 지혜의 축적물로 그 교육과정과 내용, 방법 등이 최소한 준비되어 교과서가 제작·보급되고 있어 교육현장의 교수·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우리의 주제인 통일교육은 한반도 현대사의 특수 상황에서 분단이 초래되고 50년 이상 적대관계를 형성해 온 교육적 배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지할 학문적 근거가 미약하고 참고할 내용과 방법도 매우 부족하다. 결국 우리 민족의 순수한 창의성에 의거하여 '창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sup>2)</sup>

이는 한반도 분단 이후의 현대사를 되돌아볼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도 있다. 기존의 안보·통일교육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을 재통합시키기 위한 차원보다는 오히려 남북한간의 이질화 및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sup>3)</sup> 지금까지 분단상태에서 남북 상호간의 통일논의는 문화적·역사적 동진성의 강조보다, 가시적으로 쉽게 드러나는 이질적인 정치·군사·경제적 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통일에의 접근이 전략적이며 도구적인 특성을 지녀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통일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통일교육의 방향이나 목적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으나, 교수방법에 있어서는 당위를 제시하거나 일반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내용이 조직되고, 교육내용에 따라 적절한 교수방법이 교사에 의해서 선택되는데, 특히 학교중심의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통일 교육내용에 비해 방법적 측면의 교수방법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다.

현 정부 들어 『국민의 정부 통일교육방안』(1998)과 『통일교육 기본지침서』(2001), 통일백서(2001) 등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지양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분명, 새로운 방침에 근거하여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통일교육 수업의 실제(서울시교육청, 2001)와 각종 통일교과서(초, 중등용), 『통일로 미래로』(2000)와 같은 각종 교재와 참고자료가 연구 보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에 따른 보다 적절한 교수 모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학습 방안 연구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이를 위해 한 연구자는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인식을 바탕으로' '통일학'이라는 새로운 교육의 영역을 만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혜정 외, 『탈분단 시대를 열미』, 삼인, 2000, p. 344)

3) 유현석, "통일 한국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연구", 연세대 통일연구소, 『통일연구』 2호, 1997, p.48.

##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교육은 그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특히 학교교육은 교육의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지니고 있으며 교육의 대상자들이 특정부분에 대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매우 크다. 더구나 학교에서 습득한 가치관이나 태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특정사실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준거의 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실 이제껏 우리는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비해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통일교육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통일교육의 내용이 다양한 교육자료를 통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의 내용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교수 학습방안의 구현이 따라야만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통일교육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의 교육 방법적 측면에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정보통신기술(ICT)활용 교수법에 대해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우선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활용과 관련된 통일교육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과, 교수-학습방안을 다 각도로 제시하고자 한다.<sup>4)</sup>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은 학교통일교육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통일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중심축을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정규 교육활동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방법은 기존의 통일교육 교수법과 선행연구를 통해 보완점을 제안하는 것을 시작으로 할 것이다. 통일교육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점검하여 그에 맞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교수방법의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자는 실제로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

4) 교육부에서 개발보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은 각 교과와 교수-학습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교과과정에 통합시켜, 교육적 매체(instructional media)로써 ICT를 활용하는 교육이다. 예를 들면 교육용 CD-ROM 타이틀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거나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한 웹 자료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하는 형태이다. 교수-학습과정에서 ICT 활용의 큰 목적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촉진시켜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개발한 통일교육CD자료(KEDI 자료집)는 통일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엄청난 자료를 제공하는 매우 적절한 연구성과가 보급되고 있다. 이처럼 자료의 개발, 보급에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방안이나 방법상의 개발, 보급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할 수 있다.

는 일선현장에 있기에 실제 현장의 활용도를 중심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발전전인 학교 통일교육 수업방향 제시를 통해 이론과 실천, 학술적 연구와 교육현장의 연계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 2. 통일교육의 목표 및 방향

### 2.1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은 그 동안의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번영을 열망하는 조력의 전부를 의미한다. 최근 통일부의 통일교육지도지침(2001)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다시 말해 첫째,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둘째, 통일환경과 남북한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셋째,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의지 함양을 그 구체적 목표로로서 정의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또한 통일을 준비하는 태도로서 우리 사회 내부의 화합과 남북한의 화해를 추구하고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평화를 애호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sup>5)</sup>

한편 추병완<sup>6)</sup>은 통일 교육의 목표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통일 이후의 국가 생활에서 국민들에게 요청되는 바람직한 통일 가치관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통일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통일 문제에 대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행동적 요소를 고르게 갖추고 있다. 다음의 표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5) 한만길 외, 『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97), pp.50~51.

6) 추병완외, 『통일교육론』, 2000. p. 24.

〈표 1〉 통일 교육의 목표

목표 영역		해당되는 대표적인 통일 교육 목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li> <li>· 개념</li> <li>· 일반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의 당위성 인식</li> <li>·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li> <li>· 우리 민족의 문화·역사·관습·언어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li> </ul>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기능</li> <li>· 탐구 기능</li> <li>· 민주 사회적 기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문제에 대한 판단 능력</li> <li>·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li> <li>·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li> <li>· 집단 상호 작용 및 사회 참여 능력</li> <li>· 반성적 사고 기능과 지적 기능</li> </ul>
가치 ·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람직한 가치 태도</li> <li>· 합리적인 가치 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의지의 고취</li> <li>· 통일 위협 요소에 대한 폭넓은 이해</li> <li>· 민족 공동체 의식 확립</li> <li>· 민주주의적 이념의 실천적 생활태도 확립</li> <li>· 민족 정체성과 민족 동질성 확립</li> </ul>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 통일 교육은 남북한 상호불신과 적대감 해소를 통한 이해와 화해의식을 형성하고, 남북한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통일의지의 함양을 강조하여야 한다.

## 2.2 통일교육의 방향

이렇듯 분단 시대의 통일교육은 분단 고착화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통일교육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단순한 응급치료법으로 오인되거나, 혹은 통일이 한반도에 있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수용되는 그릇된 분위기를 창출함으로써, 정태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띠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일교육은 동태적인 통일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님과 동시에 한민족 전체의 공동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삶의 질을 고양시켜 줄 수 있는 통일 이념에 대한 헌신몰입과 곧 도래할 통일 국가에서 책임 있는 민주 시민적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하

고 고무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이며 체계성을 갖춘 교육이 되어야 한다.7)

이 시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의 의미와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적 명제가 무엇이며, 남북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통일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통일 후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미래 통일조국의 모습 등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설정이 되어야 바람직한 통일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교육이 시대적 변화에 일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면, 그 교육의 방향도 통일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무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통일교육은 남북한이 공유하고 또 세계사적 흐름에 조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남북한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통일교육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제대로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인식이 약화된다면, 통일의지가 없거나 약화될 수밖에 없다. 통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민족사적, 역사적 이유에서 찾아야 하고 나아가서는 통일은 세계적 흐름에서도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교육해야 한다.8)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통일교육의 출발점이 마련된다.

둘째,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당위성은 민족공동체적 입장에서 찾아야 한다.9) 통일교육이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인간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객관적 비교를 통한 동질성 확보, 상대의 의미 있는 가치들에 대해 인정해주는 개방적 자세를 견지하는 열린교육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거기에 필요한 가치들을 심어주는 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은 통일의 전개과정이나 그 후의 모습도 포함해야 한다. 통일은 민족국가불 건설해 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그래서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통일조국의 형성과정과 장차 통일조국이 경험하게 될 정치,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의 대내외적인 분제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인식과 대응능

7) 일례로, 최은수(1996)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체제 외적인 측면, 체제 내적인 측면, 교육 내용의 측면, 교육 방법 및 지원 체제의 측면에서 제시한 바 있으며, 손봉삼(1996)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 내용의 조직 방향을 전통적 윤리 의식의 측면, 민족주의의 측면, 평화교육의 측면,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제시한 바 있다. 또, 정건영(1993)은 통일교육의 성격을 정치교육과 평화 교육으로 설정하고, 통일 대비 교육의 과제로서 민주화 교육, 민족화 교육, 인간화 교육을 제시한 바 있다.

8) 임제호·강지한·문장순,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내용 분석", 『평화연구』 21호,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1996), p.6.

9) 통일부, 앞의 책, 1998, p.23.

력을 신장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일 대비교육은 북한 사회에 대한 합리적 이해에서 출발하여 북한 주민들과 화해하고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나아가 상호 이해와 화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는 통일 대비교육이 되어야겠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화공존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21세기의 통일 대비교육 접근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통일대비교육의 접근모형<sup>10)</sup>

내 용	안보와 통일 중심 모형	이해와 평화 중심 모형
기본방향	안보·통일지향 : 안보와 체제우위 확인	평화·화해 지향 : 평화와 화해 협력추구
접근방법	정치·이념적 접근 남북 체제 비교식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상호 이해와 객관적 비교접근
교육목표	정치·제도적 통합 지향	사회·문화적 통합 지향
교육주체	정부 주도	정부 민간 협력 체제
교육내용	체제·이념 중심 - 이념과 체제	생활·문화 중심 사회와 생활상 이해
교육방법	비교우위적 접근 공급자 위주 교수학습 강의와 교재 중심 제한된 정보 자료	객관적 비교와 상호이해 수요자 위주 교수학습 다양한 매체활용 다양한 정보 자료

위에 제시한 새로운 통일 대비교육의 접근 모형에 의하면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형은 무엇보다도 평화를 기초로 남북한간의 화해협력을 추진 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시키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자신의 가치준거에 기초하여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방법이 아니라, 북한문화가 우리와 상이함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주민과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을 이해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10) 한만길, "남북한의 화해 협력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2000년 통일교육세미나, 부산광역시교육청, p. 12~13을 참조, 보완하여 제시함

교육목표에서는 정치·제도적 통합을 지향하기보다는 사회·문화적 통합을 지향하고자 한다. 정치·제도적 통합은 체제 통합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통합은 생활세계와 의식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 통합의 측면은 국가의 지배기능, 물질적 재생산과 혁신을 포함하는 부분체계로서 경제체계, 정치체계와 법체계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통합을 추구한다는 것은 남북한 사이에 이치 존재하는 이질화, 분리, 차별, 불평등 상태를 사회·문화적인 노력을 통해 극복하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사회통합은 남북한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착시켜 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교육주체의 면에서는 과거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태를 지향한다. 즉 정부의 경우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지침, 내용체계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을 촉진, 지원하는 법적 기반 확충 및 재정적 지원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 2.3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통일교육의 방향이나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는 통일교육 실행을 위한 지도 원칙 및 구체적인 지도 방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은 어떠한 지도 원칙에 입각하여 실행되어야 하는가? 사실 이제껏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커다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통일교육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교육은 내용과 방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교수·학습과정으로 구현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통일교육 실행을 위한 지도 원칙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sup>11)</sup> 통일부의 통일교육 지도원칙에 따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사실의 전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상호간의 긍정적 수용과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북한 사회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새 시대의 통일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 문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즉, 앞으로는 분단의

11) 통일부, 앞의 책, 2001. p.8.



현실, 북한의 실상, 통일 문제에 대한 신뢰성 있고 공정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력을 바탕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각종 교육 기법의 활용을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토의수업의 활용을 통한 교육 주체의 자율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통일부의 통일교육지도지침(2001)에서도 각종 교육 기법의 활용의 방안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기법으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유비토의(Analogy discussion), 직소우(Jigsaw), 구조화된 논쟁(Structured controversy), 집단 탐구(Group investigation), 디스코그래피(Discography), 만화나 광고 활용하기, 마인드 맵(Mind-map), 확인하기(Affirming), 판놀이(Board Games)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 외에도 분류와 범주화, 신문 활용하기(NIE), 영상작품 활용하기(Movie Assisted Instruction), 퍼즐게임(Puzzle game), 녹음 테이프 활용하기(Tape-recording), 인터뷰하기 등 다양한 보조 기법들이 통일교육을 위한 토의 수업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학적인 방안들이 나열식 그대로 제시되어 있어서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안의 연결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3.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

아직도 한반도에는 냉전체제가 남아 있으면서, 동시에 남한 사회 내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신장, 시민사회, 사이버 사회의 발전 등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시대에 있어서의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sup>12)</sup> 특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의 통일교육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이나 교수방법, 그리고 교과운영에도 아직은 체계적인 교수 학습 방안의 제시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과 교수 방법적 요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시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정보통신

12) 고정식,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통일부 통일교육 워크숍, 1999, 1998, p.11.

기술활용을 통한 다양한 수업방법이 얼마나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3.1 통일교육의 내용적 요인

### 3.1.1 현 실태와 문제점

학교통일교육이 그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와 그 목표를 실현하려는 교육내용의 구성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현행 제 6차 교육과정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통일을 모색하고 통일 후 민족 공동체 형성에 대비하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 통일교육은 제시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내용이 상호 모순되거나 실제 사태와 부합되지 못한 점이 있다.

학교통일교육에 있어서 교육내용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유기적으로 학습되는 기회가 거의 배제된 채 통일의 당위성만 강조하거나 민족동질성 회복의 중요성만 맹목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에 한정되었다. 나아가 통일교육은 범 교과적, 교과 통합적, 가치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일교육은 도덕 교과나 사회 교과와 같은 특정 교과목에만 편중되어 실시됨으로써 기대하는 만족한 성과를 가져오기에는 애초부터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통일 관련 교과 내용이 도덕·윤리과에 집중되어 있어 도덕·윤리과에서는 비교적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통일교육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교과에서는 다루는 정도가 미약하다. 윤리과 같은 경우에도 통일문제를 다루는 교과내용이 대부분 교과서 마지막 단원에 집중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학기말에 시간배정이 이루어져 학습효과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교과목의 구조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수능시험 도입 이래 통일관련 문제가 입시 문제에서 거의 배제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규범적인 접근에 입각해 왔다.<sup>13)</sup> 규범적 접근의 특징은 북한 사회에 대한 일정한 시각과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방향과 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

13) 한만길, 앞의 글, 2000, p.11.

한 강한 의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범적 접근 위주의 통일교육은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시각과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교육은 규범적 접근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반대의 축이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한 양상을 보여 왔다.

교육의 학습 내용은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유리되어 있는 단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학생들의 체험의 대상이나 실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극히 추상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통일이라는 문제를 막연하고도 거창한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이 주류를 이룸으로서 우리의 통일 교육은 현실성을 결여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통일교육체제가 지니고 있는 수직적, 수용적 교육 등의 문제는 크게는 대학입시제도와 같은 한국교육의 기존 제도적 틀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통일교육 내용이 기존의 인식틀 내에서 진행되고 다른 주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3.1.2 발전방향

학교통일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제시와 더불어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동반되어야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의 실태파악을 통해 200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내용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sup>14)</sup>

먼저 통일교육 내용 구성은 다음의 내용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부응하는 내용 구성,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내용 구성,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 구성, 더불어 사는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내용 구성, 일상 생활문화를 소재로 하는 내용 구성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sup>15)</sup>

통일교육의 내용에서는 특히 이념교육이 주는 비현실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교육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sup>16)</sup> 이념 교육은 우리의 실생활

14) 교육부, 『제 7차 교육과정,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5(별책6), 1998, p.2~10.

15) 정세구 외, 『초·중등학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도덕과 시안(3-10학년)』, 1997, pp.66~84.

16) 엄재호, 앞의 글, p.15.

에서 현실을 지각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반면 생활교육은 삶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현실생활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지적한다. 따라서 남한 학생들은 생활교육적 차원의 이해를 통해 남북한 주민간 생활양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이질적 삶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될 것이다.

생활교육 내용과 함께 중요한 것은 교수 학습의 방법적 측면이다.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생활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특정교과를 설정하는 것보다 전 교과과정을 통하여 폭넓게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적절하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양적으로 축소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생활문화에 대한 내용이 7차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수준별로 통일교육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통해 통일의지를 갖게 하는 정서적 접근을 강조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남북한의 통일여건이나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7)</sup>

셋째, 통일교육의 체계성과 계열성을 명확히 하여, 저학년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과 상상력을 기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유롭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통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민족 공동체의 변영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넷째, 통일교육의 주된 내용들이 고교 입학 대신이나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때 이념이나 통일정책에 관련된 내용에 치중하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이나 통일의지를 함양시킬 수 있는 문항 등 다양한 문항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8)</sup>

## 3.2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방법 요인

### 3.2.1 현 실태 및 문제점

먼저 종래의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감상주의적이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통일에 대한 합리적 사고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17)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의 (고교 윤리) 『평가기준 및 도구 개발연구』(1998)를 보면 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평가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통일과 관련된 교육내용도 다양한 수행평가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18) 한만길, 앞의 글, p.35.

통일 문제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민주 사회적 기능들이 도외시된 채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오히려 참다운 민족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장애가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sup>19)</sup>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상상력,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 방식과 논의 절차, 남북한의 현실에 대한 균형 감각, 통일 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적 안목의 형성, 통일 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확신과 긍지의 형성에는 매우 소홀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둘째, 종래의 통일교육은 주로 남한사회와 북한사회를 견주는 상호비교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인간교육 비교, 이념교육 비교, 정치사상교육의 비교, 구체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대다수 연구가 남북한 비교를 통해 결과적으로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체제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었다.<sup>20)</sup>

셋째, 종래의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교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주된 내용은 우리의 통일 정책, 안보 문제, 북한의 실상 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교과서에는 새 정부의 통일 정책과 업적이 장황하게 기술되고 학생들은 이를 무조건 암기해야만 했다. 내용적 요인에 따라 지시전달식 수업방법이나 제한된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담당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는 많은 교사들에게 상당을 심적 부담을 가져다주었다.<sup>21)</sup>

### 3.2.2 발전방향

통일 준비 교육은 거창한 주제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 생활에 언제나 경험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갈등하며 공존하기, 상대의 고유한 인격을 나의 인격과 동등하게 인정하기, 서로 다른 점 인정하기, 물 지배적이고 개방적으로 대화하며 토론하기 등의 가치들이 제대로 교육된다면, 성공적인 통일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의 교육과 아울러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조성은 '인

19) 정세구, 『통일교육 교수기법』, 통일부, 1999

20) 한승조 외, 『남북한의 인성·사상교육』, 집문당, 1998, pp.98~99.

21) 민주평통, 『학교통일교육 실태 조사결과』 (2000)를 보면 중학교 윤리교사의 66.7%가 윤리교과서가 학생 통일의식함양에 부적절하다고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생들 통일의식 형성의 가장 큰 영향변수로 언론매체(66.9%)를 들고 있다. 학교교육은(22.1%)로 그 영향력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통일교육이 내용과 방법 모두에서 보완되어야함을 잘 지적하고 있다.

간적인 측면' 또는 서로의 삶의 과정을 인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sup>22)</sup>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을 조장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내용과 소재는 가급적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북한의 가정 생활, 의식주 생활, 가족 관계, 생활 풍습 등에 대하여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생활 문화를 소재로 한 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 사람들을 낯선 사람들이 아닌 한 민족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방법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교육의 관련 자료들도 이전에는 북한의 정치, 사회적 사건을 중심으로 그들의 뉴스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선전의 성격이 강한 정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친근감 형성'을 위해, 우리와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들의 생활상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새로운 통일교육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sup>23)</sup> 우리의 통일교육 현실을 돌아켜보면, 비판적 사고의 함양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각종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편견 해소의 구체적 방법으로서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활용은 다양한 교수 학습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교류 협력을 이끌어 있다. 제한된 정보가 아니라 합리적인 비판과 상호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본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앞서서처럼, 북한 사람들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려면, 그들에 대한 정보에 반복적으로 남한 젊은이들이 노출 되어야하고, 남한 젊은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고착적인 이미지를 타파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홍보나 교육은 정권의 변화나 구체적인 통일 정책의 변호에 영향을 받지 않고 통일의 주체인 남북한 주민들의 원만한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24)</sup>

즉, 통일교육은 계속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학생, 모든 학년을 대상으

22) 오인탁,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준비』, 서울:오름출판사 1997, p.24.

23) 김태완, "남북 이질성 극복을 위한 통일교육", 한국교육학회, 『교육학 연구』 33권2호, 1995.

24) 유현석, "통일한국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 연세대 통일연구소, 『통일연구』 2호, 1997, pp.83~85.

로 실시되어야한다. 물론 이러한 계속성의 원칙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위와 계열성이 뚜렷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교육에서의 통일교육이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북한 주민이나 우리나라 모두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교육시키고 그것이 새로운 사회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중 매체를 통해 북한주민의 삶과 생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 4.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모형

### 4.1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통일교육 활성화

#### 4.1.1 정보통신기술(ICT)활용 통일교육의 필요성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활동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각 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맞는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 통신 기술( 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sup>25)</sup>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넓혀 보다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ICT 활용 교육은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다양한 교육에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 통신 기술의 유용성을 의심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보아야 하며,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ICT 활용 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ICT 활용에 따른 장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25)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 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의 운영 및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각 교과에서 다양한 ICT활용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연구개발 보급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ICT활용수업 과정안 및 자료집』, 2000)

첫째, 학습의 자율성 및 유연한 학습활동 제공할 수 있다.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방법과 교실 중심의 제한된 교육환경에서 탈피하여 학습자의 자율과 특성을 존중하며,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활동을 수행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자기 주도적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ICT를 활용한 정보검색 및 의견교환을 통해 학습 목표와 전략 수립, 결과 평가 등 일련의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창의력 및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다. 다양한 ICT를 활용하여 정보 검색 및 수집, 분석, 종합 등 새로운 정보 창출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킨다.

넷째,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촉진을 위해 문제해결학습(Problem Solving Learning), 프로젝트학습(Project-Based Learning),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 협동학습(Cooperated Learning) 등 다양한 수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수·학습의 질적, 양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교육의 장을 넓힐 수 있다. 시·공간의 제약성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ICT의 활용을 통해 교육의 장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보다 사교의 폭을 넓히고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ICT) 교수 기법은 교수·학습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ICT활용 교육은 교사 중심의 강의나 설명에 비해 다양한 감각 기관을 자극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교사의 설명에 비해 빠른 시간에 제시할 수 있으므로 교수·학습 목표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다양한 ICT활용 교수 기법은 학습자가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탐색·수집·정리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 기법이기에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기법은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해 주며, 인지적 측면에서보다 정의적 측면에서의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한다.

나아가 ICT활용 교육은 실제 세상을 교실 안으로 끌어들이므로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과 사전 학습을 할 수 있게 해 주며, 폭넓고 깊이 있는 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sup>26)</sup>

특히 인터넷 활용 교육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다. 그 결과 미래의 자연스러운 교육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의 기본적 속성인 세계를 하나로 묶어 온갖 종류의 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하는 잠재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의 또 다른 교육적 의미는 이것이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있다. 곧, 닫힌 교육에서 열린 교육으로, 학교 교육에서 사회 교육으로

26) 자유규, "학교통일교육의 효율적 지도방안", 통일부 통일교육발전 워크샵, 1999, p.19



로, 고비용에서 저비용으로, 교육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자의 역할도 학습강제에서 학습안내로 전환하고 있다.

인터넷은 소장된 정보의 양이 무한하므로 인터넷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 교사와 학습자에게 커다란 의미를 줄 수 있다. 즉, 다양한 정보의 바다에서 교사나 학습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 활동이 되기 때문이다. 교사는 강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면서 정보의 취급 능력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분필과 칠판에 의존하는 강의법에 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일에 관한 정보를 학습자로 하여금 직접 검색해 보는 것은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갖게 해 줄 수 있다.

통일교육 현장에서 정보 검색 이용법의 활용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강의법이나 토론법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도 있으며, 정보 검색 활동 그 자체를 하나의 학습 활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북한 동향에 관한 강의를 하는 동안에 인터넷을 통하여 최근의 북한 동향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는 북한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토론에 임하게 할 수도 있다.

특히, 통일부에서도 통일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사이버 매체 곧 인터넷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를 구축하여 통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쌍방향 교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로써 (1) 직접교육의 한계 극복 (2) 대국민 통일교육 서비스 확대 (3) 각급 통일교육 요원의 교육역량 강화 (4) 교육이수자의 사후관리 효율화 (5) 통합 정보자료지원센터 기능 확충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sup>27)</sup>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의 세부 추진방침은 (1) 통일교육 정보자료의 인프라 조성 (2) 대상별(통일교육요원, 대학생, 청소년 등) 메뉴 설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특화 서비스 제공 (3) 통일·북한 관련 사이트와 연계운영 체제 확립으로 원스톱 서비스 (3) 통일·북한 관련 정보자료 검색 포털 서비스이다.

27) 통일부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통일교육원에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는 현재 통일교육원, 열린통일강좌, 자료실, 통일꿈나무, 여론조사, 대학통일연구, 참여마당 등 다양한 사이트를 운영하여 남녀노소 구분없이 통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새로운 가상 학습 공간으로 자리 잡고 가고 있다. (.http://www.uniedu.go.kr)

### 4.1.2 ICT 활용 수업 활동 유형

ICT활용 수업의 다양한 활동 형태는 정보 통신 기술의 특성 및 정보 통신 기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관련해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다.<sup>28)</sup> 그러나 각 활동 유형은 수업 전개시 한 가지 이상의 유형과 혼합하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아래 제시한 8가지 유형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 활용 수업 형태가 나올 수 있다.

#### (1) 정보 탐색하기

정보 탐색하기는 과제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서, 인터넷 검색 엔진을 비롯한 웹사이트, CD-ROM 타이틀, 인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탐색하거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는 유형이다.

#### (2) 정보 분석하기

정보 분석하기는 다양한 방법(웹사이트 검색, 설문 조사, 실험·구체물을 통한 자료 확보 등)으로 수집한 원시 자료를 문서 편집기나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을 이용하여 비교, 분류, 조합하는 정보분석 활동을 통해 결론을 예측하고 추천해 보는 유형이다.

#### (3) 정보 안내하기

정보 안내하기는 교사가 대부분의 학습활동을 주도하는 유형이다. 즉, 미리 잘 짜여진 수업처럼 교사가 미리 수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단계에서 교육용 CD-ROM 타이틀을 제공하거나, 미리 개발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거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학습자들에게 수업 내용을 안내하는 유형이다.

#### (4) 웹 토론하기

웹 토론하기는 채팅이나 게시판,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 허락이 된 참여자들 또는 불특정 다수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유형이다.

#### (5) 협력 연구하기

협력 연구하기는 교실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넘어 다른 지역, 다른 나라 학

2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ICT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자료집』, 2001, pp.8~25 참조

습자끼리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해 각기 자료를 검색하고, 취합하여 결과물을 공유하는 유형이다.

#### (6) 전문가와 교류하기

전문가와 교류하기는 인터넷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한 학부모, 선배, 다른 교사 등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학생들이 탐구 및 학습 활동을 할 때에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활용토록 지원하기 위한 유형이다.

#### (7) 웹 펜팔하기

웹 펜팔을 통해 각계각층의 소식들과 정보를 직접 대화의 상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 현장을 확대를 할 수 있다. 인터넷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여러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인 교류를 하거나 정보교류 또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교류를 하는 유형이다.

#### (8) 정보 만들기

정보 만들기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결과물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고서나 프레젠테이션 자료, 홈페이지로 만드는 유형이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업 활동 유형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는 특정 교과 또는 통합 교과에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업 전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표하는 활동으로 적용될 수 있다.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특정 교과목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교류 협력의 바탕이 될 수 있다.

둘째, 모든 ICT활용 수업 활동 유형은, 학습자 중심, 실생활의 문제 해결 중심, 과제 중심, 협동 중심, 그리고 교육과정의 통합이라는 큰 방향아래 그 특성이 분류되고 있다.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학습이 가능하며 정해진 교수 학습 과정이외에 실생활에서도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제공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수업 활동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각 활동들은 배타적인 측면보다는 수업 활동을 풍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많다. 예를 들어, 정보 분석하기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정보 탐색 활동이나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정보 탐색하거나 정보 분석하기, 웹 토론하기 등의 많은 활동 결과는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정보 만들기 활동을 거치게 된다. 이는 통일교육에 부족한 교수 학습자를 교사와 학생 모

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완하여 학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T활용 수업 활동 유형의 분류가 필요한 이유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정보 통신 기술을 선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에 의해 보다 체계적인 학습 활동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 학습의 과정은 즉흥적인 흥미위주로 이루어져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어 좋은 학습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사 나름의 체계적인 학습과정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ICT활용 통일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단편적인 자료 검색과 둘러보기가 아니라 학습목표에 적절한 학습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일반 교수과정보다 더 명확한 교수 학습과정의 준비와 노력이 요구된다.

## 4.2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통일교육의 구체화

### 4.2.1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통일교육 수업모형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 환경은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를 동원하여 정보를 폭넓고 깊이 있게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과 순서로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마음껏 탐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속성은 학습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 키우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수업은 이제 필수적이다.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다양하게 이끌 수 있는 교수 학습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새로운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방법상의 발전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있어서 이 장에서의 구체적 수업모형의 탐색<sup>29)</sup>은 다양한 ICT활용 수업모형 및 자료의 활용방안의 구체화로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ICT활용 교육의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에 있어서 구체적인 학습모형으로서 제안될 것이다.

29) 강숙희는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 유형으로 교수형(설명형), 탐구형, 과제 중심형, 문제해결형, 상황학습형, 협력학습형, 의사소통 중심형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교수법의 학습목표와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수업모형과 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강숙희, 『인터넷과 수업』, 2001, pp. 158~164. 참조)

## (1) 문제해결학습

문제 해결이란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 또는 관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해결 학습이란 어떤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문제해결 학습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학습자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sup>30)</sup>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문제 제기, 문제의 개념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설정, 문제에 대한 정보의 조직, 자원의 할당, 문제해결 과정의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를 포함하는 일련의 사이클로 이루어진다. 문제해결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비판적·창의적으로 사고해야 하며, 해결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문제해결 학습은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을 때 효과적이다. 이처럼 학습 방법, 또는 교수방법은 그 나름의 학습환경의 제공을 필요로 한다. 또한 많은 교사의 노력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과제의 제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진행은 시대상황에 적합한 시사자료를 통한 교육의 방안에 적합하다. 새로운 내용과 자료의 제공을 통한 수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문제해결 학습과정에서 학생은 다양한 분야의 자료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인터넷 자료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이러한 탐구활동에 있어서 인터넷은 정보검색 및 정보수집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 학습은 학습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익한 교육 기회로서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학생참여를 활성화하는 수업형태이다. 특히, 문제해결 학습은 직접교수 방법의 전통적인 관점과, 열린(open-ended) 학습 환경 설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구성주의자들의 관점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법을 지향하고 있다

## (2)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 학습이란 “학생이 학습의 전 과정에 주도성을 지니고서 주제, 주제, 문제, 쟁점 등에 관한 탐구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표현 활동을 하며, 그 결과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성격이 나타나는 학습”<sup>31)</sup>이다. 이 정의에

30) 박인우 외, “정보화 수업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부 연구지원보고서, 2000., p.18

31) 김대현 외, 『프로젝트 학습의 운영』, 1999, p.12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젝트 학습의 특징은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 '다양한 주제 및 문제 등에 관한 탐구 활동', '탐구 결과의 표현 활동', 그리고 '정형화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을 통해 만들어지는 교육과정' 이다.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서는 주로 교과서 위주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며 프로젝트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 활동들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sup>32)</sup>

인터넷은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인터넷은 전세계의 생생한 정보를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하며 학습자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등 학습자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탐구 활동, 의사소통 및 표현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프로젝트 학습의 유용성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기능 및 태도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획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지식의 영역에서는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문화, 역사, 관습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키울 수 있다. 기능적 영역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함께 통일문제에 대한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태도 영역에서는 민족정체성과 통일의지 고취를 위한 다양한 자세를 키울 수 있다.

이처럼 전 영역의 교육목표를 통합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수업방안의 적용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프로젝트 수업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다양한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정자 또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사의 노력과 능력의 개발 없이는 수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

32) ICT를 활용한 '프로젝트 코리아' 수업 연구보고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와 관련된 다양한 ICT 수업을 통해 학교, 가정, 사회의 정보교류와 함께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시사적인 문제의 프로젝트 학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인애, '프로젝트 코리아'의 사례를 통한 가능성 탐색, 교육마당21, 2001년 2월호, p. 32 )

### (3) 협력 학습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서는 주로 개인적인 성취가 강조되어 왔으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학습이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제대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에 반해 인터넷 환경은 학습자들이 동료, 전문가, 교사 또는 지역사회 인사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협력 학습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한다.

통일교육에서 가장 많이 제안되는 협력학습의 한 수업방안으로 토론과 참여의 강화를 통한 토의수업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한 협력 학습의 특징은 구성원간의 관계가 수직적이 아닌 횡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가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가와 학생이 동료의식을 갖고 함께 일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학습 방법으로서의 토의 수업 방법은 집단 성원간에 자기의 의견을 발표함과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의사의 교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학습으로서의 토의수업도 강의 위주가 아닌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한 방법을 통해 사이버 상에서 일문일답식 수업, 집단 토의 수업, 문제에 대한 판단과 대안 찾기 수업, 찬반이 있는 문제에 대한 대립 토의 등을 가미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수업이 되게 할 수 있다. 또한 주제를 학습자가 선택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토의 수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수업방안은 기존의 다양한 수업방안을 활용하거나 보충하여 더욱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수업방안이 나올 수 있다.

### (4) 상황 학습

통일교육에 있어 교육내용은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바탕을 두는 살아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의 이해가 따라야 한다. 즉, 학습의 효과는 학습자가 지식을 실제 생활의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을 때 가장 극대화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는 상황이나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상황 학습(situated learning)을 구현하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수업내용이 실제로 보고 듣는 방송, 신문 등의 자료와 다르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은 통일교육의 새로운 지식의 교류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 현상과 학습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정보의 올바른 판단능력과 이해

력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상황 학습 원리의 적용 방법은 다양하다. 실제 과업 종사자 혹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료와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이나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의 통일교육에서는 북한의 실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 체험 활동에 의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가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인터넷 웹사이트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별도의 CD-ROM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별도의 CD-ROM을 만들어 북한의 현실을 가상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한 곳에 모아둘 수도 있다.<sup>33)</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방법은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경험을 통한 학습 방안이 가장 효과적임은 부인할 수 없다.

#### (5) 원격 토론 학습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급끼리 컴퓨터 화면을 통해 서로를 볼 수 있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동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형태의 수업방법이다. 이와 같은 수업은 교사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학급들에게 동시 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질문, 응답, 조인 등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생동감 있는 수업 방법이다. 원격 토론학습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수업에 활용하려는 기본적인 전제는 의사소통 도구로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통일에 관한 자료들이 전문가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개방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은 실시간 화상회의, 동시적·비동시적 토론 등 다양한 형태의 토론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통일교육원에서도 통일관련 주제를 놓고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사이버 토론이 제공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이트에서 통일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원격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격 토론 학습에 있어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서로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토론을 실시할 때 학습자들 사이에 의견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요구된다. 교사의 역할은 토론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토론에 있어 교사는 자

33) 통일부, 앞의 책, 2001. p. 23



국이 될만한 정보를 시기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특정학생 몇몇이 발언을 독점하여 다른 학습자의 활동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적절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학습의 효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4.2.2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통일교육 수업모형 예시

이번 장에서는 통일교육 ICT활용 수업모형의 예시<sup>34)</sup>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부분의 예시자료에 해당되지만 이와 같은 각 내용별, 활동별 수업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수업내용에 관련된 좋은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작은 노력으로도 큰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교육방법 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b>학습주제 : 북한 주민 생활 바로 이해하기</b>		
교 과 : 윤리, 사회	학년 : 고2	활동 유형 : 인터넷 활용 탐구수업 (정보 안내, 탐색하기)
내용영역 : 북한주민 생활의 모습		환경및자료 : 멀티미디어실, 실물 화상기 또는 OHP 등
● 북한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활용해 찾을 수 있다. 학습목표 : ● 북한주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활을 바르게 알고 동질성과 이질성을 체험한다.		
시간계획: 50분		
ICT 활용의도 : 평소 접하기 힘든 북한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도록 하여 남북한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가상 체험을 통해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관심과 이해도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CD-ROM
  전자우편 사용
  온라인대화
  멀티미디어자료
  응용프로그램
  참고자료

3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한 'ICT활용 교수-학습 자료집'(2000)의 모형을 활용하여 그 내용적 요인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만들어 보았다. 이는 각종 통일교과서와 참고자료들이 계속 보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누구나 활용 가능한 수업 지도안 내지 수업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교수 - 학습 활동

### ■ 도입


- 북한에 대한 느낌 질문
- 남북 정상 회담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전과 이후의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한다.
  - ① 남북 정상 회담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전에 여러분은 북한하면 무엇을 떠올렸나요?
    - 북괴, 빨갱이, 무장간첩, 식량난, 핵무기 등
  - ② 남북 정상 회담과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이후, 북한에 대해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 북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을 느꼈다. 북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같은 민족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 등
- 북한주민의 생활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본다.
  -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를 통해서도 북한주민들의 최근의 생활을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 생활에서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 신문, 인터넷, 텔레비전 등
- '북한주민 생활 바로 알기' 질문지 해결을 위한 설명과 질문지를 배부한다. (질문지와 답지 등의 학습자료를 미리 준비함)
  - ①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질문지는 북한주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생활 등과 관련해서 약 20문항에서 30문항 정도로 출제한다.
  - ② 질문지 해결 순서 : 먼저 질문지의 1차 답안란에 자신이 알고 있는 답을 표기하도록 하고, 2차 답안란은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해서 작성하도록 한다.
- 학습 목표 제시
  - 북한주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활을 바르게 알고 동질성과 이질성을 현실감 있는 자료를 통해 체험한다.

### ■ 전개

- '북한주민 생활 바로 알기' 질문지를 푼다.
  - 질문지 1차 답안 작성 시간으로 10분 이내에 풀도록 한다.

- 질문지 답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해결한다.
  - ① 질문지 2차 답안 작성 시간으로 25분 이내에 해결하도록 한다.
  - ② 학생들은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질문지의 정답 확인하여 기록한다.
  - ③ 학생들의 정보 검색에 도움이 되는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해 준다. (관련사이트 참조)
    - www.unikorea.go.kr -(통일부) '알기 쉬운 북한' 알기 쉬운 북한
    - www.uniedu.go.kr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통일교육원
    - www.hunger.peacenet.or.kr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홈페이지
    - www.koreascope.org - 코리아스코프 등
- ※ 통일교육지도자료 CD '대립에서 화합으로' - 각 학교에 배부된 자료 활용

## ■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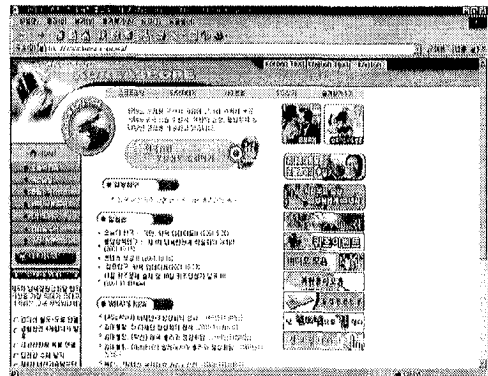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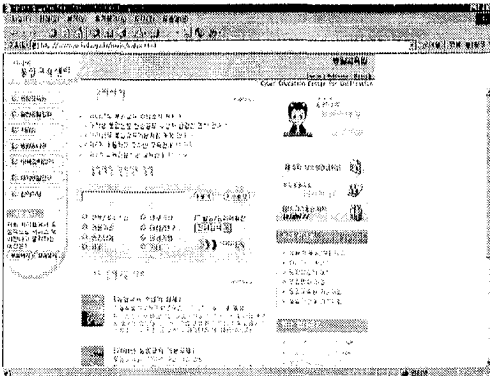
- 북한주민 생활에 대해 느낀 점을 발표 및 평가
  - 질문지를 정답 확인을 통해 자신의 이해도와 자료 탐색의 과정을 살펴 본다. 또한 질문지란 하단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느낀 소감을 기록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 제도, 사상, 관습의 면에서 우리와 많은 차이가 난다.
  - 북한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고정 관념을 갖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 남북한 민족 통일을 위해서 먼저 북한에 대해 바르게 알도록 노력해야겠다.
-  실물화상기(또는 OHP)를 이용해 학생 발표하기
  - 발표한 내용은 수업을 마친 후 스캔 작업을 거쳐 정해진 게시판에 올려 공개 되도록 한다. (반 학생 전체의 작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잘된 것 중에서 몇 편을 선정해서 활용한다.)
  - 학생의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교사 나름대로 정리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북한생활에 대하여 정리, 설명한다.
-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합리적인 북한 인식과 객관적인 북한 이해, 역사사지의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 대안적 활동

- 결과물 처리 단계에서 벽보, 책광고의 스캔 작업과 게시판 게재가 형편상 어렵다면 자료를 포토폴리오 형태로 만들어 활용한다.
- OX퀴즈 맞추기 : 북한 관련 문제를 OX형식으로 만든다. 교실을 O 지

역, X 지역, 탈락 지역으로 구분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학생을 북한 상식 '최고'의 칭호를 준다.

- 모듈별 퍼즐 만들기와 퍼즐 풀기 : 모듈별로 북한주민들의 생활 영역 (정치, 경제, 문화·예술·스포츠, 교육 등)을 지정하여주고 퍼즐을 만들어 오도록 하여 다른 모듈들이 퍼즐을 해결하도록 한다. 해결 과정은 인터넷을 활용하도록 한다.



## ● 관련 웹사이트

- 통일부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http://unibook.unikorea.go.kr)
- 통일연구원 [www.ku.kinu.or.kr](http://www.ku.kinu.or.kr)
- 통일학연구소 [www.onekorea.org](http://www.onekorea.org)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hunger.peacenet.or.kr](http://hunger.peacenet.or.kr)
- 조선인포뱅크 [www.dprkorea.com](http://www.dprkorea.com)
- 멀티미디어북한백과 [www3.joins.co.kr/nk](http://www3.joins.co.kr/nk)
- 통일을위한교사모임 <http://cafe.daum.net/edutongil>.
- 유흥준의 북한문화유산답사기 [www.joins.com/special/n\\_korea](http://www.joins.com/special/n_korea) 등등

## 5.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통일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 5.1 가능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방향으로서 그 가능성이 무한하며, 시대의 흐름에도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교수 학습 방법의 일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수업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수업자료의 수집, 수업내용의 진행과 그 절차, 수업의 방법, 학생과의 교류 협력 등 일련의 과정으로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통일교육은 그 속성상 교육방식에도 변화를 촉진하여,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통일교육 방식인 참여·체험식 학습, 수요자 위주 교수학습, 다양한 매체 활용 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가르치게 될 학습자들은 문자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문자세대가 논리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 반하여 영상세대로서 보다 감각적이고 감성적이며, 직관적이고 의사소통이 빠르게 일어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빠르게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가치판단을 내린다. 요즘의 학생들의 가치 지향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다. 자신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통일 교육에 대한 접근도 무엇보다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을 시켜야 한다. 통일교육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문자 정보나 낡은 사진정보를 통하여 통일교육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에서도 학습자들의 북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활용 통일교육은 교과서와 교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통일교육의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줄 수 있다.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 결과 통일교육의 저변 확대가 가능하다. 이는 학교 통일교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다루는 대다수 계층에게 자연스러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통일교육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학습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것이다. 학습자들을 학습과정에 끌어들이 수 있는 유인체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우리는 통일교육에서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학습활동의 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야만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최신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통일교육의 학습이 가능하다. 인터넷상에는 매일 수많은 정보가 올라오며, 이미 올려져 있는 정보들도 수시로 보완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늘 자신이 학습하는 내용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최신의 정보들은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수업 환경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 소집단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 학습을 위한 매체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프로젝트의 하위 주제별로 작은 집단을 구성하여 집단별 토론을 거친 다음, 토론 내용을 전자 게시판에 올려놓아 다른 학습자들이 참조하게 하고, 주제와 관련된 학습 자료들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수시로 검색할 수 있다. 이렇듯 인터넷을 활용하면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수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일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이 과거 학생들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문자 전달수단에서 영상을 매개로 한 전달수단으로, 가치 판단적 정답제시에서 가치 중립적 정보의 제공으로, 수동적 학습방식에서 자율적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는 학교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변화 속에서 구체적인 통일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현상과 정보의 복잡한 인과관계 속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청소년의 문화 또한 이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있다. 통일교육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이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될 때 이미 통일교육의 내용과 관계없이 흥미와 관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통일교육 수업방안은 다양한 장점 내지 가능성을 갖고 있다.

## 5.2 한계점

우선,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전반이 안고 있는 교육자의 심리적 저항이 통일교육에도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각급 학교 교사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고, 교육 환경의 문제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능력 차이에서 오는 교육자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교육환경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현실에서 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경험과 이해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우선 교사의 역할 변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매체를 수업에 활용할 경우에는 교사 중심의 수업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수업 형태가 바뀌게 된다. 이 때에 교사는 더 이상 기존의 교육 내용 전수자가 될 수 없으며,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특정의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 방향을 안내해 주고, 정보의 바다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기 스스로 지식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조해 주고 촉진시켜 주는 입장에 서야만 한다. 그러나 오히려 교사의 노력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교육의 전반적인 환경변화에 교사나 학생 모두 적응해야만 한다.

학습자도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비순차적이면서도 비 구조화된 다량의 정보로부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해 내고, 다른 학습자들과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 결국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 상황에서는 학습자가 교육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성과가 달라지게 된다.

비록 정보통신기술(ICT)활용의 효과적인 교수 방법 및 교육자료의 활용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가지 방법만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교육 매체도 절대적인 교수 학습 매체나 방법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교육적 타당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수용하면서 최선의 교수 학습을 설계하고, 최적의 매체를 활용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교사의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적용과 시도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은 지속적인 교육자료와 수업 방안의 개발, 보급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교사 개개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각 관련단체들의 지원과 연구노력이 필수적이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교육자료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하며, 특히 현장의 학교교육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연구회의 지원이나 연계화 방안을 통해 보급되는 자료들은 실제 교육현장에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업 자료의 개발 보급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안되고 보급 되어야 할 것이다.

## 6. 결론

이제 통일은 더 이상 먼 훗날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50년 이상 분단되었던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통일한국을 준비해야만 할 시점에 이르르게 된 것이다.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통합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보다 기본적인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통일한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독일의 통일 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사회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남북한의 통일교육은 목적과 방법, 내용 면에서 상당히 이질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처럼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은 통일교육에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다양한 활용은 교수·학습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ICT활용 통일교육은 교사 중심의 강의나 설명에 비해 다양한 감각 기관을 자극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교사의 설명에 비해 빠른 시간에 제시할 수 있다. 교과서의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수업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탐색·수집·정리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 기법이기에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정보통신기술 활용 통일교육에서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우선 다양한 자료와 정보가 제공되는 교육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 TV, VTR, CD-ROM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좋은 교육자료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교육자료의 공급과 함께 교수학습의 방법 내지 지도안도 다각적으로 연구,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이처럼 교육내용과 방법을 구상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자료와 교수 방법을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뒷받침은 교육부와 통일부 등의 정부기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학계, 언론 출판계, 각종 시민단체 등 국민모두의 몫이다.

국민 모두가 통일교육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학교 통일교육도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형식적인 교육으로 흐를 것이다. 교육은 많은 사람의 관심과 다양한 교재의 연구 보급, 현장의 적용과 노력 등 이론과 실천의 무수한 연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통일교육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방안도 다양한 지원과 함께 현장 적용이 이루어질 때 그 교육적 효과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강숙희, 『인터넷과 수업』, 교육과학사, 2001.
- 고정식,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통일부 통일교육 워크샷, 1999.
- 권영경, “남북한 화해협력시대를 위한 학교통일교육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과 방향”: <http://www.unikorea.go.kr/cgi-kr/body.cgi?45D45/D4535.htm>
-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1994.
- 교육부, 『고등학교 윤리과 교육과정 해설』, 1994.
- 교육부, 『제 7차 교육과정,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5(별책6), 1998.
- 김경웅, “통일교육의 개선·활성화 방향”: <http://www.unikorea.go.kr/cgi-kr/>
- 김대현 외, 『프로젝트 학습의 운영』, 1999.
- 김도태·이경화,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통일연구논총』 6권, 1997.
- 김영애, “제 7차 교육과정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 서울시교육청 주최 정보통신기술활용 세미나, 2001. 6. 16
- 김진숙,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동향”, 서울시교육청 주최 정보통신기술활용 세미나, 2001. 6. 1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문제 및 학교통일교육 실태 조사결과』, 2000. 5
- 박인우 외, “정보화 수업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부 연구보고서, 2000.  
[http://211.251.1.88/ict\\_model/park/2000\\_ict\\_study.asp](http://211.251.1.88/ict_model/park/2000_ict_study.asp)
- 박찬석, 『한국의 통일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8.
- 박찬석 외, 『통일 교육론』, 백의, 2000.
- 백봉중,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언론의 역할”,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3호, 1998.
- 박효중, 북한사회 이해교육에 역량 집중을, 교육마당21, 교육부, 2000.8
- 서대숙, “민족통합의 개념과 방안”, 한림대 민족통합연구소, 『민족통합과 민족통일』, 1998.
- 서인규, 첫 초등학교 인성교과서 <통일>, 교육마당21, 교육부, 2000.8

- 설양환, “교실현장에서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방법”, 충  
남도교육청 수업개선 세미나, 2001.
- 엄재호·강지한·문장순,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내용 분석”, 『평  
화연구』 21호,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1996.
- 오인택,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준비』, 서울:오름출판사 1997.
- 유균상,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7.
- 유현석, “통일 한국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연구”, 연세대 통일연구소, 『통일  
연구』 2호, 1997.
- 윤택희, “민주적 통일사회형성방안”, 명지대 북한연구소, 『북한연구』 2호,  
1999.
- 이우영, 제7차 교육과정과 통일교육, 교육마당21, 교육부, 2000.6
- 이창주,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한 교육정책”, 명지대 북한연구소,  
『북한연구』, 제2권,
- 이황규, “제7차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통일부 통일교육발전  
워크샵, 1999.
- 임현진·장영철,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 : 현실과 과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3권 제1호, 1999.
- 전인영, 한만길, “6.15 남북공동선언과 통일교육의 방향”, 교육마당21,  
2000 8월호, pp. 36~41
- 정영수,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교육학 연구』 제31집 5호, 1993
- 정세구, 『통일교육 교수기법』, 통일부, 1999.
- 정세구 외, 『초·중등학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도덕과 시안(3-10학년)』,  
1997.
- 차우규 외,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기준 및 도구 개발연구(윤리),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1998.
- 최은수,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통일과정에서의 심리적 문제”,  
『통일연구논총』 6권 1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추병완,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97통일부 신진연구자  
논문집, 1998.
- 통일부, 『통일연구 참고자료』, 1998.
- 통일부, 『국민의 정부 통일교육 기본방향』, 1998.

통일부, 『2001년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2001.

통일부, 『통일백서』, 2001.

통일연구원,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연구논총 99-23, 199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ICT활용 교수-학습 자료집』, 2001.

한만길 외, 『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7.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한만길, “남북한의 화해 협력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2000 통일교육세미나 자료집, 2000.

한만길, “통일교육 교과서 내용 구성 방안”, 교과서 연구 35호 2000.

한만길, “통일의식 변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개막과 교육의 과제 주제발표 논문, 2000. 8. 10

한승조 외, 『남북한의 인성·사상교육』, 집문당, 1998.

David Hicks, Education for Peace, 고병헌 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 서원, 1993), p.333.

<http://www.unikorea.go.kr/cgi-kr/body.cgi?48D48/D4818.htm>

<http://www.unikorea.go.kr/kr/load/d44/d449.html>.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405/199405240206.html>

통일부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http://unibook.unikorea.go.kr)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세종연구소 [www.sejong.org](http://www.sejong.org)

통일연구원 [www.kinu.or.kr](http://www.kinu.or.kr)

한국발전연구원 [www.hanbal.com](http://www.hanbal.com)

남북통일문제연구소 [user.chollian.net/~yeoinsub](http://user.chollian.net/~yeoinsub)

코리아 서코프 [www.koreascope.org](http://www.koreascope.org)

조선일보 NK리포트 [www.chosun.com/spwcial/0001/nk1008.html](http://www.chosun.com/spwcial/0001/nk1008.html)

동아일보 통일네트 [www.tongilnet.net](http://www.tongilne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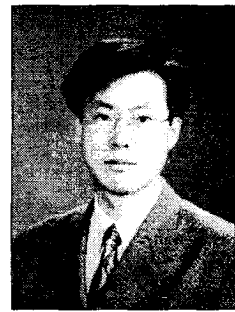
한겨레 북한/통일 [www.hani.co.kr/section-003100000/home01.html](http://www.hani.co.kr/section-003100000/home01.html)

중앙일보 북한네트 [nk.joins.com](http://nk.joins.com)

연합통신 [www.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

통일정보신문 [www.unityinfo.co.kr](http://www.unityinfo.co.kr) 등등

# 초등학교 재량 활동을 위한 구성주의적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 병 완  
(춘천교대 조교수)

## 목 차

【 요약문 】 .....	245
1. 서론 .....	247
2. 초등학교 재량 활동의 이해 .....	248
3. 구성주의의 개념과 중요성 .....	260
4.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통일교육 .....	270
5. 구성주의적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예시 .....	284
6. 결론 .....	298
※ 참고 문헌 .....	300



## 【 요약 문 】

흔히 통일은 산물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의 통일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 가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임을 함축하고 있다. 통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값싼 투자가 바로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반공교육기, 통일·안보교육기, 통일교육기를 거치면서 외형과 체제의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 내재된 뿌리 깊은 문제점들도 적지 않다. 특히 통일교육은 학교 교육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할 기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이 특정 교과 활동에만 국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불행히도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도덕, 국어, 사회 등의 일부 교과에서만 피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에, 범교과를 통한 통일교육의 가능성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7차 교육과정에서 범교과적으로 통일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각 학년별로 연간 68시간씩 배당되어 있다(제1학년은 60시간). 재량 활동의 시간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배정할 수 있으나 '교과 재량 활동'보다는 '창의적 재량 활동'에 중점을 두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는 데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량 활동에서의 통일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부족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현장에서 재량 활동 시간을 이용한 통일교육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초등학교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예시 자료를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재량활동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신장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학생 중심의 지식 구성을 중시 여기는 구성주의적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예시함으로써 재량활동의 설정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1. 서론

흔히 통일은 산물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의 통일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 가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임을 함축하고 있다. 통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값싼 투자가 바로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부에 의하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 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통일부, 2001, p. 1.).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반공교육기, 통일·안보교육기, 통일교육기를 거치면서 외형과 체제의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 내재된 뿌리 깊은 문제점들도 적지 않다.

특히, 통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기본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과에 국한된 통일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통일교육이 학교 활동 속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추병완, 1999). 통일교육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리고 장차 통일 국가의 일원으로서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 생활 방식을 총체적으로 교수·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학교 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본교육임을 고려하여, 우리는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학교 행사, 잠재적 교육과정 등의 학교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통일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의 교수·학습에 있어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비현실적인 학습자관을 지니고 있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학생들을 통일에 대한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빈 그릇’으로 상정하여 왔다. 통일에 대한 관련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임을 간과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통일교육은 많이 알고 있는 교사가 아무 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나누어주는 식의 교육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불행히도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도덕, 국어, 사회 등의 일부 교과에서만 피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에, 범교과를 통한 통일교육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통일 교육은 모든 교과와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통일 교육이 특정 교과

의 내용 영역으로 포섭될 수 없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인간의 삶의 양식의 차이와 이질성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며, 이것은 총체적 삶의 수정과 재사회화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는 교육은 도덕이나 사회와 같은 특정 교과에 한정될 수 없다. 그것은 언어의 문제이며 정치·경제·사회 문화 및 예술 등이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다양한 교과들이 각 교과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일 교육의 내용을 개발하고 이를 교과서 개편 과정이나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김재복, 1999).

7차 교육과정에서 범교과적으로 통일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각 학년별로 연간 68시간씩 배당되어 있다(제1학년은 60시간). 재량 활동 시간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배정할 수 있으나 '교과 재량 활동'보다는 '창의적 재량 활동'에 중점을 두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는 데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재량활동에서의 통일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부족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현장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 통일교육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재량 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재량활동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신장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학생 중심의 지식 구성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재량 활동의 설정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초등학교 재량 활동의 이해

### 2.1 재량 활동 확대·신설 배경

제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재량 활동을 확대·신설하여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편제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제를 교과, 재량 활동, 특별활동으로 나누어 교육과정상에 재량 활동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수업 시수와 적용되는 학교급 활동 내용과 범위를 대

폭적으로 확대하였다(교육부, 2000). 재량 활동 확대·신설의 배경이 되는 6차 교육과정에서의 초등학교 재량시간은 교육과정의 결정 및 운영의 자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sup> 즉, 아동과 지역 사회의 욕구, 학교장 및 교사들의 교육관에 따라 학교 나름대로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재량시간은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학교장이 그 학교에 알맞게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학교에서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책무가 학교에 부여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와 교사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주어진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고, 교사들의 자율성을 크게 보장해 주지 못했다.

7차 교육과정 편제에서 재량 활동을 새 영역으로 독립시킨 것은 단위 학교가 창의적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교사가 교육 전문성을 발휘하며,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수월성을 실현하고자 할 때에 당위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현상인 동시에 학교 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6차 교육과정에서의 학교 재량 시간과 7차 교육과정에서의 재량 활동을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6차 교육과정에서의 재량시간은 7차 교육과정에서의 재량 활동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 학년과 수업 시수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당 1시간씩 배당됨으로써 7차 교육과정에서의 재량활동에 비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량시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위 학교의 재량권과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발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선택 교과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시·도 교육청이 제시한 한자, 영어, 컴퓨터와 같은 기존의 교과에 준하는 내용 가운데 학교장이 선택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본 교과 이외에 또 다른 교과와 같은 것을 부과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교과의 수를 늘린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셋째,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비일관성에 의한 것으로,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영어 교과의 연차적으로 투입됨으로써 어렵게 주어진 재량시간이 영어 교과에 흡수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에서 학교 재량시간은 0-34시간으로 제시되어 있음으로써 사실상 재량시간은

1)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재량시간'에 3-6학년까지 연간 34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이 학년 별로 배정되어, 교육과정 편제에 제시된 교과 및 특별활동의 보충·심화 또는 지역과 학교, 학생 등의 교육적 필요나 요구 등에 따른 창의적인 교육 활동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표 1〉 학교 재량시간과 재량활동의 비교

	학교 재량시간	재량활동
신시 학년	3-6학년	1-6학년
수업 시수	3-5학년: 연간 0-34시간 6학년: 연간 34시간	학년별 연간 68시간
운영 방안	① 9개 교과 및 특별활동의 보충·심화 ② 단위 학교의 창의적인 활동	① 교과 재량활동: 국민공통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② 창의적 재량활동 · 범교과 활동 · 자기 주도 활동

그러나 7차 교육과정에서의 재량 활동은 6차 교육과정에서의 재량시간보다 보다 확충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 재량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재량 활동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실현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량 활동은 개성 있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교육 제도 운용, 교육 내용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적 요구를 수용한 차원에서 신설·확대되었으며, 지역사회와 학생의 요구, 학교의 특수성, 교사의 교육관에 따라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 2.2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초

재량 활동의 신설·확대를 뒷받침해 주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교육과정, 학생, 교사라는 세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박순경 외, 1997). 첫째,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 이론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념의 범위와 영역 확장을 볼 수 있다. 아이스너(Eisner, 1979)가 제안한 영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기존 개념의 범위와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이 갖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학교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 나아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영 교육과정 이론에 의하면,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교육 내용이나 활동도 학교가 가르치는 내용이나 활동만큼이나 중요하다. 그 이유는 무지(ignorance)란 단순히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중립적인 진공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거나 어떤 상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영 교육과정을 규명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학교에서 강조하는 지적 과정과 경시하는 지적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나 교과 영역과 가르치고 있지 않는 내용이나 교과 영역이다. 재량 활동과 관련하여 후자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학교는 국가에서 설정한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고는 학교가 개설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교과목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 과목이니까 가르친다는 관습적인 사고가 갖는 경직성을 경고함으로써, 결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관습에 의한 것임을 일깨워 준다.

이러한 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재량 활동은 학교 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기존의 교과 활동과 특별활동이 담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가 아닌, 학교 편의에 의한 교과목 설치와 학생들에 대한 강요는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요구에 기반하기보다는 기성 세대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불과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는 보다 많은 재량 활동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습과 수업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고 흡수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즉, 수업을 한다는 것은 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능을 학습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은 교사가 전달해 주는 지식과 기능을 누적시키는 개인적이고도 심리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습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학습 과정의 구성주의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본래 구성주의는 우리 인간이 자기 나름의 지식을 구성하는 사람이자, 타인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재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추병완, 2000).<sup>2)</sup>

2) 지식의 본질에 관한 구성주의의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① 지식은 인간에 의하여 구성된다. ② 지식은 추측적인 것이고, 오류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③ 지식은 접촉을

이것은 교사의 가르치는 일과 마찬가지로 학습도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적극적인 과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는 사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 학습을 강요하는 폐쇄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그 대신에 보다 열린 형태의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학습관은 제량 활동이 기존 교사 주도의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학교 수업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권장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교육이 본령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수업의 운영이 교사 주도를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수동성을 해소하는 길은 바로 학습자의 자기 학습력을 키워 주는 일이다. 자기 학습력은 스스로 학습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학습 과제에 따른 탐구와 해결을 스스로의 힘으로 전개하고 평가함으로써 길러지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전통적인 교사 주도적 학습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학습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조정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교육과정이 미리 처방되고 교사가 학습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했던 전통적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를 위한 일종의 지적인 지주였다. 그러나 학습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상당 부분이 학습자에게 위임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추진력을 발휘하게 된다. 자기 주도적 학습과 전통적 학습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2> 자기 주도적 학습과 교사 주도적 학습의 비교

자기 주도적 학습	교사 주도적 학습
·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될 수 있는 지적·심리적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과 욕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개발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학생들은 본질적으로 의존적이다. 가르쳐야 할 내용과 가르치는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

통하여 성장한다. 한편, 인간의 본질에 관한 구성주의의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은 불일치를 혐오하는 내적 성향을 갖고 있다. (2) 인간은 우리의 시각과 이해 그리고 행동을 안내해 주는 내적인 지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인간의 학습은 내적 지식 구조를 보강하는 문제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	교사 주도적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는 경험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경험은 앞으로의 학습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자원이 된다. 이러한 자원은 교과서와 그 외의 다양한 교육 자원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경험은 교사의 경험보다 덜 가치로운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투입 상황과 상관없이 지배력을 행사한다. 교과서 저자들의 아이디어가 학습의 주요 자원이며, 그것은 학습자의 마음에 전달되어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의 발달 정도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을 배우며, 일상 생활 문제와 관련된 것도 배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성숙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대한 공통된 욕구와 필요는 교수 목적상 집단적 교수를 위해 강조되어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 중심적 접근은 학습자의 주도성을 억압한다. 교사는 문제 중심적 경험, 개인적 프로젝트, 당면한 필요 등에 학습자를 몰두하게 하여 학생들이 매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숙달되도록 도와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 특히 고학년 학생들은 교과 중심적 학습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학습 경험은 해당 학문의 내용을 다루는 단원으로 조직되며, 시험이 교수의 초점이 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스러운 호기심, 자궁심의 욕구, 능력에 대한 도전, 성취감 등과 같은 내적인 자극과 자기 충족감이 학생 성취의 좋은 자극제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적인 자극, 즉 처벌과 강제가 학습자로 하여금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데 필요하다. 최소한 등급화와 졸업장은 학생들의 학습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li> </ul>

〈표 3〉 자기 주도적 학습과 전통적 학습에서의 교사의 역할 비교

자기 주도적 학습	전통적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계획에 학생을 관여시킨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방식대로 수업을 계획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의 발달 요구에 따라 수업을 할당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과제를 제공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은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개인적 기준을 정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리 결정된 전체 수업 목표에 따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드러내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은 지필 검사 형태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인, 선정된 목적을 위한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기를 위한 암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 해독을 위한 심도 있는 읽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 해독을 위한 기계적인 읽기</li> </ul>

자기 주도적 학습	전통적 학습
· 학생들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하도록 배운다.	· 훈육이 지배적이다.
· 가르친다는 것은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 가르친다는 것은 말해 주는 것이다.
· 가르친다는 것은 최상의 학습 방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가르친다는 것은 과제를 부과하는 것이다.
· 지식은 힘으로 간주된다.	· 지식은 학문적 성취로 간주된다.
· 가르친다는 것은 자율성과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 가르친다는 것은 통제하는 것이다.
· 교사는 현대적 의미의 매니저이다.	· 교사는 보스이다.
· 교사와 학생들은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을 찾는다. 그들은 미래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획득할 기회로 본다.	· 교사들은 미래를 현재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본다.
·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행위를 모니터하고, 최소한의 장학 하에 스스로 동기화된다.	· 어디서나 교사가 학생들을 동기화한다.
· 학생의 지각은 모니터 되며, 정규 수업은 학생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장악할 수 있기 위해 제공된다.	· 학생의 지각이나 태도를 변화시킬 체계적인 노력이 미흡하다.

셋째, 교사의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볼 때, 최근 교육과정 이론에서는 교사가 지닌 반성적 능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동향이 일고 있다. 즉, 교사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를 통하여 스스로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식을 창조자로 여겨지고 있다. 연구자로서의 교사, 반성적 실천가 등의 새로운 용어들은 교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기 탐구 능력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제량 활동은 교사의 교육적 신념과 장점들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영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과정 개념의 범위와 영역의 확대, 구성주의적 학습관, 연구자 혹은 반성적 실천가로서의 교사라는 아이디어들은 새 교육과정에서 제량 활동을 학교 교육과정의 체제 속에서 그 위상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 2.3 재량 활동의 교육적 의의

재량 활동은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교나 지역 사회의 실정, 교원·학생·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고,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인 문화 풍토에 알맞게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인간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량 활동은 기존의 교과나 특별활동과는 달리 새로운 교육 활동을 펼침으로써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유도하고, 학교 교육이 학생·학부모·지역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재량 활동을 교육과정의 의도에 맞게 편성·운영함으로써 기존의 교과 교육과는 달리 학습자의 체험 활동과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활동으로 교육 내용을 보충·심화하고, 자기 표현의 기회를 마련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여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을 기를 수 있으며,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편제된 재량 활동의 교육적인 의의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2000).

첫째, 학생의 다양한 흥미·적성·요구를 수용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기존의 교육과정 영역인 교과와 특별활동에서 담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 활동을 탄력적으로 펼치기 위한 것이다. 즉, 교과를 보충·심화함과 동시에 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지역 사회 및 단위 학교의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교과서 중심의 교육 체제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 2.4 재량 활동의 성격

재량 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어렵게 이해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많

은 교사들이 재량 활동을 교과 및 특별활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역과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재량 활동이 교과나 특별활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학교의 의도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활동은 크게 교과와 특별활동으로 구별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에 재량 활동을 신설하여 교육과정의 편제를 병렬적인 3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재량 활동이 교과나 특별활동과 그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재량 활동은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요구를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여 창의적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주어진 시간으로서, 단위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는 자율 영역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고민할 때, 그 내용은 결국 교과적인 것과 비교과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교과적인 것을 교과 재량, 비교과적이거나 특별활동적인 것을 창의적 재량으로 개념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재량 활동은 교과 및 특별활동과 그 내용을 공유하며 상호 보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량 활동이 단순히 교과와 특별활동을 연장하거나 반복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감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교과 재량 활동은 단순히 교과를 연장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를 심화·보충하거나 선택 과목의 학습 시간으로 활용하고, 창의적 재량 활동은 어느 단일 교과에서는 다룰 수 없는 범교과 학습을 전개하거나 교과나 특별활동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등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활용하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따라서 우리는 재량 활동을 교과, 특별활동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과·특별활동·재량 활동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관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재량 활동은 교과 및 특별활동을 상호 보완하고 연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량 활동은 그 설정된 취지나 배경에서 볼 때,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3) 교과 활동에서는 주로 개념이나 원리 또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지적 학습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특별활동은 이를 자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태도와 기능의 학습을 강조한다. 재량 활동은 직접적인 체험 학습으로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통해서 인지적 학습과 태도 및 기능 학습을 모두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 나름의 창의적인 재량 활동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학교 구성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운영 능력을 높히려는 계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재량 활동은 국가 수준 또는 지역 수준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단위 학교에서 창의적으로 그것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법령성, 무정형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만들어 가는' 혹은 '되어 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형성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재량 활동은 21세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지식 정보화 사회 및 열린 학습 사회에 대한 대비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재량 활동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평생 학습력과 수행 능력을 신장시켜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재량 활동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정할 수 있으나, 교과 심화·보충보다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2.5 재량 활동의 목적

앞에서 부분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량 활동의 목적은 지역 사회의 특성, 학교의 여건, 학생 및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인 문화 풍토에 알맞게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함으로써 세계화·정보화·다양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인간교육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2000).

첫째,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흥미, 적성을 반영한 새로운 영역을 설정하고 직접적인 체험 활동 및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한다.

둘째, 지식 정보화 시대에 따른 폭발적인 지식 정보와 사회적 요구를 기존의 교과에는 모두 담을 수 없으므로, 재량 활동에서 범교과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한다.

셋째, 학교 자체에서 교사의 교육적 신념과 관심, 특기, 소질 등을 발휘하여 개발한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함으로써 학교의 독특한 문화 풍토에 따른 특색 있는 학교 교육의 기회와 장을 마련한다.

넷째, 교사가 평소 관심 있는 교과나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프로그램화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전문성을 신장시킨다.

다섯째, 교사는 재량 활동이 교과, 특별활동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주제 탐구 학습, 소집단 공동 학습, 체험학습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운영이 되게 함으로써,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 준다.

## 2.6 재량 활동의 내용

재량 활동은 크게 교과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의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교과 재량 활동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과 선택 과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교육적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이렇듯 재량 활동의 영역 구분은 재량 활동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적 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재량 활동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하위 재량 활동의 영역들이 상호 분리되어 운영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통합되거나 전체적으로 융합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창의적 재량 활동에 있어서도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재량 활동 시간에 다룰 수 있는 학습 내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교육부, 1998).

<표 4>에서 제시한 활동 내용은 학교에서 편성·운영 가능한 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재량 활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학교·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 있는 활동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정할 수 있으나, 교과의 보충·심화 학습보다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보다는 창의적 재량 활동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의적 재량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표 4〉 재량 활동의 영역 및 학습 내용

영역	하위 영역	하위 활동	활동 내용(예시)
재량 활동	교과 재량 활동	국민 공통 기본 교과 보충·심화 학습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교과의 보충·심화 학습 · 그 외 교과 활동의 보충·심화 학습
		선택 과목 학습	· 중학교: 한문 등 선택 과목의 학습 ·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학습
	창의적 재량 활동	범교과 학습	·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교육, 안 전교육, 성교육, 소비자교육, 진로교육, 통일교 육, 한국 문화정체성 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등 · 학교, 지역,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범 교과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탐구 활동 결과 정리, 학습 정보 활용 능력 · 주제 탐구 활동: 교과와 연계한 탐구 주제, 생 활과 연계된 주제 · 자유 연구 · 소집단 공동 연구 · 프로젝트 학습 · 체험학습 · 학교 행사 관련 활동 · 학교 특수 시책 구현 활동 · 특정 영역 학습 · 지역 행사 관련 활동 · 학교장, 교사, 학생이 만든 특별 교육 프로그램 · 기타 자율적 교육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범교과 학습 중심형이다. 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을 범교과 학습 내용으로 선정하여 재량 활동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 둘째는 자기 주도적 학습 중심형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주제 탐구 학습<sup>4)</sup>, 소집단 공동 연구, 자연 혹은

4) 주제 탐구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10개 교과와 관련된 것으로서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서 보다 깊이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주제 탐구 학습의 방식으로 다룸으로써 해당 내용에 대한 심화 학습의 기회를 학생 스스로가 가지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범교과 학습 활동 내용에서 선택하여 주제 탐구 학습을 전개할 수도 있고, 나아가 학생의 개인적 관심 영역에 기반을 둔 주제에 대한 자기 주도적 탐구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 주제 탐구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체험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은 어떤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편성할 수 있으며, 그 성격상 학생들에게 주제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년·학년·학년 집단 별로 큰 주제는 지정하여 주고, 그 안에서 작고 구체적인 주제를 학생 스스로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교사는 통일교육에 대한 큰 주제를 부여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셋째는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통합형이다. 범교과 학습을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법으로 전개할 때,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 때 학습 주제는 범교과 학습 영역과 자기 주도적 학습 영역을 병설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학생들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동시에 하는 셈이 된다. 일례로, 통일교육을 소집단 주제 탐구의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

### 3. 구성주의의 개념과 중요성

#### 3.1 구성주의의 개념

구성주의가 함축하고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토대체 구성주의가 무엇이고, 왜 그것이 교육계에서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구성주의라는 용어는 '학습자들이 그들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는 아이디어에 언급되고 있다. 즉, 개별 학습자는 그 혹은 그녀가 학습함에 따라서 개인적으로(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 따라서, 의미의 구성이 곧 학습이다. 이러한 관점이 수반하는 극적인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학습에 관한 사고에 있어서 가르쳐야 할 교과나 수업 내용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둘째, 학습자 혹은 학습 공동체에 의해 구성된 경험에 귀착된 의미로부터 독립적인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명적 편의상, 여기서는 먼저 두 번째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만약 우리가 구성주의 이론을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플라톤을 비롯한 이후의 실재주의적 인식론(realistic view of epistemology)을 포기해야만 한

---

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사의 주도 아래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수준의 탐구를 단기 과정으로 개발하되, 학년간의 연계를 살려서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다.<sup>5)</sup> 우리는 지자(knower)로부터 독립적으로 저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지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학습함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구성한 지식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학습은 사물의 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와 구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물에 대해 만들어 낸 설명이 없기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지각(sensations)의 배열로부터 의미를 개인적·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은 교육학적 관점을 수정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제 첫 번째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우리가 지식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실세계에 관한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다면, 교사로서의 우리는 먼저 그 세계를 이해하여, 그것을 가능한 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직화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것이다. 일례로, 우리는 학습자에게 활동을 부여하거나, 세계의 대상에 대해 조작하거나 실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도는 학습자로부터 독립적인 세계의 구조를 학습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데 있다. 즉, 우리는 학습자가 세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을 뿐, 그들 나름의 세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구성주의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학습자들에게 감각 데이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 및 그들 나름의 세계를 구성할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주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구성주의의 초점은 자기 규제적인 지식의 창조자로서의 학습자에 놓여져 있다.

### 3.2 구성주의의 중요성

이제 오늘날 왜 구성주의가 그토록 옹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왜 구성주의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교육 외적인 요인과 교육 내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교육 외적 요인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정보화를 들 수 있다(강인애, 1998). 포스트모더니즘은 고정되고 절대적이며 일원적인 종래의 사유 체제를 버리고 유동적이고 상대적이며 다원적인 열린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은 거대 서사(grand narrative)를 부정하고, 소서사(micro-narrative)를 중시하고 있다. 달리 말해, 포스트모더니즘은 대문자 진리(Truth)보다는 소문자 진리(truth)를

5) 구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전통적인 인식론적 입장은 흔히 객관주의(objectivism)로 통칭되고 있다. 객관주의에서는 지식을 독립된 실체로 보고, 학습을 외부로부터의 지식을 학습자 내부로 전이시키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와는 달리 구성주의는 주관주의 인식론에 근거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이 위치한 맥락에서의 능동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지식을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시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구성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적·문화적 이론이다. 궁극적으로 구성주의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의 재형성, 즉 교사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의 탈집중화 및 학생들의 목소리·경험·지식에 대한 정당성과 가치 부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sup>

한편, 구성주의는 정보화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보화와 구성주의는 서로 상승 작용을 하고 있다. 정보 기술의 발전은 구성주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즉, 정보 기술은 학습자 스스로의 능동적 학습과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되고 있다.<sup>7)</sup> 또한, 정보화 사회는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하여 창의적·비판적 사고, 유연성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전통적인 방법을 통한 지식 습득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새로운 교육 이론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은 구성주의 이론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반면에, 구성주의 이론은 정보 기술에 의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편, 교육 내적 요인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들을 들 수 있다 (Perkins, 1999; 허운나·유영만, 1999). 한 가지 이유는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더 나은 이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적인 방법은 모든 학년과 연령에 걸쳐서 이해의 부족을 심화시키고, 수동적인 지식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수·학습 이론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이유에서 구성주의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sup>8)</sup> 두 번째 이유는 철학적 주장과 관련되어

- 6) 정보화는 정보 기술이 지니고 있는 쌍방향성과 네트워크의 속성으로 인해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고 있는 개방성, 탈중심성, 경계 허물기 등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주고 있다.
- 7) 일례로 멀티미디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에, 구성주의 이론의 구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매체이다: ① 실제 상황과 거의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상황 학습 구현, ② 통신을 통한 바깥 세상과 교실 안과의 직접적 연결, ③ 하이퍼미디어를 통한 학습자마다의 개별적 향제로 개별적·주관적 지식 구성을 촉진, ④ 시청각 정보와 다양한 정보로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 유도, ⑤ 통합 교과적이고, 문제 해결력, 창의력이 강조되는 수업을 제공, ⑥ 통신을 통하여 개인의 견해와 타인들의 견해를 서로 나누고 서로 다른 견해들을 수용, ⑦ 멀티미디어를 통한 소집단 학습으로 활발한 상호 작용과 협력 유도 (오현아, 1998).
- 8) 브룩스와 브룩스(Brooks & Brooks, 1993)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지배되는 전통적인 교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① 교실은 교사의 이야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학생의 질문과 학생들간의 상호 작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②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과서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복잡한 논쟁점들에 대하여 오직 한 가지 관점, 한 가지 진리만을 제공해 주고 있다. ③ 대부분의 교실은 구조적으로 협동을 좌절시키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교수준의 추론보다는 지수준의 기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④ 대부분의 교실에서 학생들의 사고는 평가 절하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옳은 답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⑤ 학교 교육은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고정된 세계가 존재한다는 관념에 근거해 있다. 학교 교육은 새로운 지식의 구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다



있다. 타인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포함하여 우리가 직면하는 자극들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결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어느 정도 의미를 구성하거나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도록 학습을 조직할 때에 보다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의 이유는 심리학적 연구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학습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지식을 더 잘 이해하고 파지하며 능동적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례로, 맥밀런(McMillan, 1997)은 최근의 인지 학습 이론 분야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는데, 이것은 구성주의의 필요성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① 이론 1: 지식은 구성된다. 학습은 새로운 정보와 이전의 지식으로부터 개인적인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② 이론 2: 연령과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은 사고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학습이 반드시 분리된 기능들의 선형적인 발달만은 아니다. ③ 이론 3: 학습 양식, 파지 범위, 기억, 발달 속도, 지능에는 커다란 다양성이 존재한다. ④ 이론 4: 인간은 목표를 알고, 본모기를 관찰하고, 자신의 수행을 기준에 비교해 보는 방법을 알고 있을 때에 더욱 잘 수행한다. ⑤ 이론 5: 지식을 활용하는 시기, 지식을 적용하는 방법, 자신의 학습을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⑥ 이론 6: 동기·시도·자긍심은 학습과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⑦ 이론 7: 학습은 사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집단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추병완, 2000).

끝으로 네 번째의 이유는 구성주의가 N세대의 특성에 가장 어울리는 학습 방식이라는 점이다. 탭소트(Tapsott)은 N세대 문화의 10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① 극단적 독립심, ② 감성적·지적 개방성, ③ 포용성, ④ 자유로운 표현과 강한 주장, ⑤ 혁신, ⑥ 성숙하기 위한 열정, ⑦ 탐구심, ⑧ 성급함, ⑨ 기업적 이익에 대한 민감성, ⑩ 사실 확인과 신뢰(허윤나·유영만, 1999).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정보의 일방적 전달 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교육의 모순점은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줄 때마다 그 아이에게서 발견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이점을 빼앗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의 N세대들은 최적화되고 미리 가공된 정보를 싫어한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입식 보다는 참여와 발견의 학습을, 교사 중심 수업보다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그리고 암기식보다는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은 N세대의 학습 욕구를 가장 잘 실현시켜 줄 수 있다.

### 3.3 인식론으로서의 구성주의

오늘날 구성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구성주의가 18세기 이탈리아의 철학자 비코(Vico)에게서부터 유래되었다고 주장한다(Gruender, 1996; von Glaserfeld, 1995). 물론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구성주의의 기원을 소크라테스의 산파술로부터 찾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비코는 처음에 데카르트의 신봉자였으나, 데카르트의 저작이 교회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으며, 당시 이탈리아는 스페인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아이디어를 함부로 출판할 수 없는 분위기였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코는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당대 복잡한 유럽 국가들까지의 인간 문명의 기원에 대한 합리적·역사적 설명을 시도했었던 자신의 역사 철학을 세상에 알리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코의 관점은 인간 사회는 신의 섭리의 작용이라는 당대의 인습적 지혜와 상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현실적 해결책은 자신의 설명에 대하여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비코는 신이 세계를 창조하였듯이 오로지 신만이 세계를 참으로 알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신의 지식이 도달한 것에 미칠 수 있는 채 하지 않는 가운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9)</sup>

비코는 데카르트의 수학적 방법을 통해 드러나는 확실성이란 인간의 실천적 삶을 파악하는 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카르트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비코는 “신리와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말은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 대한 진리를 가질 수 있고, 또 학문은 그것을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 말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지 아니한 대상에 대해서는 진리를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의 인식은 항상 스스로 만드는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비코는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 능력과 신적인 지식의 차이를 논하였다. 신에게서는 인식될 수 있는 것과 인식된 것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인식하는 일이란 인식된 것의 존재 그 자체이다. 창조자인 신은 모든 것의 존재 근거를 포괄하기 때문에 으뜸가는 진리이다.

9) 비코는 인간은 오직 역사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잠원 역사 연구 방법은 인간의 기원과 진화를 추적해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비코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의 언어 가운데 단순한 은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주 오랜 과거에는 상당히 다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최초의 인간들은 그들 주변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이해했던 방식으로 용어를 나타내어, 자신들의 경험을 이해했었다고 한다. 최초의 인간들은 시적인 방식을 통하여, 즉 그림 이미지, 유비, 불활론적인 형상, 인격화 등을 통하여 사고와 의사소통의 흐름을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 혹은 추상적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정교화된 발전을 거두게 된 것이다 (Gardiner, 1975, p. 249).

그는 무한한 존재로서 물질적이 아닌 정신적 실체를 지닌다. 반면에 인간은 자신이 처한 우연한 상황에서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지 못한 채 외부적으로 주어진 요인에 따라 이리저리 엮여 모으듯이 사물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건의 실상에 대해서 사유를 할 수 있어도 그 실상을 완전하게 파악하지는 못한다 비코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사회에 자신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주장이 바로 오늘날 구성주의자들에게 확고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Gruender, 1996).

아마도 칸트는 오늘날의 구성주의 인식론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 이전의 인식론은 그것이 경험론이든 합리론이든 모두 인식의 대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즉, 인식의 원천을 경험으로 보든지 혹은 이성으로 보든지 간에 모두 존재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칸트는 인식이란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을 구성하는 일이라는 획기적인 주장을 하게 되었다(Appelbaum, 1995). 즉, 우리는 무엇을 아는 데 있어서 단순히 외부에 있는 사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나 감촉과 같은 감각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신 속에서 사물을 구성해 낸다고 보았다. 칸트에게 있어서 인식 활동이란 인식 주체가 직관 형식 및 12 범주에 입각하여 인식 대상을 구성하는 일이며, 이 때에 '구성한다'는 말의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감각 경험에 나타나는 잡다하고 다양한 소재들을 우리의 정신이 통일시켜 하나의 질서 있는 것으로 되게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출생 이후 아동기를 거쳐서 우리의 삶의 주기 동안에 우리가 학습에 성공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가 구성한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바로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시도의 중요성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시도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 그것을 지식으로서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주의의 관점과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성주의를 전통적인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주의(objectivism)와 비교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Duffy & Jonassen, 1992).

객관주의는 세계가 실재물, 특성,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완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를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의미는 경험과는 별도로 세계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따라서 이해의 목표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실재물, 특성, 관계를 아는 것이 된다. 객관주의에서는 사람들이 상이한 경험에 바탕을 둔 상이한 이해를 갖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이전 경험의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이 동일한 이해를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전 경험의 영향과 인간의 해석은 부분적 이해와 편견을 지닌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객관주의에서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완벽하고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다.

구성주의는 객관주의 전통에 대하여 대안적인 인식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객관주의처럼 구성주의는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세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미가 우리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객관주의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세계를 구조화하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개념에 대하여 많은 의미와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정확한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성주의가 추구하는 지식은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다. 그 대신 구성주의에서는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인에게 의미 있고, 적합하고, 타당하면 그것을 지식이라고 본다.

한편 오늘날 구성주의 인식론을 견지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보아 급진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대별되고 있다. 급진적 구성주의의 대표자로는 글라셔스펠트(von Glasersfeld, 1995)를 들 수 있다. 그는 급진적 구성주의의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식은 감각이나 의사소통을 통하여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둘째, 인식의 기능은 객관적이고 존재론적인 실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적인 것이며 경험 세계에 대한 주체의 조직화에 이바지한다. 글라셔스펠트는 구성주의가 전통적인 인식론과는 궤를 달리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탈인식론적'(postepistemological)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구성주의는 지식에 대한 오래된 개념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영구적인 패러독스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찾고자 희망 없는 노력을 계속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개념을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식이 어떤 독립적인 세계를 나타낸다는 필요 조건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대신에 지식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어떤 것, 즉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pp. 6-7).

그는 지식은 '적응적'(adaptive)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지식이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목적 하에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개념 및 행위들에 대한 일종의 요약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외부 세계의 상태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진리의 개념으로 여기는 인습에서 탈피하

여 실용성(viability)을 진리의 개념으로 여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생물학자에게 있어서 살아 있는 유기체는 환경 속에서 생존하려고 노력하는 한 실용적인 것이다. 구성주의자에게 있어서 개념·모델·이론 등은 그것들이 창조되는 맥락 속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실용적인 것이다. 진리와는 달리 실용성은 목표나 목적의 맥락에 따라 상이한 것이다”(pp. 7-8).<sup>10)</sup> 이렇듯 급진적 구성주의는 하나의 구성자로서의 개별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는 달리 사회적 구성주의는 지식을 판정하는 궁극적 기준으로서 상이한 주체들 간의 합의를 중시하고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자로는 거젠(Gergen, 1995)을 들 수 있다. 거젠에 의하면, 사회적 구성주의는 지식의 내외인적 전통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외인적(exogenic) 전통은 세계 지향적인 반면에 내인적(endigenic) 전통은 정신 지향적이다. 외인적 전통에서는 개인의 내적 상태가 외부 세계의 존재를 반영할 때, 즉 정신이 자연의 거울 구실을 할 때에 지식이 획득된다. 따라서 외인적 전통은 내적 표상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적 투입에 초점을 둔다. 이와는 달리 내인적 전통은 정신 세계를 자명한 것으로 보며, 마음이 자연 속에서 적절하게 작용하는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내인적 전통은 인간 고유의 이성, 논리 또는 개념화 과정에 우선성을 두고 있다.

거젠에 의하면, 사회적 구성주의는 외인적 전통처럼 외부 세계를 근본적인 관심사로 시작하지 않고, 내인적 전통처럼 개인의 정신을 관심사로 시작하지도 않으며, 언어에 초점을 둔다. 우리의 지식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적합해지는 것이다. 거젠은 사회적 구성주의의 세 가지 원리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첫째, 언어의 의미는 사회적 상호의존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둘째, 언어의 의미는 상황 의존적이다. 셋째, 언어는 공동체의 우선적인 기능이다. 거젠은 급진적 구성주의가 바로 현대적 의미의 내인적 이론이라고 보고 있다. 즉, 급진적 구성주의의 초점은 개인들의 정신 과정과 그들이 정신 속에서 세계의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다.

글라서스펠트와 거젠은 인식론으로서의 구성주의에 대하여 각기 다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글라서스펠트는 개인의 구성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거젠은 지식의 구성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여러 측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사물이나 실체보다는 활동을 초점에 두고 있으며, 의미를 찾는 것보다는 의미를 만드는 것을 중시하고 있으며, 절대적 실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급진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

10) 여기서 실용성(viability)이란 개인들의 지식이 객관적인 실체를 얼마나 잘 모사하였는지 혹은 일치되었는지가 아니라, 그 지식이 현상에 얼마나 잘 어울리고 타당한가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용어이다.

주의로 대별되는 이러한 구성주의 인식론은 오늘날 새로운 교수·학습 이론의 제안을 위한 강력한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의 판정 기준으로 실용성과 합의라는 배타적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3.4 학습 심리 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

학습 심리 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는 흔히 탈구조주의적 심리 이론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구성주의가 단순히 구조와 사고 단계를 특징 지우는 이론이나 강화를 통하여 학습된 행동을 분리시키는 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와 심층적인 개념적 이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기술하는 학습 심리 이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 심리 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는 행동주의(behaviorism)나 성숙주의(maturationism)와는 다른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 (Fosnot, 1996; Wadsworth, 1996).

행동주의는 심리학을 행동에 관한 과학적 연구로 규정하는 가운데, 학습을 물리적 자극에 대한 행동적 반응 체계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심리학자들은 연상 네트워크와 학습된 행동에 대한 강화, 연습, 외적 동기 부여의 효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sup>11)</sup> 이와는 달리 성숙주의는 개념적 지식이 타고난 생물학적 프로그래밍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달려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학자들은 학습자를 성숙의 결과인 인지 구조를 가지고 경험을 해석하는 능동적인 의미 형성자(active meaning-makers)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숙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인지적 성숙을 위한 연령 수준은 행위의 예측 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sup>12)</sup>

구성주의는 행동주의나 성숙주의와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성주의에서의 수업의 목표는 행위나 기능이 아니라, 개념 발달과 심층적 이해이다. 그리고 구성주의는 단계를 성숙의 결과가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자가 재조직한 구성물로 보고 있다. 새로운 학습 심리 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는 피아제(Piaget), 비고츠키(Vygotsky), 브루너(Bruner), 가드너(Gardner), 굿맨(Goodman) 등의 연구 결과에 토대를 두고 있다.

오늘날 많은 학습 심리학자들은 학습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피아제의 이론에 기반을 둔 인지적 구성주의와 비고츠키

11) 대표적인 행동주의 학자로는 왓슨(John B. Watson)과 스킨너(B. F. Skinner)를 들 수 있다.

12) 대표적인 성숙주의자로 에릭슨(Erikson)과 게셀(Gesell)을 들 수 있다.

의 이론에 기반을 둔 사회적 구성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인지적 구성주의는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진리의 개념화(예: 새와 비행기는 동일한 항공술 원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다)는 교사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동화와 조절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의미 있는 학습은 사람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의 심리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배우고, 그 도구들을 어떤 현상에 대한 공통의 혹은 공유적인 이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할 기회를 부여 받을 때 일어난다. 학생들은 용어나 절차의 의미, 아이디어들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식의 적용 가능성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동료 및 교사와의 개방적인 토론에 참여하도록 고무된다.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일컬어 의미를 타협하는 것(negotiating meaning)이라고 부른다.

인지적 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학습은 인지적 평형 상태가 깨어지면서 인지적 동요가 생기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때 인지적 동요는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인지적 구성주의자들은 인지적 평형 상태를 깨뜨리는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깨어진 인지적 평형 상태를 복귀시키는데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인지적 혼란을 일으키는 그 원인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즉, 인지적 구성주의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개인의 인지적 작용과 발달을 촉진시켜 주는 부수적인 것임에 비하여,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개인의 인지 발달뿐만 아니라 지식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의 비교

접근법	기본적인 특징	수업에 대한 시사점
인지적 구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지식의 도식들이 유관한 것으로 판정된 새로운 아이디어의 첨가(동화)에 의하여 수정된다. 기존의 도식과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와 절차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의 도식이 창조(조절)된다.</li> <li>동화와 조절 과정은 타고난 것이며, 또래 및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기회에 의해 지지되는 것으로 가정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는 비평형화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학생의 현재 개념화에 도전한다.</li> <li>학생들은 새롭고 더욱 효율적인 도식을 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그리고 함께 활동한다.</li> <li>새로운 도식을 발달시키는 것에 의하여 개인적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li> </ul>

접근법	기본적인 특징	수업에 대한 시사점
사회적 구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은 시초에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한 타인의 존재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타인에 의한 영향을 받아 일어나게 된다.</li> <li>· 타인의 유도를 받아 획득된 지식과 기능이 기존의 도식과 연관되고, 점차적으로 내면화된다. 내면화된 지식과 기능은 학습자가 자기 규제적이고 독립적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는 학생들이 현실적이고 개방적인 과제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구성하도록 비계 설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도와준다.</li> <li>· 학생들은 새로운 개념을 구성하기 위하여 교사의 유도 하에서 협동적으로 활동한다.</li> <li>· 공유된 의미의 구성 및 내면화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li> </ul>

## 4.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통일교육

### 4.1 구성주의적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

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한 통일교육이란 어떤 것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주의 인식론 및 학습 이론이 시사하고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원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많은 교육학자들은 인식론과 학습 심리 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를 학교교육에서의 교수·학습 과정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 포스넛(Fosnot, 1996)은 구성주의 학습의 일반 원리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학습은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학습이 곧 발달이다.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의 발명과 자기 조직화를 필요로 한다. ② 불균형이 학습을 촉진한다. 인지적 갈등과 혼란은 학습을 위한 자극이며, 이것이 학습될 내용의 조직과 본질을 결정한다. ③ 반성적 추상화가 학습의 원동력이다. 인간은 의미의 구성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표상적인 방식으로 조직·일반화하고자 하므로, 반성적인 작문을 통해 성찰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④ 학습은 본래 사회적·대화적이다.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대화가 깊이 있는 사고를 촉진시켜 준다. ⑤ 학습은 구조의 발달을 지향한다. 학습자들이 의미 구성을 위해 노력할 때, 관점에 점진적인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져 보다 큰 아이디어를 구성하게 되며, 이것은 곧 다양한 경험에 일반화될 수 있는 핵심 조직 원리가 된다.

브룩스와 브룩스(Brooks & Brooks)는 구성주의 학습의 기본 원리로서 ① 학생들에게 관련성이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② 학습을 일차적인 개념 주위에 구조화하는 것, ③ 학생들의 관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④ 교육



과정을 학생들의 가정에 적응시키는 것, ⑤ 학생들의 학습을 교수(teaching)의 맥락에서 평가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추병완·최근순 공역, 1999).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구성주의를 교수·학습의 원리로서 활용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례로, 강인애(1997)는 구성주의의 5가지 학습 원칙으로 ① 구체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실제적 성격의 과제 부여, ②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 ③ 자아 성찰적 실천, ④ 협동학습 환경의 활용, ⑤ 학습의 조언자이며 배움을 같이하는 동료 학습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박인우(1998)는 구성주의의 교수 원리를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 ② 학습자들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보조한다. ③ 교사가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④ 학습의 환경은 실제 환경의 복잡함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습자들이 실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⑥ 동료와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⑦ 실제 전문가와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⑧ 학습 과정에 대해 반추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한편, 김종석(1998)은 구성주의의 교수·학습 원리로서 다음의 7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① 모든 지식은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습 활동은 구성의 과정이다. ② 다양한 세계관은 구성될 수 있으므로 다원적 관점이 있을 수 있다. ③ 지식은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은 그에 적절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습은 도구와 기호에 의해서 매개되어진다. ⑤ 학습이란 본질적으로 사회적 대화 활동이다. ⑥ 학습자들은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어떤 사회문화적 과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한다. ⑦ 아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를 통일교육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추병완, 1998, 2000; 통일부, 2001).

첫째, 실생활 관련 소재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이 원칙은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친근한 소재를 중심으로 학교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N세대 학생들의 가치 지향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며 지적·감정적 측면에서 매우 개방적이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도 무엇보다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을 시켜야 한다. 즉, 같은 또래의 북한 인민학생의 학교 생활은 어떤지, 무엇을 배우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의 유의미성(meaningfulness)과 호기심을 중시해야 한다. 일

반적으로 학생들은 새로 배우는 학습내용이 학생 자신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게 해 주고, 그들의 관심사나 가치와도 관련이 되고, 그들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믿을 때 학생들은 학습에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된다. 즉, 우리는 제시되는 학습내용이 학생들과 개인적인 관련성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통일교육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학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통일교육의 학습내용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학습 주제를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떠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고 있는가?' 혹은 '통일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 학생들이 분단의 실상과 통일의 필요성을 자신들의 삶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지적 발달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지적 흥미를 중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에서도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존중해 주는 가운데, 그러한 질문이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에 관하여 학습할 경우 학생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때에 교사는 그런 질문이 수업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을 중시하는 학습 활동을 구조화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최근의 북한의 식량 생산 추이 및 인구동태, 천연재해, 북한식량생산정책 등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거나 학생들과 함께 그러한 자료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활동을 구조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에서 찾을 수 있는 커다란 아이디어(big ideas)를 중심으로 학습을 구조화해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북한의 식량난이라는 커다란 아이디어를 통하여 북한의 경제실상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고정되고 제한된 정보 속에 학생들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그러한 질문이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협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협동적인 학습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민주시민적 자질을 기르게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고, 자신이 구성한 지식과 이해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들은 공감, 역할채택, 책임, 갈등의 합리적 해결, 비판적·창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능과 태도를 익힐 수 있다. 이러한 기능과 태도들은 북한 동포를 배척이나 경계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통일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매우 필수적인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갈등 해결을 위하여 여러 주장이나 견해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급적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적·사회적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협동적인 학습 과정의 제시는 북한이나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개인, 집단, 국가의 각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고 절충·타협되며, 마침내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게 되는지를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 준다.

통일교육에서 열린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교사는 통일에 관련된 확고한 이념이나 사상 혹은 정책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사들은 학생들과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개방적·탐색적·민주적인 학습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실 환경에서는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주장들과 관점이 폭넓게 모색·논의되어진다. 그런 환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위협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는 타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모든 개방적인 논의들이 하나의 있음직한 가설이나 추론으로 존중되어진다.

따라서 교사는 통일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며, 학생들간의 토의와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열린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관련된 논의의 결론이나 해석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시도를 배제한다. 대신에 교사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의 다양한 대안이나 관점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심사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활동을 중시한다.

넷째, 적절한 실천 기회 및 체험 활동의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통일외지의 함양과 같은 인지적·정

의적 학습 경험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그러한 이해와 의지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파지(把持)와 전이(轉移)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천 기회들과 체험 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현상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교사는 남북한의 언어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역할놀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의 문제점을 실연해 보게 하거나, 남북한의 신문이나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간의 공통어를 찾아보게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같은 단어이면 서로 남북한간에 의미가 전혀 상이한 언어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통어를 만들어 보는 창조적인 활동을 학생들이 해보게 할 수도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여러 방면에서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은 북한주민들을 동포애로서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교육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북한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학용품, 의류, 도서, 의약품 등을 수집하여 이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에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과 태도를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다양한 학습 보조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습 보조 수단이란 학습을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나 기법을 의미한다. 학습 보조 수단은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시키고 조직화하며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연결시켜 준다. 또한, 학습 보조 수단은 주의 집중을 시키며, 학습을 쉽게 하고, 기억을 용이하게 하며, 전이를 돕고, 가르치는 일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통일교육에 유용한 학습 보조 수단은 무수히 많다. 따라서 교사는 신문 기사, 사진, 그림, 서적, 도표, 삽화, 영상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교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의 구성 취지를 아예 벗어나거나, 편향된 견해를 가지고 임의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의 영상 자료를 소개하는 경우, 북한의 TV 영상 자료들은 주민에 대한 계도와 선전성이 강하므로 자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경우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학생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영상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지도를 해야 한다.

특히, 교사는 N세대의 학습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ICT를 적절하게 활용

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문자 정보나 낱은 사진 정보를 통하여 통일교육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에서도 학습자들의 복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ICT를 활용해야 한다.

## 4.2 구성주의적 통일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 4.2.1 지식의 전수에서 지식의 구성으로

통일교육에 있어서 많은 교사들은 여전히 지식 전수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실은 여전히 교사의 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교사는 쉴사이 없이 학생들에게 통일과 관련된 정보를 나누어주고 있고, 학생들은 그러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교사가 요구할 때에 다시 되뇌어낼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이나 교육 활동의 초점이 학생들 스스로 자기 나름의 지식을 구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권위 있는 사람들이 구성해 놓은 산물들을 앵무새처럼 외우게 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학생들은 타인이 구성해 놓은 산물들을 정확하게 재생산해 낼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에서 지식의 구성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통일교육의 교수·학습에서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한다는 것은 크게 보아 다음의 다섯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이전 지식의 활성화(activating prior knowledge)**: 학습되는 것은 항상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즉 자신의 이전 지식 구조와 관련하여 학습되기 때문에, 이전의 지식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들은 자신들의 지식 구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조들은 새로운 경험을 동화하고, 그 새로운 경험에 대한 지각을 안내해 주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전 지식 구조를 알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유리한 위치를 평가하고, 새로운 내용이 기존 구조에 적합한 것인지 혹은 새로운 구조가 필요한 것인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이전 지식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때 교사들은 이러한 이전의 이해 위에 근거해 있는 학습 경험들을 보다 잘 계획·제공해 줄 수 있다. 또는 이전의 이해가 그릇된 것이라면, 즉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구성했다면, 교사들은 새로운 내용을 다루기 전에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변화시킬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전의 지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공부해야 할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알고 있는 바를 간단하게 질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일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덜 직접적인 방법이 학생들이 알고 있는 바를 이끌어내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학생들의 이전 지식을 밝혀내는 다른 절차들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의 요소들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하는 것(예: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하는 것), 공부할 주제에 이르기까지의 사건들의 순서표를 만들어 보는 것(예: 남북 정상 회담 이전의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 판단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예: 남북 연방제를 실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지식의 획득(acquiring knowledge):**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이 그들의 이전 지식 구조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에서 그 새로운 지식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들이 그러한 전체를 획득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만약 학생들이 이해력을 발달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은 '커다란 그림'과 그것의 관련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 내용이 고립된 일군의 정보들로 경험된다면 이해력이 발달되지 않는다. 학습의 폭 및 교재의 규정된 학습 범위를 위해 학습의 깊이가 희생될 때에는 이해력이 발달하지 않는다. 전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소수의 커다란 아이디어(big ideas)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수업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아이디어(예: 통일 후의 심각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하나의 전체이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의 남북한 언어, 가치관, 생활 방식, 사회 제도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사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전체를 획득하여 그것을 이전의 지식 구조에 적합하게 하거나 혹은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뿔뿔로서 사용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이 전체와 부분들을 볼 수 있으며 그 관련성과 관계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경험과 환경들을 마련해 준다. 둘째, 교사는 강의, 시범, 대화를 통하여 전체와 부분을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통일교육에서 교사가 제공하는 도움의 유형을 비계 설정(scaffolding)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계 설정이라는 은유적 표현은 어떤 한 건물이 어떤 형태 속에서 있지만, 홀로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그 건물이 벽돌, 회반죽, 강철의 첨가에 의해 보강될 때까지는 지지물이나 받침대를 필요로 한다. 어떤 건물들은 결합이 많기 때문에 튼튼한 구조로 재건축될 수 있기 전에 붕괴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비계를 설정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비계 설정은 항

상 학생들의 이전 지식에 기반을 두게 된다. 학생들이 지식을 획득함에 따라서, 건물이 홀로 서 있을 때까지 비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즉, 학생들이 인지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는 교사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 **지식의 이해(understanding knowledge):** 일단 학생들이 새로운 내용이나 기능에 접하게 되면, 이해 과정이 시작된다. 학생은 새로운 정보가 이전의 구조와 적합한 것인지 혹은 새로운 정보가 이전의 구조와 일치하지 않아 이전의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이전의 구조와 비교해 본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새로운 내용을 철저하게 탐색해 보고 새로운 내용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공유하게 해 주는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해력의 발달을 도울 수 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통하여 순환을 이룰 때에, 즉 정보에 대해 도전하고 정보를 세련되게 만들 때에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을 철저하게 탐색한다는 것은 내용의 핵심 사항을 알려는 시도 속에서 안팎으로 내용을 주의 깊게 조사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탐색은 내용을 요약하는 것, 내용의 중심 아이디어를 의역하는 것, 부분들의 질서를 다시 잡는 것, 내용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내용의 용어들을 정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외적 탐색은 그 내용을 다른 내용과 비교·대조해 보는 것, 내용의 사례들에 대해 연구하는 것, 내용의 유비를 만들어내는 것, 다른 영역으로 내용을 확대하는 것, 이전의 기준에 비추어 내용을 평가하는 것, 기존의 범주 속에 내용을 분류하는 것을 포함한다. 통일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는 내적 접근법의 예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학습 내용을 요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된 개념 지도(semantic map)를 그리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는 통일 문제에 대해 학습하였을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담긴 편지를 써 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 문제에 대한 자료들을 읽거나 토론한 후에 이어지는 하나의 추수 활동이 될 수도 있다. 외부로부터 이해력을 증진시켜 주는 방법의 예로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시대순으로 학습한 후에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남 정책을 비교해 보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한편, 새로이 출현하는 지식 구조를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은 이해력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것이다. 지식 구조가 드러났을 때, 다른 학생들은 그에 대해 반응하게 된다. 다른 학생들은 그 지식 구조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지각이나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나아가, 비평을 가하는 학생들은 그들이 제시되는 구조에 대해

듣고 반응함에 따라서 자신들의 지식 구조에 대해 어쩔 수없이 재고해 보게 된다. 교실 안에서 지식 구조가 공유되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 혹은 학생들간의 소집단 대화(학생들이 순서대로 자신들의 해석·설명·해결책·지각·아이디어를 말하는 것)는 지식 구조의 발달을 나타낼 수 있는 데에 아주 효과적이다. 교실 안에서 추론을 공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은 구두보고, 대립토의, 역할 놀이, 실연, 시뮬레이션, 전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은 비평을 수반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재고해 보게 하는 것, 그 입장을 수정하거나 확언하는 것, 그래서 그 입장을 강화하는 것은 바로 비평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해력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비판적인 피드백(critical feedback)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식을 활용하는 것(using knowledge)**: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 그리고 학생들이 막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활용하는 활동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학생들의 이해력을 확대시키고 더욱 세련된 것으로 만들어 준다. 이러한 지식 활용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활동들은 본질상 참되고, 흥미 있으며,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 해결 활동들이다. 학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활동들은 학생들이 지닌 지식이 기능적인 것이 되게끔 만들어 준다.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식을 종합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지식 구조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립할 수 있게 해 준다.

참된(authentic) 문제들은 학문적이거나 실제적인 것이든 간에 실제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문제들이다. 참된 문제들은 역사가나 과학자가 직면하는 문제 혹은 식단을 짜거나 가게부를 쓰는 것처럼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다. 학생들이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이해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흥미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활동에 흥미가 없을 경우에는 충분한 정도로까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활동들은 대조 혹은 감정적 강렬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다. 대조 혹은 현저한 차이를 제공하는 활동들은 어떤 놀랍고, 예기치 않은, 부조리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반면에, 감정적으로 강렬한 활동들은 대개가 사랑, 폭력, 금전, 죽음과 같은 삶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활동들이다.

전체적인(holistic) 활동은 폭이 넓고 다면적이며,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과도하게 단순화되지 않는 활동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해력



을 검증하고 보강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식 구조에 도전을 가하는 경험들을 필요로 한다. 장기적(long-term)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이 얼마 동안 혹은 며칠 동안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단기적인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지식 구조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한다. 끝으로 모든 조건이 같은 경우라면 사회적 행동이 단독의 행동보다도 더욱 유용한 것이다.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 속에서 활동할 때, 그들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한 아이디어의 적절성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구성 프로젝트, 연구 보고서, 행동을 위한 제안서, 자료 수집 조사, 의사결정 과제, 정책 개발 등의 경우처럼 학생들에게 지식을 활용하게 해 주는 많은 활동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형식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의 활동은 수렴적 활동 혹은 발산적 활동으로서 여겨지고, 조직화되고, 경험되는 것이다. 수렴적 활동은 한 가지 이상의 알려진 결과들을 갖고 있는 활동이다. 교사는 활동을 마련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학생들이 미리 결정된 대답이나 산출물에 도달하게 만든다. 종종 이렇듯 미리 결정된 결과들은 학자들이 개발했거나 오랜 시간 동안 수용되어 왔었던 여러 가지의 집단적인 구성물들이다.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인 개념이나 학문의 과정과 같은 것들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모든 결과들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식 구조를 활용하고, 새로 등장한 집단적 구성물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식 구조들을 바꾸게 될 때에 구성주의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반대로 발산적 활동은 실제적인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활동이다. 교사는 새롭고 창의적인 결과들을 고무시켜 준다. 학생들은 집단적인 구성물에 근거할 수도 있으나, 그들 나름의 독특한 결론을 산출한다. 통일교육에서 프로젝트 접근법이나 이슈 중심 접근법은 학생들에게 지식의 활용 기회를 부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접근법들이다.

- **지식에 대하여 성찰하는 것(reflecting on knowledge):** 학생들은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에 대한 그들의 이해력을 심화시키며, 그 지식을 문제 해결 상황에서 활용한다. 그러나 만약 지식이 완벽하게 이해되고, 학교의 안팎에서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것이 되려면, 학생들은 그러한 지식을 탈맥락적인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성찰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력 혹은 메타인지(metacognition)를 언급하고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을 활용하는 것과 그러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한 전략을 인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자기 나름의 지식에 대하여 알거나 인식하게 되는 것

은 자기 통제와 자율적 행동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것은 학생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준다. 학생들에게 지식에 대하여 성찰하도록 만들어 주는 활동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이 가진 지식들에 대하여 되돌아보게 하는 활동들이다. 그러한 모니터링(monitring)과 평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저널을 쓰게 하는 것은 메타인지를 조장해 주는 데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널을 기록하게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열기 속에서 종종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이해가 표면으로 등장하도록 만들어 준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타인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성찰을 가능하게 해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를 요구하며, 그 결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시뮬레이션이나 역할놀이이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을 가상적이고 유추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실제 행동을 검토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민족 문화의 일을 발견하기 위한 현장 답사 계획서 혹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쓰게 하는 것과 같은 계획서나 제안서 작성은 성찰과 자기 규제를 불러 일으킨다. 자신의 과정과 이해를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해 보는 것은 성찰을 조장해 주는 데에 아주 효과적이다.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일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법들에 덧붙여, 타인들을 관찰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나름의 이해와 행동에 대해 성찰하도록 해 주는 방식이 있다. 교사나 다른 학생들에 의한 성찰의 시범 혹은 모델링은 학생들이 그들 나름의 성찰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 4.2.2 교과서 위주에서 다양한 자료 위주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통일교육에 있어서 여전히 교과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지식과 정보들은 대개 교과서에 언급된 지식과 정보에 국한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우리의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복잡한 통일 문제들에 대하여 오직 한 가지 관점, 오직 한 가지 진리만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통일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는 폭은 넓지만 깊이가 낮을 수밖에 없다. 즉, 심층적인 이해보다는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담고 있는 교과서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교과서가 제작되어 교사들의 수중에 놓여지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므로, 우선 교사들은 교

과서 위주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야만 한다. 특히, 복잡한 통일 이슈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려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통일 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제시해 줌과 동시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학생들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관점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고무시켜 주어야 한다.

#### 4.2.3 개별 학습에서 협동학습으로

비록 최근에 교육 현장에서 협동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실은 구조적으로 협동을 좌절시키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고수준의 추론보다는 저수준의 기능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통일교육이 실행되는 교실에서는 협동학습이 필요한가? 사회심리학자들은 집단 내에서 어떤 목적의 달성을 놓고 그 구성원간에 전개되는 상호작용을 목적 구조(goal structure)라고 부른다. 즉, 목적 구조란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목적 달성의 추구 방식인 셈이다. 우리는 교실에서 세 가지 형태의 목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경쟁적 목적 구조는 전형적으로 규준 지향적(norm-referenced)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실제 점수와는 무관하게 수, 우, 미, 양, 가라는 이미 정해진 규준에 의해서 평가된다. 어떤 집단에서든 아주 소수의 학생들만이 최상을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성취가 다른 학생들의 회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적 목표 구조는 부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구조에서는 타인의 실패가 곧 나의 성공으로 인식되며, 학생들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삼아 학습한다.

개별적인 목적 구조의 특징은 다른 학생과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속도로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자기 나름의 노력 결과에 대하여 개별적인 보상을 받기 때문에, 다른 학생의 성공이나 실패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오로지 자신에게 부여된 특정한 과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

한편, 협동적인 목적 구조의 특징은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협동적으로 공부한다는 데 있다. 이 목적 구조에서는 소집단에 공통의 학습 목표가 주어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학습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성공을 해야 나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학습은 협동적 목적 구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의미 있는 통일교육적 활동인 셈이다.

특히 협동학습은 두 가지 면에서 통일교육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김항인, 2001). 첫째는 통일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족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라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협동학습은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길러 줄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민족 공동체 의식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협동학습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의 갈등 해결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에 도움을 준다.

#### 4.2.4 학생들에 대한 낮은 기대에서 높은 기대로

대부분의 교실에서 학생들의 사고는 평가 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복잡한 논쟁점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옳은 답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답을 즉각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사의 질문에 대해 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학생들은 제때르게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잠재적인 통일 주체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사는 통일 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후에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어느 교실에나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교사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보통 학생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교실 환경은 그런 학생들이 주제와 개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리고, 그들보다도 다른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대해 제때르게 반응할 때, 그들은 방관자가 되어 버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한 학생들은 교사가 제기한 질문에 정신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왜냐하면, 교사가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그들이 미처 가설을 설정하거나 그럴듯한 답변을 찾을 기회도 갖기 전에 다른 학생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져서 답변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사가 제기한 질문이 항상 학생들이 들은 질문과 같은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우선 교사의 질문을 이해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그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답을 구성하는 데 또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사는 많은 학생들이 통일 문제에 대한 그들 나름의 답을 구성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곧 개별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존중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 4.2.5 말하는 교사에서 듣는 교사로

통일교육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업 시간 내내 말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수동적인 청취자 혹은 방관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말해 학생 스스로가 수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지식의 일방적인 전수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만다. 따라서 구성주의적 통일교육을 지향하는 교사는 학생들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해내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을 정교하게 구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말할 시간을 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들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관점과 견해를 존중하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거나 적극적 피드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지적으로 다투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때 교사는 자신이 들은 것을 전체 학생들에게 다시 말해주는 능동적인 경청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주장이나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구성주의적 통일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니 만큼, 교사는 종래의 말하는 사람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으로 경청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역할을 바꿀 필요가 있다.

#### 4.2.6 고립의 문화에서 협조의 문화로

교사들은 학교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보내고 있다. 혹시라도 빈 시간이 생기면 밀린 잡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보내기 일수이다. 교사들간에는 협조의 문화보다는 고립의 문화가 지배적이다. 교사들은 마치 은하계의 이름 없는 별들처럼 서로 고립되어 지내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진 교사들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함께 논의하거나, 학습 자료를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통일교육의 교수·학습에서 체험한 서로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제대로 찾아보기가 어렵다. 최근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의 공유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상당히 일방 통행적이다. 즉, 남의 자료를 구하는 데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료를 내놓는 데에는 많은 교사들이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통의 문제에 대해 서로가 진지하게 숙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조의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구성주의적 통일교육은 교사들의 패러다임 이동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의 전수에서 지식의 구성으로, 교과서 위주에서 다양한 자료 위주로, 개별 학습에서 협동학습으로, 학생들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에서 높은 기대 수준으로, 말하는 교사에서 듣는 교사로, 고립의 문화에서 협조의 문화로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성주의적 통일교육을 지향하는 교사들은 사실 중심의 교과서가 지닌 무미건조함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키고, 삶의 커다란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며, 학생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이 흥미 있어하는 길을 따라 가고, 그들 나름의 통일에 관련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와 주도권을 그들의 손에 쥐어줄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열정과 탁월한 교육적 권위의 구현을 통해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삶의 이상이라는 사실을 뉘소 시범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 5. 구성주의적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예시

제량 활동 시간에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각 프로그램은 학습 목표, 소요 시간, 활동 개요, 활동 과정, 준비물, 지도상의 유의점, 학생 활동 자료 등의 요소로 구성하여 교사들이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 5.1 통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 ■ 학습 목표

- 통일을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
-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

#### ■ 소요 시간: 2시간

#### ■ 활동 개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는 통일이 자칫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으로 다가갈 수 있으므로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끔 하는 활동이다.

#### ■ 준비물

학습지, 찢기 도구, 색연필

### ■ 활동 과정

- 서로 싸우면 어떠한 점이 나쁜가를 물어본다.
-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어떠한 점이 좋은가를 물어본다.
-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나 마음가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 학습지를 나누어주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찾아보도록 한다.
-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생각한 통일을 위한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을 발표하게 한다. 이 때에는 학습지에 나타난 것 이외의 것을 중심으로 발표하게 한다.
- 학습 활동을 정리하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 ■ 지도상 유의점

-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음을 스스로 알게끔 하는데 지도의 중점을 둔다. 구체적인 다툼의 사례를 들어 화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힌트를 주도록 한다.
- 아동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필요한 것을 잘못 선택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로 잡아 주도록 한다.

### ■ 학생 활동 자료

- ① 서로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이해	질투	칼	고집
사랑	다툼	칭찬	악수
도움	폭력	충	응원
미움	전쟁	평화	무관심

- ② 이제 서로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지요? 남한과 북한도 지난 50년이 넘도록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려면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다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색칠을 하세요.

<p>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와줍니다.</p>	<p>우리가 생각한 것과 북한이 생각한 것이 다를 때 끝까지 우리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부립니다.</p>	<p>올림픽에서 북한 선수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응원해 줍니다.</p>
<p>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있으므로 힘을 가지고 그들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합니다.</p>	<p>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p>	<p>언제 통일이 될지도 모르니까 무관심해도 괜찮습니다.</p>
<p>휴전선을 경계로 다르게 살고 있으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p>	<p>북한 친구들은 배운 것도 우리들과 다르니까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p>	<p>우리 민족은 결국 하나이므로 북한 동포들 역시 언젠가는 하나가 될 우리의 형제자매들입니다.</p>

## 5.2 통일 리포터

### ■ 학습 목표

- 통일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 통일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의 생각을 비교·분석하여 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다.

### ■ 소요 시간: 2시간

### ■ 활동 개요

이 프로그램은 재량 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하여 5-6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관심 내용을 스스로 선정한 후 리포터가 되어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조사하게 하고 비교함으로써 좀더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 ■ 준비물

녹음기(또는 캠코더), 질문 용지

## ■ 활동과정

- 자신이 관심 있거나 평소 궁금해 했던 통일에 관한 질문을 선정하여 질문지를 만든다. (예: 통일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어린이와 만난다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 그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기록한다.
- 인터뷰할 장소와 대상을 선정한다.
- 직접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통일에 관한 여러 생각들이 있음을 알아본다.
- 인터뷰를 한 후에 내용을 정리하고, 통일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 인터뷰를 한 결과들을 전체 구성원에서 앞에서 발표해 보게 한다.

## ■ 지도상 유의점

- 자칫 통일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묻혀 버리는 수가 있으므로 다른 학생들과의 생각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 인터뷰 방식을 사전에 지도하여 흥미롭고 적극적인 활동이 되도록 유도한다.
- 인터뷰 결과 기록 양식은 다른 학생들과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비교하는 정도로 작성하게끔 한다.
- 통일에 대한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고를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끔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 학생 활동 자료

이제 여러분은 통일에 관한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리포터가 되었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친구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기록하세요.

질문 1. (예) 통일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나의 생각	다른 학생의 생각	다른 학생의 생각
질문 2.		
나의 생각	다른 학생의 생각	다른 학생의 생각
질문 3.		
나의 생각	다른 학생의 생각	다른 학생의 생각

### 5.3 통일 올림픽

■ 학습 목표

- 통일 올림픽 활동에 참여하여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 소요 시간: 3시간

■ 활동 개요

올림픽을 통일교육에 적용한 5-6학년용 프로그램으로 선생님이 제시하여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신이 한가지 종목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연습이나 학습을 한 후 친구들과 종목별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욱더 관심을 갖게끔 하는 활동이다.

## ■ 준비물

각 종목별 자료(악보, 피아노, 점수판, 도화지, 색연필 등), 종목별 참가자 명단, 시상품(또는 메달)

## ■ 활동과정

- 사전에 교사가 통일 올림픽 종목을 제시하여 주고 그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거나 교사가 선별하여 재구성한 자료를 나누어준다. (통일 올림픽의 종류는 '북한노래 부르기', '북한의 지명 많이 알기', '한반도 지도 그리기' 등 창의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통일 올림픽 개최 선언을 한다. (지도교사 또는 학급회장)
- 위원장은 교사가 되고 각 종목별로 진행 요원 및 심판을 각 1명씩 둔다.
- 각 종목별로 모여 경기 규칙 및 심사기준을 듣는다.
- 종목별 경기를 진행한다.
- 종목이 일찍 끝난 아동들은 관중이 되어 다른 종목을 감상하거나 응원한다.
- 종목별 시상을 한 후 폐회 선언을 한다.

## ■ 지도상 유의점

- 경쟁을 통해 관심을 유발시키되 지나친 경쟁의식을 갖지 않도록 한다.
- 원만한 진행을 위해 심판과 진행요원을 사전에 선발해 지도하도록 하며 '통일 노래 부르기' 등의 종목은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올림픽 정신을 강조하여 공명정대한 경기가 되도록 유도한다.
- 일회적인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되도록 다른 종목에도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어느 한 종목에 아동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종목별 인원을 조사하여 조정하도록 하며 다른 종목은 2회 올림픽을 통해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도록 한다. 즉 일회적인 관심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임을 강조하여 준다.

## ■ 참고자료

이중현, 『열린교육을 위한 학습방법 41가지』,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9.

## 5.4 통일 한국 홍보 작품 만들기

### ■ 학습 목표:

- 협동 학습을 통하여 통일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작품집을 만들 수

있다.

- 통일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 ■ 소요 시간: 3시간

#### ■ 실행 방법

##### - 시작 단계(1차시)

- 3-4학년 학생들에게 통일된 우리 나라의 모습을 외국에 홍보하기 위한 집단 작품을 완성하여 제출·발표하는 것이 수업의 목적임을 알려준다.
- 교사는 6명의 학생들을 한 집단으로 편성한다.
- 교사는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통일 한국을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간단한 작품(통일 국가의 국기, 국가, 관광 안내, 통일 기념 T-shirts design, 통일 기념 예술제 등)의 사례를 예로 들어줄 수 있다.
- 교사는 각 집단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어떤 홍보 작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할 기회를 부여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집단 사고를 통해 만들게 될 홍보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 통일 조국의 미래상을 마인드맵이나 개념 지도로 작성해 보게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집단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순회 지도한다.
- 학생들은 홍보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자료, 작품의 구성 내용, 역할 분담 내용 등을 담고 있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사에게 제출한다.
- 교사는 집단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하였음을 보증할 수 있도록 계획서 표지에 모든 학생들이 서명을 하게 한다.

##### - 전개 단계(2차시)

- 각 집단은 프로젝트 계획서에 입각한 홍보 작품을 만든다.
- 교사는 각 집단의 활동 상황을 관찰한다(참고 자료 ①).
- 교사는 활동 중에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거나, 일부 학생들만이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회 지도한다(참고 자료 ②).
- 교사는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과제를 끝내야 함을 상기시켜 준다.

##### - 정리 단계(3차시)

- 교사는 각 집단이 만든 작품들을 전체 학급 구성원들에게 발표할 수 있게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의 작품을 평가한다(참고자료 ③)
- 교사는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다른 집단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여, 학습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수업을 종결하며, 통일과 관련된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한다.
- 교사는 통일 조국에 대한 학생들의 확신을 강화시키기 위한 추수 활동으로 '미완성 문장 완성하기'나 '유비 추론'을 전개할 수도 있다(참고자료 ④와 ⑤).

## ■ 참고 자료

### ① 집단 활동의 관찰 기준

- 학생들이 과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 학생들이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과 개별 책임을 수용하고 있는가?
- 학생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올바르게 활동하고 있는가?
- 집단의 아이디어 기여하고 있는가?
- 서로 참여를 격려하고 있는가?
- 서로의 이해를 검사하고 있는가?
- 집단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 ② 신비스러운 학생

-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한 학생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해 주고, 그 학생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 수업 동안에 교사는 자신이 관찰하는 학생이 누구인지를 학생들에게 알려 주지 않은 채 순회 지도한다.
- 그 학생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전체 학생들에게 그 학생이 이번 수업 시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말해 준다.
- 학생들에게 그 신비스러운 학생이 누구인지를 추측해 보게 한다.

### ③ 프로젝트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점수 및 논평
내용 구성	· 작품 내용이 독창적인가? · 학문적이고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자료 처리 능력	· 수집한 자료가 과제 해결에 적합한 것인가? · 수집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고, 다양한가? · 자료를 적절히 분석·종합하였는가?	
호응도	· 재미있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 다른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발하고 있는가?	
총계		



## 5.6 통일을 위해 버려야 할 것

### ■ 학습 목표

- 통일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버려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 ■ 소요 시간 : 3시간

### ■ 활동 개요

이 프로그램은 3-4학년 학생들에게 역할극 및 알까기 게임을 통해 통일을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끔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준비물: 바둑판, 번호 카드

### ■ 실행 방법

- 남북한 관계를 계란에 비유한 글을 이용하여 짧은 역할극을 실행한다.

두 개의 계란이 있습니다. 바로 남한과 북한의 계란 말입니다. 이 두 개의 계란은 지금 절대 하나의 계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는 하나이지만 말이죠.

그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젠 병아리가 되었을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남한과 북한 계란은 서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껍질을 깨고 나왔을 때 안전할지 그리고 다른 환경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알을 깨고 나왔을 때 그들은 서로를 어루만져 주며 의지해 살아간다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어요. 그리고 큰 닭이 되어 새끼를 낳았을 때, 그 뎨 더 이상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 교사는 역할극을 실행한 후에 역할극에 대한 아동의 느낌을 확인한다.
- 역할극을 본 후 느낀 것을 간단하게 그림이나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보도록 함으로써, 통일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버려야 할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한다.
- 바둑판을 이용하여 '통일 알까기 게임'을 실행한다.
  - 북한의 바둑알과 남한의 바둑알을 구별하여 번호를 매긴다. (북한: ①, ②, ③..., 남한: ㉠, ㉡, ㉢...)
  - 각각의 번호에 해당하는 카드를 만든다. 카드에는 우리가 버려야 할

테도들을 적어 두되, 보이지 않게 준비해 둔다. (예 : '북한 사람들은 존스러워 상대할 수가 없어!' '북한은 남이니까 우리가 도와 줄 필요가 없어!' 등)

- 알까기 게임을 하여 바둑알이 바둑판 밖으로 나갈 때마다 해당하는 카드를 뒤집어 적혀 있는 내용을 알게 한다.
- 이 때 교사는 아이들이 승패에 연연하기보다는 '통일을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테도'에 초점을 맞추게 잘 지도할 필요가 있다.

## 5.7 햇볕 정책에 대한 찬반 토의

### ■ 학습 목표

- 통일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채택하고, 정당화하는 능력을 갖는다.

### ■ 소요 시간: 3시간

### ■ 활동 개요

이 프로그램은 5-6학년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서, 햇볕 정책에 대한 찬반 토의를 통하여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의지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통일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소신 있는 입장을 채택해 보게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지도의 중점이 있다.

### ■ 지도상의 유의점

- 학생들이 햇볕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채택하고, 그러한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사실적 근거와 당위적 근거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의 심층적인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을 준비한다.
- 학생들이 자신들의 결정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발표 기회를 제공한다.

### ■ 실행 과정

#### ① 도입 단계(1차시)

- 교사는 평화적인 통일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임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 교사는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선이해(preunderstanding)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을 제시한다.
  - 우리 나라가 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 교사는 우리 나라 통일 정책의 변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 교사는 최근 우리 나라의 통일 정책인 햇볕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



기 위하여 이습 우화를 제시하고, 그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참고 자료 ①).

- 남북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추운 바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 남북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따뜻한 햇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 남북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게 만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전개 단계(2차시)

- 교사는 통일을 이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 교사는 학생들을 6명씩 한 집단으로 편성한다. 그리고 각 집단에서 3명이 하나의 협동 짝공을 이루게 한다. 각 집단에는 두 개의 협동 짝공이 존재하게 한다.
- 교사는 학생들에게 햇볕 정책에 관한 찬반 기사를 나누어준다. 각 집단에서 3명에게는 찬성 입장을, 나머지 3명에게는 반대 입장을 담은 신문 기사를 나누어준다(참고 자료 ②, ③).
- 각 집단에서 학생들은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와 당위적 근거를 찾는다.
- 학생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 각 집단에서 3명은 다른 3명에게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며, 햇볕 정책에 대한 찬반 토의를 전개한다.
- 이번에는 입장을 바꾸어, 토의를 전개한다. 처음에 찬성 입장을 취했던 3명이 이제는 반대 입장을 취하여 그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적 근거와 당위적 근거를 찾아 상대방을 설득하게 된다.
- 교사는 이 수업의 목적이 논쟁에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촉진하는 데 있음을 상기시킨다.
- 각 집단은 입장 바꾸기 토론을 통해 얻어진 각 집단을 결론을 학습지에 기록하고, 모두가 그 내용에 합의하였음을 보증하기 위해 서명을 한다(참고 자료 ④).

#### 정리 단계(3차시)

- 교사는 각 집단이 자신들의 입장을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교사는 학생들에게 통일 정책에 대한 합리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시킨다.
- 추수 활동으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보게 할 수 있다. 이 때 통일 정책

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게 한다.

## ■ 참고 자료

### ① 바람과 태양

옛날에 한 번은 바람과 태양이 어느 쪽이 더 강한가라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든 자가 더 강한 쪽이라고 정하고, 서로 내기를 하게 되었다. 우선 바람이 먼저 시작하여, 할 수 있는 모든 힘으로, 트라키아의 폭풍처럼 차디차고 무서운 강풍을 불어대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한층 더 그 외투로 몸을 휘감고 더욱 강하게 손으로 외투를 조이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태양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 즐거운 광선으로 태양은 안개와 추위를 내몰았다. 나그네는 따듯함의 고마움을 느꼈다. 그리고 태양이 더 빛을 내리자니, 나그네는 더위를 참을 수가 없어, 외투를 땅에 벗어 던지고 앉았다. 이렇게 해서 태양이 승리자로 결정되었다.

### ② 햇볕 정책 찬성 입장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 주장은 단기적으로는 시원한 결과를 가져올는지 몰라도, 길게 보면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크다. 남북간에 상호 비방이 되풀이되면서 대화의 길이 막혀버리게 된다. 지난 정권의 잘못된 경험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우리가 포용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한반도의 냉전을 평화 체제로 바꿈으로써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여는 데 현실적으로 이 정책 외에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숙한 국민들까지도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서해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의연히 금강산행에 오르고, 특별 방송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지 않는 국민들의 의연한 자세가 이를 말해준다. 포용 정책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지만, 남북 관계를 끊임없는 냉전으로 몰고 가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을 국민 의식 속에 심어 놓지 않았나 한다.

### ③ 햇볕 정책 반대 입장

북한의 잠수정에 이어 20일 만인 7월 12일 무장 간첩의 시체가 강릉 앞바다에서 발견되자 정부의 대부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일고 있다. 특히 잠수정 사건 당시 우리 정부 화해의 분위기를 깨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너무 약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많은 사람

있다. 서해 사태도 다지고 보면 모두 정부의 포용 정책 때문이다. 대북 포용 정책은 성과가 쉽게 얻어지지 않으므로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이 못된다. 북한이 이처럼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나면, 이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 ④ 집단 학습지

집단명 (     )

이름:

1. 신문 기사에서 햇볕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2. 신문 기사에서 햇볕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3. 여러분의 집단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그 근거는?
  
4. 여러분 집단의 결정이 계속되었을 경우 남북한 관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 6. 결론

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국가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통일 이후에 통일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전한 가치관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우리가 교육적 측면에서 통일의 실현 및 통일 국가의 번영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단 국가에 있어서 지상의 목표가 통일이라면, 학교교육에서 통일교육은 마땅히 그에 부합하는 위상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교육은 마지못해 실행해야 할 하나의 교육 시책 정도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반공교육기에 통용되던 감상적이고 홍보적인 성격의 교육 방법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통용되고 있으며,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의 통일관도 날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은 학교 교육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할 기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이 특정 교과 활동에만 국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7차 교육과정에서 범교과적으로 통일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량 활동에서의 통일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부족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현장에서 재량 활동 시간을 이용한 통일교육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초등학교 재량 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예시 자료를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향후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첫째, 실생활 관련 소재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둘째, 학생의 유의미성(meaningfulness)과 호기심을 중시해야 한다. 셋째, 협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적절한 실천 기회 및 체험 활동의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학습 보조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한편, 재량 활동을 통한 구성주의적 통일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페러다임 이동이 요구된다. 지식의 전수에서 지식의 구성으로, 교과서 위주에서 다양한 자료 위주로, 개별 학습에서 협동학습으로, 학생들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에서 높은 기대 수준으로, 말하는 교사에서 듣는 교사로, 교립의 문화에서 협조의 문화로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성주의적 통일교육을 지향하는 교사들은 사실 중심의 교과서가 지닌 무미

건조함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키고, 삶의 커다란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며, 학생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이 흥미 있어하는 길을 따라 가고, 그들 나름의 통일에 관련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와 주도권을 그들의 손에 쥐어줄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열정과 탁월한 교육적 권위의 구현을 통해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삶의 이상이라는 사실을 몸소 시범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 【 참고 문헌 】

-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 문음사, (1997)
- 강인애, “문제 중심 학습: 또 하나의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모형”, 김종문 외 13인 공저, 『구성주의교육학』, 서울 : 교육과학사, 211~241, (1998)
-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 서울 : 교육부, (1998)
- 교육부, 『특별활동·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서울 : 교육부, (2000)
- 김재복 외, 통일 대비 교과서 편찬 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1998)
- 김종석, “구성주의의 기본 가정은 무엇인가?”, 『교육발전논총』, 19(1), 59~81, (1998)
- 김항인, “협동학습을 통한 통일교육”, 중고등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3~130, (2001)
- 김관수 외 6인 공역, 『급진적 구성주의』, 서울 : 원미사, (1999)
- 박순경 외 4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7)
- 박순경 외 2인, 『초등학교 재량 활동 운영 자료집』,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 박여성 역, 『구성주의』, 서울: 까치, (1995)
- 박인우, “학교교육에 있어서 구성주의 원리의 실현 매체로서의 인터넷 고찰”, 박성익 외 편저, 『교육공학 연구의 최근 동향』, 서울 : 교육과학사, (1998)
- 박찬석 외 4인 공저, 『통일교육론』, 서울 : 백의, (2000)
- 오현아, “멀티미디어”, 『교육학대백과사전 2』, 서울 : 하우동설, 1126~1132, (1998)
- 이명숙, “구성주의의 심리학적 근거”, 김종문 외 13인 공저, 『구성주의교육학』, 서울 : 교육과학사, 35~61, (1998)
- 추병완·최근순 공역(1999), 『구성주의 교수·학습론』, 서울 : 백의.

- 추병완,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통일원, 통일교육·홍보 (V), '97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1997)
- 추병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학교 통일교육의 내실화 방안』, 서울 : 통일정보신문사, 52~62, (1999)
- 추병완, 『열린 도덕과 교육론』, 서울 : 도서출판 하우, (2000)
- 통일부, 『2001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서울 : 통일부, (2001)
- 허운나·유영만 공역,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서울 : 물푸레, (1999)
- Airasian, P. W. (1994), *Classroom assessment*, 2nd. ed., New York: McGraw-Hill.
- Appelbaum, D., *The vision of Kant*, Rockport: Element, (1995)
- Barnes, B., *Scientific Knowledge and Sociological Theory*, London: Routledge, (1974)
- Collins. H., *Changing Order*, London: Sage, (1985)
- Fosnot, C. T., Constructivism: A psychological theory of learning. In C. T. Fosnot (Ed.), *Constructivism: Theory, Perspective, and Pract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96)
- Garddiner, P., Vico, In Paul Edwards (Ed.),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New York: Macmillan Company, 247~251, (1975)
- Gergen, K., Social construction and the educational process. In L. P. Steffe, & J. Gale, (Eds.), *Constructivism in education*,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7~40, (1995)
- Gredler, M. E., *Learning and Instruction: Theory into Practice*, 3rd. ed., Upper Saddle River: Merrill Prentice Hall, (1997)
- Gruender, C. D., Constructivism and learning: A philosophical appraisal, *Educational Technology*, 36(3), 21~29, (1996)
- McMillan, J. H.,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 Boston: Allyn and Bacon, (1997)

- Nelson, L. H., Epistemological communities, In A. Alcoff & E. Potter (Eds.), *Feminist Epistemologies*, New York: Routledge, 121~159, (1993)
- Perkins, D., The many faces of constructivism, *Educational Leadership*, 57(3), 6~11, (1999)
- Wood, D., *How Children Think and Learn: The Social Contexts of Cognitive Development*, 2nd ed., London: Blackwell, (1998)
- Woolfolk, A. E. (1998), *Educational Psychology*, 7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부록1 >

권 별 수 록 논 문 일 람 표

권별	논 문 제 목	연 구 자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국내 통일논의의 사회적 가치합의에 관한 연구</li> <li>• 남북한화해시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계</li> <li>• 대북포용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li> <li>• 북한 통일방안 변천에 관한 연구</li> </ul>	<p>김진향 (경북대 강사)</p> <p>노병렬 (증산도 사상연구소 연구위원)</p> <p>박재민 (연세대 사회과학 연구소)</p> <p>이완범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부교수)</p>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 개발</li> <li>• 우리나라 대학의 통일교육과 대학생의 통일 의식 변화</li> <li>•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li> <li>•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학교통일교육 극대화 방안</li> <li>• 초등학교 재량 활동을 위한 구성주의적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li> </ul>	<p>김영하 (대구교대 강사)</p> <p>김주찬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p> <p>이창식 (한서대 부교수)</p> <p>최승규 (부산대 강사)</p> <p>추병완 (춘천교대 조교수)</p>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li> <li>• 북한의 '선군정치'(先軍政治)와 체제 군사화(軍事化)에 관한 연구</li> <li>• 북한의 개혁과 개방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li> <li>• 북한의 일본에 대한 '전략적 이해변화' 분석</li> <li>•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와 군사 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li> </ul>	<p>김갑식 (서울대 한국정치 연구소 연구원)</p> <p>김용현 (동국대 강사)</p> <p>박선원 (연세대 통일연구소 연구원)</p> <p>박정진 (고려대 아세아 연구소 연구원)</p> <p>이태섭 (인제대 전임강사)</p>

권별	논 문 제 목	연 구 자
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부문의 성공적인 남북 IT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형 연구</li> <li>• 북한의 경제체제전환 분석 : 점진적 이행의 CGE모델</li> <li>•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li> <li>• 시범적 통일로서의 통일특구에 관한 연구</li> <li>•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li> </ul>	<p>고영삼 (부산발전연구원 전문위원)</p> <p>이영훈 (고려대 강사)</p> <p>유승훈 (호서대 전임강사)</p> <p>조진철 (미국 포틀랜드대학 방문교수)</p> <p>양문수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p>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대응 연구</li> <li>• 국가주도형 심천모델과 시장주도형 상해모델의 북한적용가능성 연구</li> <li>• 북한의 사회법률직업에 관한 연구</li> <li>• 북한의 언어공학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한 연구</li> <li>•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li> </ul>	<p>김수안 (통일교육원 책임연구원)</p> <p>박병광 (단국대 분쟁해결 연구센터 연구위원)</p> <p>이동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초빙연구원)</p> <p>이봉원 (고려대 언어정보 연구소 연구원)</p> <p>조수선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연구원)</p>

**< 부록2 >****최근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96~2001년)****'96년****<통일정책 분야>**

-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김정일정권 붕괴시나리오와 한국정책 대응모형
- 통일대비 교포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일헌법의 성립절차에 관한 연구
- 러시아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인식 연구
- 남북한 군비경쟁의 계량모형 분석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 개발
-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육방안의 모색
- 통일시대를 위한 정치교육방안 연구
-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 통일이후 남북한 법체계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에 대비한 북한기업소들의 발전적 해체 및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북교류 · 협력분야>**

- 남북한 신뢰구축
-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환거래 및 금융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북투자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북한실태 분야>

- 중국농촌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북한의 진로
-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 북한정치체제 변혁의 역동성
- 북한 “인민”생활세계 연구
- 북한의 화법(話法) 연구
- 3차원적 문화구조를 통해본 북한주민의 가치 정향 연구

### <통일환경 분야>

- 한·중관계발전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
- 미북협상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 북한의 대미협상전략의 효율성과 한계성
- 동북아 평화체제구성과 전망에 있어서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의미와 역할
- 북한의 대미접근과 한국의 대응방안
-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97년

### <통일정책·통일환경 분야>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 한반도 통일시 위기관리 방안 연구
- 통일 후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안
- 남북한 통합시 북한 국공채의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위 「진자 상황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 민간통일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정책 수용여부에 관한 연구
- 4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방안
- 중국 경제개혁의 북한수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중국의 對한반도 기본전략
- 독일통일 후 과거청산에 관한 논쟁 연구
-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 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관한 연구

### <북한실태 분야>

- 북한의 주택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 김정일체제하 북한군 및 군엘리트 연구
- 해방적후 북한의 교육·문화 실태 일연구
-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환과 구조적 제약
- 북한사회의 풍자적·은어적 담론분석을 통해본 체제 안정도 평가문제

### <교류협력·인도지원·남북협상분야>

-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색
-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 「환동해경제권」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가능성
-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통일교육·홍보분야>

-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 상의 가상 대학 구축 방안
-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98년

### <통일정책·통일환경 분야>

- 남북한 통일상사법의 정립방향

- 남북한 정보통신통합 전략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 다자간 안보협력과 지도국의 역할
- 남북협상 과정상의 대북협상 모델연구
- 남북한 전력융통 상황 아래에서의 전원설비 개발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연구
- 체제전환기의 노사관계 변화
-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도시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 방안
- 통일후 북한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 <북한실태 분야>

- 북한체제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
- 통일에 대비한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 연구
-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소비생활양식 및 소비문화와 통일후 적용문제 연구
- 북한사회의 정보화 현황과 정보화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 <남북회담 · 교류협력 · 인도지원 분야>

- 남북한 및 동북아지역의 육로 직수송방안에 관한 연구
-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파트너십 연구
- 대만 · 중국의 경제교류협력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모델
- 도서관협력 및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활성화 방안
- 바람직한 남북간 이중과세방지 협약체결 방안

### <통일교육 · 홍보분야>

-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실태와 실험적인 수험모델 개발
- 통일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안 연구
- 통일이후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성 개념의 재정립 및 구체화 방안
- 통일 준비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일 연구
- 새통일 한국의 영·용 교육 연구

'99년

### <통일정책 분야>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군사적 방안연구
-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연구
- 對조총련 '포용정책' 필요성과 전개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한국의 근대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
- 동북아 환경협력체를 통한 북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방안
-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방안 연구
- 대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 통일운동 단체간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 <북한실태·인도지원 분야>

- 북한의 이차경제 발흥과 정치적 변화에 관한 연구
- 북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에 대응한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개발방향 연구
-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을 위한 자조모델 연구
- 기후변화가 북한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법적지위와 이에 대한 지원 및 송환방안

### <통일교육홍보·기타>

- 정보화시대 통일부의 효율적인 홍보전략
-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그 실현방안
- 남북한 상사분쟁의 해결방안
- 남북한 초등학교에서의 도덕교육내용 비교 연구
- 김일성 담화체계의 설화적 모티프 연구
- 놀이문화에서 찾아내는 남북공감대 모색방향 연구
- 북한관련 TV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2000년
-------

**<통일정책 분야>**

- 일·북수교와 한국의 정치과제
- 인터넷을 활용한 통일기반 확충방안
- NGO를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관한 연구
- 한·중 경제교류 협력의 발전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체제전환 국가들의 주택개혁 사례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통일이후 동·서독 임금동일화 과정을 중심으로 본 사회통합 연구
-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북한실태 분야>**

- 동북아시아 국가의 사막화 현상이 북한 산림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영향과 통일후 복구계획
- '9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정보통신 부문 발전과 정보화
- 북한의 국가능력약화와 분권화 가능성
- 김정일체제의 사회통제와 주민의식 변화 연구

**<통일교육, 홍보, 교류협력, 기타 분야>**

- 남북한 「도덕」 교과에 나타난 가치덕목 연구
- 초·중등생 및 대학생의 통일의식 변화추이 조사를 통한 학교통일교육 방안 모색
- 북한체제 및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정향
- 남북정상회담이후 산업입지 측면에서 본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설정
- 한국, 북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 비교연구
- 북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연구
- 남북한 해역에서 퇴적물 기원 및 오염현황 대책방안을 위한 연구



2001년
-------

### <통일정책 분야>

-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국내 통일논의의 사회적 가치합의에 관한 연구
- 남북한화해시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계
- 대북포용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북한 통일방안 변천에 관한 연구

### <통일교육 분야>

-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 개발
- 우리나라 대학의 통일교육과 대학생의 통일 의식 변화
-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학교통일교육 극대화 방안
- 초등학교 재량 활동을 위한 구성주의적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북한실태(정치) 분야>

-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선군정치'(先軍政治)와 체제 군사화(軍事化)에 관한 연구
- 북한의 개혁과 개방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일본에 대한 '전략적 이해변화' 분석
-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와 군사 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 <북한실태(경제) 분야>

- 민간부문의 성공적인 남북 IT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형 연구
- 북한의 경제체제전환 분석 : 점진적 이행의 CGE모델
-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 시범적 통일로서의 통일특구에 관한 연구
-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사회) 분야>**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대응 연구
- 국가주도형 심천모델과 시장주도형 상해모델의 북한적용가능성 연구
- 북한의 사회법률직업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언어공학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한 연구
-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

## 통 일 교 육 ( Ⅱ )

---

인 쇄 : 2001. 12.

발 행 : 2001. 12.

발행처 : 통일부 정보분석국 분석총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 02)720-2425 ~ 6

인쇄처 : 덕성문화사

☎ 02)2274-5916

---

